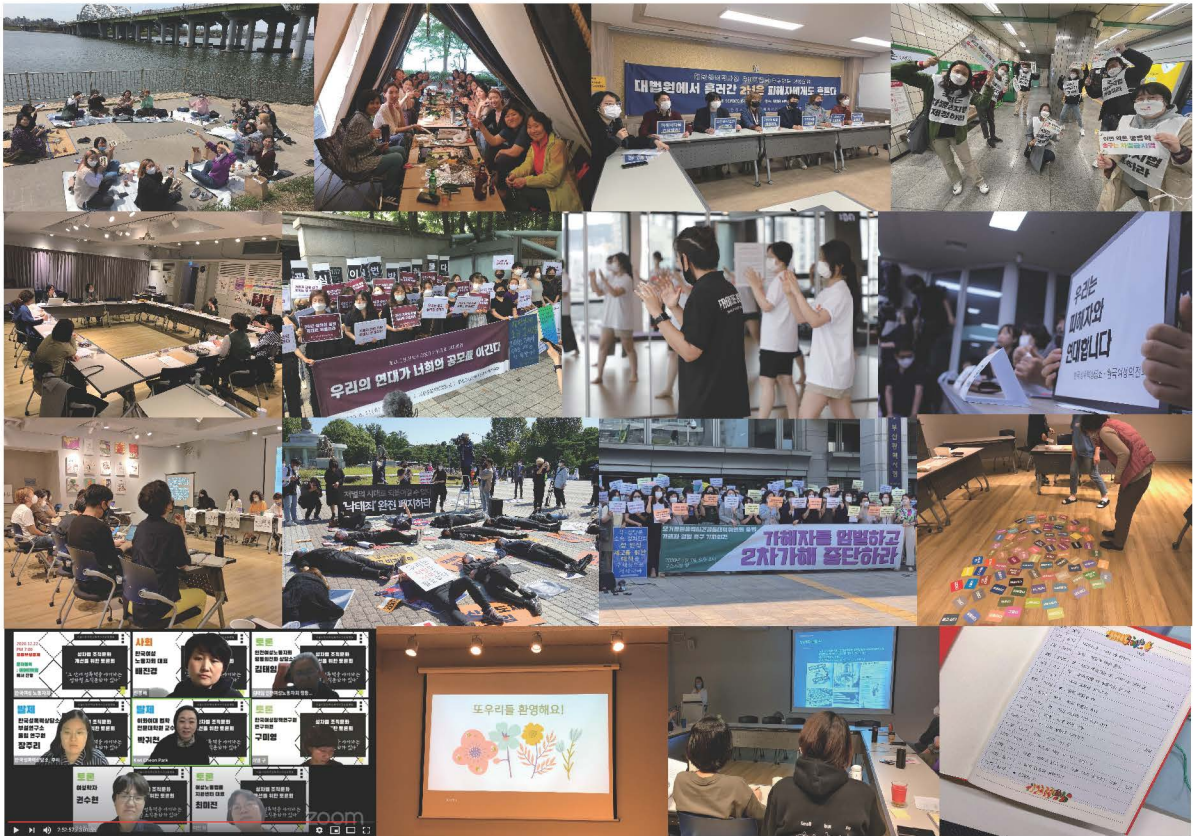


2021년 제30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2021년 제30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자 료 집

총회 회순

의장 : 이명숙 이사장

● 인사말	이명숙 이사장, 이미경 소장
● 개회선언	의장
● 서기선출, 회순 승인	
● 정회원 보고 및 성수보고	
● 전 회의록 승인	
● 활동보고	2020년 활동보고
	특별 보고
● 감사 보고 및 의견진술	배자하 회계감사
● 안건	❶ 2020 결산
	❷ 임원 선출
	❸ 2021년 사업계획
	❹ 2021년 예산
	❺ 기타 논의사항
● 신임활동가 소개	
● 2020년 KSVRC 공로상 시상	
● 공지사항 및 폐회	

자료 쪽번호

[부록]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관		330
30차 정기총회 정회원		5
29차 정기총회 회의록		6
2020년	팀, 부설기관 활동보고	11
	2020년 상담통계	31
	인권침해 대응 및 평등 문화 증진에 대한 활동 보고	207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논의 경과 보고 및 임시총회 제안	208
	발간자료	211
	블로그 "뭔다! 상담소" 포스트	212
	유튜브 '한국성폭력상담소' 영상	218
	입장, 논평, 성명	220
	외부 강의 활동	228
	외부 자문 및 정책위원회 참여	232
	발제, 발표, 토론, 사회	238
	기고	240
	언론에 난 상담소	241
	회계 감사 보고	249 / 256
2020년	상담소 수입지출결산	250
	열림터 수입지출결산	257
	임원 후보 및 퇴임 임원 소개	325
2021년	30주년 기념 슬로건	268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목표	269
	팀 부설기관 활동계획	271
2021년	상담소 예산안	250
	열림터 예산안	256
자문위원단 명단		326
상근활동가 소개		248
2021년	공로상 / 감사패 / 용감한반성폭력운동상	327

2021년 30차 총회 정회원

No.	이름	비고	No.	이름	비고	No.	이름	비고
1	강남식		28	박아름		55	임순영	
2	곽옥미		29	박아름		56	장광미	
3	권지연		30	박은진		57	장다혜	신규
4	김강자		31	박지희		58	장수경	
5	김다미		32	배순희		59	장윤경	
6	김두나		33	백미순		60	장윤정	
7	김보화		34	변혜정		61	장주리	
8	김복연		35	서민자		62	전순유	
9	김신아		36	신은재		63	전혜영	
10	김여진	신규	37	안분순		64	정정희	
11	김윤희		38	안효선		65	정지은	
12	김은아		39	양현경		66	조은희	
13	김주아		40	유미란		67	조인섭	
14	김지영	신규	41	유승진		68	조인옥	
15	김현지	신규	42	유호정		69	조중신	
16	김혜경		43	윤경진	신규	70	천정환	
17	김혜정		44	이경환		71	최란	
18	김효진		45	이나영		72	최보원	
19	나선영		46	이명선		73	최지나	
20	노선이		47	이명숙		74	탁수정	
21	노주희		48	이미경		75	한소망	
22	류수민		49	이어진		76	한희정	
23	문미라		50	이영희		77	허복옥	
24	문숙영		51	이윤상		78	홍순기	
25	문효진		52	이향심		79	황지성	
26	박미숙		53	이혜정				
27	박부진		54	이효린	신규			

※ 후원회원 전환 (2021.1.26 이사회 의결) _ 강보길, 김연정, 박윤숙, 이유정, 장철우, 조소연 (6명)

※ 정회원 전환 (2021.1.26. 이사회 의결) _ 김여진, 김지영, 김현지, 윤경진, 이효린, 장다혜 (6명)

2020년 제29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의의 종류: 정기총회
2. 개최 연월일: 2020년 1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
3. 개최장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지하1층 이안젤라홀
4. 총회원수 및 출석회원 수: 총 79명 중 51명 출석(참석 31명, 위임 20명)

이명숙 이사장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인사말을 하다. 이미경 소장이 인사말을 하다. 부설연구소 올림 김보화 책임연구원이 정회원 79명 중 출석 31명 위임 20명으로 과반수 이상 51명 출석하였음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공증변호사 원민경 변호사를 소개하다.

이명숙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다. 의장이 서기를 선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안선민 회원이 장주리 회원 서기로 추천하여 조중신 회원이 동의하고 조은희 회원이 재청하여 서기로 선정하다. 이명숙 의장이 회순을 자료집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전해영 회원이 재청하다.

제28차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2019년 제28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박아름 활동가가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승인여부를 묻자, 양현경 회원이 동의하고 노주희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2019년 활동보고

이명숙 의장이 2019년 활동보고 영상을 시청할 것을 말하여 다함께 시청하다. 영상 시청 후 2019년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 활동에 대해 김혜정 부소장, 초대 동료상담원 안선민 활동가가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자료집 156쪽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 개정일자의 오타를 지적하고, 임기와 관련한 문구 수정을 제안하다.

노주희 회원이 규정 개정 권한이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다. 김혜정 부소장이 규정변경은 이사회 의 사안이며, 정관변경이 총회의 사안임을 설명하다. 김다미 회원이 제언과 관련하여 사안별 제언이 없는지, 또한 제언이 어떻게 응답되고 반영되었는지 질문하다. 안선민 활동가가 제언이 꼭 상담내용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며 조직문화와 관련해 참고해야 할 부분을 아울러 답았음을 설명하다. 김신아 활동가가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동료상담원이 조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김혜정 부소장이 특정사안에 대한 상담 직후 제언은 신고자 신변보호 관련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2019년에는 중간에 사안별 제언이 없이 임기 말 제안만 있었다고 설명하다. 조중신 회원이 상담 후 결과 및 성과에 대해 질문하다. 안선민 활동가가 내담자 보호를 위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하다. 김신아 활동가가 지속적으로 상담한 경우가 없어서 동료상담원으로서 상담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를 알기 어려웠음을 설명하고 앞으로 경험이 쌓여나갈 것이라고 답변하다.

2019년 감사보고

제16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김미순 감사가 사업감사를 보고하다. 김미순 감사가 배자하 감사를 대신하여 회계감사를 보고하다.

제1호의 안 2019년 결산 승인

사무국 안선민 활동가가 2019년 결산안을 보고하고, 열림터 박지희 활동가가 열림터의 2019년 결산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결산 관련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이명숙 의장이 동의여부를 묻자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의결하다.

제2호의 안 2020년 사업계획 승인

김혜정 부소장이 2020년 전체 활동 슬로건을 소개하다. 전체 활동 슬로건으로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세계의 여성들과 호흡하고(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Act Locally)'를 소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팀별 실천사항을 소개하다.

여성주의상담팀 유호정 활동가가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계획을 발표하다.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도모한다',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 및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진다', '통합적 생존자지원 방안을 모색/구축하여 생존자의 역량증진을 지원한다'라는 활동목표를 소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소개하다. 조중신 회원이 상담부스 운영계획에서 상담팀, 상담활동가, 상근활동가의 구분 의미를 질문하다. 유호정 활동가가 상담팀과 상담활동가의 차이 및 상근활동가들의 전화상담 참여를 설명하다. 조중신 회원이 다른 팀 상근활동가들이 전화상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을 질문하다. 유호정 활동가가 상근활동가가 팀 별로 정해진 활동 이외에도 상담부스 전화상담과 열림터 숙직은 모두 참여하는 활동임을 설명하고 상담부스 안정화에 대한 과제를 설명하다.

성문화운동팀 박아름 활동가가 성문화운동팀 활동계획을 발표하다. '성폭력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담소가 발행해온 자료를 활용·확산한다', '연대활동이 성폭력과 어떻게 연관되고, 상담소가 왜 참여하는지 알린다',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성장한다'라는 활동목표를 소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소개하다.

열림터 정정희 원장이 열림터 활동계획을 발표하다. '다양하고 체계적 일상지원으로 치유회복을 도모하고, 역량강화, 자립지원을 한다', '퇴소 후 지원을 통해 삶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상호지지로 연대한다',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진예방에 힘쓴다', '반성폭력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주의 쉼터운동 연대를 강화한다'라는 활동목표를 소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소개하다.

연구소 김보화 책임연구원이 부설연구소 울림의 활동계획을 발표하다. '반성폭력 이론과 쟁점을 생산한다', '반성폭력운동의 자료를 축적하고 연대한다', '상담소/연구소의 활동역량 강화한다'는 활동목표를 소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소개하다.

사무국 한소망 활동가가 사무국 활동계획을 발표하다. '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진전과 연대', '상담소의 운동을 더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 '평등한 문화와 공

간 만들기, 좋은 삶 살아가기라는 활동목표를 소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소개한다.
이명숙 의장이 동의여부를 문자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의결한다.

제3호의 안 2020년 예산 승인

사무국 전해영 활동가가 2020년 예산을 보고하고 열림터 박지희 활동가가 열림터의 2020년 예산을 보고한다. 이명숙 의장이 활동계획 및 예산 관련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이명숙 의장이 2020년 활동계획 및 2020년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승인된다.

신입활동가 소개

이명숙 의장이 신입활동가 류수민, 한소망, 김주아 활동가를 소개하고 각 활동가가 자기소개를 한다.

제4호의 안 임원 선출 및 퇴임 승인의 안

정관 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0조(임원의 자격), 11조(임원의 선임)에 의거하여 장철우 이사가 이사회에 퇴임 의사를 밝혔음을 이미경 소장이 소개한다. 변혜정 이사가 2월 16일자로 사임할 것을 이사회에 밝혔음을 이미경 소장이 소개한다. 신임 이사 후보로 이사회에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추천한다. 이미경 소장과 이경환 이사가 추천 이유를 밝히다. 장다혜 이사 후보자가 자기소개를 한다. 장다혜 이사의 임기는 2020년 2월 16일부터이나, 예선기로 논의하여 이를 제안하고 이명숙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자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승인된다.

		다		음
이	사	장	철	우 (*****-*****) 2020년 2월 6일 퇴임
이	사	변	혜	정 (*****-*****) 2020년 2월 16일 사임
이	사	장	다	혜 (*****-*****) 2020년 2월 16일 취임

감사패 및 공로상 시상

성문화운동팀 김신아 활동가가 감사패 및 공로상 시상을 진행한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감사패를 장철우 이사에게 이경환 이사가, 김의창 열림터 운영위원에게 열림터 정정희 원장이 시상한다. 장철우 이사, 김의창 운영위원이 불참하여 감사패를 추후 전달할 것을 밝히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로상을 황금명륜 님에게 이명숙 이사장이, 안선민 활동가에게 이미경 소장이 시상한다. 황금명륜 님이 불참하여 감사패를 추후 전달할 것을 밝히다. 안선민 활동가가 수상소감을 말하다.

노래부르기

상근활동가들이 모두 함께 “이 얼음 같은 세상을 깨고” 노래를 부른다.

폐회 선언

이 회의록의 공증에 대한 위임은 51명의 찬성(위임 20명 포함)으로 승인되다. 의장 이명숙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 오후 9시 51분)

서 기 2020년 1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의장 이사장 이 명 숙 (개인)
이사 이 미 경 (개인)
이사 이 경 환 (개인)

2020년 팀 · 부설기관 활동보고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상담팀 업무를 체계화한다

내담자 자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활동가 소진 예방에 중점을 둔다

우리가 만나는 성폭력 생존자와 주변인의 관점과 이야기를 다각도로 알린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장기근속휴가, 대체휴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열린터의 고민을 홍보 매체를 통해 외화하고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 역량강화교육과 개별상담을 통해 소진예방에 힘쓴다

퇴소 이후의 삶도 함께 살피고 연대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직장 내 성폭력의 현황, 상담일지 분석, 관련 연구 동향 등을 대중과 공유한다

30주년 기념 단행본 발간을 위한 활동가 세미나와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료 관리와 아카이빙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한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한다

페미니즘 신간 읽기 회원 소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의 장을 넓히고 상담소/연구소 활동을 알려낸다.

모든 외부연대활동에서 소식, 후기, 내용 등을 상담소 계정에 공유하는 활동을 팀에서 함께한다

상담소 사람들, 조직문화, 사건과 사안에 대한 나누고픈 이야기를 주1회 짧게 공유하는 ‘활동스토리’를 게재한다

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체계를 세계의 페미니스트들과 공유한다

상담통계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폭력 이슈를 드러내고 알린다

활동가 국제교류협력의 기회를 팀활동과 연결하여 활성화한다

임신중지 관련 해외 법제도 및 현황을 국내에 알리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2020.12.31.)을 앞두고 바쁘게 전개될 한국의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에 비판적으로 참고한다

UN CSW(여성지위위원회)와 Generation Equality Forum(파리)에 참가하여 북경여성대회 25주년을 맞은 기념비적인 2020년, 국제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살피고 미투운동, 기후위기 등의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 여성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탐색한다

2019 세계4차شم터대회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열린터 활동에 반영한다

국외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를 통해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위치를 공유하고, 국내 각종 공대위 활동, 강의, 자문 등을 통해 운동의 쟁점들을 도출하고 연구활동으로 환류한다

후기 작성 및 발표에서 ‘적용해 볼 점’ 코너를 신설하여 연대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제교류협력에서 상담소 및 한국에서의 활동을 발표, 공유한다

국제교류협력 비용 상황 현실화한다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목표

여성주의 상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도모한다. 2.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 및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진다. 3. 통합적 생존자지원 방안을 모색/구축하여 생존자 역량을 강화시킨다.
성문화운동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담소가 발행해온 자료를 활용·확산한다 2. 연대활동이 성폭력과 어떻게 연관되고, 상담소가 왜 참여하는지 알린다 3.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성장한다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하고 체계적인 일상지원으로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치유회복을 도모하고, 역량강화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2. 퇴소 후 지원을 통해 퇴소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상호지지와 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 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의 소진예방에 힘쓴다. 4. 반성폭력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주의 쉼터운동의 연대를 강화한다.
부설 연구소 울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성폭력 이론과 쟁점을 생산한다. 2. 반성폭력운동의 자료를 축적하고 연대한다. 3. 상담소/연구소의 활동역량을 강화한다.
사무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진전과 연대 2. 상담소의 운동을 더 보이게, 더 지속되게 3.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 4. 평등한 문화와 공간 만들기, 좋은 삶 살아가기

2020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 보고

전체 활동 슬로건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팀 업무를 체계화한다. - 내담자 지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 활동가 소진 예방에 중점을 둔다.
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체계를 세계의 페미니스트들과 공유한다. - 상담통계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폭력 이슈를 드러내고 알린다.
팀 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도모한다. 2.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 및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진다. 3. 통합적 생존자지원 방안을 모색/구축하여 생존자 역량을 강화시킨다. 	

총평

- 상담부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상담부스 운영 방식의 변화과정과 부스 운영 상황을 점검함. 주3일 상담을 주로 하는 반상근활동가의 소진에 대한 우려와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 마련을 위해 전 활동가가 논의함. 앞으로 전화 부스 안정화와 사건지원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활동가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충전휴가와 팀MT,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노력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연대대회가 대부분 취소되어 아쉬웠으나 상담팀 활동가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일여성사회운동포럼 : 한국의 #metoo운동> 세미나에 참여하여 일본의 활동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우리의 경험을 교류할 수 있었음
- 2019년 상담통계 세부분석의 키워드로 친족과 교육기관 내 성폭력을 다룸으로써,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음. 특히 친족성폭력 혹은 친족성폭력공소시효폐지 등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상담통계 중 세부분석이 많은 곳에서 활용되었음
- 상담원 심화교육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에 개입할 수 있는 지원자양성 및 공동체적 대응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조력자, 지지자, 연대자를 양성함. 또한, 활동가교육을 해당 팀에서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도록 하여, 상담팀원이 모두 법적지원과정과 절차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의 경험을 팀 내에서 뿐 아니라 전체 활동가들과 나눌 수 있었음
- 공대위 활동 및 상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고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외화함으로써 반성폭력 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함
- 상담에 대해 내담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상담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보며 성찰하였으며 내부 논의 후 내담자와 다시 소통하는 과정을 거침. 이를 계기로 상담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뿐만 아니라 상담자 보호 및 상담자 수인한계에 대한 논의가 상근자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30주년 규정TF에서 상담자 윤리강령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

목표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도모한다.

1-1. 상담 부스 운영

- 배경/필요성 :
 - 변경된 상담 부스 운영 방식을 시도하면서 파악한 장단점을 바탕으로 상담활동가 1명을 총원하기로 함
 - 1차 상담의 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업무환경 확보
- 목표: 안정적인 상담 부스 운영 체계 정립
- 진행내용
 - 상담부스 운영 : 상담팀 1일 + 상담활동가(이산) 3일+ 상근활동가 1일 진행
 - 상담현황 (2020.1.1.~12.31) (*별첨)
- : 총 1,324회, 779건, 이 중 총 715건의 성폭력상담 진행 (세부내용 2020년 상담통계 참조)
- 평가
 - 초기상담 시 기본적인 정보전달이나 타기관 연계의 비율이 적어지고, 심리정서지원과 지속지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초기 및 지속상담의 질이 높아짐
 - 모든 상담일지를 상담팀 활동가들이 모두 검토하고 수퍼비전함으로서 상담내용을 전반적으로 공유하여 안정적인 지속상담이 가능하였음. 이는 상담의 질이나 통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나 업무과다로 인해 일지 검토가 원활하지 않고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함. 상담일지 한 건당 검토는 1인이 진행하기로 변경하는 대신 일지검토를 꼼꼼하게 하고 고민되는 부분들은 상시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로 협의함
 - 상담부스는 상담소 개소 초부터 자원활동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개인 자원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연대의 확장, 활동가 재생산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이어져 왔음. 그러나 자원활동가 풀의 축소와 지속적인 활동유도 및 재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18년 6월로 상담자원활동가제도를 전면 폐지한 바 있음. 상담팀 활동가를 주축으로 상담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상담만을 담당하는 상담활동가를 두어 상담부스의 안정화를 꾀하였음
 - 상담활동가의 전화상담부스 전담(주3일)은 안정적인 부스 운영에 큰 효과를 거두었음. 상담팀 운영 전반에서 전화상담부스의 안정화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하지만 상담활동가는 상담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피로도와 소진감을 종종 호소하였고, 재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였음. 이에 상담부스 운영방식의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평가하였으며, 향후의 대안 마련을 위해 전체 활동가들과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1-2. 반성폭력 의제 확산을 위한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

- 배경/필요성 :
 - 본 상담소는 초기상담이 많고 다양한 지역에서 상담 전화가 온다는 특성이 있음. 이에 상담일지와 통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최근의 성폭력 유형과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
 -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사회 이슈에 대응하고 반성폭력 의제를 확산하고자 함
- 목표: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외화
- 진행내용 :
 - 상담일지 읽기 모임
- : 3/11 참석 - 백목련, 앓, 신아, 지리산, 유랑, 조은희, 감이, 수수, 파이, 주리, 오매, 사자, 이산, 낙타, 달

별, 순유, 지희

: 9/11 참석 - 앓, 주리, 유랑, 파이, 조은희, 백목련, 낙타, 달별, 지리산, 수수, 신아, 사자, 지희

일지범위	세부내용
2019년~2020년 7월	질문지 답변 나눔 시간 ① 상담일지를 읽으며 인상 깊었던 내용 ② 상담일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③ 고민됐거나 아쉬웠던 지점 ④ 2021년 세부 분석 제안 ⑤ 상담일지 양식에 대한 의견

- 상담통계 분석

: 1/13 연구소와 2020 상담통계 분석 기획 회의

: 3/4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현황 작성, 홈페이지에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 2019년 한해, 상반기, 9월 운영실적 및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추진실적 제출

: 그 외 85호 나눔터, 이사회, 상반기 평가회의 때 통계 현황 공유

• 평가 :

- 상담일지 읽기 모임을 통해 상근활동가의 상담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음. 또한, 성폭력 지원 체계 및 유형별 상담방법에 대해 평소에 하지 못했던 폭넓은 이야기를 하며 논의를 확장하였음. 상담 일지 표기 기준과 일지 양식에 대한 의견은 추후 상담일지 양식 개선에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임. 다음 일지 모임 시간에는 의견 나눔 시간이 더 길어야 함. 하반기 일지읽기모임 시간에 결석자가 많았는데 미리 논의한 전체 일정이므로 가능하면 꼭 참석할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현황에서는 특히, 친족 성폭력을 분석한 통계가 주목을 받고 기사화 되었음. 친족 성폭력 공론화와 스쿨미투를 주목하며 선정한 세부분석 주제가 시의성 적절하였음
- N번방 사건이나 위력 성폭력이 공론화되었을 때 통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음. 반성폭력 의제 확산을 위해 상담통계를 어떻게 이슈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함.

1-3. 사건지원 및 공동대책위원회

• 배경/필요성 :

- 개별 사건지원을 넘어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를 도출하고 법정책 제언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
-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져 사건지원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활동가별 지원 경험을 축적하고 확대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 경험을 통해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강화

• 목표: 상담 및 사건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사건지원의 경험 축적, 확대

• 진행내용

- 사건지원 현황: 총 139 건

- 지원내용

상담년도	의견서 제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	연계의뢰서 제출
2020	13	36	27	63
2019	10	23	26	47

- 공대위 활동

공대위	활동내용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2월: 14차 전략회의(2/13) - 공대위 활동 및 변호인단 의견서 내용 공유, 사

<p>여군 성폭력 사건 공대위 (유량)</p>	<p>건 쟁점 논의 카드뉴스 3차 발행(2/20) “군사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 공대위 명의 의견서 제출(2/11), 공대위 기고글 7회분 법원 제출(2/26)</p> <p>3월: 군성넷 의견서 제출(3/25) -성소수자 군인 인권 실태를 통한 피해자의 위치 고려 필요</p> <p>4월: 15차 회의(4/23) - 추후 의견서 내용 및 섭외 논의 군인권센터 의견서 제출(4/27,5/15)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 비판 카드뉴스 4차 발행(4/6) “나는, 신입사원이다”</p> <p>5월: SNS 해시태그 운동(5/20), 판결문 다시쓰기 워크숍 결과물 법원 제출(5/7), 피해자 주변인 탄원서 제출(5/15)</p> <p>6월: 16차 회의(6/12) - 추후 대응방안 및 타 사건 연대 건 논의 카드뉴스 5차 발행 (6/5) “피해자 의심하고 배제하는 통념 ‘정의’는 어디로 갔나!” 무지개행동 의견서 제출 (6/8) 성소수자로서의 취약한 위치 고려 필요</p> <p>7월: 젊은여군포럼 의견서 제출 (7/14) -지휘관으로서의 위력 및 책무 고려 촉구, 피해자 탄원서 제출(7/22)</p> <p>8월: 17차 회의(8/18) - 피고인 의견서 내용 공유 및 전략 논의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의견서 제출 (8/21) -최협의설 비판 카드뉴스 6차 발행 (8/5) “‘피해자 정보’ 건네준 고등군사법원, 이를 유출한 가해자들”</p> <p>10월: 18차 회의(10/27) - 선고 이후 2년 대응 논의 예비역 여군 탄원서 제출(10/26) 카드뉴스 7차 발행 (10/16) “여군이 아닌 전우로 대해 달라! 대법원의 응답은?”</p> <p>11월: 기자회견 실무점검 회의(11/4) D-day 릴레이 1인시위 (11/9~11/18) [기자회견]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진행(11/19)</p> <p>12월: 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제출(12/7)</p>
<p>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조은희)</p>	<p>5월: 공동대책위 발족결정(전성협 서울인천권역회의)</p> <p>6월: 공대위 회의(6/18) 활동목적 및 계획, 진행사항 공유 화상회의 진행(6/30)각 분야 전문가 의견서 제출</p> <p>7월: 준강간 사건 판결문과 불기소이유서 분석-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법지원 자료) [기자회견]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7/7), 2019년 준강간사건 사례분석(7/24) 연명 탄원서(6,29명)발송(7/29)</p>
<p>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 (오매, 감이)</p>	<p>1월: 1차 회의(1/30) 활동목적 및 계획, 진행사항 공유</p> <p>2월: 2차 회의(2/11) 성착취 신고단 준비 및 매뉴얼 작성 역할나눔 등 [공대위 출범 성명]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종식까지 멈추지 않는다(2/14)</p> <p>3차 회의(3/6) 문화운동(피해자연대) 카드뉴스 제작 논의</p> <p>3월: [공동성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p>

	<p>로 응답하라(3/11)</p> <p>[공동논평]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검거에 부처(3/18)</p> <p>[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및 4차 회의(3/26,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p> <p>4월: 5차 회의(4/7) 향후 활동 방향 논의 등</p> <p>[공동성명]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 4월 13일 조주빈 구속 이후, 감경, 사법부, 언론, 시민들의 역할(4/13)</p> <p>[공동성명] 버닝썬 사건 송방망이 처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4/16)</p> <p>[공동성명]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사법부는 직무유기다! - ‘N번방’ 성착취 가해자 ‘캘리’의 징역 1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4/22)</p> <p>[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4/23)</p> <p>[공동논평] 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4/23)</p> <p>6차 회의 및 법률지원단 회의(4/24)</p> <p>5월: 8차 회의(5/7) 공판모니터링 공유 등</p> <p>[공동성명]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5/18)</p> <p>9차 회의(5/21) 입법TF 논의내용 공유 등</p> <p>[공동성명]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 21대 국회는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5/29)</p> <p>6월: 10차 회의(6/8) 법률지원단과 내담자 지원 상황 공유 등</p> <p>[기자회견] <우리의 연대는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및 공판 참관(6/11, 중앙지법 동문 앞)</p> <p>11차 회의(6/26) 공판 모니터링 상황 공유 등</p> <p>무료법률구조 신청 서류 취합</p> <p>7월: [공동성명]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부처(7/6)</p> <p>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규탄 집회 <분노한 우리가 간다>(7/10, 서초역 8번출구 앞)</p> <p>12차 회의(7/22) 공대위 활동 방향 및 내부 포럼 등 논의</p> <p>8월: 피해자지원단회의(8/5)사건 진행 및 지원상황 공유 및 논의</p> <p>9월: [공동성명]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 조주빈의 궤변에 부처(9/2)</p> <p>피해자지원단 회의(9/7) 사건 진행 및 지원상황 공유 및 논의</p> <p>공대위 내부포럼 (9/11) 공대위활동 보고 및 성과와 과제 공유</p> <p>13차 회의(9/11)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논의</p> <p>10월: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 기준” (10/20,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채널 생중계)</p>
--	------------------------------------------------------------------------------------------------------------------------------------------------------------------------------------------------------------------------------------------------------------------------------------------------------------------------------------------------------------------------------------------------------------------------------------------------------------------------------------------------------------------------------------------------------------------------------------------------------------------------------------------------------------------------------------------------------------------------------------------------------------------------------------------------------------------------------------------------------------------------------------------------------------------------------------------------------------------------------------------------------------------------------------------------------------------------------------------------------------------------------------------------------------------------------------------------------------------------------------------------------------------------------------------------------------------------------------------------------------------------------------------------------------------------------------------------------------------------------------------------------------------------------------------------------------------------------------------------

	<p>피해자지원단 회의(10/30) 사건 진행 및 지원상황 공유 및 논의 긴급회의(10/27) 탄원서, 의견서, 논평 등 정리 후 역할분담</p> <p>11월: 14차 회의(11/16) 개별 사건 선고 이후 계획 등 논의 [기자회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전국 법원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p> <p>-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이다 (11/26, 중앙지법 동문 앞)</p> <p>12월: 15차 회의(12/4) 기자회견 평가, 향후 계획 논의</p>
--	-----------------------------------------------------------------------------------------------------------------------------------------------------------------------------------------------------------------------------------------------------------------------------

• 평가

- 활동가 평균 지원 사례 조절하고자 했으나 지속 지원 사례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행되지 못함
- 의견서, 상담사실확인서 등 사건지원 내용이 지난 해에 비해 증가하였고 사건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상담팀 활동가 모두가 공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대하는 단위들과 협력하고 공동의 의제를 도출하여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함
- 타 단체 사건연계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사례를 연계 받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나누고 연대자로 힘을 실어줌. 또한 타 단체의 공대위 사무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계단체의 역량강화를 도움
- 해군성폭력사건 공대위의 경우, 사건이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활동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정기적으로 릴레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고일 이후 2년째 되는 날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공대위 활동을 활성화하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며 사무국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음. 상담소가 사무국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단체와 연대하고 이슈 대응을 주도적으로 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음
-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의 경우, 공대위 구성 초기부터 함께하였고, 피해자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민변여성위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의 소통과 무료법률구조 관련 업무를 맡았음. 다양한 집필과 발언, 인터뷰 등을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의 경험과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모니터링하였음. 대법원 양형위원회나 각 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거나 시기적절한 공동성명을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특성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음.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및 연대단체와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내부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음. 이러한 활동들은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데 일조하였으며 연말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가해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1-4. 자문위원회 운영

• 배경/필요성 :

-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들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상담팀 활동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
- 자문위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가할 수 있음.
- 법률, 의료, 심리적인 자문뿐 아니라 상담소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도모함.
- 목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며 자문위원들의 상담소에 대한 연대를 활성화함.

• 진행내용

날짜	내용
4/21 (이안젤라홀)	참석: 자문위원- 김미랑, 조중신, 원민경, 최지나, 김은아 활동가- 지리산, 조은희, 유랑, 감이

	<p>[안건1] 무료법률구조 시 낮은 구조비용의 문제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투운동 덕분에 무법 지원 심급당 120만원, 총 지원 금액 500만원으로 인상됨. 여전히 한정된 금액 내에서 전략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변호사 지원을 받을지 고민 필요함 :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조건으로 보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고 까다롭고 많은 에너지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들도 갈등됨. 무법이 변호사의 역량강화엔 도움이 되나 시간 대비 지원금도 조정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음 : 전성협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을 것 : 국선변호사제도 손볼 필요 있음 : 구조적으로 비용 늘리는 문제 중요하지만 내담자와 좀 더 논의해서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하는 문제 <p>[안건2] 상담소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대응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에 상담에 대한 민원제기 있었는데 조직에서 지켜준 것이 고마웠음 : 전화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겪은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 활동가가 지지/공감 반응을 했지만 내담자가 오해할 때 충분한 사과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전화상담의 한계도 존재 : 2차 피해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때때로 활동가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 역량강화를 한다고 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존재. 상담자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 신중하게 논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피해자가 가진 피해자의 권력을 쓰면서 본인이 역량강화가 되고 만족감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함 : 상담소 운영방안과 근본적으로 맞물리는 것이라 생각함. 상담소는 연대감, 자매애, 동질감을 가지고 활동. 하지만 이런 것도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 분명 있다는 것을 공유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p>[기타안건] 상담팀 활동에 대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여성주의 상담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함 : 자원활동가 없는 상황은 어떤가. 인력이 적으면 활동가 번아웃의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우려
--	---------------------------------------------------------------------------------------------------------------------------------------------------------------------------------------------------------------------------------------------------------------------------------------------------------------------------------------------------------------------------------------------------------------------------------------------------------------------------------------------------------------------------------------------------------------------------------------------------------------------------------------------------------------------------------------------------------------------------------------------------------------------------------------------------------------------------------------------------------------------------------------------------------------------------------------------------------------------------------------------------------------------------------------------------------------------------------------------------------------------------------------------------------------------------------------------------------------------------------------------------------------------------------------------

• 평가

- 사전 안내 시 참석신청은 많았으나 코로나19로 당일 대거 불참
- 자문회의 전에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고 자문위원들의 자원을 상담소의 활동에 선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자문위원 대부분이 상담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 상담소 활동이나 고민에 대해 함께 나눌 때 더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지가 있었음

1-5.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 조직에서는 상담 및 사건지원으로 개별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도록 1년차, 3년차에 재충전 프로그램을 진

- 행하도록 권하고 있음.
-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지원을 위해 상담팀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 예방을 진행함
 - 목표: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
 - 진행내용
 - 정신분석센터 판도 컬러테라피 참여
 - 12/13~14 힐리언스 선 심스데이
 - 평가:
 - 상담소와 관계 맺어온 기관에서 진행하는 컬러 테라피에 참여하였는데 사무실을 떠나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기회였음.
 - 12월에 소진예방비용으로 갔던 심스데이는 자연을 벗삼고 지친 심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제한이 있었지만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 환기가 되었음. 프로그램에 다녀온 후, 충전된 힘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었음.
 - 많은 업무량 및 코로나19로 모든 소진예방 비용을 다 소진하지 못했지만, 소진방지를 위한 예산이 있다는 것이 상담활동을 지속하는데 큰 자원이 됨.

목표2.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 및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진다.

2-1. 조직 내 성폭력 사건지원자 역량강화 교육 (심화교육)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더 많은 사건지원자 양성 필요
 - 반성폭력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및 관련 법, 체계, 지원내용의 대중적 확산의 필요
 - 대학, 공동체 등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거나 해결 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커리큘럼으로 하여, 점처럼 흩어져있는 사건지원자들의 네트워크 연결
- 목표: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건지원자를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연결
- 진행내용
- 주요추진일정

일정	진행내용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커리큘럼 기획회의 - 자문회의 진행 (자문: 부설연구소 울림 파이 책임연구원) - 강사섭외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10 웹포스터 디자인 - 7/20~22 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자료집 등 인쇄 및 제작 - 세부 실무 등 준비 - 8/16 긴급 회의: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 8/17(대면)을 시작으로 8/21(비대면) 교육 진행 - 8/28 수료증패키지 발송 <p>: 수료증, 피생사자료집, 의지로 굿즈, Messages for the Lightkeeper, 카드미러, 작말버튼</p>

9월 이후 (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후기글 블로그 업로드 - 9/17 후속모임: 온라인사례포럼 예정이었으나 미진행 - 9/13 배포용 심화교육 자료집 편집 (자원활동가 이신율) <p>: 모든 강사들에 사전동의 얻지 못해 배포용 자료집 제작하지 않기로 함</p>
---------------	---------------------------------------------------------------------------------------------------------------------------------------------------------------------------------------------------------

- 교육 개요

○ 교육명: 성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 <흔들리던 성냥불이, 우직한 등대가 되기 위해: 조직 내 사건지원자 역량강화 교육>

○ 일시: 2020년 8월 17일(월)부터 21일(금) 5일간 총 30시간

○ 장소: 이안젤라홀(8/17), 온라인 ZOOM회의실(8/18~21)

○ 참가자: 총 14명 중 14명 수료 완료

- 교육 일정표

교육 일정	시간	내용	강사	진행
8/17 (월)	10-13	오리엔테이션(비밀유지 서약*) 및 마음열기 : 세 가지 키워드로 자기소개하기 : <등대지기 약속> 만들기	상담팀	워크숍
	14:30-17:30	성폭력 사건지원자로서 나의 위치 찾기	김은아	
8/18 (화)	10-13	조직 및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조직문화	김보화	강의
	14:30-17:30	조직 내 규정 점검 및 문화 진단	김혜정	워크숍
8/19 (수)	10-13	2차 피해와 피해자중심주의	권김현영	강의
	14:30-17:30	여성주의상담과 피해자리더십	김은아	강의
8/20 (목)	10-13	조직 내 사건지원의 유형과 가해자의 특성 다루기	최김하나	강의
	14:30-17:30	조직 및 공동체 내 사건지원의 지도 그리기	상담팀	워크숍
8/21 (금)	10-11:20	알아 두면 유용한 관련 법률 둘러보기	김두나	강의
	11:30-13	성폭력 사건지원자의 역할과 한계	최란	강의
	14:30-17	"Message to the Lightkeeper" 작성 및 나눔수료식	상담팀	워크숍

• 평가

- 조직 및 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지원자에 대한 교육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음. 사건지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위치 점검, 조직문화, 법률, 이슈, 한계설정 등)를 전달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피/가해자, 주변인 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획이었음. 커리큘럼 기획과 강사섭외안 마련에 연구소(책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전문성 있는 내부 강사진과 상담팀 활동가의 워크숍을 배치하여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였음.

- 교육에 대한 큰 관심으로 홍보 시작 이틀 만에 신청 마감하였음. 신청하지 못한 개인들의 추가신청 문의가 많고, 추후에 교육 개설에 대한 문의와 요구도 많아 사건지원자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큰 기대와 수요를 확인함.

-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초 집합교육으로 준비하였으나, 교육 직전 수도권의 확산세가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긴급하게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함. 강의의뢰 시 강사들에게 강의와 모둠토론을 2:1 비율로

- 배치하도록 요청했던 것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강의의 비율을 높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율함으로써 큰 무리없이 원활하게 진행하였음. 다만 강의와 워크숍을 반반씩 배치하여 교육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를 높이고 교육참가자들간에 네트워킹을 도모했던 기획의도는 온라인 진행으로 확보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
- 참가자들은 온라인 소통과 비대면의 한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음. 교육참여자들간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가 컸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부분이었음. 각 강의에 대한 평가 중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는 주로 강사의 말이 너무 빨라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거나, 강의안 중 뒷부분 설명이 생략되거나 모둠 토론의 토론 주제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였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 강의의 세부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사건지원자로서 지지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한 강조와 한계설정 및 내담자와의 공유 부분에서 큰 호응을 얻었음
 - 조직 내 사건지원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해자와 관련된 고민이 다른 강의에서 질문과 의견 등으로 자주 드러나 7강(가해자 다루기)의 배치가 적절하였음. 8강(사건지원지도)은 상담팀이 직접 워크숍을 준비하여, 기존에 생존자 사건지도 활용과 함께 사건지원지도를 새로 만들어, 교육참가자들이 이전에 지원했던 사건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유의점을 짚어보고, 자신의 강점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 이후에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교육 홍보 전후로 심화교육에 대한 큰 수요와 필요가 확인되어 교육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배포용으로 준비하였으나, 사전에 강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못해 배포하지 못하여 아쉬움. 또 참가자 간 지속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요청이 높아 후속 모임 <온라인 사례나눔(가)>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적절한 일정 수립의 어려움, 온라인 정기모임에 대한 낯설음, 담당자의 부주의로 진행되지 못한 것 역시 큰 아쉬움을 남김

2-2. 사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 지원단체별 사건지원의 체계 운용의 방식과 지원전략의 상이함. 타 상담소와의 슈퍼비전을 통해 지원단 체별 지원 방식의 경험을 나누고 유대적 활동을 통해 연계망을 확대
 - 지원자 간의 고충을 나눔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 토대를 마련
- 목표: 사건지원 방식의 경험을 나누고 사건지원자 역량을 강화
- 진행내용:
 - 통합적 점검 슈퍼비전
 - : 4/28 여성주의 상담 슈퍼비전 진행 (강사 : 김미랑, 참석 : 감이, 유랑, 조은희, 낙타, 주리, 이산)

사례	슈퍼비전 내용
**내 구성원에 의한 강간(유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진행하며 걸림돌이 되는 피해자의 통념 파악할 것 - 의문이 생기면 활동가가 짐작하거나 추론하지 말고 내담자에게 정확하게 물어볼 것 - 산만한 내담자의 언어를 요약해서 핵심을 공감하되 현실을 짚어주며 정확한 선택지를 제시할 것,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욕구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조력할 것
***에 의한 강간(감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별 정리 및 구조화 필요 - 대인관계나 가족 내 역동 등 심리적 요인은 심리상담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 사건 지원과 심리상담 영역을 구분하고 상담자 또한 한계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9/24 여성주의 상담 내부 슈퍼비전 진행 (참석 : 조은희, 유랑, 감이, 닷별, 백목련, 수수, 낙타)

사례	슈퍼비전 내용
중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지리산)	- 사건 및 지원에 관한 공유 및 지원자로서의 감정 나누기 - 지원의 의미에 대한 고민 - 사건 정리 및 종결

- 동료 슈퍼비전

: 7/2 한국여성민우회 동료 슈퍼비전 진행 (참석 : 감이, 유랑, 조은희, 오매)

사례	슈퍼비전 내용
**내 성폭력	민사 지원 및 공론화 조력 필요
**계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소통하며 진행, 공론화 조력 필요
**에 의한 카메라이용촬영	가해자와의 관계 정리 및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필요, 공론화 지원
**에 의한 위계,위력에 성폭력	피해 경위 파악 및 법적 지원 필요

• 평가:

- 활동가는 통합적 점검 슈퍼비전을 준비하며 사건지원 시 고민 지점이나 어려움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었음. 또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추후 지원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고 소진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
- 하반기 슈퍼비전을 통해 65차에 이른 상담을 종결하기로 결정함. 16년이라는, 상담소의 역사와 함께한 사례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하며 과거와 현재의 시대적 상황, 내담자의 변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
- 동료 슈퍼비전을 통해 단체별 지원 방식을 논의할 수 있었고 동료 활동가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연대를 다질 수 있었음

2-3.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 배경 및 필요성

- 전화상담과 사건지원을 통해 마주하는 사례 중에 지원자가 필요 시 상근활동가가 함께 사례를 검토하고 고민하여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앞으로의 지원 과정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눔
- 사례 나눔으로 전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
- 목표: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지원 전략 도출 및 개별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함

• 진행내용

일시 : 2020. 11. 18 (유랑)

사례 : 카메라이용촬영 및 유포 건

내용 : 상근활동가 회의 시간 활용, 사건 관련 사례 나눔 및 지원전략 논의 진행

• 평가

- 지원자가 고민되는 지점을 전체 활동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었음
- 사례의 지원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지원자도 사례를 정리하며 사건에 대한 거리 두기 및 새로운 관점으로 사례를 볼 수 있었음

2-4. 종결 사례 포럼

• 배경/필요성 :

- 개별 사안 초기부터 지원 종결 시까지의 지원 과정 및 체계 대한 공유 및 평가를 통해 이후 지원에 있

어 시사점을 확인

- 종결 사례 포럼을 통해 상담소 지원의 경험을 공유 확대
- 목표: 사건지원 전반적인 흐름을 평가, 공유하고 이후 지원에 대한 전략 나눔
- 진행내용

날짜	내용
6/10 (조은희)	<p>참석자: 수수, 백목련, 이산, 달별, 신아, 유량, 조은희, 앓, 감이, 파이, 낙타, 지리산, 사자, 순유, 박지희</p> <p>0. 지원사례 연계 관련 공유</p> <p>1.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간 피해 및 아동학대 등 사례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기관이나 변호사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려고 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율하여 지원함 - 가해자가 권력(경제적)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하는 상황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 등을 지지함 - 내담자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원자로서 개입하는데 한계 설정 필요 - 상담자와 내담자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을 때 내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지원자 보호 -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성취를 발견하는 게 목표일 수 있음 공감

- 평가
- 사건지원 과정에서 지원자의 고민, 부정적인 감정과 평가를 다른 활동가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거리 두기 할 수 있었음. 사건지원의 과정과 의미를 회고하는 과정을 통해 활동가의 강점을 찾아내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음
- 사건지원의 경험을 다른 활동가들과 공유하여 서로의 상담역량을 높임

2-5. 월요법률상담

- 배경/필요성 :
- 최근 무고와 역고소, 명예훼손 등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움츠러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음. 피해자들이 사건해결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상담소에서도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들과의 유대감 확장 및 연대의 필요성이 절실함
- 목표: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생존자들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체계적인 법적지원을 제공함
- 진행내용

순번	일정	확정	배석활동가	건수
1	03월 16일	원민경	감이	1
2	03월 30일	천정환	조은희	2
3	04월 13일	신수경	유량	1
4	04월 27일	여진아	감이	1
5	05월 11일	천정아	감이	1
6	05월 25일	여진아	감이	2
7	06월 08일	천정아	조은희	1
8	06월 22일	신수경	유량	2
9	07월 13일	한지숙	유량	2

10	07월 27일	권정	감이	2
11	8월 10일	한지숙	감이	1
12	8월 24일	권정	유량	1
13	9월 7일	원민경	조은희	2
14	10월 12일	이현주	유량	2
15	10월 26일	이현철	감이	2
16	11월 9일	천정아	조은희	2
17	11월 23일	이현철	유량	2

• 평가

- 3월부터 시작되는 월요법률상담의 특성상 신청한 지 오래된 내담자들이 상황 변화 혹은 예약을 잊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연락이 없이 방문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일이 빈번하여, 신청서 제출 시 일정 안내와 당일 오전 중 확인 메시지 등 발송하여 부도움을 낮춤
- 일정 안내와 배치를 위한 연락을 하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변호인들이 많음. 기존 변호인 명단 정리와 신규변호사 발굴이 필요함. 현재 공대위 활동 등을 통해 새로 만나는 변호인들과의 관계 확장 및 법률상담으로의 연결 필요
-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구조기금이 6월 말 소진되었다고 통보받음(참고로 2019년의 경우, 9월 중 소진됨).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규모가 커서 법률구조기금 전체 예산을 늘려달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피해자들 지원을 줄이는 방식이 된 것으로 보임.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기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10월 진행된 여성가족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의원이 해당 내용을 질의하였음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되다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한 공간에서 가급적 계획대로 진행하였음. 그러나 상담소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활동가 배석 없이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그런 경우 활동가가 지속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컸음. 활동가 배석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목표3. 통합적 생존자지원 방안을 모색/구축하여 생존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3-1. 개별프로그램

1)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배경/필요성 :

- 성폭력은 여성의 건강권과 연결됨. 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제안이 필요.
- 성폭력피해자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접근성 향상.

• 목표: 치료비 지원을 통한 성폭력 생존자의 의료적, 심리적 안정 도모

• 진행내용

• 예결산: 50,000,000원

번호	기관명	명수	건수	비용
1	OOO마인드피아	2	35	2,866,900

2	00병원	1	1	233,900
3	000 심리상담연구소	1	13	1,334,200
4	000그룹	4	73	8,624,000
5	00000정신건강의학과	2	24	403,950
6	0000상담센터	6	52	6,465,000
7	00임상심리센터	2	57	3,593,930
8	000정신건강의학과	1	8	135,300
9	000건강의학과	1	18	400,000
10	00000000 사람마음	1	34	4,000,000
11	0000병원	1	11	291,400
12	000000연구소	11	152	12,740,000
13	0000산부인과	1	4	143,300
14	0약국	4	50	237,520
15	0000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1	10	299,400
16	0000약국	1	3	2,5200
17	0000건강의학과	1	11	236,800
18	00000건강의학과	1	14	500,300
19	000약국	1	4	53,300
20	000내과의원	1	2	139,900
21	000들	1	28	2,240,000
22	000심리상담센터	1	13	1,300,000
23	000000교육연구원	4	15	1,520,000
24	0000건강의학과	16	217	1,655,700
25	000마음챙김연구소	1	8	560,000
합계		67(43)	857	50,000,000

• 평가

- 예산에 맞게 잘 지원되었음
- 구청 지원 등 상담소 지원 외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내담자에게 상세히 안내함. 이는 상담사실 확인서 발급이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 가능함
- 지출결의시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하여 의료기관이나 개인 청구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
- 2년 이상 지원자와 피해 이후 2년경과 피해자일 경우 정신과의 소견서 첨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 있음. 반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시기가 피해 이후 2년이 경과된 건들이 많으며 소견서 발급은 정신과에서만 할 수 있는 점 등이 의료비 지원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전성협 차원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개별상담으로도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의료비 예산을 조정하는 것 필요함

- 올해부터 새롭게 의료비 분기별 집행내역을 피해자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민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요구하여 이에 대해 상담소가 구청에 문제제기하여 내담자의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까지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성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한정된 의료기관으로 인해 일부 기관에 지원이 물리는 현상이 있음. 심리상담과 정신과를 함께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굴이 필요함

2) 개별상담 (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 미투운동 등 피해생존자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호소는 증가하였으나 의료, 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기존 의료비 지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피해생존자들에게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목표: 피해생존자로서 공식적인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예외적인 치유과정이 필요한 내담자를 지원
 - 진행내용
 - 4/9 정신분석센터 ○○ 대표 미팅 (참석 : 감이, 유랑, 이산, 조은희)
 - 개별상담 진행 내용

기관	지원대상자(명)
○○○마인드	4
정신분석센터 ○○	3
계	7

- 평가
 - 기관 대표와 미팅을 통해 개별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기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음. 또한, 피해자 상담 지원 시 고민 지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
 - 작년에 이어 같은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진행함.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기관에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상담 기관에 관한 연계 내담자의 평가 필요한 단계임
 -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예산을 개별상담으로 변경함. 상담기관과 소통하여 추가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를 추가 지원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상담회기를 다 끝내지 못한 내담자도 있었음
 - 10회기의 상담이 짧아서 개별상담 프로그램을 향후 진행할 경우, 회기를 더 늘려 진행할 필요 있음

3-2. 집단프로그램

1) 작은말하기 (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상담소에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와 구별하여 더욱 가까운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인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가 있음
 - 최근에는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말하기(speak out)의 힘과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 작은 말하기는 본인의 피해 경험을 재해석하고 피해자 간 연대가 가능한 일상적인 말하기 공간으로서 중요성을 가짐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피해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 마련
 - 진행내용

회기	일시	진행자	참여자	주제
----	----	-----	-----	----

1	4/29	조은희,유랑	16명	자기소개, 현재의 감정 및 상황 알아차리기
2	5/27	유랑,수수	14명	최근의 감정 점수 매기기,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기
3	6/25	조은희,유랑	11명	피해이후 남성들 대면하는 문제
4	7/29	조은희,유랑	8명	일상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대처법
5	10/28	조은희,유랑	12명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점 말하기
6	12/16	조은희,유랑	16명	작은말하기 송년회

• 평가

- 코로나19로 8월, 9월 작은 말하기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구청에 미리 사업변경 신청함
- 사회적거리 유지를 위해 기존 참여자들이 격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적정인원 유지를 위해 노력함
- 코로나19로 온라인 작은말하기를 진행하려고 논의하였으나 온라인 진행을 하려면 참여자가 편히 참여할 수 있는 개인공간이 있어야 하고, 기기에 접근성도 모든 참여자들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배제되는 회원이 있을 수 있고, 비밀유지 등을 위해 공간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진행을 할 수 없었음
- 신규 참여자들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어 작은 말하기 참여 인원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작은말하기 진행방식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 코로나로 인해 작은 말하기가 진행되지 못하자 오픈 채팅방이 활성화되었고 참여자들의 온라인 소통방식도 같이 성숙되었음

2) 집단상담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현재 자신을 확인하고 성폭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원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회복과 일상생활의 적응을 원활하게 함

• 진행내용:

- 4/17~5/6 홈페이지 및 SNS 홍보 통해 지원자모집 및 선정
- 5/19~7/28 총 10회기 1단계 집단상담 진행
- : 사전 개인상담(1단계 시작 1주 이전) 및 후속 개인상담(1단계 종결 2주 이후) 진행
- : <상처를 힘으로 전환시키는 안전하게 말하기>

회기	일시	진행자	참여자	활동내용
사전	5/11,12,19	라다	7명	사전상담 진행
1	5/19	라다, 유랑	5명	오리엔테이션 - 집단프로그램 구조화, 집단규칙 정하기, 자기소개와 집단상담의 목표, 타로카드로 이해하는 나의 심리
2	5/26	라다, 유랑	6명	지금 여기의 나, 자원 찾기
3	6/2	라다, 유랑	6명	성폭력 피해 경험 만나기, “지금 여기”에 미치는 영향
4	6/9	라다, 유랑	6명	안전하게 말하기 -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5	6/16	라다, 유랑	5명	안전하게 말하기 -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6	6/23	라다, 유랑	5명	안전하게 말하기 -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7	6/30	라다, 유랑	4명	자아의 신성한 원, 경계 세우기
8	7/14	라다, 유랑	5명	자원찾기와 자기돌봄 - 권력분석, 감정 접촉 및 표현
9	7/21	라다, 유랑	4명	상처를 힘으로 전환하기
10	7/28	라다, 유랑	4명	집단상담 목표와 현재의 나, 평가(종결)
사후	8/11,18,19	라다	5명	사후상담 진행, 5명 종결

• 평가:

- 코로나19로 상담 중반 회기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며 진행하였음. 방역 지침이 집단 내 라포 형성에 제한이 될까 우려하였으나 자기개방과 신뢰감 형성이 무리 없이 진행되었음. 하반기에 심화 상담 5회기 진행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 진행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은 개별상담 비용으로 변경함
- 사전 개별상담은 집단 내 역동을 예측하고 집단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됨. 다만, 사전 개별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프로그램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와 안내가 필요함
- 참여자들이 대체로 진솔하게 자기개방하고 세심하게 의견 주려고 노력하였고 집단상담 관계 속에서 각자의 힘이 의미화되었음
- 상담 도중 이탈자가 생겼으나 담당자와 상담자가 적절하게 논의하여 소통을 시도함

3-3. 파발마 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 지역에 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사건지원을 위해 기부된 지정기부금 [파발마 기금]의 적극적 운영 필요
- 목표: 지역의 내담자들 지원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 진행내용
 - 사건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 내담자/지원자의 교통편 및 숙박 시설 비용 지급 (1인당 50만원)
 - 지정후원자에게 기금 지출 내역 보고
- 평가 :
 -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파발마 기금을 홍보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파발마 기금이 원활히 집행되지 못함.

2020년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총 86,549회의 상담을 해왔다. 2020년 전체상담은 1,324회(779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258회(715건)으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1.8%이다. 상담 자원의 내실화로 지속지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 상담 건수가 2019년에 이어 2020년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2017	2,118	1,414	1,260	89.1
2018	1,940	1,359	1,189	87.5
2019	1,419	1,028	912	88.7
2020	1,324	779	715	91.8
총	86,549	57,614	48,555	84.3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3.6%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1%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건수 715건 중 669건(93.6%)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506건(70.8%)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6.1%(43건)로 2018년 6.1%, 2019년 6.8%에 이어 6%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 14세)	어린이 (13세- 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3 (0.4)	506 (70.8)	74 (10.3)	49 (6.9)	23 (3.2)	14 (2.0)	669 (93.6)
남	-	30 (4.2)	8 (1.1)	2 (0.3)	-	3 (0.4)	43 (6.1)
기타	-	1 (0.1)	-	-	-	-	1 (0.1)
미상	-	-	-	-	-	2 (0.3)	2 (0.3)
총계	3 (0.5)	537 (75.1)	82 (11.4)	51 (7.1)	23 (3.2)	19 (2.7)	715 (100.0)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3.1%가 남성, 이중 성인은 77.2%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715건 중 666건(93.1%)을 차지하였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552건(7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 14세)	어린이 (13세- 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	28 (3.9)	-	2 (0.3)	-	1 (0.1)	31 (4.3)
남	15 (2.1)	552 (77.2)	49 (6.9)	15 (2.1)	2 (0.3)	33 (4.6)	666 (93.1)
기타	-	-	-	-	-	1 (0.1)	1 (0.1)

미상	-	3 (0.4)	-	-	-	14 (2.0)	17 (2.4)
총계	15 (2.1)	583 (81.5)	49 (6.8)	17 (2.4)	2 (0.3)	49 (6.8)	715 (100.0)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67.8%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30.6%가 대리인 상담의뢰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15건 중 485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219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10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직장과 연관된 관계에 있는 사람, 이웃·친구가 뒤를 이었다.

2015년 전만 해도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율이 매해 50% 초중반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조금씩 커져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2019년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며 67.8%를 차지했다.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표 4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 건(%)〉

본인	대리인 219(30.6)										본인/ 대리인 (동석)	미상	전체상담 건수
	가족 · 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 · 친구	직장	학교 · 학원	사회 복지 기관	기관 · 단체	공공 및 유관기 관	시민 사회 단체	기타			
485 (67.8)	105 (14.7)	16 (2.2)	27 (3.8)	30 (4.2)	15 (2.1)	-	-	8 (1.1)	5 (0.7)	13 (1.8)	11 (1.5)	-	715 (100.0)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강간 피해 상담 건수 거의 비슷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247건(34.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근소한 차이로 강간 피해 상담 246건(34.4%) 역시 높게 나타났다. 강간 피해의 경우, 2018년 28.5%, 2019년 31.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33건(13.8%)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19세~14세)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가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다.

표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피 해 자 연 령						총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 간 및 강 간 미 수	특수강간	-	2 (0.3)	2 (0.3)	-	-	-	4 (0.6)	246 (34.4)
	강간 (유사강간포 함)	1 (0.1)	113 (15.8)	30 (4.2)	17 (2.4)	8 (1.1)	2 (0.3)	171 (23.9)	
	준강간	-	49 (6.9)	2 (0.3)	-	-	-	51 (7.1)	
	강간미수	1 (0.1)	14 (2.0)	1 (0.1)	1 (0.1)	3 (0.4)	-	20 (2.8)	
강 제 추 행	강제추행	1 (0.1)	172 (24.1)	22 (3.1)	22 (3.1)	11 (1.5)	5 (0.7)	233 (32.6)	247 (34.5)
	준강제 추행	-	13 (1.8)	1 (0.1)	-	-	-	14 (2.0)	
성희롱		-	91 (12.7)	6 (0.8)	2 (0.3)	-	-	99 (13.8)	
통신매체이용음란		-	11 (1.5)	3 (0.4)	-	-	-	14 (2.0)	
카메라이용촬영		-	40 (5.6)	9 (1.3)	-	-	1 (0.1)	50 (7.0)	
스토킹		-	16 (2.2)	-	-	-	1 (0.1)	17 (2.4)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1 (0.1)	-	-	-	-	1 (0.1)	
미상		-	15 (2.1)	4 (0.6)	9 (1.3)	3 (0.4)	10 (1.4)	41 (5.7)	
총계		3 (0.4)	537 (75.1)	80 (11.2)	51 (7.1)	25 (3.5)	19 (2.7)	715 (100.0)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1.5%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583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가 해 자 연 령						총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미수	특수강간	-	3 (0.4)	1 (0.1)	-	-	-	4 (0.6)	246 (34.4)
	강간 (유사강간포함)	1 (0.1)	137 (19.2)	20 (2.8)	2 (0.3)	-	11 (1.5)	171 (23.9)	
	준강간	-	49 (6.9)	2 (0.3)	-	-	-	51 (7.1)	
	강간미수	-	16 (2.2)	2 (0.3)	-	-	2 (0.3)	20 (2.8)	
강제추행	강제추행	6 (0.8)	195 (27.3)	12 (1.7)	11 (1.5)	2 (0.3)	7 (1.0)	233 (32.6)	350 (34.5)
	준강제추행	1 (0.1)	12 (1.7)	1 (0.1)	-	-	-	14 (2.0)	
성희롱		6 (0.8)	86 (12.0)	4 (0.6)	1 (0.1)	-	2 (0.3)	99 (13.8)	
통신매체이용음란		-	11 (1.5)	1 (0.1)	1 (0.1)	-	1 (0.1)	14 (2.0)	
카메라이용촬영		-	41 (5.7)	3 (0.4)	-	-	6 (0.8)	50 (7.0)	
스토킹		-	16 (2.2)	-	-	-	1 (0.1)	17 (2.4)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1 (0.1)	-	-	-	-	1 (0.3)	
미상		1 (0.1)	16 (2.2)	3 (0.4)	2 (0.3)	-	19 (2.7)	41 (5.7)	
총계		15 (2.1)	583 (81.5)	49 (6.9)	17 (2.4)	2 (0.3)	49 (6.9)	715 (100)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9.1%

<표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37(89.1%)으로 85%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09건(38.9%)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77건(14.3%)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친족에 의한 피해와 인터넷으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각각 13건(23.5%)씩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17건(33.3%), 11건(4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유형 연령	아는 사람 637(89.1)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족외 인척 102(14.3)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 스 제공 자	학교	유치 원/학 원	주변 인의 지인	동호 회	기타			
	친족	친족외 인척													
2016년	118 (8.7)	19 (1.4)	368 (27.2)	141 (10.4)	43 (3.2)	63 (4.7)	78 (5.8)	160 (11.8)	35 (2.6)	102 (7.5)	11 (0.8)	40 (3.0)	101 (7.5)	74 (5.5)	1,353 (100.0)
2017년	121 (9.6)	22 (1.7)	375 (29.8)	116 (9.2)	40 (3.2)	60 (4.8)	66 (5.2)	121 (9.6)	40 (3.2)	73 (5.8)	19 (1.5)	45 (3.6)	103 (8.2)	59 (4.7)	1,260 (100.0)
2018년	64 (5.4)	66 (5.6)	353 (29.7)	86 (7.2)	41 (3.4)	65 (5.5)	60 (5.0)	136 (11.4)	39 (3.3)	66 (5.6)	13 (1.1)	40 (3.4)	73 (6.1)	87 (97.3)	1189 (100.0)
2019년	78 (8.6)	9 (1.0)	276 (30.3)	94 (10.3)	24 (2.6)	92 (10.1)	41 (4.5)	87 (9.5)	33 (3.6)	28 (3.1)	31 (3.4)	6 (0.7)	43 (4.7)	70 (7.7)	912 (100.0)
2020년	59 (8.3)	43 (6.0)	215 (30.1)	86 (12.0)	32 (4.5)	44 (6.2)	33 (4.6)	50 (7.0)	20 (2.8)	33 (4.6)	15 (2.1)	7 (1.)	40 (5.6)	38 (5.3)	715 (100.0)
고령 (65세 이상)	-	-	-	1 (33.3)	-	1 (33.3)	-	-	-	-	-	-	1 (33.3)	-	3 (100.0)
성인 (20세 이상)	14 (2.6)	9 (1.7)	209 (38.9)	77 (14.3)	19 (3.5)	31 (5.8)	30 (5.6)	34 (6.3)	13 (2.4)	27 (5.0)	12 (2.2)	7 (1.3)	33 (6.1)	22 (4.1)	537 (100.0)
청소년 (19세- 14세)	13 (15.9)	6 (7.3)	4 (4.9)	7 (8.5)	13 (15.9)	8 (9.8)	2 (2.4)	11 (13.4)	3 (3.7)	5 (6.1)	3 (3.7)	0	3 (3.7)	4 (4.9)	82 (100.0)
어린이 (13세- 8세)	17 (33.3)	18 (35.3)	-	-	-	3 (5.9)	1 (2.0)	4 (7.8)	2 (3.9)	1 (2.0)	-	-	3 (5.9)	2 (3.9)	51 (100.0)
유아 (7세 이하)	11 (47.8)	9 (39.1)	-	-	-	-	-	-	-	2 (8.7)	-	-	-	1 (4.3)	23 (100.0)
미상	4 (21.1)	1 (5.3)	2 (10.5)	1 (5.3)	-	1 (5.3)	-	1 (5.3)	-	-	-	-	-	9 (47.4)	19 (100.0)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20년 상담을 의뢰받은 피해자를 상담소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중복표기 하였으며 심리·정서 지원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법적 지원이 395건으로 많았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진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타 단체로 연계하여 좀 더 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거나 직접 연계한 경우이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 경우를 나타낸다.

표 8 피해자 지원내용(중복)

<단위: 건(%)>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쉼터연계	기관연계	기타	전체지원수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관련 상담					
395 (55.2)	8 (1.1)	31 (4.3)	465 (65.0)	-	102 (14.3)	5 (0.7)	715 (140.7)
	39 (5.5)						

2020 성문화운동팀 활동 보고

전체 활동 슬로건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보다 사업계획과 분배를 잘 하여 여유 시간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시의적절하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었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우리의 운동이 더 잘 보이게 잘 들리게 했음. - 재충전 휴가를 사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긴급한 일정에 밀려 휴가를 필요한 때 적절하게 사용하지는 못했음.
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1월 국제교류협력으로 다녀온 영국, 맨섬, 아일랜드 사례를 연대단체 구성원, 전문가 집단, 연구자, 언론 등에 소개했고, 한국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운동에 참고했음. - 코로나19로 인해 제64차 CSW에 참여하지 못했음. 젠더와개발(GAD) 교육 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국제적 맥락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과 배움을 이어감.
팀 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담소가 발행해온 자료를 활용·확산한다 2. 연대활동이 성폭력과 어떻게 연관되고, 상담소가 왜 참여하는지 알린다 3.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성장한다 	

총평

- <피해와 생계 사이> 자료집을 발간하고, <보통의 연대> 릴레이 인터뷰 연재를 마무리하고, <단톡방 십계명>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기존에 상담소가 발행해온 자료를 활용·확산했으며,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자료집,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번역 자료집 등 새로운 자료도 제작·배포했음.
- 이슈대응을 적시에 기민하게 잘 했고, 상담소의 관점을 언어화하여 널리 알렸음.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등 연대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운동은 올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냄
-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등이 새로이 발의되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개정 시한을 앞두고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지는 등 인권 운동의 중요한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시의적절하게 활동했음.
- 각 연대사업이 성폭력과 연결되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성명/논평, 토론회, 인터뷰 등을 통해 공유했음.
- 이슈별로 다양한 연대활동에 참여했으나, 상담소가 먼저 제안하거나 주도하면서 상담소의 활동으로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 상담소의 활동이 연대활동의 일환으로만 치부되지 않도록 상담소의 관점과 언어

를 더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함.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오픈채팅, 화상회의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회원소모임, 자원활동신청자OT, 집담회 등을 진행했고, 그동안 지역/시간 등의 문제로 만나지 못했던 더 많은 사람과 연대할 기회를 만들었음.
- 집담회 패널 및 참여자,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강사 및 참여자, 각 연대활동 구성원, 회원소모임, 자원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언어를 나누고 몸의 변화를 만들며 역량을 강화했음

목표1. 성폭력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담소가 발행해온 자료를 활용·확산한다

1-1.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 모니터링

- 배경/필요성: 2006-2007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2015-2017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사업’ 등은 그동안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배제해온 법과 판결을 분석·비판해왔음. 2018년 미투 운동 전후로 성폭력 관련 판례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성폭력 관련 법의 기본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없음’으로 개정하기 위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음.
- 목표:
 - 성폭력 생존자와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이 참고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한국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성폭력 판결을 정리·기록하고 자료화함.
 -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 ‘동의’란 무얼 의미하는지 대중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
- 방법 및 계획:
 -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2> 발간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 모니터링, 필요 시 이슈대응 활동으로 연결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사무국과 협업)
- 진행내용:

구분	진행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2> 발간	미진행
법·정책·판례 모니터링, 필요 시 이슈대응 활동으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판례, 언론보도, 공포·시행법령, SNS 등 상시 모니터링 및 필요시 단호한시선, 이슈대응 집담회 등 활동으로 연계 - 전국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후보 상시 기록·공유 - 성폭력 관련 법 개정에 대응 <p>1) 단호한 시선 #2020_05_19_오늘부터 #자기촬영물_비동의유포_처벌 #불법촬영물_소지구입저장시청_처벌 #촬영물이용_협박강요_처벌 (5/19) *1-3. 여성주의 관점의 이슈대응 참조</p> <p>2) 개정법 검토 :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일시 : 2020년 5월 20일 13시 30분-16시 30분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참석자 : 상근활동가 14명</p>

구분	진행									
	<p>3) 개정법 검토 :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일시 : 2020년 6월 17일 13시 30분-16시 30분 장소 : 상근활동가 14명</p> <p>4) 이슈대응 집담회 :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부처 제목 : 16세 미만의 '동의' 부제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 일시 : 2020년 6월 4일 14시-17시 장소 : 온라인 생중계 *1-3. 여성주의 관점의 이슈대응 참조</p>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사무국 평가 1-1 참조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내용</th></tr> <tr> <td>회의</td><td> <p>전체회의(2/6, 3/31, 4/28, 5/26, 6/18, 7/7, 8/18, 9/15, 10/15, 11/16) #call21st 기획팀 회의(4/8, 4/28, 7/31, 8/14, 10/13, 10/29, 11/13)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간담회(7/8)</p> </td></tr> <tr> <td>총선 대응 call21st 프로젝트</td><td> <p>플랫폼 : https://call21st.works/ - 널채움, 세도우핀즈와 협업 진행 - 1,430명(지역구-1,118명/비례-312명)의 국회의원 후보대상 설문 167,398번의 질문과 206명의 응답, -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강간죄 개정에 찬성한 당선자 45명</p> </td></tr> <tr> <td>성명/논평/카드뉴스</td><td> <p>- 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 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처”(논평+카드뉴스) - 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논평) - 4/2 call21st 오픈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카드뉴스+보도자료) - 4/6 call21st 2차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카드뉴스) - 4/14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후보 194명 누구?”(보도자료) - 4/14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카드뉴스) - 5/29 강간죄 개정에 동의한 국회의원 45명에게 당선 축하증 발송 - 8/1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의 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처” (논평+카드뉴스)</p> </td></tr> <tr> <td>강간 판결 분석</td><td> <p>- 2018.07.01.-2020.06.30.(2년) 강간 판결 중 ‘무죄’& ‘파기’ 키워드가 포함된 판결서 52건 분석·요약·정리 - 한겨레 기고(발행 예정) -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강간 판결 사례 검색·아카이</p> </td></tr> </table>	구분	내용	회의	<p>전체회의(2/6, 3/31, 4/28, 5/26, 6/18, 7/7, 8/18, 9/15, 10/15, 11/16) #call21st 기획팀 회의(4/8, 4/28, 7/31, 8/14, 10/13, 10/29, 11/13)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간담회(7/8)</p>	총선 대응 call21st 프로젝트	<p>플랫폼 : https://call21st.works/ - 널채움, 세도우핀즈와 협업 진행 - 1,430명(지역구-1,118명/비례-312명)의 국회의원 후보대상 설문 167,398번의 질문과 206명의 응답, -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강간죄 개정에 찬성한 당선자 45명</p>	성명/논평/카드뉴스	<p>- 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 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처”(논평+카드뉴스) - 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논평) - 4/2 call21st 오픈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카드뉴스+보도자료) - 4/6 call21st 2차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카드뉴스) - 4/14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후보 194명 누구?”(보도자료) - 4/14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카드뉴스) - 5/29 강간죄 개정에 동의한 국회의원 45명에게 당선 축하증 발송 - 8/1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의 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처” (논평+카드뉴스)</p>	강간 판결 분석
구분	내용									
회의	<p>전체회의(2/6, 3/31, 4/28, 5/26, 6/18, 7/7, 8/18, 9/15, 10/15, 11/16) #call21st 기획팀 회의(4/8, 4/28, 7/31, 8/14, 10/13, 10/29, 11/13)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간담회(7/8)</p>									
총선 대응 call21st 프로젝트	<p>플랫폼 : https://call21st.works/ - 널채움, 세도우핀즈와 협업 진행 - 1,430명(지역구-1,118명/비례-312명)의 국회의원 후보대상 설문 167,398번의 질문과 206명의 응답, -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강간죄 개정에 찬성한 당선자 45명</p>									
성명/논평/카드뉴스	<p>- 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 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처”(논평+카드뉴스) - 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논평) - 4/2 call21st 오픈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카드뉴스+보도자료) - 4/6 call21st 2차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카드뉴스) - 4/14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후보 194명 누구?”(보도자료) - 4/14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카드뉴스) - 5/29 강간죄 개정에 동의한 국회의원 45명에게 당선 축하증 발송 - 8/1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의 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처” (논평+카드뉴스)</p>									
강간 판결 분석	<p>- 2018.07.01.-2020.06.30.(2년) 강간 판결 중 ‘무죄’& ‘파기’ 키워드가 포함된 판결서 52건 분석·요약·정리 - 한겨레 기고(발행 예정) -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강간 판결 사례 검색·아카이</p>									

구분	진행	
		빙
	캠페인 게임 제작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널채움의 협업 진행 - 강간죄 ‘폭행·협박’ 구성요건의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 게임 제작 기획·준비 중

• 평가: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를 모니터링하며 시의적절하게 이슈대응 활동으로 연결했음. 특히 상반기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성폭력 관련 법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개정되었는데, 대중적으로는 개정법이 공포·시행된 직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했고, 내부적으로는 활동가 전원이 각 개정법을 구법과 비교·검토하여 성폭력 상담 지원 과정에서 변화한 점과 향후 예상되는 쟁점을 확인했음.
-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상황에 부쳐, 다양한 관점으로 ‘동의’에 관해 톺아보고 토론하는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음. 자세한 평가는 1-3. 이슈대응 사업 참조.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주요한 실무를 맡아 수행했음. 4.15 총선 기간에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세도우핀즈가 협업으로 진행한 #call21st 프로젝트팀에서 콘텐츠 기획, 자료 아카이브, 중간 소통 역할 등을 했고,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로는 정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입법 발의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음. 자세한 평가는 사무국 평가 1-1. 참조.
- 하반기에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2>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강간죄’ 개정 캠페인, ‘낙태죄’ 관련 정부 및 국회 개정안 모니터링·대응, 집시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대응 등 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부득이 추진하지 못하였음. 관련 사업은 향후 다시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자료집이라는 형태로 발간하기보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검색 및 업데이트 가능한 공유·아카이빙 방법을 모색할 것을 추천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1-2.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 배경/필요성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2006년 시작한 이래로 그 필요성은 계속 있어왔음. 성폭력 통념과 젠더 규범이 몸을 통해 작동하고 있으며 ‘몸’을 바꾸는 여성주의 대항운동이자 성폭력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고 체화하는 훈련이기 때문임.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경험과 자료, 형성해온 지도자 네트워크를 통해 ‘일회적 체험’에 그치지 않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한편 2017 단편영화 <아이캔디펜스>, 2018 단행본 <미친놈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이회림), 연재기사 <최하란 No woman No cry> 등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자기방어훈련 콘텐츠가 많아졌다. 동시에 여전히 여성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운동 종목은 젠더화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이에 자유롭게 무술 도장이나 자기방어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찾기 쉽지 않음. 상담소만의 특성화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2019년은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한 해였음. 2018년부터 이어져온 미투운동에 이어서 화장실 버스 등 일상 속 불법촬영,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 등을 통해 일상에 만연한 성폭력을 재확인 하였고 수사재판부는 성폭력 통념으로 인해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벌하지 못했고 피해를 구제하지 못했음. 또한 미투운동으로 정당한 법적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장학선 사건 등에 있어서는 아무 변화도 없었으며 연이은 여성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은 많은 여성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남겼음.

2019년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에서 생존자의 일상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생존자들의 싸움

은 법정에서만, 사건해결과정에서만 그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한 일상에서 생존자들이 일상을 둘러싼 무기력, 불안, 고립감 등을 몸 훈련을 통해 해소하고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 위험과 안전을 재사고하고 안전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계기, 능동적으로 문제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몸 프로그램이 필요함.

(핵심 키워드: 성폭력, 생존자, 일상, 활기, 움직임, 체력강화)

• 목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피해 생존자의 일상의 변화를 모색하고 역량 강화함.

• 방법 및 계획:

- 성폭력 생존자를 참여 대상으로 15~20인 모집
- 매 회 다른 주제 및 상황별 워크숍을 8회 진행 (5-6월)
- 주 강사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제에 따라 다른 강사진을 통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
- 마무리 캠프 1회 진행 (9월)
- 자원활동, 인턴이 프로그램 실무 보조로 1인 참여

• 진행내용

1) 8회기 프로그램 <일상 대응 연습>

- 강사 섭외

: 일상의 여성폭력에 대응한다는 주제에 맞는 외부강사 6인, 내부강사 1인의 구성의 새로운 강사진 섭외
 : 박은지 (『여자는 체력』 저자), 이회림 『미친놈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저자, 박신영 『제가 왜 참아야 하죠?』 저자, 움직임교육연구소 변화의월담, 남성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정혜선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오매 (본 상담소 부소장), 김신아 (본 상담소 활동가)

-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홍보하여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싶은 여성을 12명 모집하였으며 활동가 4인과 자원활동가 1인 총 17인 훈련을 참여했으며 1명이 중도 취소하였음. 12명 중 11명이 응답한 사전 조사를 보면 참가자의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3명, 40대 3명이며 자기방어훈련 경험이 있는 참가자는 4명이고 자기방어훈련 참가 경험이 없는 참가자는 7명이었음.

- 강의 구성 및 진행

: 내용 구성, 강의 장소 답사, 세팅 등을 위하여 강사들과 사전 회의를 1회 진행하였음.

: 참가자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음. 참가자 사전 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욕구와 기대를 파악하였고 참가자 피드백 설문을 통해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등을 파악하여 강의 흐름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음.

- 코로나 방역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실내 체육시설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방역 지침을 마련하였음, 대면 수업 불가능할 시에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플랜B를 미리 계획한 후에 강사 및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

회차	강사 (*내부)	내용	인원(내부)
1회 기초 훈련1	박은지	- 일시 및 장소: 6/13(토) 14-17, 프롬더바디 - 오리엔테이션(8주 목표 및 그라운드를 정하기) - 폼롤러 마사지 및 몸 풀기 - 자기방어훈련 이론 수업	16(5)
2회 기초 훈련2	박은지	- 일시 및 장소: 6/20(토) 14-17, 프롬더바디 - 자기방어훈련의 원리 - 실습(상대에 손 힘 전달하기, 고함치기, 손목빼기,	15(4)

		벽에 간헐할때 빠져나오기, 기본 태세 배우기, 발차기)	
3회 여성주의 자기방 어훈련과 나	오매*	- 일시 및 장소: 6/27(토) 14-17, 한국성폭력상담소 - 반성폭력운동에서의 자기방어훈련의 역사 - 모듬활동(몸에 대해 말하기 6X6, 신체접촉 대응 등)	13(5)
4회 상황 대응1 _주거지 침입 및 공격	이회림	- 일시 및 장소: 7/4(토) 14-17, 한국성폭력상담소 - 시뮬레이션(골목 및 주차장 추행, 집밖에서 훔쳐보기, 집안침입)	15(4)
5회 상황 대응2_ 길거리 괴롭힘	박은지	- 일시 및 장소: 7/11(토) 14-17, 프롬더바디 - 이론 복습(자기/방어/훈련) - 대응 시나리오 만들기 - 기본 태세 복습, 몸 크게 만들기 등	14(5)
6회 파쿠르	움직임 교육연구소 변화의월담	- 일시 및 장소: 7/25(토) 14-17, 한국성폭력상담소 - 각종 소도구(공, 미트, 젠가) 활용하고 상대와 협력하여 다양한 움직임 해보기 - 몸의 리듬과 확장성 활용하기	12(3)
7회 상황 대응3_일 상에서 참지 않 기	박신영	- 일시 및 장소: 8/1(토) 14-17, 한국성폭력상담소 - 대응할 때의 원칙 등에 대한 강의, 거울보고 웃지 않고 대응하는 말 연습하기, 대응하기 전 스스로 거는 주문 만들어 보기 등	10(3)
8회 상황 대응4_ 법제도 활용하기	남성아, 정혜선	- 일시 및 장소: 8/8(토) 14-17, 한국성폭력상담소 - 여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사법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제도 강의와 Q&A 집담회.	12(3)
수료식	김신아*	- 일시 및 장소: 8/8(토) 17-18,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료식 진행	11(3)

• 참가자 평가

- 목표정하기, 그라운드룰정하기, 코로나19대응안내 등을 통해 훈련장을 안전하게 세팅할 때, 그리고 강사가 수업시 훈련 계획 안내, 참가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 진행, 충분한 원업과 활발한 모듬 활동 등이 있을 때, 수업의 내용이 <일상대응연습>이라는 주제와의 호응도가 높을 때 만족도가 높았음.
- 갑작스러운 모델 머킹 시뮬레이션이 진행 될 때, 충분한 안내와 참여 여부 선택에 대한 설명이 안된 신체접촉 활동이 진행될 때, 휴식시간이 없고 실기 및 모듬 활동 시간이 짧을 때, 강사의 수업이 <일상대응연습>과 어떻게 조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아쉽다고 평가했음.

2. 주짓수 투데이 클래스 <MY GROUND>

- : <일상 대응 연습> 8회기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와 활동가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자기 방어'의 실전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축구 클래스를 주짓수 클래스로 변경하였음.
- : 여성의 신체역량강화 및 자기방어훈련에 관심을 가져온 '여성을 위한 스포츠 플랫폼 위밋업스포츠'에 강의를 의뢰하였음.
- :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하여 참가자 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등 참가자 간 거리두기를 하고, 2회기 연달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감염 발생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회차	강사	일시	내용	인원(내부)
1회차	위밋업스포츠 (이은미, 박가영)	11/21(토) 오후 4-6시 시금호와이어주짓수	몸 체크, 스트레칭 및 몸풀기 게임 주짓수 기본 동작 쉬림프 등 배우기 무릎치기 게임, 마무리 스트레칭	10(2)
2회차	위 밋 업 스포츠 (이은미, 박가영)	11/21(일) 오후 4-6시 시금호와이어주짓수	몸 체크, 스트레칭 및 몸풀기 게임 1회차 배운 동작 응용하여 상대방과 겨루기 마무리 스트레칭	8(3)

• 참가자 평가

- 전반적으로 '훈련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목표 및 핵심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다' '훈련 도구가 적절했다' '상담소의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이 적절했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에 다수가 응답하였다. 훈련장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자유로웠다', '지지받았다', '편안했다', '협력적이었다', '안전했다', '존중받았다', '평등했다', '용기가 생겼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음.
- 몸을 쓰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데에 두려움이 적어졌고,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에서 힘이 났고, 자기방어훈련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지속적으로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 평가:

- (총평) 코로나19상황에서도 감염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조치 취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여성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신체적/비신체적 대응력을 높이는 장을 마렸하였음. 새로운 주제와 강사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시대적 분위기에 조응하고자 하였으며, 상담소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강사의 관점과 철학, 상담소 관점에 대한 이해, 상담소와 협업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수업의 효과성과 참가자 만족도가 달라지므로 강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단단하게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강사의 강의를 파악한 후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여성들이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방어훈련 콘텐츠가 여전히 적지만 복싱이나 태권도 등을 하는 여성들도 늘어감에 따라 상담소의 특성을 훈련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일상의 여/성폭력에 대응한다'는 컨셉에 따라 기존에 함께하던 강사진이 아니라 관련 대중서를 발행한 새로운 강사진을 섭외하고, 신체훈련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매 회 강사진을 다르게 하여 회차별 주제에 특화된 강의 내용을 구성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음.
- 자기방어훈련과 주짓수 클래스 모두 처음 접해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일 뿐 몸의 차이의 폭이 컸음. 다리 수술 후 장애가 있는 참가자, 허리디스크가 있지만 새롭게 운동을 시작해보고 싶은 참가자, 주짓수를 해본 참가자, 근력 운동을 하는 참가자, 거의 하지 않는 참가자 등 신체 기능에도 차이가 있었고 각 강의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음. 앞으로는 이러한 몸의 차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었다. 디스크가 있는 신청자의 주짓수 수업 참여에 대해 고민할 때 참가자의 몸 상태에 대한 강사의 의견을 반영하였는데, 강사가 '초보자 중에서는 자신이 어떤 질환을 가져서 아픈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신청자의 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음.
- 세부사업인 8회기 <일상 대응 연습>의 경우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해당 상황에 대한 대응이 여성의 일상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그에 맞는 수업내용을 사전 모임 1회에 완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사전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회 강사가 다르고 강의 스타일을 처음 접하다보니,

강의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지점이 있었음. 예상보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실습이 적고 이론이 많았음. 강의마다 부족한 지점은 서로 다른 강의에서 보완이 되었으나 유기적이지는 않았음.

- 세부사업인 주짓수 투데이 클래스 <MY GROUND>의 경우 단지 주짓수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강사분들이 마음열기 워크숍, 몸풀기 게임 등을 통해 2시간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였고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성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었음. 이를 통해 '그라운드에서 몸의 대응력을 탐색하고 높여보고 혼자보다는 함께 여/성폭력에 맞서는 힘을 기른다'는 목표가 적절히 수행되었음.

1-3. 여성주의 관점의 이슈 대응

- 배경/필요성 : 성폭력은 성별규범과 가부장적 성문화, 권력관계가 사회구조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구조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함.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행위나 사건만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가 성평등하게 변화해야 함.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변화는 성폭력만 제거된 사회가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조건이 함께 만들어진 사회임.
- 목표: 시시각각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반성폭력 현장 단체로서의 경험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속해서 알림으로써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감.
- 방법 및 계획:
 - 단호한 시선 : 한국성폭력상담소 단독 성명/논평, 카드뉴스 등으로 법제도, 사건 등 성문화와 관련된 새롭거나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슈들을 다룸.
 - 연대 성명 및 논평 : 여성/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성명 및 논평에 연명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카이빙하고 알림.
 - 온/오프라인 이슈 대응 활동 : (특히 성폭력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이나 토론이 필요한 이슈가 있을 시에는 상황에 따라 캠페인, 기자회견, 퍼포먼스, 긴급집담회 등을 추진함.
- 진행내용:

1) 단호한 시선

월	구분	제목	작성	참여	1/13 15:00 기준
1월	단호한시선	노콘노출마(콘돔 거부하는 자, 출마 거절한다) : 왜 콘돔 사용은 정치적 과제인가? (1/30)	성문화팀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16,496 참여 2,427 공유 110 공감등 796
				트위터	리트윗 85 마음 33
				홈페이지	조회수 745
2월	단호한시선	우리는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꾼다 (2/6)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43,411 참여 7,345 공유 358 공감등 2,286
				트위터	리트윗 1,039 마음 509
				홈페이지	조회수 2,305
	단호한시선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동참해주세요! (2/10)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2,933 참여 383 공유 12 공감등 100
				트위터	리트윗 63

	단호한시선	“페미니스트를 고용해서 죄송합니다”? #게임계_내_사상검증OUT (2/12)	성문화팀		마음 18
				홈페이지	조회수 1006
				페이스북	도달 5,967 참여 608 공유 27 공감등 244
				트위터	리트윗 1,174 마음 192
				홈페이지	조회수 2,612
3월	단호한시선	수십 명의 참여자 중 기소는 단 1명, 그것도 '약식명령'? (3/24)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4,374 참여 508 공유 44 공감등 239
				트위터	리트윗 50 마음 15
				홈페이지	조회수 717
4월	단호한시선	해일이 몰려오는데 여성에게 돌맹이나 던지고 있는가? 해일인 우리는 '성평등'에 표를 던질 것이다. (4/3)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2,332 참여 259 공유 10 공감등 113
				트위터	리트윗 158 마음 68
				홈페이지	조회수 810
5월	단호한시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 (5/8)	열린터	페이스북	도달 2,193 참여 178 공유 23 공감 103
				트위터	리트윗 62 마음 25
				홈페이지	조회수 725
	단호한시선	진지한 반성은 '반성문'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 (5/15)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3,776 참여 347 공유 38 공감등 214
				트위터	리트윗 48 마음 22
				홈페이지	조회수 749
	공지	#2020_05_19_오늘부터 #자기촬영물_비동의유포_처벌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저장시청_처벌 #촬영물이용_협박 강요_처벌 (5/19)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10,226 참여 1,103 공유 109 공감등 500
				트위터	리트윗 48 마음 23
				홈페이지	조회수 1,072
6월	추모논평	고 손영미 활동가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6/9)	사무국	페이스북	도달 8,931 참여 1,160 공유 67 공감등 385
				트위터	리트윗 234 마음 143

	단호한시선	#때가왔다_차별금지법 - 21대 국회는 지체 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6/30)	성문화팀	홈페이지	조회수 549
				페이스북	도달 3,934 참여 326 공유 17 공감등 198
				트위터	리트윗 42 마음 13
				홈페이지	조회수 368
7월	단호한시선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 장례에 반대한다 (7/10)	사무국	페이스북	도달 24,679 참여 3,547 공유 202 공감등 1,490
				트위터	리트윗 912 마음 245
				홈페이지	조회수 5,024
8월	단호한시선	통제에서 보장으로,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권고를 환영하며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1,404 참여 55 공유 6 공감등 33
				트위터	리트윗 4 마음 7
				홈페이지	조회수 331
	단호한시선	속아서 ‘동의’한 성행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 9436 판결을 환영하며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8,647 참여 1,141 공유 98 공감등 415
				트위터	리트윗 62 마음 28
				홈페이지	조회수 1,072
9월	카드뉴스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10가지 팁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8,370 참여 968 공유 61 공감등 256
				트위터	리트윗 103 마음 51
				홈페이지	조회수 350
10월	의견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1,507 참여 123 공유 5 공감등 50
				트위터	리트윗 4 마음 5
				홈페이지	조회수 779
11월	의견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성문화팀	페이스북	도달 740 참여 25 공유 0 공감등 17
				트위터	리트윗 3 마음 4
				홈페이지	조회수 747

12 월	단호한시선	이제 우리는 '조두순'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성폭력 가해자를 이야기해야 한다	사무국	페이스북	도달 14,342 참여 1,449 공유 111 공감등 732
				트위터	리트윗 24 마음 4
				홈페이지	조회수 713

2) 이슈대응 집담회

구분	진행											
이슈대응 집담회 : 의제 강간 연령 상향에 부쳐 <16세 미만의 '동의'>	<p>이슈대응 집담회 :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부쳐 제목 : 16세 미만의 '동의' 부제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 일시 : 2020년 6월 4일 14~17시 장소 : 온라인(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방법 : ZOOM(PPT, 현장영상)과 웨어타이핑(문자통역)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목적 : 기존 논의에서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쟁점을 다각도에서 되짚어보고, '동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더 풍부하게 알린다. 기획의도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집담회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찬성 vs 반대'라는 협소한 논의를 넘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는 어떻게 고려되고 반영돼야 할지, 청소년(또는 비청소년)이 적극적 합의를 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동의'의 조건이 무엇인지, 비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성착취·성폭력·학대를 근절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p> <p>참여인원 : - 온라인 참여자 약 300명(추산) (사전신청자 총 391명, 최대 동시접속자 219명, 언론 5명) - 사회자 및 발표자 5명(상근활동가 1명 포함) - 문자통역사 1명 - 현장 스태프 10명(상근활동가 6명, 자원활동가 2명(짚레, 주현)) - 현장 참여자 2명</p> <p>홍보 : 자원활동가 유경빈님의 재능기부로 웹포스터·자료집 표지 제작</p>											
	<table border="1"> <thead> <tr> <th>날짜</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2020.05.20.</td><td>홈페이지, SNS 게시</td></tr> <tr> <td>2020.06.01.</td><td>뉴스레터 발송</td></tr> <tr> <td>2020.06.02.</td><td>사전신청자 참가방법 안내 메일 1차 발송</td></tr> <tr> <td>2020.06.04.</td><td>(행사 전) 사전신청자 참여 링크 문자 및 참가방법 안내 메일 발송 (행사 중) 페이스북 현장 발언 요약문 게시, 참가방법 안내 방법 게시, 참가 링크 게시 (행사 후) 사전신청자 참가자 만족도 조사 링크 게시</td></tr> <tr> <td>2020.07.24.</td><td>자료집 발간 홍보</td></tr> </tbody> </table>	날짜	내용	2020.05.20.	홈페이지, SNS 게시	2020.06.01.	뉴스레터 발송	2020.06.02.	사전신청자 참가방법 안내 메일 1차 발송	2020.06.04.	(행사 전) 사전신청자 참여 링크 문자 및 참가방법 안내 메일 발송 (행사 중) 페이스북 현장 발언 요약문 게시, 참가방법 안내 방법 게시, 참가 링크 게시 (행사 후) 사전신청자 참가자 만족도 조사 링크 게시	2020.07.24.
날짜	내용											
2020.05.20.	홈페이지, SNS 게시											
2020.06.01.	뉴스레터 발송											
2020.06.02.	사전신청자 참가방법 안내 메일 1차 발송											
2020.06.04.	(행사 전) 사전신청자 참여 링크 문자 및 참가방법 안내 메일 발송 (행사 중) 페이스북 현장 발언 요약문 게시, 참가방법 안내 방법 게시, 참가 링크 게시 (행사 후) 사전신청자 참가자 만족도 조사 링크 게시											
2020.07.24.	자료집 발간 홍보											

구분	진행			
	보도 :			
	날짜	언론사	제목	링크
	2020.06.17.	일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	http://m.ildaro.com/8760
	2020.06.08.	비마이너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황과 함께 사라진 청소년의 '동의 능력'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754&thread=04r05
	2020.06.04.	프레스이안	'의제강간', 13세 미만에서 16세로 올리면 끝인가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041830531408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평가:

1) 단호한 시선

- 매월 1~3회 “단호한 시선”을 발표하면서 각각의 이슈에 관한 상담소의 입장을 시의성 있게 밝혔음. 상담소 활동가들의 지향 또는 고민을 언어로 기록하고 대중과 공유한 결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조회수로 널리 공유되었고 회원과 연대자로부터 다양한 경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음. 2월에 발표한 “우리는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꾼다”는 동명의 출판 서적에 수록·발간되었음.
- 모든 활동가가 언론, SNS, 회원 소통 등을 통해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성문화운동팀을 중심으로 대응할 이슈를 선정하고 있음. 대응할 필요성과 여유 시간이 있는 경우 성문화운동팀 업무회의를 통해 초벌 토론을 진행하고, 담당자를 정해 초안을 작성한 후, 토론 및 퇴고 과정을 거쳐 단호한 시선 최종본을 확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업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음.
- 2020년에 발표한 단호한 시선 총 18회 중 1회는 열림터, 3회는 사무국에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모든 활동가가 검토 과정에 참여하여 원고의 완성도를 높였음.

2) 이슈대응 집담회

- 사업계획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회를 추진했음. 당초에는 정부의 n번방 대책 발표에 부처 집담회 기획을 하였으나, 법 개정·시행 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의제강간 연령상향 이후 집담회를 진행하게 됐음. 집담회 기획 이후에도 다양한 연대체, 성문화센터 등을 통해 토론의 필요성을 확인했음.
-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대책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집담회를 통해 연령 기준 보호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작업을 했음. ‘동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소리와 사례, 생생한 정보를 공유했음. 이를 통해 ‘동의’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담론의 폭과 깊이를 확장했음. 각 발표가 예정보다 길어져 토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
- 첫 온라인 중계를 시도한 데 의미가 있었음. 온라인 중계를 위해 3회 이상 준비 회의 및 ZOOM 실험, 리허설 등을 진행했음. 처음 진행해보는 온라인 중계임에도 활동가 간 소통과 협업이 잘 이뤄져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음. 그러나 전문 장비가 없는 현실에서 모든 참여자가 만족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진행하기는 어려웠음.
- 오프라인 행사에 비해 참여자 인원과 지역 측면에서 접근성이 확장되고, 장소대관비, 다과비 등이 불필요

해 행사 규모 대비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었음. 온라인 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해달라는 수요를 확인했음

1-4. [피해와 생계 사이, 성폭력을 말하다] 단행본 출간

- 배경/필요성 : 2019년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는 피해 생존자가 마주한 ‘생계’와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며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 구조와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과 맥락을 알렸음. 이 때 생소한 이야기를 대중적인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성폭력에 대한 관점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목표: <피해와 생계 사이>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확산
- 방법 및 계획:
 - 성폭력, 여성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출판사 선정
 - 집담회 출연자들의 ‘안전한 말하기’가 될 수 있도록 계약, 편집, 홍보 등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
 - 출간시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
- 진행내용 :

구분	진행
피해와 생계 사이 자료집 제작	5/13 자료집 디자인 완료 5/22 인쇄 완료 <목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가며 • 노동은 비정규, 성희롱은 정규? • 지도받을 권리, 지배받지 않을 권리 • 성폭력, 말할 수 있을까? • 성폭력과 싸우는 데 내가 들인 비용 • 성폭력 이후, 나의 일상 찾기 • 연속집담회 스케치 기사로 만나기 </div> 8/12~19 자료집 신청 홍보 8/20~26 자료집 발송
피해와 생계 사이 단행본 제작	미진행

- <피해와 생계 사이 성폭력을 말하다> 자료집 총 150부 제작하여 패널 17명에게 34부, 신청자 50명에게 50부 발송 완료, 상근자 16부 배포

• 평가:

- 제작 및 발송 기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집담회 진행 시점과 자료집 배포 시점에 차이가 크게 나서 아쉬웠지만 패널과 활동가들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었음.
- 신청자들은 신청이유에 ‘여성주의 상담을 공부 중’ ‘단체활동가로서 활동에 참고’ ‘청소년활동가들과 함께 읽고자’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 세미나 자료로 읽고자’ ‘성교육강사로서 참여자들과 잘 만나고자’ ‘연극계 내 성폭력 문제 고민을 이어가고자’ ‘공부하고 싶어서’ ‘연구에 참가하고자’ ‘나의 경험과 비슷해서’ ‘피해 경험에 공감, 위안, 치유 받고자’ ‘집담회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 갔음’ 등을 작성해주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곳에 자료집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음. 남은 자료집은 유관기관, 활동가, 연구자 등 해당 자료가 유용하게 쓰일 곳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임.
- 단행본 제작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현실성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자료집 제작 및 배포 일정과 조율이 되지 않았음. 추후 단행본 제작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1-5. 성폭력 주변인 릴레이 인터뷰 [보통의 연대] 연재

- 배경/필요성 : 성폭력 주변인 릴레이 인터뷰 <보통의 연대>는 2019년 <의심에서 지지로> 프로젝트 중 대중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과 함께 진행되었고, 약 40여 명의 성폭력 주변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 또는 영상 콘텐츠로 편집하여 2019년 7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연재하고 있음. 2020년 상반기까지 남은 연재분을 꾸준히 게시하고, '성폭력 주변인' 개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하고자 함.
- 목표: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경험과 역할, 고민을 나누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해야 하는 주체임을 느끼도록 함.
- 방법 및 계획:
 - <보통의 연대> 릴레이 인터뷰 연재(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게시 및 SNS,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 <보통의 연대> 체크리스트 및 워크시트 활용-배포
- 진행내용:

구분	진행			
<보통의 연대> 릴레이 인터뷰 연재	연재 기간 : 2019년 7월 31일~2020년 4월 16일			
	연재 방법 : 텍스트(35회)/영상(7회)			
	인터뷰 참여자 : 37명(36명분 연재, 1명 활용 동의 철회)			
	게시일	제목	참여자	형식
	1/2	021. 성폭력, 인간으로서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는 장미의 인터뷰	장미	기사
	1/8	022. 공동체 내 성폭력 나만 몰랐던 이유, 너 무 마초적이어서? K의 인터뷰	K	기사
	1/16	023. 인간은 권력이 생기는 순간 다른 인격이 된다? 권력 다루는 교육이 필요해! 무열의 인터뷰	무열	기사
	1/30	024. 피해자의 편을 들어 싸웠지만…… 나중에는 후회했다는 햇님의 인터뷰	햇님	기사
	2/6	025. '설마'라고 웃어넘겼던 기억들……지금 생각해보면 성폭력, 놀보의 인터뷰	놀보	기사/영상
	2/13	026.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는 태운의 인터뷰	태운	기사
	2/20	027. 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관심 갖고 이슈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웅의 인터뷰	영웅	기사
	2/27	028. 반성폭력 운동, 뭘 더 열심히 했어야 친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로로의 인터뷰	로로	기사
	3/5	029. “언론의 힘 무시할 수 없더라”, “반페미니즘 진영만의 문제 아니야” H와 J의 인터뷰	H, J (2인)	기사
	3/12	030. 기사 댓글을 보면 아직도 피해자탓……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주희의 인터뷰	주희	기사
	3/19	031. “학부모도 페미니즘 공부하면 좋겠다” 딸과 아들을 키우는 에버그린의 인터뷰	에버그린	기사
	3/26	032. “가해자를 두둔하는 주변인은 가해자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해” 익명의 직장인의 인터뷰	익명의 직장인	기사
	4/2	033. 대학에서 상담자 겸 성희롱·성폭력 신고	나난	기사

구분	진행														
		담당자로 일했던 나만의 인터뷰													
	4/8	034. 생존자이자 주변인, 보통의 연대에 응답하고 싶은 해달의 인터뷰	해달	기사											
	4/16	035.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으로 활동하며 내가 깨달은 것들, 다희의 인터뷰	다희	기사/영상											
2020 온라인 플리마켓	기간 : 2020년 10월 5일~10월 25일														
	구성 :														
	1) 의지로 패키지(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보통의연대 보드게임, 보통의연대 체크리스트, 적극적 합의 안내 카드) 12,000원														
	2) 보통의연대 패키지(보통의연대 보드게임, 보통의연대 체크리스트, 적극적 합의 안내 카드) 7,000원														
	3) 키팅 15,000원														
	4) 우편비 3,000원														
	신청자 : 30명(입금자 29명)														
	<table><tr><th>구분</th><th>총 신청 개수</th><th>실제 발송 개수</th></tr><tr><td>의지로 패키지</td><td>23</td><td>23</td></tr><tr><td>보통의 연대 패키지</td><td>25</td><td>18</td></tr><tr><td>키팅</td><td>4</td><td>4</td></tr></table>				구분	총 신청 개수	실제 발송 개수	의지로 패키지	23	23	보통의 연대 패키지	25	18	키팅	4
구분	총 신청 개수	실제 발송 개수													
의지로 패키지	23	23													
보통의 연대 패키지	25	18													
키팅	4	4													

• 평가:

- 2020년에는 <보통의 연대> 21회부터 35회까지 총 15편의 인터뷰(텍스트 15회, 영상 2회)를 주 1회 연재했음. 각 인터뷰 내용은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던 2019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이 사전 검토를 해주었고,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중 6편은 자원활동가 째레님이 편집해주었음. 협업과 소통이 잘 이뤄진 덕분에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연재를 마칠 수 있었지만, <보통의 연대>를 대중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피해자의 가족, 직장동료, 친구뿐만 아니라 대학 내 인권센터 종사자, 기자, 예술가, 장애인권운동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성폭력이 '특수하고 예외적인'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영향을 받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렸음.
- 성폭력 피해자도 생존자이자 주변인으로서 인터뷰에 참여해, '성폭력 주변인'은 피해자를 타자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두이며 상호 교차하는 정체성임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음.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참여한 인터뷰에는 피해자 간 관계와 소통에 대한 고민, 다른 피해자에게 느끼는 연대감 또는 소외감 등도 이야기되어 '성폭력 주변인'에 관한 상상과 논의의 지평을 넓혔음.
-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보통의 연대> 워크시트를 수정·보완하여 보드게임 세트를 디자인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여성대회 부스 운영이 취소되면서 배포 계획이 무산되었음.
- 온라인 플리마켓 형태로 2020년에 제작한 의지로 Q&A, 성폭력 주변인 체크리스트 재고와 새로 제작하는 리워드(보통의연대 보드게임, 적극적합의 명함 등)를 알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군즈 제작비를 마련했음. 의지로Q&A는 재고 부족으로 80부 한정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PDF를 공개한 영향인지 예상보다 신청이 많지는 않았으나, 개인 신청 외에 성평등 강사, 성폭력 상담지원기관 등에서 자료를 다수 신청하기도 했음.
- 보통의연대 보드게임판의 경우 예상보다 종이 값이 높고, 십자접지를 위한 도무송 후가공으로 오히려 종이 값이 터지는 파본이 다수 발견됐음. 향후 추가 제작할 시 종이 재질과 두께, 후가공 선택에 더 유의해야 할 것임.

목표2. 연대활동이 성폭력과 어떻게 연관되고, 상담소가 왜 참여하는지 알린다

2-1. 여성 인권 연대활동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배경/필요성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부터 28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에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 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곱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정부 여전히 2015한일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합의의 상징인 화해·치유재단이 2019년에 공식 해산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점으로 정기 수요시위를 연 1회 주관함으로써, 일본군 성노예제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폭력의 역사이자 끝나지 않은 문제임을 밝히고, 특히 ‘전시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제기함.
- 방법 및 계획: 제142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 김채연, 박민아 인턴활동가(씨티-경희 NGO인턴십) 주도의 기획 및 실무
- 진행내용 :

구분	진행														
제1426차 수요시위	제142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오후 12-13시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사회 : 민아(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table><tr><td>여는 공연</td><td>〈바위처럼〉 한국성폭력상담소(달별, 목련, 순유, 신아, 오매, 채연, 파이)</td></tr><tr><td>경과보고</td><td>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td></tr><tr><td>할머니의 삶 소개</td><td>〈이남이(훈) 할머니의 삶〉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td></tr><tr><td>참가단체 소개</td><td></td></tr><tr><td>참가자 자유발언</td><td>채연(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td></tr><tr><td>문화공연</td><td>〈One Billion Rising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감미, 마이라, 신아, 앞, 에리, 유랑)</td></tr><tr><td>성명서 낭독</td><td>〈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부터〉 낙타, 앞(한국성폭력상담소)</td></tr></table>	여는 공연	〈바위처럼〉 한국성폭력상담소(달별, 목련, 순유, 신아, 오매, 채연, 파이)	경과보고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할머니의 삶 소개	〈이남이(훈) 할머니의 삶〉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참가단체 소개		참가자 자유발언	채연(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문화공연	〈One Billion Rising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감미, 마이라, 신아, 앞, 에리, 유랑)	성명서 낭독	〈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부터〉 낙타, 앞(한국성폭력상담소)
	여는 공연	〈바위처럼〉 한국성폭력상담소(달별, 목련, 순유, 신아, 오매, 채연, 파이)													
	경과보고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할머니의 삶 소개	〈이남이(훈) 할머니의 삶〉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참가단체 소개														
	참가자 자유발언	채연(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문화공연	〈One Billion Rising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감미, 마이라, 신아, 앞, 에리, 유랑)													
	성명서 낭독	〈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부터〉 낙타, 앞(한국성폭력상담소)													
	주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평가:
- 전시 성폭력이 통제 불가능한 범죄가 아니라 ‘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통제되거나 수행되는 전쟁 도구로서의 범죄임을 알리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조직화, 제도화된 ‘전시 성폭력’ 문제로 비판했음. 이러한

- 주제와 문제의식을 성명서, 집회 제목 및 내용, 슬로건, 홍보물, 공연, 발언 등을 통해 드러냈음. 전시 성폭력이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되는 문제임을 잘 알렸음.
- 성명서와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수동적이고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여성인권평화운동가로서 전쟁과 전시 성폭력에 반대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해온 주체임을 강조했다. 기존 수요시위와 달리 피해자를 ‘할머니’가 아니라 ‘여성인권평화운동가’로 호명하여 피해자이자 운동가임을 더 명확히 드러냈음.
 - 인턴활동가가 기획부터 실무까지 함께 진행하였으며, 집회 당일 사회와 자유발언을 맡았음. 사전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제1424차 수요시위를 답사하고 전시 성폭력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공유하는 등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의미를 체감·재확인했음.
 - 모든 활동가들이 골고루 역할분담을 하여, 여는 공연 <바위처럼>과 문화공연 <One Billion Rising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를 선보였음. <바위처럼>은 현수막 퍼포먼스를 통해 “STOP! 전시성폭력”이라는 구호를 참여자들에게 더 눈에 띄게 보여주었음. <One Billion Rising>은 매년 2월 14일 전후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춤을 추는 국제 공동행동을 알리고 함께하는 의미도 있었음.
 - 상담소 활동가뿐 아니라 로스쿨 실무수습생, 열린터 생활인 등도 수요시위에 참여했고, 상담소 홍보물을 보고 온 회원, 내담자, 자원활동가도 함께했음. 예상보다 내부 참가인원이 늘어나고 우비 구입 등 예기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당초 예산을 초과했음. 앞으로는 식사비 외의 재료비, 교통비도 고려하여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하반기에는 개소 이후 정기적으로 수요시위를 주관해 온 단체로서 상담소가 그동안 수요시위 관련 사업을 비판적 성찰 없이 의례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은 아닌지 상근활동가들이 함께 지난 활동을 정리·평가하고 앞으로 수요시위 관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이후 평가 내용은 정의기억연대에도 전달하였음

2)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여성대회

- 배경/필요성
 - :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로 전세계 여성들이 연대하는 날로서 한국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관으로 1985년부터 한국여성대회를 진행하여 왔음.
 - : 2019년 기자 단톡방 사건, 교대 학생 단톡방, 남성 연예인 단톡방 사건 등 소위 단톡방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메신저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문제화되었기에, 단톡방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성폭력 문화에 대응하고 반성폭력 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 ‘단톡방 불편냥’과 ‘단톡방 십계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2019년 보통의 연대 사업을 통해 ‘성폭력 주변인’의 지지적 역할을 강조하고 반성폭력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주변인 체크리스트, 워크시트를 만들었으며 이를 더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여성단체로서 연대의식을 확인하며 여성인권운동의 가치를 확산함.
- 방법 및 계획:
 - 컨셉은 ‘상담소 참고대방출’로, 2019년 만들어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확산
 - <단톡방 십계명> 포스터, <주변인 워크시트>, <의지로 Q&A자료집>, <키링>을 판매
 - <불편냥 이모티콘>을 홍보하고 <주변인 체크리스트>를 확산
- 진행내용:

구분	진행
온라인 캠페인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 이대로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SNS 발언대: 3.8 말

구분	진행
	하기>
논평 발행	[입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회 금지!? 상담소 활동은?
0부터 시작하는 단톡방 십계명 스티커 제작 및 배포	<p>- 한국여성대회 굿즈 참고 대방출 컨셉의 부스에서 배포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면서 온라인으로 배포함. 4/24 단톡방 십계명 스티커 신청 및 홍보 5/23 발송 <스티커 내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0. 음담패설을 사생활로 변명하지 마세요. 1. 타인을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2. 소수자의 정체성은 개그소재가 아니에요. 3.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캐지 마세요. 4. 성폭력 불법촬영물을 시청, 공유하지 마세요. 5. 차별, 혐오, 폭력에 함께 대응해요. 6. 타인의 외모를 폄평하지 마세요. 7. 파트너와의 성생활 떠벌리지 마세요. 8. 성구매 경험과 정보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9. 내가 한 말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10. 우리 모두는 단톡방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p> </div>
제 36회 한국여성대회 참여	<p>1/22 1차 기획실행위 회의 2/6 2차 기획실행위 회의 3/30 3.8 한국여성대회 온라인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3/7 예정되어 있던 <한국여성대회> 연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함.</p> <p><온라인 한국여성대회 내용> - 슬로건: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 핵심메시지: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성별임금격차 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 행사 내용: (사회자)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최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시상) 성평등 걸림돌-디딤돌,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 (축하공연) 페미니스트 레퍼 슬릭, 페미니스트 가수 신승은, 페미니스트 무용가 박정희</p>

◎ 단톡방 십계명 스티커

- 1000부 제작 (파란색 500부, 보라색 500부)
- 총 28건 배송 (파란색 182부, 보라색 224부)
- 100부 신청한 곳 : 전교조 서울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남은 스티커 : 신규 회원 예우 굿즈, 홈페이지 자료 등록 예정

◎ SNS발언대 (공개 게시물, 검색일 7.28)

- 페이스북 2회
- 인스타그램 12회

• 평가:

-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여성대회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부스 운영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음.

- ‘광장에 모이지 못해도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여러 단체에서 온라인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음.
- 단톡방 십계명 스티커는 기업, 단체, 대학에서 이미지 활용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 대량으로 주문하는 곳이 많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굿즈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2-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운동

- 배경/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0년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연대체 활동, 2012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6년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 공동주최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음. 2017년에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연대체를 발족하고,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폐지를 전면적으로 주장하면서,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노동, 장애, 성소수자,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낙태죄 폐지’라는 의제를 확산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만들어왔음. 마침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선고하였음.
- 목표: 입법 모니터링 및 대응을 통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제공·상담·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함. 또한, 꾸준한 대중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임신중지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사회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감.
- 방법 및 계획: 연대활동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입법 모니터링 및 적극적 의견 개진(주요 의제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유산유도제 도입, 급여화, 의료인 교육·훈련, 포괄적 성교육 등)
- 시의성 있는 이슈 대응 및 대중 인식 개선 활동
-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 구축, 입법 이후의 의료서비스제공·상담·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장 마련
- 참고할 만한 해외 입법에 공유 등
- 진행내용:
-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구분	진행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위원회 회의(1/30, 2/14, 3/17, 3/26, 5/15, 6/9, 7/1, 9/22, 10/6, 11/2, 11/23, 12/4) - 전체회의(2/17, 5/28, 8/18, 10/14, 11/12, 12/10, 12/24) - 공동집행위원장 회의(4/29, 6/5, 6/23, 8/13, 10/12, 11/11, 12/2)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응답하라0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 [카드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응답하라0411 - 3/8 [성명]“‘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 3/8~4/8 #응답하라0411 설문조사 :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http://bit.ly/3cBUxdg)>

구분	진행			
	질문	3월8일~4월8일, 총1,338명 응답		해설
	1.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	X 81.9% (1,101명)	O 19.1% (260명)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임신중지는 후유증이 없다.
	2.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O 78.3% (1,066명)	X 21.7% (295명)	임신중지 약물(유산유도제)은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한 안전한 필수약품이다.
	3. 임신중지 수술 혹은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된다.	X 88% (1,198명)	O 12% (163명)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은 미래의 가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 하면 임신중지가 만연하게 된다.	X 95.3% (1,297명)	O 4.7% (64명)	임신중지율의 증가는 임신 출산의 권리와 양육 과정을 가로막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 때문
	5. 다음 중 임신중지시술을 받은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장기적 후유증은?	정답 '없음' 87.1% (1,185명)	오답 '자궁암' 11.8% (160명) 오답 '유방암' 1.2% (16명)	건강상의 문제는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6. 다음 중 의학적으로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피임법은?	정답 '없음' 72% (980명)	오답 '경관수술' 22% (290명) 오답 '콘돔' 6% (82명)	100% 피임 성공률을 가진 피임법은 없다.
	7.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 제도와 절차를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O 92.7% (1,262명)	X 7.3% (99명)	전 세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증진을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이 필요하다.
응답자 : 총 1,338명				
총선 대응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 국회의원 후보 참여 독려 : 녹색당 고은영, 김기홍, 김혜미, 성지수 비례 후보 정의당 배복주 비례 후보 무소속 이가현 동대문갑 후보 참여 - 4/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공개 질의서 발송			
#응답하라0411 온라인 액션	- 4/6 카드뉴스 제작 및 해시태그 액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제목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일시 : 2020년 4월 10일(금)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사회 :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발언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권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주요 통계발표 및 21대 총선 모나페 공개 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 발표 ※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투표 퍼포먼스			
성명서 - 대법원 ‘제주의료원 간호사	- 5/4 “포기하지 않고 싸운 10년!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새 역사를 쓰다!”			

구분	진행
태아 산재' 인정 판결에 부쳐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 지공동행동 성명서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	- 6/1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 7/1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입법과 정책 방향에 관한 모두 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입장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 화 형법 개정 권고 안 환영 및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 8/21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제목 :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 라!" 일시 : 2020년 8월 24일(월) 11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온라인 중계) 사회 :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발언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안 환영 : 김민문정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 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성과재생산권리를 위한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 : 나 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 한센터 세어SHARE 대표) -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과제 1 : 김수정 (변호사, 낙태죄 위헌 청구인 공동 대리인단 단장) -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과제 2 :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모두를위한낙태 죄폐지공동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부 입법예고안 발표 전 사전 보도에 대한 대응	- 9/23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제목 :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일시 : 2020년 9월 28일(월) 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온라인 중계)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 :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발언 : - 대표발언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대표) -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진 행 취지와 선언문 발표: 박은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 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각계발언 : 김하나 전도사(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 섬돌향린교회), 진은선 활동가(장 애여성공감), 권수정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성

구분	진행
	미션 운영위원장(녹색당), 장혜경 정책위원장(사회변혁노동자당), 퍼포먼스: 피켓 액션 “청와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온라인 액션 제목: '낙태죄'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일시 : 2020년 9월 28일(월) 오후 12시, 오후 6시(2회) 장소 : 온라인 해시태그 : #낙태죄폐지가답이다 #끝날때까지_끝난게아니다 #처벌대신권리를 #우리의목소리를들여라 활동 영상 제작·홍보 제목: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주소 : https://youtu.be/f6aQZehxo3g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10/7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제목: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온라인 중계)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 : 박아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 소) 성명서 낭독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 퍼포먼스 : 지난 활동 피켓 전시 및 다잉 퍼포먼스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1인 시위	제목: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11월 16일(월) 평일 오후 12시-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10/12 한국성폭력상담소 앞, 채연 시위 - 10/23 한국성폭력상담소 세린, 승은 시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제목: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온라인 중계)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 : 박은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 가) 발언 : -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발언 대독 : 종교계에 보내는 메시지 :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 10/18 [의견서] “낙태죄 전면 폐지는 종교를 넘어선 시대적 요구” <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 선언(1,015명)>과 <낙태죄 폐지 촉구에 관한 의견> 정부·국회·종교계 전달
제21대 국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 10/13 [권인숙 의원 발의안 환영 논평]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구분	진행
개정안 발의 환영 논평	- 11/10 [정의당 발의안 환영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금 나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닷페이스 <걸어서 지구 속으로> 온라인 강의 라이브쇼	제목 : <걸어서 지구속으로 -낙태편-> with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프로그램 : 닷페이스 “THE SUMMER SHOW”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후 8시 주소 : 닷페이스 유튜브 https://youtu.be/FyIL7U3wWWs 패널 : 얍(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 한 센터 세어 SHARE)
‘낙태죄 전면 폐지’ 촉 구 국회 앞 기자회견	제목 :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사당 앞(온라인 중계)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 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대표 발언 :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 대) 각계 발언 : 최규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은지(시민건강연구소), 얍(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 국성폭력상담소) 퍼포먼스 : 피켓 퍼포먼스 - '낙태죄'를 전면 폐지했나? - 임신중지를 권리로 명시했나? - 국가가 권리 보장을 책임졌나? -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나? - 접근성을 낮추는 장벽은 없나?
‘낙태죄 전면 폐지’ 촉 구 국회 앞 1인 시위	제목 :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간 : 2020년 12월 1일(화)~12월 31일(목) 평일 오후 12시-1시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중로경찰서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대응	- 11/11 희망을만드는법 법률 자문 - 11/30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박한희, 서선영 변호사 선임 - 12/2 문설희, 박아름 경찰 출석 - 12/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중로경찰서 제출 - 12/29 중로경찰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송치
여성의 입에 재갈 물 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및 경찰조사규탄 릴레이 1인 시위	제목 :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12시 30분 장소 : 서울 중로경찰서 앞(온라인 중계) 주관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 사회 : 명숙(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 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김유미(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진보 연대), 이미경(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민문정(모

구분	진행
	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낭독 : 김지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녹색당) 종로경찰서 앞 릴레이 1인 시위 : 2020년 12월 2일(수) 1시-5시
'낙태죄' 폐지 촉구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 12/3 [공동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제목 :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9시-13시 장소 : 국회의사당 앞(온라인 중계)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 : 이지수(변혁당 여성사업팀장), 박은주(한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지윤(녹색당 정책팀장),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들) 모나페 성명 낭독 : 문설희, 앞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은주(정의당 국회의원), 이후 신청자 28명 자유발언으로 이어말하기 진행 (총 30명 발언)
'낙태죄' 폐지 촉구 온라인 액션	제목 :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위해 바로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방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문자/카톡/SNS로 '낙태죄' 폐지 촉구하는 메시지 보내기/댓글 달기 기간 : 2020년 12월 7일(월) - 2020년 12월 8일(화)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온라인액션	- 12/14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D-DAY 카운트다운 카드뉴스 연재 기간 : 2020년 12월 22일(화) - 2021년 1월 1일(금) 방법 : 1일 1카드뉴스 연재 "낙태죄 폐지까지 D-10, 9, 8, 7.....우리에게 필요한 건?" - 유산유도제를 공적 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의료인 교육·훈련 - 보건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마련 -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보장되는 노동조건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 피임접근권 강화 - 출생·양육·입양 등 관련 법·제도 개선 -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 해소 -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 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목 :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 과제 부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일시 : 2020년 12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온라인방식(ZOOM) *국회의원 권인숙 페이스북에서 중계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남인순·박주민·권인숙·류호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례)·이은주·장혜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구분	진행
	<p>주관 : 국회의원 권인숙</p> <p>○ 진행 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 인사말 <p>좌장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태죄 폐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2. 낙태죄 폐지 관련 국제적 흐름 :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 류민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3. 임신중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SHARE 기획운영위원) 4. 낙태죄 폐지 이후 성·재생산권 확장을 위한 입법과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p>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p> <p>김수경(민주노총 여성국장)</p> <p>이현숙(택틴내일 대표)</p> <p>조미경(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p> <p>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p> <p>이중규(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p> <p>채규한(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폐회
<p>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p>	<p>제목 :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p> <p>일시 : 2020년 12월 31일 오전 11시</p> <p>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p> <p>사회 :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p> <p>진행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경과보고 및 운동 방향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 운동 의의 : 제이(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3) 처벌대신 권리를!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법·정책 과제 :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4) 의료계 발언 : 울(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5) 종교계 발언 : 자캐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6) 청년 학생 발언 : 홍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전국학생행진)

구분	진행
	<p>7) 성명 발표 :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은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p> <p>8) 퍼포먼스</p> <p>※ 온라인 중계 ▶ 모낙페 공식 유튜브 채널 http://bit.ly/모낙페유튜브</p>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카운트다운 파티	<p>제목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카운트다운 파티</p> <p>일시 :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 2021년 1월 1일 오전 1시</p> <p>장소 : 카카오톡 오픈채팅</p> <p>참여 : 최대 접속자 약 250여 명</p> <p>진행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인사해요 - <낙태죄 폐지 이슈>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순간이 떠오르나요? - <낙태죄 없는 2021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나요? - <낙태죄 없는 2021년> 두구두구...카운트다운! - <낙태죄 없는 2021년> 문구를 포함한 인증샷 다 같이 올려요! - <낙태죄 없는 2021년> 새해 덕담 나누기!

2)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위한 입법 전략회의

구분	진행
회의	<p>구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p> <p>회의 : 6/12, 7/14, 8/4, 8/20, 8/28, 9/14</p>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p>제목 :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p> <p>기간 : 2020년 8월 14일(금)-9월 1일(화)</p> <p>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p> <p>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 9/11 [의견서]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장 전체 삭제를 촉구합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제출)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p>제목 :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p> <p>일시 : 2020년 9월 28일(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지면 광고, 보도자료 배포, 온라인 홍보 등

3) 기타

구분	진행
간담회	<p>1)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여성 영역 간담회</p> <p>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후 2시-5시</p> <p>장소 : 인권중심사람 한터</p> <p>주최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p> <p>2)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 의견 청취회</p>

구분	진행
	<p>일시 :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2시-5시</p> <p>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p> <p>주최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p>
토론	<p>1) 인구보건복지협회 성색식보건(SRHR) 2차 포럼</p> <p>일시 : 2020년 6월 19일(금) 오후 3시-6시</p> <p>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p> <p>주최 : 인구보건복지협회</p> <p>발제자 : 앓(성문화운동팀)</p> <p>발제 주제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임신중지 법정책 과제 - 영국, 맨섬,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p>
교육	<p>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교육</p> <p>일시 : 2020년 3월 25일 2시-3시</p> <p>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p> <p>발제자 : 앓(성문화운동팀)</p> <p>발제 주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운동 방향과 쟁점</p>
인터뷰	<p>1) <임신출산 상담체계구축방안 연구> FGI(포커스그룹인터뷰)</p> <p>일시 :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12시</p> <p>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p> <p>주최 : 보건복지부, KU마음건강연구소</p> <p>참여 : 앓(성문화운동팀)</p> <p>2) <한국 재생산건강체계 개선방안 연구: 임신중지를 중심으로> 성과재생산건강운동 활동가 심층면담</p> <p>일시 : 2020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p> <p>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p> <p>주최 : 시민건강연구소</p> <p>참석자 : 앓(성문화운동팀), 유랑(여성주의상담팀)</p>
영화제 토크, 연대 발언 등	<p>1) 몸 다양성 영화제 <2020 다다름필름파티></p> <p>일시 : 2020년 11월 8일(일) 오후 1시-5시</p> <p>장소 : 서울NPO지원센터</p> <p>주최 : 다다름네트워크</p> <p>참여 : 앓(성문화운동팀)</p> <p>주제 : 섹션3. #불법촬영 #임신중지</p> <p>2)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p> <p>일시 : 2020년 11월 15일(일) 오후 3시-4시 30분</p> <p>장소 : 신촌 유플렉스 앞</p> <p>주최 : 모두의페미니즘</p>
한국성폭력상담소 경 찰조사 규탄 1인 시위	<p>제목 :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여성이 만든 역사 외면 말고 낙태죄 전면 폐지!</p> <p>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3시-5시</p> <p>장소 : 서울 종로경찰서 앞, 보신각, 세종문화회관 계단, 헌법재판소 앞,</p> <p>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p>

구분	진행
	참여 : 남지민(자원활동가), 낙타, 달별, 박지희, 백목련, 수수, 오매, 유랑, 이 미경, 장주리, 최란, 파이

• 평가:

-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폐지됨. 헌법재판소가 2019헌바 127 결정으로 정한 개정시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음. 이로써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룬 국가가 되었음
- 2020년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를 존치하고 형법상 임신중지 허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상담의무, 숙려 기간, 의사의 진료거부 인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음. 이에 모낙페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각계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기자회견, 반대 의견서 제출 등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음. 그 과정에서 종로경찰서가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모낙페 공동집행위원장 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등 압력도 있었으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활동을 이어갔음. 오히려 상담소 자체적으로 경찰 조사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액션을 진행하면서 상근활동가 대부분이 참여하여 연대와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음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 부처, 정당 또는 국회의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 개정 과정에서 ‘낙태죄’ 폐지 및 권리보장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음. 이를 통해 권인숙 의원안,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등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 국회가 개정시한 내로 ‘낙태죄’ 폐지 법안을 의결하여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여성과 시민들이 정부 개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낙태죄’ 존치를 저지해온 결과임
- 상담소는 1월부터 담당자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집행위 운영, 재정 관리, 언론 인터뷰, 정부 부처와의 소통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입법 전략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간담회, 토론회, 인터뷰 등에도 참여하며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운동에 힘썼음
- 특히 2019년 11월 국제교류협력으로 다녀온 영국, 맨섬, 아일랜드 사례를 연대단체 구성원, 전문가 집단, 연구자, 언론 등에 소개함으로써 임신중지 비범죄화의 필요성과 쟁점별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의 법·정책 과제를 살폈고, 정부/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입체적으로 분석·비판했음. 하반기에는 닷페이스와 함께 2시간 30분 온라인 라이브 쇼를 진행해 대중과 실시간 소통하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이란 어떤 것인지 법 개정의 상상력을 넓혔음
- ‘낙태죄’ 헌법소원 대응부터 입법 개정 운동까지 활동 과정에서 상담소도 크게 성장했음. 특히 담당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활동 중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인신공격에 노출되는 등 위축되고 소진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NGO의 입법 개정 운동 전략, 효과, 필요성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역량이 강화되었고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음

2-3. 반차별운동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배경/필요성

-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경기 지역 성평등조례 개정 시도 등을 통해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 여성에 대한 채용 성차별, 익산시장에 의한 인종주의적 발언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인되었음.

- : 2018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차별금지법은 인권 기본법이자 이미 많은 국가에서 갖추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 되고 있음.
- : 2020 총선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유의미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내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 2019년 젠더이분법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을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와 같이 성별이분법에 벗어난 소수자를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들과 직접적인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음. 소수자 그룹의 경험이 단일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억압의 사유가 성별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반차별운동의 문제의식을 더 많은 주체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목표: 반차별 감수성 확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함.
- 방법 및 계획: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 진행내용:

구분	진행
총선대응	3/31 <모두가 평등한 선거를 위해!> 카드뉴스 발행 4/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위한 시민행동 안내서 발행 4/6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와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질의 및 답변 결과 공개
집행위원회 및 전체회의*	3/6 트랜스젠더 여대 등록 포기 사건이 남긴 사회적 과제와 차제연 운동단위들의 후속과제 및 운동전략 논의 3/26, 4/9, 4/23 차별금지법 쟁점검토워크숍 1~3차 5/20 21대 국회 대응 전략 회의 7/9 7~8월 차제연 집중행동 및 하반기 활동 계획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7/15 집행위원회 회의 8/14 집행위원회 회의 9/22 집행위원회 회의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불참) 12/2 집행위원회 긴급회의
비전찾기 워크숍*	7/5 비전찾기 워크숍 진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솔로건]</p> <p>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쓰는 법입니다. 존엄을 위한 약속이자 평등을 향한 나침반입니다.</p> <p>차별금지법은 서로의 동료가 되고자 하는 시민들의 평등역량을 높입니다. 차별을 알아채고 개입하며 평등한 관계를 실천하는 힘이 됩니다.</p> <p>차별금지법은 나중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차별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일상의 풍경을 바꾸고 모두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p> </div>
전략조직팀*	2/14 인권활동가대회 차별잇수다 진행 2/22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차별잇수다 자체 진행

구분	진행
	<p>3/3 움직이는 청소년 센터 Exit 차별잇수다 진행</p> <p>5/9 정의당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차별잇수다 진행</p> <p>7/11 인천여성민우회 차별잇수다 진행</p> <p>10/17,18 정의당 경기도당 기본교육, 11/6 평택평화센터에서 차별잇수다 진행</p> <p>11/19, 26, 12/3, 10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지하철 액션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p>
차별잇수다 분석 TF*	<p>3/27, 4/10, 5/8, 5/19, 5/26, 6/5, 6/12, 6/26 회의 진행</p> <p>- 차별잇수다 분석 자료집이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법안 발의 국면에 이르면서 실무 여력의 이유로 미뤄지고 있음.</p>
성명 및 논평	<p>1/07 정부는 유엔의 낙제점을 부끄러워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p> <p>1/22 성적으로 직업 차별, 직업으로 사람 차별, 이제 그 고리를 끊자 - 한 사 교육 강사의 발언 논란에 부쳐</p> <p>1/22 혐오표현의 해악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뉴스앤조이의 싸움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p> <p>1/23 육군은 부대원들의 지지와 응원에 응답하여 변희수 하사의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보장하라</p> <p>2/04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2020-02-04</p> <p>2/13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한다</p> <p>3/10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p> <p>3/17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 지키기가 아닌 혐오와 차별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p> <p>3/19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p> <p>6/1 21대 국회 인권의 척도는 차별금지법에 달려있다</p> <p>6/11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지지하며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한다</p> <p>6/16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p> <p>6/19 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p> <p>6/24 대세는 차별금지법</p> <p>6/26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한다</p> <p>6/29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p> <p>6/30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응답하라</p> <p>7/16 뿌리깊은 성차별 구조에 분노하며 피해자와 연대한다</p> <p>7/23 군산시의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p> <p>7/27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 의원실 테러에 부쳐</p> <p>8/29 [논평] 대통령의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p> <p>9/1 [논평]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여야는 모</p>

구분	진행
	<p>든 노력을 기울여라</p> <p>9/9 [논평]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 지자체의 지속적인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p> <p>9/9 [논평] 서울시의회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p> <p>9/15 혐오와 차별에 응답한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차별금지조례안 부결 규탄 성명 -</p> <p>10/29 [공동 성명]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p>
기자회견	<p>4/14 홍관표 교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시도 반대 인권단체 기자회견</p> <p>7/2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p> <p>7/15~3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여성계 7/24)</p> <p>11/11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 계획 발표</p> <p>11/17 민주당사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4대 종단(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도회</p>
대중 및 시민 사회 조직 활동	<p>8/18-8/29 전국 순회 평등 버스</p> <p>평등 정책 TF 토론회 및 자료집 발간</p>

* 상담소 실무 및 논의 참여 활동

• 평가:

-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안과 함께 국회 입법을 권고하였음. 20대 국회에서 발의 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88.5%가 찬성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87.7%가 찬성하고 있는 등 여론 조사는 나쁘지 않았으나 7월 7일로 마감되었던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이 넘었고 8월 2일로 마감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은 2만5천여명에 그쳤음
-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를 촉구해왔으나 시민사회 및 인권운동현장과 소통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규모 있는 집회 및 기자회견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 상담소에서는 전략조직팀 및 차별이수다분석TF 등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비전워크숍, 국민동의청원10만조직 활동,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문자액션 등을 진행했음. 법안쟁점워크숍, 집행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논의 과정에 최대한 참여하였으며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 참여 등을 통해 여성운동단체로서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 해왔음. 자체 반차별 액션으로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신입생 입학 취소 사건 이후로 논평, 토론회, 강의 등에 참여하면서 '교차성'에 대한 상담소의 언어를 생산하였음
- 올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전반적으로는, 전국 순회 평등버스, 지하철 액션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평등정책 TF 자료 발간 및 토론회 등 대중 및 시민사회 조직은 활발하였지만 국회 대응은 활발하게 드러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음.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상황, 국회 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배경/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8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연대체를 함께 발족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대응해왔음. 군형법 제92조의6(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은 사실상 동성 간 합의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사회적으로 동성에 혐오와 이성애 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고, 그동안 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자행하거나, 성폭력 가해자를 축소 처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왔음. 그동안 3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고(2002년, 2011년, 2016년), 2차례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2014년, 2017년)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로 이어지는 못하였음.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전후로 대중 여론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었으나, 2019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은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선고 의견 중 "동성에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는 표현을 주요 근거로 인용함으로써 여전히 군형법상 ‘추행죄’가 동성에 혐오·차별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현실을 드러냈음.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네 번째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공개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목표: 군형법상 ‘추행죄’가 어떻게 왜곡된 성문화·인식을 만들고 성소수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함
- 방법 및 계획: 연대 활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헌법재판소 모니터링 및 대응(군형법 제92조의6 위헌·폐지 촉구, 변호인단과의 긴밀한 소통 및 연대 등)
 - 국회 모니터링 및 대응(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예정)
 -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대중과 시민사회 연대·조직
- 진행내용:

구분	진행
회의	실무자 회의(1/15, 2/7, 3/20, 5/8, 6/15, 9/11, 10/14, 11/13)
인터뷰	1) <한국의 군 징병제가 국민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터뷰 일시 : 2020년 1월 10일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 이기준(미국 캘리포니아주 Pomona College 국제관계학과 학사 과정) 참석 : 앓(성문화운동팀)
간담회	1)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10대 정책 과제 총선대응 간담회 일시 : 2020년 2월 20일(목) 2시-5시 장소 : 인권재단사람 참석 : 앓(성문화운동팀)
교육	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교육 일시 : 2020년 3월 25일 3시-4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발제자 : 앓(성문화운동팀) 발제 주제 :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운동 방향과 쟁점
논평 - 수원지방법원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에 부쳐	2/21 수원지방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을 환영한다

구분	진행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아이디어 공모전	5/13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다' 릴레이 기고]③군대 내 성소수자 권리, 정치가 나서서 해결할 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131030001 (군성넷 기진) 5/18 [카드뉴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아이디어 : 군대 내 성소수자 권리, 정치가 나서서 해결할 때

• 평가:

-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전후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법률심판이 잇달아 제청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필 탄원서 쓰기 워크숍 <to 헌법재판소>를 기획했으나, 공개변론 여부 및 기일이 계속 미정이고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계획했던 일정이 잠정 보류되었음.
- 국회 입법청원 운동을 통해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으나, 두 번 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상황에서 다시금 입법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동안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운동이 헌법재판소 또는 국회의 결정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3) 서울퀴어문화축제

- 배경/필요성 :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되지 20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매 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역퀴어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혐오세력의 목소리와 제도권의 차별 또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함께 목소리 내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목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연대하고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와 상담소 활동을 전함.
- 방법 및 계획:
 - 서울퀴어문화축제 행진 피켓 등 메시지 제작하여 참여 및 온/오프라인에서 메시지 확산
 - 자원활동가 및 인턴 모집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군성넷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
- 진행내용:

구분	진행
닷페이스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	기간 : 2020년 6월 25(12일) 장소 : 온라인 방법 : 닷페이스 온라인 퀴어퍼레이드 사이트(https://pride.dotface.kr/main)를 활용하여 연대 이미지를 제작한 후 상담소 SNS에 연대의 말과 함께 게시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발간	제목 :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차례 : -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출처 : WCSAP, 『CONNECTIONS』, WINTER 2010, Volume X III, PAGE 8-10. 저자 : Michael Munson(FORGE 사무총장) 번역 : 김재원(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감수 :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구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10가지 팁 출처 : WCSAP, 『CONNECTIONS』, WINTER 2010, Volume X III, PAGE 10-13. 저자 : Michael Munson(FORGE 사무총장) 번역 : 김재원(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감수 :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간단한 팁 : 트랜스젠더 포함하기(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출처 : Quick Tips: Trans Inclusion (A guide for service providers) 저자 : FORGE 번역 :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감수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하기 출처 : PCAR, 『SERVING TRANSGENDER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2013. 저자 : Michael Munson(FORGE 사무총장) 번역 : 김재원(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감수 :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별첨] 카드뉴스 :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10가지 팁 출처 : WCSAP, 『CONNECTIONS』, WINTER 2010, Volume X III, PAGE 10-13. 저자 : Michael Munson(FORGE 사무총장) 재구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 평가:

- 서울퀴어문화축제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오프라인 행진에서 피켓 등 캠페인을 진행하려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 닷페이스에서 주관한 온라인 퀴어퍼레이드에 이미지를 자체 제작하여 참여하였음. 지난 단호한 시선 2월 논평 제목 <우리는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꾼다>를 현수막으로 제작하였으며 상담소는 성소수자와 연대하며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었음
- 서울퀴어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번역 자료집을 발간했음. 저자 마이클 먼슨의 동의를 받아, 총 4개 자료를 자원활동가와 상근활동가가 번역하고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의 감수를 받아 수록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한국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카드뉴스도 별첨했음. 자료집이 실질적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소 홈페이지와 SNS뿐 아니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내부적으로도 상근활동가들이 자료집 내용을 주제로 토론했으며 상담소의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음

2-4. 다양한 연대활동

- 배경/필요성 :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이슈를 대중과 공유하고 확산시킴.
- 목표: 성폭력과 성차별을 양산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연대함.
- 방법 및 계획:
- 진행내용:

구분	진행
----	----

구분	진행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p>5/22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 교육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가?' 제출</p> <p>6/5 서울시교육청 '서울형 성교육 매뉴얼 개발 추진에 대한 질의서' 제출</p> <p>6/18 교육부 답변</p> <p>6/19 서울시교육청 답변</p> <p>7/13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p> <p>논의 1) 교육부 질의서 답변 후속 대책 논의 2)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스터디</p> <p>7/27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리뷰 워크숍</p> <p>내용 1) 보도자료 검토 2)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발제</p> <p>8/3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리뷰 워크숍</p> <p>8/31 [성명]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p>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운동	<p>1)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운동</p> <p>일시 : 2020년 6월 1일~2020년 7월 7일</p> <p>방법 : 온라인</p> <p>참여 : 단체 98개(시민사회단체 34개, 정당 6개, 학생회 23개, 학생단체 35개), 개인 891명(대학생/대학원생/휴학생/수료생 624명, 시민 216명, 대학 교원/강사/직원 51명)</p> <p>2)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p> <p>일시 : 2020년 6월 5일(금) 오전 11시-12시</p> <p>장소 : 국회의사당 앞</p> <p>주최 :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기본소득당, 청년녹색당,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의전화, 사회변혁노동자당</p> <p>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예지(숙명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전윤정(계원예술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 - 송초롱(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지부) - 김혜린(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p>※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안 공표</p> <p>※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설문조사 결과 발표</p>

• 평가:

-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는 중간에 담당자가 백목련에서 김신아로 바뀌었으며 <포성넷>은 상반기에 네트워크 재정비 이후,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가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완전한 폐기와 유네스코 기준의 성교육 표준안 마련에 대해 요구하고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인 스터디를 진행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여가부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질의 및 성명 활동을 진행했음. 연대 활동 자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팔로우 하였음.
-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운동> 공동추진단체로 연명해, 2020

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입법요구안과 서명 링크를 홍보하여 목표 인원 1천 명을 달성했음. 사업계획에 여유 시간을 확보해준 덕분에 갑자기 받은 제안에도 기꺼이 연대하고 참여할 수 있었음.

목표3.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성장한다

3-1. 이메일 소식지 발송 및 관리

- 배경/필요성 :
- 목표: 회원과 이메일 소식지 구독자 및 유관기관에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상담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함.
- 방법 및 계획:
- 월 1회 이메일 소식지 발행(2019년 1월호~12월호, 총12회)
- 발송 대상 : 상담소/열린터 회원 및 구독자, 여성·시민사회단체, 성폭력상담소, 언론 등
- 발송 내용 : 주요 활동 홍보 및 이슈 전달
- 진행내용:
- 뉴스레터
- : 가장 상단에 있는 <광고>의 경우 신청/참여가능한 활동을 넣거나 주목해야할 내용(법정책 변화, 주요 성명, 중요한 이슈 및 의제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렇게 뛰고있습니다>의 경우 상담소와 열린터 블로그 포스팅을 모두 넣고 있음. <성명 및 논평>은 이미지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통일하되 상담소와 연대체에서 발행한 것은 색깔을 달리해 구분했고 연대체에서 발행한 성명 및 논평은 모두 넣지 않고 연관성이 높은 것 위주로 넣고 있음.

호수	발송일	제목	발송건수	오픈율	클릭률
2월호	1/31	여성인권운동에 연대하는 다섯 가지 방법	3,045	21.4%	3.3%
3월호	2/28	세계여성의날,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다	3,134	19.7%	4.0%
4월호	4/1	움츠러들지 않는 4월, 성착취 끝장내고 투표하러 간다!	3,244	20.0%	3.5%
5월호	4/29	뉴노멀 시대, 온라인 토론회 열 수 있을까요?	3,410	20.8%	5.3%
6월호	6/1	불법촬영물 이제부터 소자·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	3,462	23.4%	6.4%
7월호	7/1	#때가왔다_차별금지법, 남은 건 제정뿐!	3,802	22.4%	3.6%
8월호	7/31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시민에게 차별금지법을!	3,956	22.2%	4.6%
9월호	9/1	코로나19 확산 속, 상담소는 잘 지내요?	3,984	23.9%	5.9%
10월호	9/29	후퇴 아닌 진전을,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3,998	20.8%	2.6%
11월호	10/30	“뜨거운 마음, 큰 뜻으로 끝까지 함께”	4,018	19.8%	2.3%
12월호	12/02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4,056	21.8%	2.8%

- 뚝다!상담소 블로그

2월	<p>[후기] 2020년 29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p> <p>[후기]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p> <p>[후기] 제142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부터"</p> <p>[후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첫 번째 텀블벅, <의심에서 지지로 Q&A>, 성공적!</p> <p>[후기]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공동 판화 프로젝트</p> <p>[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2월 모임</p> <p>[후기] 동계공익법무실습 후기, "법은 피해자와 사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p> <p>[후기] 자원활동가 가림의 8개월 돌아보기</p> <p>[후기] 제 14기 경희-Citi NGO 인턴십 후기</p> <p>[후기]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_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방청</p>
3월	<p>[후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온라인' 한국여성대회 후기</p> <p>[후기]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p> <p>[후기] 회원소모임 내가 반한 언니, 영화 <작은 아씨들> 감상 (*스포 주의)</p>
4월	<p>[후기]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p> <p>[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 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권_보장</p> <p>[후기]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9주년 생일맞이 소풍(feat. 점심시간)</p> <p>[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4월 모임</p> <p>[후기] 새로운 관점으로 본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p> <p>[후기] 오뚱하고 긴밀했던 시간, 4월 또우리 모임</p> <p>[후기] 제4차세계여성심터대회 마지막 날 : 성폭력 가해를 사과한다는 것의 의미 & 우리가 당신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어요</p>
5월	<p>[후기] 내가반한언니 5월 모임 : 투지와 죄의식, '밀리언 달러 베이비'</p> <p>[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5월 모임</p> <p>[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첫 모임(2020년 5월) 후기</p>
6월	<p>[후기]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p> <p>[후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p> <p>[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6월 모임</p> <p>[후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p> <p>[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6월 모임</p> <p>[질문 모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진로탐색 편</p> <p>6월 활동가 인터뷰 :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1편</p> <p>6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2편</p> <p>성폭력 양형기준 변경 캠페인 6. 가족한테 성폭력을 저질러도 돈만 벌어오면 봐 준다고?</p>
7월	<p>[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7월 모임</p> <p>[후기]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p> <p>[후기]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p> <p>6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5편</p>

	6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4편 6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3편
8월	[후기]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하은 님의 후기 [후기]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채연 님의 후기 8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인생곡선 3 감이와 오매, 그리고 상담소 8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인생곡선 2 오매 편 8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인생곡선 1 감이 편 [후기] 국회,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후기] 2020 여름 로스쿨 실무수습을 마치며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7월 모임
9월	[후기] 일본에서 개최한 웨비나, 한국의 #미투운동 [후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9월 모임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8월 모임 [후기] 2020 성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 <조직 내 성폭력 사건지원자 역량강화교육: 흔들리던 성난 불이 우직한 등대가 되기 위해> 나눔터 86호 <생존자의 목소리②> 상처 입은 치유자 - BSH 나눔터 86호 <생존자의 목소리①> 목소리 - 지안 나눔터 85호 <생존자의 목소리④>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 - 정소담 나눔터 85호 <생존자의 목소리③> 이 세상의 별빛이 될 모두에게 - 별 나눔터 85호 <생존자의 목소리②> 반도 안 왔다는 말은 이제 그만! - 하루 나눔터 85호 <생존자의 목소리①> 내가 나로 살아가는 동안에 - 캐시 [2020 네마프 대안영화제] <생존자의 자리>가 영화제에!
10월	[후기] 여성주의상담팀 MT (캠핑에 도전하다) [후기]젠더와 개발 통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수료 [후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가정복귀와 시설 사이에 놓인 삶들' 포럼 [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후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후기]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후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9월 모임
11월	10월 활동가 인터뷰: 젠가! 편 [후기] 이 사건, 아직도 판결이 안 나왔다고? —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후기] 성폭력전담판사의 따뜻한 위로의 말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11월 모임 [후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후기] 내가반한연니 10월 모임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10월 모임
12월	[후기] 매초리는 안녕해요. [후기] 주짓수 투데이 클래스 <MY GROUND> [후기] 미투운동 '너머'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 -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 [후기]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청와대 앞 1인시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하철 액션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1, 2회 후기 [후기] 12/17 실체진실과 책임추구를 위한 토론회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p>[포토후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빔 퍼포먼스 액션</p> <p>[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11월 모임</p> <p>[후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주최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p> <p>[후기]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2020년 한해보내기~</p> <p>안녕하세요, 상담소 회원 김지은입니다</p> <p>[후기]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액션들</p> <p>[후기]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경찰조사한다고? - 활동가의 부당한 경찰소환에 대응하는 법</p> <p>[후기]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저자와의 낭독회 "이제는 우리가 말한다, 친족 성폭력"</p> <p>[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2월 모임</p> <p>[후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p> <p>[후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p> <p>[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p>
--	--------------------------------------------------------------------------------------------------------------------------------------------------------------------------------------------------------------------------------------------------------------------------------------------------------------------------------------------------------------------------------------------------------------------------------------------------------------------------------------------------------------------------------------------------------------------------------------------------------------------------------

• 평가:

- 이메일 소식지를 매 월 1일(휴일이면 전일)에 미루지 않고 발송하였음
- 이메일 소식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데이트 할 예정임. 스티비에서 제공하는 '클릭맵'을 보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와 버튼보다 <성명 및 논평> 부분에서는 사진을 클릭하는 경우가 많아, 버튼을 없애고 사진에 링크를 바로 삽입하는 방향으로 변경해도 좋겠음
- 추후 후원 관련 영상을 변경하여 후원을 더욱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목을 상담소가 주목하고 있는 의제, 변화, 이슈 등에 대해 적었을 때 오픈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앞으로도 제목 작성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활동 후기 업로드가 활동 직후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월에 가급적 작성하여 상담소 활동을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아카이브하고,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자원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음. 상담소 활동가들이 다 함께 하는 홍보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일부의 활동가만 후기를 쓰지 않도록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함
- 발송 플랫폼이 변경되면 그 전 이메일 소식지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pdf로 아카이빙 해놓을 필요가 있음

3-2. 나눔터 발간

- 배경/필요성 : 나눔터는 1991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개소 초기부터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임.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회원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음. 2010년 여름에 발행된 6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주기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회원소식지로서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했음. 2017년부터 신설한 '생존자의 목소리' 코너는 상담소가 만나는 성폭력 생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어 전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여성신문'에 전제되기도 하였음.
- 목표: 상담소의 활동을 기록·홍보하고,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에게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하며, 회원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회원 소통 증진을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 나눔터 85호, 86호 발간(발간시기 : 1월, 7월), 87호 발간 준비
 - : 기획 회의를 통한 내용 구성 및 필자 선정
 - : 원고 청탁 및 수합

: 편집 및 편집 디자인(외주 제작), 교정

: 발간 및 홍보, 발송-배포

: 반송분 처리

• 진행내용:

구분	진행		
나눔터 85호 발간	발간일 : 2020년 2월 20일(온라인 발행 2020년 3월 2일) 제작부수 : 1,400부 발송부수 : 871부		
	코너	내용	필진
	표지	열린터 25주년 후원의밤	-
	표지 안쪽	2019년 하반기에는...	감이
	목차		
	이렇게 활동했습 니다	①열린터 25주년 포럼과 후원의 밤 후기 ②첫 번째 텀블벅,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 집을 전국으로, 성공적! ③다시 서는 무대가 멀게만 보여 잠시 쉬어가는 후기 ④<보통의 연대> 성폭력과 나의 거리는 0m였다 ⑤'피해와 생계 사이' 연속집담회 다섯 번의 기록 -2019 페미시국광장 퍼포먼스 모아보기	①수수 ②달별 ③이산 ④서다희 ⑤신아
	뭔다!상담 소 (상반기)		감이
	2019 상담통계		상담팀
	생존자의 목소리	①내가 나로 살아가는 동안에 ②반도 안왔다는 말은 이제 그만 ③이 세상의 별빛이 될 모두에게 ④나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 ⑤투고(홍보)	①캐시 ②하루 ③별 ④정소담 ⑤담당자
	성문화읽기	다가올 2020 총선 - #2020여성출마프로젝트	백희원
	시골시골상 담소	①꿈같은 6개월 육아휴직을 마치면서 ②합정동 '맛집', KSVRC 런치타임을 소개합니다	①감이 ②파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회원 명단 후원방법 안내	달별&목 련
	훈훈한 기부	명단	감이
	뒷표지 안쪽	발간자료 소개 <의지로 Q&A>	
	뒷표지	<불편남> 홍보 및 QR코드	신아
디자인즈 나눔터 신/구 담당자 미팅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후 3시-5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석 : 추정희(디자인즈), 감이(여성주의상담팀), 신아(성문화운동팀),		

구분	진행		
나눔터 86호 발간	앞(성문화운동팀)		
	발간일 : 2020년 8월 13일(온라인 발행 2020년 8월 20일) 제작부수 : 1,500부 발송부수 : 1,115부		
	코너	내용	필진
	표지		
	표지 안쪽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법을 바꾸는 중!	앞
	목차		
	이렇게 활동했습니 다	①디지털 성폭력 이슈파이팅 : 텔레그램 성착취 사 건을 바라보며 ②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맞서는 감경후원 대응기 ③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현장 스 캐치 ④4.15 총선 대응 캠페인 <#call21st> 후기 ⑤토론회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후 기	①감이 ②달별 ③주현 ④테오즈 ⑤이미경
	뭔다!상담 소 (상반기)		
	열린터 다이어리 (상반기)	자립에 관하여	캐롤
	생존자의 목소리	①목소리 ②상처 입은 치유자 ③투고(홍보)	①지안 ②BHS ③앞
	성문화읽기	①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십억 명의 저항, ONE BILLION RISING ②존엄의 조건 : 정의연 사태에 부쳐 ③“영리한” 증언자와 “영리하게” 연대하기: 『증언협 오』를 읽고	①앞 ②오매 ③희음
	시끌시끌상 담소	①위기의 코로나19 시대, 활동가들은 어떻게 ‘활동’ 해? ②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해봤더 니.....	①백목련 ②유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회원 명단 후원방법 안내	앞
	훈훈한 기부	명단	앞
	뒷표지 안쪽	<피해와 생계 사이> 자료집 홍보	신아
	뒷표지	<단톡방 십계명>, 상담소 정보	

구분	진행		
나눔터 87호 발간 예정	- 1월 중 발행 예정		
	코너	내용	필진
	표지		
	표지 안쪽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법을 바꾸는 중!	없
	목차		
	이렇게 활동했습니 다	①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일상대응연습> 후기 ②선출직 정치인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대응 활동 현재와 과제 ③조직내 사건지원자 역량강화 교육 후기 ④낙태죄 폐지를 위한 정부 대응 활동 ⑤차별금지법 발의 국면을 지나며	①신희누 리 ②지리산 ③감이 ④얏 ⑤신아
	뭔다!상담 소		
	(하반기)상 담통계		
	열린터 다이어리 (상반기)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이야기 (가제)	토리
	생존자의 목소리	①True Survivor ②#미투	①WR ②이레
	성문화읽기	①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전시 <시간을 거스르다> 후기 ②친족성폭력 생존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툼블벅 펀딩 인터뷰 ③강간죄 개정안 발의한 류호정 의원 인터뷰	①아오리 ②신 아/ 유랑 ③오매
	시끌시끌상 담소	①활동가 인터뷰 후기 ②온라인 한해보내기 후기	①달별 ②수수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회원 명단 후원방법 안내	없
	훈훈한 기부	명단	없
	뒷표지 안쪽		신아
	뒷표지		

• 평가:

1) 나눔터 85호

- :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 생존자, 외부 기고 등 다양한 저자의 글이 실렸고, 각 저자를 특색있게 소개해 유머를 더했음. 2019년 상담통계를 비롯해 2019년 하반기 상담소의 주요 활동, 여러 생존자의 목소리, 활동가의 육아휴직 후기와 런치타임 소개까지 상담소의 일상을 풍성하게 담았다. 다섯 번의 연속집담회의 10회에 걸친 페미시국광장 소식은 QR코드와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알렸음
- : 84호에 이어 다시 후원회원 명단 누락자가 발견됐음. 쿼리 문제로 우편물 수신 거부 회원이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됨. 쿼리를 재정비하고 담당자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하반기 나눔터에는 전년도 상담통계를 수록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최근 상담동향을 직접 전하면서, 성폭력 상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원고 마감 기한과 상담통계 정리 및 배포 시기가 맞지 않

아 2017년과 2018년분이 누락되었음. 향후 정기적인 상담통계 수록을 위해 원고를 배정하였는데, 2019 상담통계 정리일정이 원고 취합 시기보다 늦어, 1차 원고 취합 후 추가 원고로 삽입할 수 있었음
향후에는 나눔터 기획 시부터 상담통계 일정을 사전에 해당팀에 공유 및 조율할 필요가 있다. 매년 상담 통계는 1월 말 이후에 나오는데, 나눔터 상반기 원고는 11월에 취합해 1월에 발행하는 일정이어서 발행 일정을 2월로 조율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2) 나눔터 86호

: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 생존자, 외부 기고 등 상담소와 만나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로 텔레그램 N번 방 사건, 가해자 감경 대응, 의제강간 연령 상향, 4.15 총선, 정의연 사안, 코로나19 대응 등 2020년 상반기의 주요 이슈와 상담소의 활동을 알차게 담았음

: 게재된 원고 수는 지난 호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호에는 <상담통계>가 없고 <생존자의 목소리> 원고가 줄어든 대신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성문화읽기> 등을 통한 이슈/의제별 원고가 늘어났다. 예기치 못한 원고 추가, 각 원고의 분량 증가, 후원회원 명단 보완 등으로 인해 전체 쪽수가 10쪽 증가했고, 디자인이즈 제안으로 86호부터 딱 제본으로 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적어 나눔터에 실을 사진 자료가 부족했다. 그 대신 카드뉴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

: 그동안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수록된 후원회원 명단에 누락자가 많아 회원 담당자와 소통하여 명단을 보완하였음. 86호에 수록된 기존 후원회원 명단은 지난 호 기존+신규 후원자 명단보다 약 119명 더 많음. 발송주소록 검토 과정에서도 회원 담당자와 협업이 있었다. 앞으로도 후원회원 명단 및 발송주소록 검토는 꼼꼼한 크로스체크가 필요함

3-3. 회원 참여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이 상담소를 보다 친근하게 여기고,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행사들을 소소하게 만들어, 상담소와의 접점을 늘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1) 회원 놀이터(연 2회)
 - 상반기 4월, 하반기 11월 진행
 - 2) 회원소모임(연중)

소모임명	성격	담당
페미니스트 아무말 대잔치	여성주의 수다 모임	얏
내가 반한 언니	페미니즘 콘텐츠 비평 모임	신아/달별
(전)상담자원활동가모임	전 상담자원활동가 친목 모임	상담팀
	2019년 집단상담 후속 책 읽기 모임	상담팀
	2019년 기본교육 후속 법정 모니터링 소모임	상담팀
	2019년 기본교육 후속 책 읽기 모임	상담팀

• 진행내용:

1) 회원놀이터

구분	진행
회원놀이터 <싸우는 여자>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공동 판화 프로젝트

구분	진행										
가 춤춘다, 공동 판화 프로젝트>	<p>일시 : 2020년 2월 15일(토) 오후 14-18시</p> <p>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p> <p>진행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4인)</p> <table border="1"> <tr> <th>진행 내용</th> <th>진행자</th> </tr> <tr> <td><이 공간의 약속> 함께 읽기</td> <td rowspan="2">앞(한국성폭력상담소)</td> </tr> <tr> <td>상담소 및 ONE BILLION RISING 캠페인 소개</td> </tr> <tr> <td>동아시아 에코토피아 및 공동 판화 프로젝트 소개</td> <td rowspan="2">동아시아 에코토피아</td> </tr> <tr> <td>각자 판화 그리고, 파고, 찍기</td> </tr> <tr> <td>마무리</td> <td>다 같이</td> </tr> </table> <p>- 주최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한국성폭력상담소</p> <p>참여 : 13명(사전신청 16명)</p> <p>: 후원회원 5명(활동가 2명, 기존 회원 2명, 당일 가입 1명)</p> <p>: 일반 참여자 및 열린터 생활인 8명</p>	진행 내용	진행자	<이 공간의 약속> 함께 읽기	앞(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소 및 ONE BILLION RISING 캠페인 소개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및 공동 판화 프로젝트 소개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각자 판화 그리고, 파고, 찍기	마무리	다 같이
	진행 내용	진행자									
	<이 공간의 약속> 함께 읽기	앞(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소 및 ONE BILLION RISING 캠페인 소개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및 공동 판화 프로젝트 소개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각자 판화 그리고, 파고, 찍기										
	마무리	다 같이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낭독회	<p>제목 : 이제는 우리가 말한다, 친족 성폭력</p> <p>부제 :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저자와의 낭독회</p> <p>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후 20-22시</p> <p>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온라인 중계)</p> <p>사회 : 앞(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p> <p>낭독 : 명아, 민지, 정인, 조제, 예원, 푸른나비, 희망(7명)</p> <p>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p> <p>참여 : 최대 동시 시청자수 80명, 총 채팅 메시지수 345개</p>									

2) 회원소모임

일자	내용	참석 인원	담당
여성주의 수다 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1/16	자유주제 : 종교, 미디어 속 여성폭력 재현, 여성 동업 등	7	앞
2/20	자유주제 : 코로나19,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포기,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	8	앞
4/16	자유주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폴리아모리, 성인콘텐츠 등	3	앞
5/21	자유주제 : 환경운동과 페미니즘, 똥똥한 사람 혐오, '건강' 담론과 자본주의, 성별과 성교육 등	3	앞
6/18	자유주제 : 먹거리, 주체적으로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여성에 대한 과잉 성애화 등	4	앞
7/3	자유주제 : 일상 속 차별,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등	4	앞
9/17	자유주제 : 페미니스트의 사회생활	3	앞
11/19	자유주제 : '낙태죄' 폐지, 집회·시위의 자유와 한계, 자본주의화된 법 등	5	앞
페미니즘 콘텐츠 비평 모임 <내가반한언니>			
1/22	2020년 첫 모임, 계획 세우기 및 신규회원 환영하기	7	신아, 달별

3/30	영화 <작은 아씨들> 개별 감상 및 온라인 후기 나눔	-	신아, 달별
4/17	애니메이션 영화 <물란> 감상 및 트랜스젠더 서사로 재해석	5	신아, 달별
5/15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감상 및 토론	5	신아, 달별
7/24	영화 <밤쉘> 감상 및 토론	8	신아, 달별
10/29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감상 및 토론	5	신아, 달별
법정지원모임 <매서운 눈초리>			
2/11	해군상관예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관련 토론	4	감이
4/14	텔레그램공대위 공판 모니터링 나눔	4	감이
5/12	새로운 소모임명 만들기 및 올해 계획 논의	4	감이
7/14	모니터링보고서 양식 검토	3	감이
8/11	신입회원(양금아) 인사	3	감이
11/11	공판 참관 일정 나눔	4	감이
자원활동가 소모임			
5/19	소모임 신설 기획회의	6	얏
7/7	주제별 스터디 : 디지털/사이버 성폭력, 성교육	6	얏
페미니즘 신간 읽기 소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4/28	밀레나 포포바(2019), 성적동의 : 김보화 발제	4	파이, 주리
5/26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람'(2019),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3호	8	파이, 주리
6/30	천관울 외(2020), 20대 남자	6	파이, 주리
7/28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9	파이, 주리
8/25	김은실, 권김현영, 김영옥, 김주희, 김현미, 민가영, 손희정, 신경아, 이현재, 장이정수, 전희경, 정희진, 최현숙(2020).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7	파이, 주리
9/22	정세랑(2020), 시선으로부터,	6	파이, 주리
10/27	김지은(2020), 김지은입니다	5	파이, 주리
11/24	윤이형(2020), 봉대 감기	6	파이, 주리

• 평가:

1) 회원놀이터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공동 판화 프로젝트>

- 매년 2월 14일 전후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춤을 추는 국제 공동행동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에 2년 연속 연대했음. <십억 명의 저항, 공동 판화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에코토피아가 작년 홍콩의 활동을 참고하여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공동주최 제안을 받고 5번째 순서로 워크숍을 진행했음.
- 회원놀이터의 일환으로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공동 판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판화'를 직접 그리고, 파고, 찍는 워크숍을 통해 회원/참여자들 주도로 참여하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음. 회원에게는 참가비를 받지 않아 소소한 회원 특전을 마련하였고, 열린터 생활인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했음.
- 인원수에 맞게 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판화 워크숍 특성상 부득이 참가인원을 최대 15명으로 한정했는데, 더 많은 회원들과 만나고 상담소와의 접점을 늘리고자 진행하는 회원놀이터의 목적에 비해 참여 인원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았음.
- 참여자마다 완성 속도가 다르다 보니 일찍 완성한 참여자는 먼저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순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음. 완성된 결과물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표구해 기념 액자로 제작했고, 내방자를 맞이하는 1층 공간에 게시했음.
- 하반기에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필진들과 낭독회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계획했던 일정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잠정 보류되었음.

2) 회원놀이터 <이제는 우리가 말한다, 친족 성폭력>

-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간한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홍보하고, 저자와의 낭독회를 통해 친족 성폭력 문제를 대중에게 알렸음.
- 온라인 공간에서 생존자 말하기의 장을 열어 성공적으로 진행했음. 유튜브 중계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성폭력 생존자와 회원/참여자간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다시보기 영상을 통해 행사 이후에도 전체 행사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했음. 특히 실시간 채팅은 생존자의 말하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즉각적인 공감과 연대의 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식의 말하기와 듣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이와 같은 경험은 향후 온라인 사업을 기획·진행할 때 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회원소모임

-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회원소모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능한 한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할 시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꾸준히 회원과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음.
- 성문화운동팀뿐만 아니라 사무국, 여성주의상담팀, 연구소 활동가가 회원소모임에 참여하여 회원 및 소모임 참여자가 상담소를 더 잘 이해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했음.
- 현재까지는 각 담당자가 회원소모임 진행 상황을 별도로 기록·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진행일정, 참여자,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하기 위해 '회원소모임 진행 상황 기록표'를 만들어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하였지만 작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4. 자원활동가 모집 및 소통과 연계

- 배경/필요성 : 자원활동가는 상담소 활동의 적극적인 지지자/참여자/동료이자 외부의 시선에서 피드백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중과 상담소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지속적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함으로써 자원활동가를 확대하고 잠재적 활동가 및 회원들과의 만남을 늘림.
- 목표: 자원활동가들이 반성폭력 활동 주체로서 상담소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홈페이지를 통한 자원활동 신청자를 중심으로 격월 1회(총5회) '자원활동 신청자 모임' 진행
- 프로젝트 및 일상 업무에서 자원활동가의 수요가 있거나, 활동을 신청하는 자원활동가가 있는 경우에 상 황과 필요에 맞게 연계
- 진행내용:

- 홈페이지와 이메일 통해 신규 자원활동가 25명 모집, 총 12명 활동 연계
-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자원활동신청자OT 6회 진행(2/7, 4/24, 4/27, 6/29, 10/6, 11/20)
- 자원활동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 자원활동가 소모임 신설

	활동	이름	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세 일정
1	일상지원업무	이 정 민 (짚레)	성문화운동팀 의지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업무													19/07/26.~20/08/26
2	사무국 공대위 백서 작업	김가림	연예기획사대표에 의한성폭력사건 및 이윤택사건공대위 활동의 백서 작업													19/07/26.~20/02/24. 20/07/24.~현재

3	재택근무	박성한	4.15 총선 후보자 연락처 리스트업														3/28.~3/30. * 성폭력 가해 자로 법정구속 사실 밝혀짐
4	재택근무	김현선	4.15 총선 후보자 연락처 리스트업														3/28~3/30.
5	재택근무	김재원	트랜스젠더 성폭력 피해자, 여성 간 성폭력 피해자 지 원을 위한 해외 자 료 영한 번역														5/18.~7/27
6	재택근무	유경빈	집담회 <16세 미 만의 '동의'> 웹포 스터 및 자료집 표 지 디자인														5/6.~5/20 6/16.~7/2
7	일상지원업무	이현영	팀별 OT 참여														7/3. *개인 사정으로 활동 중단
8	상시연대	김채연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 권조사 촉구 공동 행동 참여, '낙태죄' 입법예고 안 규탄 청와대 앞 1인 시위 참여														7/28 10/12.
9	일상지원업무	신유진	팀별 OT 참여														8/5 *개인 사정으로 활동 중단
10	재택근무	정은희	한해보내기 영상 주 편집														11/9~12/3
11	재택근무	이호찬	한해보내기 영상 부 편집(2020년활 동사진)														11/14~11/17
12	일상지원업무	남지민	30주년 맞이 설문 조사 결과 취합·정 리 등(예정)														12/2~현재

• 평가:

- 자원활동가와 더 잘 소통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자원활동가가 상담소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활동가 소모임을 신설했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화상회의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원활동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했음. 영/

- 한 번역, 디자인, 영상 편집 등 자원활동가가 재택근무로 함께하여 멋진 결과를 남긴 사례도 많았지만, 온라인 활동은 소속감을 키우기 어렵고 자원활동가들의 참여 동력이 떨어져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 그동안 정기 모임으로 오해받았던 '자원활동가 모임'을 '자원활동신청자 OT'로 변경하고, PPT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보강했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당초 사업계획처럼 정기적으로 자원활동신청자 OT를 진행했음.
 - 정기적으로 일상 지원 업무를 하기로 했던 자원활동가가 하루 만에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두 차례 반복되어, 자원활동가 연계 시 더 신중히 결정하시도록 안내하고 팀별 OT는 상근활동가들이 무리하지 않게 일정을 조정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예전에 일상 지원 업무를 했던 자원활동가가 개인 사정으로 쉬다가 상담소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드러내며 다시 자원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음.
 - 작년보다 자원활동가 신청자가 증가했지만, 실제로 상담소와 같이 활동할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임. 홈페이지를 통한 자원활동가 모집 시스템, 자원활동가와 소통·연대할 방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자원활동가 중 1인이 성폭력 가해자로 법정 구속된 사실이 밝혀지고, 자원활동 신청자 중 1인이 가해자로 추정되어 사무국과 논의하여 담당 활동가가 활동을 거부하는 등 감경 목적으로 자원활동을 신청하는 가해자를 경계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드러났음.

3-5. 자문 회의

- 배경/필요성: 자문위원들의 익숙하거나 낯선 시선으로 2020년 성문화운동팀의 활동 방향,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고, 상시적인 자문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자문 회의를 진행함.
- 목표: 자문 회의를 통해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구하고, 자문위원들이 상담소의 활동을 더 긴밀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방법 및 계획:
 - 상반기 내 1회 성문화운동 자문위원들과 대면/서면 자문회의 개최
 - 진행내용: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활동 평가 자문위원 FGI로 대체(사무국 평가 참조)
 - 결산: 해당 없음.
 - 평가: 2020년 3월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연기됐음. 2020년 11월 24일(화) 2회에 걸쳐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활동 평가 FGI를 진행했고, 성문화운동팀 자문위원 중에는 박현이, 배은경, 이산, 이은심 총 4명 자문위원이 참여했음
- 자문위원 FGI에서 나온 자문위원들의 의견 중 성문화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상담소가 가진 신뢰도 유지해야 하며, 크게 사건지원 및 상담 활동과 사회문화바꾸기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에서 상담소의 메시지에 법언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 잘못된 문화, 어떤 전제 등에 대한 지적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 상담소가 먼저 기획하고 발굴해서 안착시킨 프로그램들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접는 것이 필요하다.(예_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작은말하기)
- 상담소 활동이 전반적으로 문어발적인 상황이다. 인력 대비 이슈 대응, 연간 사업 등이 폭넓은 상황이고 이는 사업 운영 기준이 못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며 활동가의 과로, 근로의욕 상실과 연관된다.
- 상담소가 발신하는 메시지는 일상적이라기 보다는 개념적, 원론적이며 지난 15여년 동안 같은 톤 유지하고 있어 지속성이 있다고 할수도 있지만 고착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언어도 변화하고 있으며 세 가지 언어가 있다. (1) 개념어,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 (2) 조금 더 일상적이고 관계맺으면서 상호지원적이며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만드는 언어.

(3) 디지털 시대의 코드와 밈화된 언어. 언어가 바뀌어 갈 때, 피해자를 지원 활동은 어떤 언어로 변화를 모색해 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 입장문이나 페이스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소리를 확인해보면 문장이 즉각적이거나 생동감이 있다는 느낌은 좀 덜한 상황이다.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 필요하다.
- 대체로 상담소 사업 통해 오는 분들은 고학력자 여성으로 다른 계층과의 만남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활동가가 익숙한 연령층, 계층 등 잘 만날 수 있는 집단을 맘껏 만나게 해주며 참여집단의 다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2020 열림터 활동 보고

전체 활동 슬로건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림터의 고민을 홍보 매체를 통해 외화하고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 역량강화교육과 개별상담을 통해 소진예방에 힘쓴다 - 퇴소 이후의 삶도 함께 살피고 연대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세계4차신평대회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열림터 활동에 반영한다
팀 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하고 체계적인 일상지원으로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치유회복을 도모하고, 역량강화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2. 퇴소 후 지원을 통해 퇴소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상호지지와 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 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의 소진예방에 힘쓴다. 4. 반성폭력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주의 실택운동의 연대를 강화한다. 	

총평

- 지속적인 개별면담과 가족회의 등을 통해 생활인들 개개별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함.
- 생활인들이 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열림터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을 격려함.
-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또우리들에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물품지원을 하게 되어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했고, 또우리모임을 홍보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함.
- 또우리풀썩기금 운영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열림터에 관심을 갖는 또우리들이 늘면서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상호지지와 연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 위기상황에 맞는 역량강화교육을 수강하고 이를 계기로 메뉴얼을 만들었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전 활동가와 지원과정을 점검하여 생활인지원에 전문성을 높임.
- 예외상황을 고려하여 활동가 소진예방상담비를 유연하게 지원하고 휴가와 교육연수를 적극 격려하여 적절한 쉼과 자기계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함.
- 연대 혹은 대외 활동을 통해 각 기관별 주요 활동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동의 인식과 연대가 중요함을 알게 됨.
- 열림터 사업 계획을 전시협 회원 단체들과 공유하여, 전시협의 정책사업으로 연계, 확정토록 함.
- 청소년 주거권 보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 계획 수립뿐 아니라 기존 정책에 대한 정보 또한 습득할 수 있어 생활인 자립지원에도 도움이 됨.

목표1. 다양하고 체계적인 일상지원으로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치유회복을 도모하고, 역량강화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1-1. 일상생활지원

- 배경/필요성 : 입소자가 갖은 열림터 특성상 각 생활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이 매우 다름. 입소 이후 생활인의 욕구와 현재 필요한 지원 내용을 사정하여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인 간의 지원 편차를 줄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여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야 함.
- 목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야 할 생활인들에게 특성에 따른 개별적 지원을 함으로써 치유회복 및 자립계획 도움이 되도록 한다.
- 계획:

입소의뢰	의뢰 단계에서부터 연계기관에 열림터의 생활규칙과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여 적절한 입소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함.
입·퇴소 지원	입소 단계를 최소화하여 입소인의 편의를 도모함. 퇴소 전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열림터와 지속적인 교류할 수 있도록 함.
생활지원	용돈, 교통비, 미용비, 의류구입비 등 지급. 외식(명절, 퇴소환송회 등) 입소사실확인서 등 필요서류 발급. 주민센터, 은행 등 기관 동행. 가족회의.
생활상담지원	열림터 생활 과정에서 비롯되는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생활인별 개인 상담 진행.
심리치료지원 (성폭력피해자치료비)	입소 후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으로 열림터 적응과 치유회복을 도움. 사례별 반기 1회 팀미팅 진행.
법률지원	사례별 상황에 맞는 법률지원.
의료지원	병원비, 약제비 지급/ 병원원 동행 등. 상비약품 비치, 응급처치 등.
학교·학습지원	사례별로 학교 전학 및 학교 생활 적응, 부족한 학습 지원.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사례별로 진로 및 자립계획을 구상하는데 조력.
정서문화지원	생활인들의 문화생활비 신청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간소화. 문화누리카드 신청으로 문화생활비 사용 범위 확장.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 등 지급.

• 진행내용

- 1) 상반기입소의뢰현황: 총 27건 중 입소 5건(입소 후 당일 퇴소 1건), 단순문의 14건, 입소면접 6건(본인 거절), 면접예정 2건(연락없음)
 - 연령대: 10대(7), 20대(16), 30대 이상(1), 미상(3)
 - 파·가해자 관계: 친족(12), 온라인(3), 데이트관계(2), 목사(2), 모르는 사람(2) 등
 - 연계기관: 성폭력상담소 10건, 1366 6건, 청소년쉼터 3건, 해바라기 3건, 경찰서 2건 등
- 2) 하반기입소의뢰현황(11월말 기준): 총 24건 중 입소 4건, 단순문의 11건, 시설거절 7건
 - 연령대: 10대(11), 20대(8), 30대 이상(1), 미상(4)
 - 파·가해자 관계: 친족(7), 서비스제공자(3), 온라인(2), 지인(2) 등

- 연계기관: 1366 6건, 청소년쉼터 5건, 청소년센터 2건 등

2. 입·퇴소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입소면담을 전화로 진행하여 입소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열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여 입소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열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인과 활동가의 안전을 위협한 생활인의 경우 단계별로 활동가들, 지자체 담당주무관과 논의한 후 강제퇴소 과정을 진행했으며 소장단의 지원을 받았음.

3. 생활지원

- 코로나관련방역지원: 1/28일 여성가족부의 방역 물품 구입 요청 받음. 마스크,손소독제,살균세정제 구입하여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시설 내부 소독을 매일 진행함. 방역지침의 단계별 변동이 있을 때마다 생활인들에게 공지하여 변동된 지침에 따라 외출·외박·산책 지침을 실시함

4. 생활상담지원

- 도난/자해/폭력에 대한 개인상담, 도난 특별안전지 취합&가족회의, 상근자회의 안전 진행, 회복적정의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진행함.
- 도난 예방과 대책을 위한 열림터 매뉴얼 배포.

5. 지원현황(1월~12월 기준)

상담 지원	생활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학교학 습지원	직업 훈련 지원	정서문 화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퇴소자 지원	합계(건)
356	424	44	379	367	80	196	121	417	2384

• 평가

1. 입소의뢰

- 전년도에 비해 입소의뢰건수는 상반기 4건, 하반기 1건 감소함. 입소면접 후에 실제 입소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가해자와 시급하게 분리가 필요한 상황의 의뢰인은 없었고, 대부분 가정폭력·방임·학대로 가출 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거나, 친족성폭력 이후 가족의 비난과 합의중용으로 가출한 상태에서 입소 의뢰를 하는 경우였음.
- 시설 거절의 주된 사유는 현 열림터 생활인들과 연령차가 큰 경우, 반복된 자해와 자살시도로 안전위협이 높은 경우,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성격장애진단을 받은 경우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용 공간 확보로 입소인의 수에 제한을 둠.
- 상·하반기에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생활인의 입소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기존 생활인과 활동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겪음. 생활인·활동가 보호를 위해 너무 잦은 자해·자살 이력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어려운 성격장애·정신증을 가진 피해자의 입소의뢰 및 입소 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의 논의를 다음 계획회의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
- 또한, 입소 전 복용중인 약물처방전, 진단서 등을 입소의뢰서와 함께 받을 필요가 있음.

2. 입·퇴소지원

-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입소인이 늘어남에 따라 가입소기간(1개월)동안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원방법을 권유함. 앞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내부지침을 만들어 실행함. 코로나19 검사한 생활인을 개별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전까지 생활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함.

3. 생활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외박·외출이 종전처럼 자유롭지 않아 생활인의 불만이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적인 위기 사항이므로 코로나19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밀집시설 방문자제, 손씻기 생활화,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외박·외출 횟수를 조절함.
- 코로나관련방역지원: 적기에 방역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열림터 생활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었음. 이후 후원회원들의 물품 후원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사용에 부족함이 없었음. 생활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생활인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었음.

4. 생활상담지원

- 시설 내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 열림터에서 해왔던 ‘개인면담’, ‘물건관리’ 주의, ‘이 방의 약속’ 확인, ‘자기책임’으로 진행된 해결방식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짐. 생활인과 활동가 사이에 신뢰가 약화됨. 개별면담, 가족회의, 활동가와 생활인 전체 회의를 2회 진행했으나 생활인들의 이해를 얻지 못함.
- 도난사건 발생시 도난매뉴얼에 따라 진행함. 활동가와 생활인간의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인 열림터 생활이 가능토록 함.
- 생활인들 개개인에 맞는 지원을 통해 열림터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심신회복에 도움이 됨.
-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개인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줌.

5. 지원현황

- 전년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학교·학습지원, 퇴소자지원으로 학교·학습지원 중 “학습지 참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학습문의”, 퇴소자지원 중 “또우리물품지원 알림 연락, 발송”, “코로나19로 인한 또우리 모임 일정 안내”가 주요 증가 사유. 퇴소자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
- 연계기관에서 신고, 고소를 진행한 후 입소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법률지원이 감소함.

1-2. 치료회복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① (성교육/글쓰기) 생활인들은 입소 전 장기적으로 피해에 노출되면서 위기상황 대처능력 및 성에 대한 이해와 자기고민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음. ② (심신회복캠프)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동의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열림터 적응을 돕는 계기가 필요함.
- 목표: 성교육, 글쓰기, 심신회복캠프를 통해 생활인의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성교육(호연/인권교육센터 등) : 교육 전, 후 회의로 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활인에게 맞는 성교육 제공
 - 글쓰기(은유/『글쓰기의 최전선』 작가) :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심신회복캠프: 생활인들이 여행계획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행에 대한 흥미 및 주체성을 높임.
 - 생활인들에게 프로그램 참가 후기 작성할 것을 독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의미 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열림터 블로그를 통해 이를 외화함.
- 진행내용 :
 - 1) 글쓰기

글쓰기	〈치유하는 글쓰기〉 프로그램			
	회차	일시	주제	내용
	1	5/12	나는왜쓰는가	강사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의미를 짚어봄
	2	5/19	음식	맛있게 먹은 음식
	3	5/26	옷	내가 좋아하는 옷, 기억나는 남의 옷
	4	6/2	일	알바/일할 때 힘들었던 것
	5	6/9	자유글	숙제 발표
	6	6/16	병	몸이 아팠을 때
	7	6/23	학교	학교 생활의 추억
	8	6/30	몸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
	9	7/7	차별	차별 받은 경험
	10	7/14	자유글	숙제 발표
	11	7/21	장소	자주 가는 곳
	12	7/28	돈	돈으로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13	8/4	자유글	문집에 실을 글 첨삭
	14	8/11	사람	배우고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15	8/18	종파티	나에게 글쓰기란
	프로그램 관련 회의			
	4/27	사전준비회의		
	7/1	중간평가회의		

2) 심신회복캠프

심신회복캠프	일시	내용
	8/22	캠프 공모전 안내 및 함께 계획세우기
	8/29	캠프 공모전 피드백
	9/6	캠프 공모전 마감
	10/9~10	심신회복캠프 진행
	10/18	생활인 캠프 후기 작성

3) 개별성교육

개별성교육	일시	내용
	10월	생활인 A, B 성교육 진행
	11월	생활인 A, B 성교육 완료(각 8회기), C, D 성교육 진행(각 6회기 예정)
	12월	생활인 C, D 성교육 완료 예정

• 평가 :

1) 글쓰기

- 비자발적인 참여자임을 감안하여 2017년에 비해 프로그램 난이도를 낮춤. 덕분에 생활인들이 수월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음.
- 자신에 대해 쓰고, 서로가 쓴 글을 듣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수업 방식이 생활인들로 하여금 서로 동료로서 관심가질 수 있게 하였음. 날카로운 질문,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쓰기 등 적극적인 생활인들의 참여가 돋보였음.
- 한 생활인이 다른 수업 구성원을 공격하거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강사와 활동가 대책회의 후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함. 우선, 해당 생활인에게 이러한 태도가 본인과 타인의 치유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그만둘 것을 약속받고, 태도를 유지할 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 사전 고지함. 그러나 이후 타인에 대한 모욕이 이어져 다른 생활인과 강사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생활인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 활동가 1인이 글쓰기 프로그램에 지속참여하여 강의를 지원하고 생활인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였음.
 - 생활인들은 폭력 피해와 계급적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함께 글과 시를 읽으며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함.
- 2) 심신회복캠프
- 심신회복캠프 공모전 참여 계획안을 활동가와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행 계획을 처음 세워 보는 생활인들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음.
 -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타지역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음. 공모전 수상 계획안과 실제 캠프 계획이 달라진 점에 대해 생활인과 활동가 간의 설명과 양해 시간을 충분히 가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캠프에 예약이 있었음에도 ‘캠핑’이라는 키워드에 걸맞게 활동적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냄.
 - 예년보다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어 캠프가 종료된 후 힘들어하는 생활인들이 많았음. 내년에는 여유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3) 개별성교육
- 개별성교육 진행 전 강사, 사례담당자, 프로그램담당자가 함께 사전회의를 진행하여 개별 생활인에게 알맞은 교육을 진행함.
 - 필요한 경우 성교육 회기를 연장하여 심도 깊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1-3. 생활인수다모음집 발간

- 배경/필요성: ① 열림터는 생활인들이 피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격려하는 공간임. ② 생활인들은 성폭력 피해 이외에도 가족·연애·자립형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열림터 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나누며 주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기에 이를 공적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음. ③ 생활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시설에 거주하는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통념 해체와도 연결되기에 외화가 필요함.
- 목표: 생활인수다모음집 발간을 통해 해당 시기 생활인들이 공통으로 당면한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여 외화한다.
- 방법 및 계획:
 - 세부 기획회의 후 주제 선정.
 - 열림터생활인수다회 개최.
 - 내용에 따라 공개범위 설정 및 편집 후 발간.
- 진행내용 :
 - 열림터 생활인들 간의 역동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인수다회 개최는 무리라고 판단함.
 - 편성해두었던 예산으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생활인들의 글을 편집해 문집 <거친 파도도 잔잔한 바다다>를 발간함.
 - 생활인들이 문집 완전 공개에 동의해주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또우리, 장기후원회원들과도 문집을 나눌 수 있었음.
- 평가 :
 - 비록 생활인수다회 개최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열림터 문집 <거친 파도도 잔잔한 바다다> 발간을 통해 생활인들의 다양한 고민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외화한다는 본 사업의 목표는 달성함.
 - 생활인들이 쓴 글을 문집이라는 형태로 물화하여 성취감을 높일 수 있었음.

1-4. 생활인 대상 성인권교육

- 배경/필요성: ① 생활인들이 폭력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열림터 공간에서 언어, 정서적, 신체적 폭력 발생을 예방하게 함. ②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기능을 기대하는 생활인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③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가 발생한 맥락을 파악하여 향후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성인권 교육을 통해 생활인들이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한다. 생활인간의 사생활 존중과 폭력 발생을 억제한다.
- 방법 및 계획 : 상반기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공간의 약속」을 열림터에 맞게 새로이 해석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진행한다. 한 줄 한 줄 생활인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열림터 공간에서 공통의 약속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하반기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역사와 최근의 운동 내용에 대한 강의를 통해 상담소 활동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성폭력 바로 알기 강의를 들은 후 토론과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 상반기일정

회기	주제	강사
1회기	‘이 공간의 약속’ 워크숍 1회	얏
2회기	‘이 공간의 약속’ 워크숍 2회	오매
3회기	‘이 공간의 약속’ 워크숍 3회	신아
4회기	‘이 공간의 약속’ 워크숍 4회	유랑
5회기	‘이 공간의 약속’ 워크숍 5회	목련

- 하반기일정

회기	주제	강사
1회기	상담소의 역사, 활동	지리산
2회기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성문화 등)	감이
3회기	여성주의 인식론의 이해	파이
4회기	성폭력 탐구(개념 및 유형, 통념 등)	은희
5회기	정리 및 평가	사자

• 진행내용

- 작년 열림터 생활인 운영평가와 생활상담을 통해 생활인 간의 언어폭력,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이 공간의 약속’ 워크숍을 계획하고 강사들과 사전회의를 2회 진행했음.
- 1월 이후 갑작스런 퇴소가 계속되고, 신규 입소가 거의 없어 워크숍을 취소하게 됨.

회기		주제	강사
1회기	8/24	한국성폭력상담소의역사,운동의이해	지리산
2회기	8/31	한국사회의 성문화	감이
3회기	9/7	성폭력의 이해-디지털성폭력	조은희
4회기	9/21	여성주의의 이해	오매
5회기	9/28	차별에 대한 생각과 경험 나누기	김신아
6회기	10/18	소감 나눔	사자

- 하반기 성.인권교육은 생활인 변동으로 소규모로 진행되었음
- 상근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끝까지 계획된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
- 평가 :
-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열림터의 특성상 ‘이공간의 약속’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확인했으나 열림터 생활인 구성의 변동이 심해 심도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음.

- 성.인권교육은 전체적으로 생활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성폭력상담소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향후 직접 참여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음.
-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적인 구성을 위해 강사진과 사전회의가 필요함.

1-5. 환경·식생활·안전교육

- 배경/필요성 : ① 공동생활을 하는 열림터의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 유지를 위해 개인위생의 영향과 필요성을 알고 실천하여 자신과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열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과 여성들은 주로 불규칙적인 식사, 과식, 편식 등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결핍요소가 많은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는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자극이 부재하였음. ③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 마련에 대한 생활인의 의지를 함양하고 건강한 식생활 및 안전한 생활공간 만든다.
- 방법 및 계획:
 - 환경·식생활교육: 격월 1회 가족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시행, 2~3개의 주제를 정하여 PPT 자료 및 OX퀴즈 생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
 - 안전교육: 연간 2회(2, 8월) 보라매안전체험관 방문하여 재난체험(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 화재예방교육 : 격월 1회 반복 시행.
- 진행내용

교육명	진행시기	내용	방법	참석인원
환경식생활교육	1,3,5월	코로나19 행동요령 및 예방수칙 건강한 식생활 습관 여름철 위생관리	ppt자료, ox퀴즈, 토론	12명
	7,10,11월	여름철건강관리, 환절기 건강관리 쓰레기 분리배출과 환경	ppt자료와 동영상시청, 토론	13명
안전교육	2월	가상재난체험	보라매안전체험관 견학	6명
	8월	가상재난체험	휴관	
화재예방교육	2,4,6월	소화기위치확인,사용법확인,전 열기구사용시 주의사항	ppt자료와 동영상 시청	18명
	8,10,12월			15명
생명존중교육	1월	자기파괴행동이란 무엇인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위기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눔	5명

• 평가

1) 환경·식생활교육:

- 생활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에 30분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었으나 주제에 관하여 짧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함. 반복되는 주제들의 경우 다양한 PPT자료나 동영상으로 교육자료를 구성할 필요 있음. 열림터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코로나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자가격리수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 있음.

2) 안전교육:

- 가상재난체험으로 지진, 화재, 수해 등의 재난상황을 체험하며 안전에 대처하는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시 대처방안을 배울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보라매안전체험관 임시휴관이 길어지면서 하반기에 진행하지 못함.

3) 화재예방교육:

- 열림터 내에서 화재발생을 대비해 소화기의 위치나 사용법 등 실질적인 내용들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흥미도가 높고 더 진지하게 참여하였고 가상으로 훈련해보자는 의견도 나옴.

4) 생명존중교육:

- 최근에 열림터내에서 있었던 자해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 받는 구체적 방법을 공유함.

1-6. 생활인과 만드는 운영규칙

- 배경/필요성: ① 치유회복과 공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규칙과 지원내용 규정에 생활인 당사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음. ② 생활인들이 수동적인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열림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 개진 및 반영 과정을 가시화할 필요 있음.
- 목표: 생활인들이 자기 권리를 개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방법 및 계획:
 - 매 주 가족회의를 직접 진행하면서 공동체의 규칙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가짐.
 - 반기별로 생활인 대상 열림터 운영평가를 진행하여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규칙에 반영함. 반기 이전 퇴소한 경우 퇴소인터뷰를 활용함.
- 진행내용 :
 - 매 주 생활인이 직접 진행하는 가족회의를 진행함.
 - 생활인들이 생활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한 후, 그 안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생활규칙을 만들음.
 - 작년과 같이, 열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인 운영평가'를 시행함.

날짜	진행내용	참여인원
매주 일요일	열림터 가족회의	생활인 전원 + 숙직 활동가
7월	생활규칙 개선 및 변경기간	생활인 전원 + 열림터 활동가
7월26일	상반기 생활인운영평가	생활인 전원
11월29일	하반기 생활인운영평가	생활인 전원

• 평가 :

- 가족회의를 통해 열림터 구성원들이 서로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음. 생활상의 갈등이 언어화될 수 있었으며, 생활인들이 공적인 문제제기 방식을 익히는 데 기여함.
- 생활인 운영평가를 통해 열림터 운영에 대한 생활인들의 의견을 수집함.

1) 생활환경 평가 :

- 열림터 생활규칙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인 외출이 부분제한되었던 상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전염병과 시설생활인의 생활규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임.
- 올해도 수면시간 핸드폰 제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활인 의견이 우세했음. 그러나 학교 등교, 취업 준비, 우울증 대처 등 규칙적인 생활 루틴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면시간동안 핸드폰 제출은 유지하기

로 결정함. 다만 상반기에 임시적으로 시행한 ‘핸드폰과 함께 자는 토요일’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에 하반기에는 공식 생활규칙으로 만들어 유지함.

- 올해 열림터에서 받는 용돈과 교통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음. 열림터 용돈은 고등학생 한 달 평균 용돈 및 주변 쉼터 용돈보다 높은 축에 속하기에, 해당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하반기의 경우 성인 생활인들이 모두 별도의 수입활동을 하지 않고 용돈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수입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직이 어려웠던 것과, 생활인 개인들의 우울이나 성향 등이 있었음. 경제교육 등의 프로그램 연계를 계획할 필요 있겠음.

- 하반기에 개별 공간 넓이에 대한 평가가 상승했는데, 열림터 공간 배치를 다르게 한 결과로 판단됨.

2) 열림터 운영 평가 : 작년에 낮은 평가를 받았던 ‘생활인-활동가 간의 소통’ 관련 항목은 올해 상반기 다시 점수가 상승함. 생활인-활동가 간의 신뢰 형성이 원활했던 것으로 판단됨.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는데,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습관 형성이 어렵거나 꾸준한 일상루틴 유지를 힘들어하는 생활인들과 해당 주제로 면담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증가한 것이 이유로 보임.

3) 인권침해 :

-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외박 제한으로 인해 응답자 3명 모두 외부 소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낌. 전염병과 시설 생활인 생활지침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겠음.

- 현재 인권침해 문항은 “~느낀 적이 있는가” 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주관적 인지라 응답의 맥락을 제대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별면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상담지원 : 상반기 상담지원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상반기에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었으나, 생활인과의 개별면담과 심리상담사와 열림터 활동가 협업을 통해 생활인이 원하는 심리상담에 대해 탐색해보는 작업을 했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임. 하반기 상담지원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하락하였으며, 심리상담에 불참하는 경우가 증가함. 상반기와 비슷한 작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5) 학습지원 : 열림터 학습지원을 통해 관련 영역에 대한 흥미도는 모두 높아졌다고 답했으나, 학습보다는 다른 걸 더 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음.

6) 자립지원 : 취업 관련 정보 안내와 퇴소지원금이 자립에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자립은 자신의 기반과 자원과 관련된 문제라 퇴소 이후에도 꾸준히 지원할 필요 있겠음.

7) 문화생활-체력단련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을 통한 문화-체력단련지원을 할 수 없어 생활인들의 기회가 많이 제한되었음.

8) 프로그램 : 상반기에 진행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는 모두 무척 긍정적이었음.

- 상반기 생활인 운영평가를 통해 생활인들에게도 열림터 운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목표2. 퇴소 후 지원을 통해 퇴소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상호지지와 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

2-1. 퇴소자지원

- 배경/필요성 : 퇴소자 모임과 필요성은 동일하지만 퇴소 이후에도 바로 온전한 자립이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생활상담이나 법률지원 등 상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퇴소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다.
- 방법 및 계획:
- 퇴소지원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은 미성년 시기에 입소하여 1년 이상 생활, 성년 시기

- 에 퇴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1년 이상 생활한 퇴소자에게도 일정의 퇴소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1인 100만원).
- 자립물품지원: 퇴소 시 생활할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1인 최대 20만원)
- 개인면담: 필요 시
- 주거지원시설: 여성가족부/서울시에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공고 시 관내의 무상임대주택을 2호(지원인원 4인)임대하여 시범 운영해 봄
- 진행내용:
 - 년초에는 예년과 같이 퇴소자 개인 면담이 꾸준히 있었으나 또우리모임의 시작과 함께 줄어듦.
 - 후원받은 물품 중 마스크와 생리대를 퇴소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하고 물품 발송을 통해 10여명에게 지원함.
 - 퇴소하는 생활인 대부분이 귀가 혹은 다른 시설 연계가 되었기에 자립물품지원이 줄어듦.
 - 다른 시설 연계된 퇴소자의 정신과처방&약제비의 공백을 자부담으로 지원함.
 - 퇴소자 지원에 관한 내용 취합하여 또우리 지원 매뉴얼로 정리함.
 - 계속되는 방역조치로 열림터생일맞이또우리모임을 개최하지 못하는 대신 또우리들에게 마스크,식품류등의 물품을 신청한 모든 또우리들에게 택배로 발송함.
 - 장기근속하는 활동가가 늘고 지속연락하는 또우리들도 늘어 개인면담이 꾸준히 있었음.
 - 또우리1인 법률지원 타시설연계
- 평가:
 - 퇴소자 모임인 또우리모임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퇴소자 일상회복기금인 또우리 풀짝기금등을 운영하는 등 퇴소자 지원 풀을 넓힘으로 예년의 퇴소자와 열림터의 연결이 지속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해야 하는 개인면담은 줄었지만 후원품지원등으로 열림터의 물품후원이 필요한 퇴소자들에게도 지원되게 되어 방법의 다양화가 이뤄짐.
 - 또우리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지원내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지원 방법과 증빙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함.
 - 22명의 또우리들이 열림터 생일맞이 또우리모임 대신 물품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잘 받았다는 연락을 줌. 방역조치로 또우리모임이 무산되었지만 모임때보다 많은 인원의 또우리들이 지원을 받게됨.
 - 활동가들의 근속과 또우리들의 소통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활동가들이 소진예방이 꼭 필요함.

2-2. 또우리모임

- 배경/필요성: ① 열림터 생활인의 대다수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움 ②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대와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퇴소자들에게 제기되고 있음. ③ ②를 위해서는 열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당시 함께 생활했던 활동가 및 생활인이 현재 열림터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활동가 퇴사나 바쁜 일상 등으로 지속되기 어려웠음. ④ 상담소 작은말하기처럼 성폭력 피해생존자이자 열림터 퇴소자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상 및 고충, 피해경험 공유 등을 통해 퇴소자 간 지지와 연대 체계를 꾸릴 필요가 있음.
- 목표: 또우리모임이 자조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및 계획:
 - 3월 1차 모임에서 또우리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친목뿐 아니라 또우리모임에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수렴함.
- 일정
 - : 또우리모임 안내 (2, 4, 6, 8, 10월 말)

: 토우리모임 실행 (3월, 5월, 7월, 9월, 11월 평가·계획 모임)

• 진행내용 :

일시	장소	참석자 수
4/24(화)	이안젤라홀	토우리 2인, 전·현 활동가 4명

- 3월·6월·11월 모임 안내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며 계획 변동됨. 3월 모임은 4월로 연기하였으나 6월과 11월 모임은 취소함.
- 9월은 토우리모임 대신 ‘열림터 생일맞이 토우리물품지원’으로 대체함.
- 평가 :
- 4월 토우리모임 프로그램은 근황토크, 카드게임으로 마음열기, 토우리폴짝기금 안내, 타로로 보는 고민상담으로 진행됨.
- 4월 모임에 두 명이 참여하여 토우리모임 시작 역대 최저 참여율을 보였으나, 의외로 오봇한 환경에게 각 토우리들에게 집중하며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음.
- 6월과 11월 모임 신청율이 높았음. 토우리폴짝기금 운영, 토우리물품지원을 시작하며 토우리들과의 교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됨. 안전상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아쉬움이 남음.
- ‘열림터 생일맞이 토우리물품지원’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았음. 추석과 가까운 시기에 진행한 사업이라 명절선물을 받는 거 같아 기쁜단 평가가 있었음. 물품지원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열림터에 후원을 해준 토우리도 있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생활인들 또한 모임 참석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함. 물품지원, 폴짝기금 등 밀집하지 않는 방식의 토우리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3. 퇴소자지원기금 “토우리폴짝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① 한국 사회에서 혈연가정은 개인의 정서적·경제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② 열림터 생활인의 대다수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이거나 원가정에 의한 2차 피해를 경험하기에 퇴소/자립 시 원가정에서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③ 새로운 삶의 준비를 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일 때, 기대어 볼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존재는 삶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목표:
- 퇴소자지원기금을 통해 토우리들의 정서적·경제적 지지처를 형성하고 삶의 안정성을 높여 일상 회복에 기여함.
- 퇴소자지원기금의 마련 및 시행을 통해 퇴소자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초석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열림터 연간 후원금액의 약 10%인 총 500만원을 기금 예산으로 설정.
- 열림터 퇴소인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연간 10명을 대상으로 기금 집행. 1회 지원선정 시 다음 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최대 2회 지원선정 가능.
- 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선정. 기금 신청서는 지원자의 빈곤함이나 긴급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 활용 방안과 해당 경제적 자원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위주로 작성하게끔 설계.
- 선정 이후, 사전 인터뷰를 1회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이는 ① 기금이 토우리 본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휘발되어버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자, ② 토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열림터와 후원인들과 공유하는 장의 마련, ③ 내·외부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인 지원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함임.
- 기금 집행 이후 결과 및 평가 인터뷰를 1회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 일정

- : 토우리폴짝기금 홍보 및 모집 (~3월 말)
- : 2020 토우리폴짝기금 지원대상 발표 (4월 초)
- : 신청인 사전인터뷰 (4월~5월) → 기금 집행 (5월 말) → 영수증빙서류마감(9월) → 평가인터뷰(10월)

• 진행내용 :

내용	일자	진행내용
홍보	4/24(금) ~ 5/8(금)	- 토우리모임 - 홈페이지, 페이스북, 열림터 블로그에 홍보내용 게시 - 토우리 개별 연락 후 안내
선정	5/15(금)	- 지원자 총 7명 - 7명 모두 선정 후 개별 연락
사전인터뷰	5/18(월)~5/30(토)	- 7명 모두 사전인터뷰 진행 완료
집행	6/1(월)	- 집행
마감	10/31(토)	- 기금사용마감
평가인터뷰	11/16(월)~11/20(금)	- 연락두절 된 1인을 제외한 6인과 평가인터뷰 진행함.

• 평가 :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토우리들이 크게 호응함.
- 폴짝기금 홍보와 사전인터뷰를 진행하며 토우리들과의 더 많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었음. 덕분에 열림터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평한 토우리들이 있었음. 또한, 폴짝기금을 신청한 토우리가 토우리모임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음.
- 기금 사용에 어려움(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통장 압류, 우울로 인한 계획 실행 불가능)을 겪는 토우리들이 있었으며, 사전인터뷰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한 번의 인터뷰로 해소되는 어려움은 아니기에, 기금 집행 이후에도 개별 토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할 필요를 느낌.
- 열림터 운영위원회는 단발성 지원보다 장기적인 지원(예. 심리상담비용 지원, 운동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함. 폴짝기금 총액, 기금 마련의 방법 모두 고민되는 지점임. 폴짝기금 사업의 안정화와 평가를 위해 2~3년은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하되, 이후에 평가를 거쳐 전환을 모색할 필요도 있겠음.
- 교육, 여행, 문화생활, 병원, 운동 등 '나를 위한 지출'에 사용하라는 용도 한정 덕분에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계획을 해보게 되었고, 실제로 기금을 사용할 때에도 그런 지점을 상기하게 되었다는 토우리들의 평가가 있었음.
- 퇴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2020년 토우리기금 대상자가 아니었던 토우리가 기금의 존재가 인상적이라 내년에 신청할 계획을 미리 세워보기도 했다는 연락을 주었음. 이처럼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음.

목표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의 소진예방에 힘쓴다.

3-1.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배경/필요성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피해로 인한 자해·자살 충동을 호소하거나 정신과 약물복

용 중인 생활인이 다수 입소함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지원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
경계선장애가 있는 생존자의 입소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생활인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기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활인 지원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특히 장애가 있는 생존자가 입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생활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함.

- 방법 및 계획:

- 연 4회 이상 발달장애성폭력피해생존자이해/개인정보보호/자해·자살 사례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시행하여 생활인 지원 전문성 강화함.
- 전문교육: 아래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1~3회 진행하며 주제에 따라 생활인 지원사례 피드백을 받아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법에 대한 촘촘한 이해를 도모
- 지원과정에서 생활인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함.

주제	강사
발달장애성폭력피해생존자 이해 2회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정신과전문의(미정)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1회	진보넷 활동가
자해 예방교육 2회	미정

- 진행내용

	주제	강사
3/24	회복적정의-피해와 손상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부설갈등해결센터 소장
7/9	정신과 약물처방의 원리와 관리	이주영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문의
7/23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생활지원	송지혜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문의

- 평가

- 계획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으나, 1회차 교육은 열림터에서 발생한 도난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생활인들과 활동가 사이의 갈등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와 갈등이 깊어져 이를 해소하는 한편 대처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음. 1회차 교육으로 도난 매뉴얼의 기획이 가능하게 되어 도난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고 활동가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음.
- 2, 3회차 교육은 반복시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기상황에 있는 생활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내용을 상기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특정의 정신장애 생활인을 응대할 때의 주의내용을 활동가들이 공유하여 일관된 지원을 할 수 있었음.
- 각자 생활인 지원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하여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이후 지원에 도움이 되었음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자체 진행하지 않고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함.

3-2. 활동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

- 배경/필요성 :

- 처무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근활동가는 업무담당 1년차, 3년차, 5년차가 된 시점에 상담 상담원으로서의 내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목표: 내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함.
- 방법 및 계획:
 - 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만 1년차 ,만 3년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활동을 지원함.
 - 만 1, 3년차 활동에 해당하는 3인의 활동가 각자 자체적으로 진행함.
 - 주간, 월간으로 숙직 일정을 검토하여 연속된 숙직 일정으로 인한 활동가 소진을 예방함
 - 휴가 사용 및 교육 연수, 출장 등을 서로 적극 격려하여 적절한 쉼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함
- 진행내용
 - 상반기 1인은 상담 완료, 하반기 1인은 서울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7회기 상담을 지원받음.
 - 성격장애 생활인을 담당하던 활동가의 소진이 매우 심하여 즉시 상담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고 1년차 활동가로 활동가 소진예방 지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를 통해 예외 상황을 인정하고 전액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함.
 - 하반기에는 2인의 활동가가 “비자해적자살이해하기”강의를 수강하여 생활인의 자해 상황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지원 방향에 도움을 얻고자 했음.
 - 활동가M/T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취소했고, 이후 일정을 기획할 수 없었음.
- 평가
 - 1인 상담지원이 50만원이어서 상담의 전체회기를 지원하지 못함. 자부담분이 높아 무리가 됨.
 - 1인의 경우 연차는 모자라지만 위기상황임을 적극 알리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음.
 - 근무형태나 여건으로 상담시간을 원활하게 내기 힘든 부분이 있어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

3-3. 생활인 사례연구

- 배경/필요성 : 생활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 방향과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함.
- 목표: 생활인의 자립을 돕고 다양한 주변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생활인 중 선별된 사례에 대해 상근활동가들과 사례연구를 진행.
- 방법 및 계획:
 - 지원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는 생활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의 공백 및 보완점을 발견하여 생활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함.
 - 생활인 사례연구를 통해 전문가 소견 및 상근활동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지원방향을 찾도록 함. 열림터 지원의 경험 공유를 위해 상반기 여성주의 상담팀(6월, 종결사례연구), 하반기 열림터 1회로 진행(11월, 생활인사례연구)
- 진행내용
 - 11/11 생활인 사례회의의 진행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들음.
 - 참여자(16인): 지리산, 오매, 달별, 백목련, 조은희, 유랑, 감이, 앓, 김신아, 사자, 박지희, 전순유, 수수, 낙타, 파이, 주리
 - 논의내용: 지원방향과 한계설정, 자해와 자살시도에 대한 대응방법 등
- 평가
 - 전 활동가와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과정을 점검하여 수퍼비전같이 진행되어 도움이 됨.
 - 열림터에 대한 상담소의 이해도가 높다고 느낌. 많은 지지를 받음.

3-4. 친족·아동성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교육안 스터디

- 배경/필요성 : 친족·아동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활동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역량강화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상반기 이후 모든 열림터 활동가들이 친족·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관련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스터디하며 강의안을 개발함.
- 방법 및 계획:
 - 상반기 4회동안 기존 열림터 교육안을 스터디하며 기존 교육 내용을 파악함.
 - 하반기 4회 스터디를 진행하며 활동가 각자의 교육안을 개발하고 교육활동을 시작함.
- 진행내용
 - 열림터에서 주되게 진행하고 있는 외부강의 ‘친족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두 분야에서 기존강의안대로 2회 진행함. (2/5,3/18)
- 평가
 - 상담원의 경력 차이를 고려하여 초급·중급의 강의안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사례중심의 강의는 흥미를 끄는데 그칠 수도 있어, 꼭 필요한 사례만 적절하게 사용하되 기본강의에 충실하도록 함
 - 특정할 수 있는 장소·이름등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친족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의 성문화, 가족내의 폭력적인 소통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함.
 - 보호시설의 위치는 운영지침 안에 표기된 정도로만 알리도록 함.
 - 생활인 지원과정에서 생기는 활동가와 생활인간, 활동가와 활동가간의 갈등도 소개함.
 - 쉼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 필요함.
 -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소개하고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활동이 저조하여 교육안 스터디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4회 진행하려던 계획이 2회로 축소됨.
 - 하반기에 강의모니터링을 실행하기로 계획했으나 코로나 19로 강의 일정이 대부분 취소되어 모니터링 실행하지 못했음.

목표4. 반성폭력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주의 쉼터운동의 연대를 강화한다.

4-1.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과 생활의 편의를 위한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배경/필요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미성년 생활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시협과 함께 회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제안하고, 개별의원들에게 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으나 변화의 움직임이 없음.
- 필요성 : 보건복지부수년동안 전시협과 함께 하면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안발의 의원실에 제출했으나 해당 법안은 2018년에는 상정되지 못했
- 고 2019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임.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또한 주민등록발급제한과 관계없이 생존자의 주소지와 변경된 주민번호까지 드러나는 상황임. 퇴소자립지원금은 여성폭력피해생존자를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나뉘어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목표:

- 방법 및 계획:
 - 해당 의원실에서 법률개정 발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림터 사례뿐 아니라 전시협 사례를 모아 개정의견서를 전달함. 법안발의가 가능한 국회의원과의 연계는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등과도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함.
 - 퇴소자립지원금의 차등지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전시협 대표단과 권익지원과 방문 및 의견서 제출
- 진행내용

일자	방식	내용
1/7	임원회의(대전)	열림터 사업계획 중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과 생활의 편의를 위한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설명하고, 전시협 정책사업으로 제안함
4/28	대표자회의(대전)	2020년도 전시협 정책사업으로 결정함. 향후 시설별 사례와 개선 방안 의견을 열림터에서 취합하기로 함.
8/30	열림터	15개 전시협 소속 시설과 4개 특별시설의 의견을 메일과 유선으로 취합하여 정리함
9/21	대표면담	대표자 회의 전 취합된 내용들을 분류함.
11/9	대표자회의(대전)	취합된 의견을 2021년 운영지침 수정안, 전시협 내부에서 논의 필요안, 타부처와 조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분류하여 논의함
12/9	임원회의(대전)	확정안을 결정하여 공유하기로 함(예정)

- 평가
 - 열림터 사업 계획을 전시협 회원 단체들과 공유하여, 전시협의 정책사업으로 연계, 확장토록 함.
 - 사안별로 자료를 만들어 먼저 지침 수정과 보완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전시협 대표단에서 여가부 면담을 통해 내년도 지침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여가부 사무관의 이동, 코로나를 이유로 한 면담 거부등으로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다른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함.

4-2. 홍보 및 후원관리

- 배경/필요성: ① 보호시설이 32개소로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입소한 생활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치유회복으로 한정되어 일반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② 가해자와 시급한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중 보호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편견, 두려움 때문에 입소율이 떨어짐 ③ 시설 특성상 위치 노출에 대한 우려로 홍보나 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후원금 규모가 작고 신규 회원 배가 속도도 낮음.
- 목표: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고민과 향후과제, 소식, 특성을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린다.
- 방법 및 계획:
 - 블로그: ① 분기별 1회 이상 활동가들의 활동소감 및 현재 문제의식 등을 작성, ②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러 활동에 생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후기를 생활인의 동의를 구해 게시, ③ 퇴소생활인 인터뷰 내용을 반기 혹은 연간으로 1회 이상 게시, ④ 열림터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아카이브하며 홍보함.
 - 이메일 소식지(열림터 편지): 생활인들의 글이나 활동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구독율을 높임
 - 해피빈 공기부하: 정부 지원이 어려운 퇴소자 지원을 위해 사례 발굴하여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

원

- 대외활동: 강의 및 연계기관 자문회의에서 열림터의 문제의식을 적극 공유함
- 진행내용
- 블로그 방문자수: 분기별 월평균 방문자 수 증가 추세. 인기글은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또우리 모임 관련 게시글.

기간	전체 방문자(명)
2019년 하반기	3,342
2020년 상반기	5,796
2020년 하반기(12월 제외)	5,501

- 포스트 현황

월	포스팅 개수	내용
1월	4개	12월 열림터 소식, CBS 시사자키 인터뷰, 활동가 숙직일기, 4차세계여성심터대회 후기(3차)
2월	2개	또우리모임 초대 안내, 1월 열림터 소식
3월	4개	2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모임 연기 안내, 4차세계여성심터대회 후기(4,5차)
4월	6개	3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모임 초대 안내, 활동가 숙직일기, 또우리폴짝기금 신청 안내, 또우리모임 후기, 4차세계여성심터대회 후기(6차)
5월	4개	4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폴짝기금 인터뷰 3건
6월	2개	5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폴짝기금 인터뷰 1건
7월	4개	6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폴짝기금 인터뷰 2건, 숙직일기 1건
8월	4개	7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폴짝기금 인터뷰 1건, 또우리모임 안내, 숙직일기 1건
9월	2개	8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 물품지원 안내
10월	5개	9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 물품지원 후기, 가을캠프 후기, 또우리모임 안내, 고구마후원 후기
11월	1개	10월 열림터 소식

- 해피빈 공기부함 : 퇴소자 중 특별후원금이 필요한 사례가 없어 진행하지 않음. 일시 기부함을 열기 위해 이전 기부함 후기와 정보를 기록해야하나 양이 방대하여 어려움이 있어 정기 기부함만 진행함.
- 입소문의시 열림터 특성과 기능을 상세히 알려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 또우리 활동, 열림터 소식, 숙직일기, 캠프 후기 등 열림터의 활동내용을 적극적으로 게시함.
- 특별한 사연이 있는 후원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후원자에게는 보람을 주고 장기 후원자에게 글쓰기프로그램 문집을 발송하여 안부를 묻고 지속적인 후원을 도모함.
- 새로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독율을 파악함.
- 평가
- 열림터 활동내용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공공증 해소에 도움을 줌.
-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활동에 생활인들이 참여하였으나 후기는 간략하게 내부에서만 공유함. 블로그 후기를 게시하여 참여여부가 확인되면 활동관련 기사 속 사진과 겹쳐 위치노출의 가능성이 우려됨

- 신규후원자 전화시 가해자가 감경 목적으로 후원하는 사례가 발견됨. 가해자를 판별해야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음.
- 열림터 외부 인터뷰, 상담소 활동으로 인해 후원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음.
- 블로그를 통해 연락처가 없던 또우리와 연결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게시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메일 서비스의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구독율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함.
- 20여년 전 입소했던 또우리가 힘든 시기에 단단해질 수 있었다며 방문 및 후원을 함. 열림터가 또우리의 정서적 안전망이 된 반증으로, 앞으로도 또우리와 소통의 창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신규 및 증액	2	4	11	5	3	3	5	1	5	3	5	47
정기후원 납입회원수	168	170	174	187	191	195	196	201	202	206	209	2,099
정기후원 회비(천원)	4,051	4,021	4,091	4,292	4,332	4,442	4,442	4,132	4,173	4,273	4,223	46,472
일시·평생 후원금(천원)	12	20	291	620	14,600	10	50	50	53	10	3,480	19,196

4-3. 대외·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심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유관 단체들과 유사한 문제상황들을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 대외적인 홍보가 어려운 열림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관단체에 열림터를 알리고 열림터의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연대의 힘을 키워나간다.
- 방법 및 계획: 전국시설협회의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열림터의 의견을 드러내고 각 단체들의 다양한 운동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다.
- 진행내용

1.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1차 임원회의(1/7) 2차임원회의 2020년 총회 - 대표단만 참석한 총회를 개최하여, 열림터에서 제안한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과 생활의 편의를 위한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2020년 전시협 정책사업으로 결정함.

2. 마포복지보장협의체여성복지분과

날짜	방식	내용
1/29	중부여성발전센터	- 2020년 계획회의
4/22	온라인회의	- 일정 확인, 단체별 활동소개, 견학처 의견 나눔.
6/18	온라인회의	- 하반기 계획회의와 방문처 정리
7/28	견학	-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방문, 사업 설명
10/22	견학	- 서울미술관.
11/19	온라인·대면	- 청년활동지원센터 사업 소개(줌), 평가회의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날짜	방식	내용
2/14	진흥원회의	여성폭력방지기관협의체대표자자문회의
5/29	진흥원회의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역량강화컨설턴트회의
6/30	진흥원회의	여성폭력피해자지원종합안내서자문회의(의견서제출)
8/14	부산	기관컨설팅 방문(보고서 제출)
9/11	중회의	서울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
10/19	원주	기관컨설팅 방문(보고서제출)
11/27	원주	기관컨설팅 방문(2차)
12/7	중회의	컨설팅 평가회의

4.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날짜	방식	내용	담당
2/18	전체모임	네트워크 구성원 확인 및 운영방식 정리	기획팀
4/28	전체모임	- SH 서종균 사무처장 미팅	기획팀
5/26	전체모임	- 청소년주거권정책제안서 검토	법정책팀
6/16	말하기팀 회의	활동계획 정리	말하기팀
6/23	말하기팀 회의 포럼	- 활동계획 정리 - 민달팽이유니온 미팅	말하기팀 포커스그룹팀
7/28	포럼		포커스그룹팀
8/18	전체모임		기획팀
9/22	포럼		포커스그룹팀
10/18	교육	청소년말하기워크숍(1차)	말하기팀
10/25	교육	청소년말하기워크숍(2차)	말하기팀
11/10	말하기팀 회의	- 청소년말하기리허설 준비	말하기팀
11/24	강연	청소년주거권말하기리허설강연 개최	말하기팀

- 기획팀, 법정책팀, 말하기팀, 포커스그룹팀으로 편성되어서 활동 진행 중
- 누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청소년에게도 시설 이외의 적절한 주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합의 하에 정책 제안 계획 중.
- 제안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당사자 조직을 위해 말하기팀에서 청소년말하기대회 계획 중.
-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연대단위 모집을 위해 포커스그룹팀에서 SH공사, 청년주거운동, 청소년쉼터 등의 여러 현장을 섭외하여 교류 모임 구성 중.
- 말하기팀에 열림터 수수가 코디로 결합, 포커스그룹팀에 상담소 백목련이 구성원으로 결합함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종사자보수교육모니터링

날짜	방식	내용
----	----	----

8/23	회의	- 종사자보수교육 모니터링 사전워크숍(ZOOM)
10/20	모니터링	- [온라인]여성폭력사례슈퍼비전역량강화 과정-과정3
10/21	모니터링	- [온라인]여성폭력사례슈퍼비전역량강화 과정-과정3
12/2	회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보수교육 모니터링단] 평가워크숍(ZOOM)

• 평가 :

1.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회원단체들 간에 유사한 문제상황을 공유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됨.
- 운영주체의 방향이 다른 회원단체들 간에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성폭력이슈가 생겼을 때 적극적인 의견과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시험 회원단체들과 연대이지의 발 굴이 필요함

2. 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타단체의 상황을 이해하고 열림터의 사업을 알리는 기회가 됨
- 공동사업을 계획하지는 못하고 알림 정도의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음.
- 지역내의 유관단체-성매매보호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이주여성보호시설,여성발전센터가 격월로 모였으나 코로나19로 대면회의를 하지 못했음.
- 온라인 회의로 하반기 기관 방문처와 일정을 정함.
- 2개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소개와 활동 내용을 공유함
- 평가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서 관심과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로 의견을 모음.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대표자 회의와 지원종합안내서 자문회의에 참여함으로써 현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내용과 활동을 접할 기회가 됨.
-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심터의 지원내용을 종합하여 안내서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자 문 함.
- 타기관과의 연대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울러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동의 인식과 연대가 중요함을 알게 됨.
- 개소한 연륜이 짧은 타 기관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동안 열림터의 상 황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4.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생활인 다수가 후기/청소년인 열림터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열악한 주거권을 지속적으로 체감해왔음. 연 대활동을 통해 주거권리 개선과 권리 보장에 대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청소년 주거권 보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 계획·수립 뿐 아니라 기존 정책에 대한 정보 또한 습득할 수 있 어 생활인 자립지원에도 도움이 됨.
- 청소년지원현장과의 포럼, 청소년당사자의 주거권말하기워크샵, 리허설강연 개최를 통해 청소년주거권 운 동을 함께할 다양한 주체와 만남. 청소년주거권이란 주제에 대한 여러 주체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듣 고 정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음.
- 총 네 개의 팀이 개별적인 사업을 꾸려나가는 연대 단위인지라 사업량이 방대하여 담당자가 부담을 느끼 지 않도록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종사자보수교육모니터링

- 방역조치가 이어져 일정이 미뤄지고 집합교육대부분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됨.
- 온라인교육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어 교육운영이 원활하였고 교육생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휴식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집중도가 높아짐
- 지역에 거주하는 종사자가 많아 집합교육시 긴 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문제가 발생하므로 향후에는 온라인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교육의 모니터링은 장소에 상관없이 가능하므로 지역에서도 모니터링요원을 선정하고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4-4. 운영위원회 운영

- 배경/필요성 : 열림터 활동가들의 자원만으로는 생활인 지원 및 열림터 운영의 묘수를 다각적으로 계발하기 어려움. 다양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영위원들과 적극 소통하여 생활인 지원이나 향후 열림터 활동에 대한 의견, 정보들이 열림터 운영에 반영할 필요 있음. 또한 열림터의 쉼터 운동 방향이 운영위원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고 다양한 의견이 열림터로 환류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
- 목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영위원 및 전 활동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열림터 운영의 묘수를 찾고 안팎으로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자극의 원동력을 찾는다.
- 방법 및 계획:
 - 사전회의 :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향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함.
 - 또우리모임에서 활동을 원하는 1인을 신규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열림터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봄.
 - 상, 하반기 각 1회씩 진행
- 진행내용

일자	내용	참석	비고
3/9	2020년 새로 계획된 사업을 설명하고, 또우리 기금과 또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소집했으나 회의를 하지하지 못하고 이메일로 의견을 듣는 회의를 진행하였음. 8인의 운영위원중 5인이 답메일로 의견을 제시했음.	송미현, 김의창, 문숙영, 이어진, 이미경,	이메일
11/10	2020년 진행된 사업 보고를 함. 신규사업 제안과 또우리사업 지속을 제안함. 2021년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나눔.	송미현, 문숙영, 이어진, 이미경, 정정희, 김주아	회의

- 평가
 - 대면회의와 달리 직접 소통의 의미는 없었지만, 논의 사안이 분명할 때는 이메일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방식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봄.
 -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난 다음 신규운영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7인의 운영위원 중 4인 참석, 3인(김의창, 채송희, 이승윤)이 사퇴 의사를 표한 신규운영위원 영입을 위해 기 운영위원들에게 추천하도록 제안함.

4-5. 열림터 자료 정리. 전산화

- 배경/필요성 : ① 활동가의 잦은 드나듦으로 인해 생활인 관련 통계(총 입소인원, 나이, 가해자 관계, 피해유형, 퇴소 이유 등)의 정확성이 떨어짐. ② 25주년 포럼을 통해 열림터가 기존의 보호 담론에서 벗어

날 것을 선언하였고, 그와 연계하여 상담일지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생활인 특성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다음 연구 질문을 모색해볼 필요 있음.

- 목표: 열림터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향후 연구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생활인 관련 변화 양상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 방법 및 계획:
 -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 통일된 방식으로 분류
 - 자료 입력 방식의 통일, 입력항목의 선정을 위한 기획회의
 - 최근 3년간 생활인 일지 분석
- 진행내용
 - 5월 7일과 10월5일에 유량(상담팀), 주리(연구소)와 함께 열림터 통계 개선 자문회의를 진행함.
- 평가
 - 통계자료를 통일된 방식으로 분류하여 시스템에 입소하는 피해생존자들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생활인 일지 분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연구목적이 없는 상황이기에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일지 분석 작업은 추후 연구목적을 수립한 후 계획을 구체화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올해 계획은 폐기하나, 통계자료가 정비된 후 통계 분석 작업은 시도해볼 수 있을 듯함.

2020 부설 연구소 올림 활동 보고

전체 활동 슬로건	
<p>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직장 내 성폭력의 현황, 상담일지 분석, 관련 연구 동향 등을 대중과 공유한다. - 30주년 기념 단행본 발간을 위한 활동가 세미나와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료 관리와 아카이빙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한다.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한다. - 페미니즘 신간 읽기 회원 소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의 장을 넓히고 상담소/연구소 활동을 알려낸다.
<p>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를 통해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위치를 공유하고, 국내 각종 공대위 활동, 강의, 자문 등을 통해 운동의 쟁점들을 도출하고 연구활동으로 환류한다.
팀 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성폭력 이론과 쟁점을 생산한다. 2. 반성폭력운동의 자료를 축적하고 연대한다. 3. 상담소/연구소의 활동역량을 강화한다. 	

총평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의 주제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으로 설정하면서 2020년 지자체 장에 의한 성폭력들,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이슈 현안과 연결될 수 있었고, 현장의 상황들을 연구로 환류하여 이론을 생산해내는 데 기여하였음
-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을 각팀별 이슈와 주요활동 공유로 진행하면서 다른 팀의 업무와 고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습할 수 있었으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대중활동을 훈련하고, 활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음
- 30주년 기념 단행본 발간을 위한 활동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상담소 운동의 과정과 최근의 이슈, 활동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출간기획을 진행함으로써 활동가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을 진행하면서 상담소/연구소 활동을 알리고, 신진 연구활동가들과 소통하며, 현장에 기반한 최신 여성주의 연구들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냄
- 페미니즘 신간 읽기 소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다양한 위치에서의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었음

목표1. 반성폭력 이론과 쟁점을 생산한다

1-1.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4호 발간

- 배경/필요성 :
 - 국내에서 반성폭력 이슈와 쟁점, 논의를 담은 정기적 간행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반성폭력 이슈들을 생산하고 담론화하기 위하여 일지분석, 연구동향, 주제별 리뷰 및 이론적 고민이 담긴 정기적인 이슈리포트가 필요함
- 목표:
 - 성폭력 운동과 이론에서의 쟁점을 발굴하고 대중적으로 외화한다.
- 진행내용

(1) 진행일정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3월	기획	전체 컨셉 및 원고 섭외 진행
4~8월	연구 준비	상담일지 리뷰 연구동향 검색 및 리뷰
9~11월	원고 집필	상담일지 분석, 연구동향 원고 집필 내/외부 원고 취합
12월	교정·교열/인쇄·배포	교정, 교열/인쇄, 배포

(2) 최종목차 및 필진

분류	주제	필자
국내외 연구동향분석	국내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연구동향 :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를 중심으로	김보화
상담일지분석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장주리
쟁점과 입장	여성노동상담으로 살펴본 미투전후 변화와 과제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학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직/공동체 내 성평등 약속문 만들기 : 연결과 확장으로 가는 과정	김신아
기고	텔레그램 N번방 이후, 해시태그운동으로 보는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 제·개정 내용 검토	노선이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이 필요하다 : 여성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일탈계’	양지혜
	누구에게 분노해야 하는가? : 촬영물 성폭력, 동의와 강제 사이에서	양예원

서평	『김지은입니다』 : ‘결’과 ‘함께’, 말하기의 힘을 지속시키는 조건	류수민
----	----------------------------------------	-----

• 평가

- 총평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의 주제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잡으면서 지자체 장에 의한 성폭력들,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이슈현안과 연결되고 현장의 상황을 연구로 환류할 수 있었음

: 동향분석과 일지분석의 내용과 범위가 이전보다 좀 더 풍성해졌고,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환류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있음

- 구성 및 내용

: “여는 말”을 앞부분에 추가하여, 해당 호의 기획과 구성,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고, 기획자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대중들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지속하고자 함

: 연구동향분석은 기존보다 해외연구 분량을 확대하여, 미투운동 이후의 국내외적 변화나 한국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고자 했음. 향후에도 해외의 새로운 연구들에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고, 국내연구도 좀 더 새로운 관점의 연구들을 다방면에서 찾아볼 필요 있음

: 상담일지 분석은 법·제도의 안팎을 넘나들며, 피해자의 경험과 맥락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특징, 상황, 대처의 어려움 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관련 주제의 개선방안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쟁점과 입장에서 배진경 선생님의 “여성노동상담으로 살펴본 미투전후 변화와 과제”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에 기반하여 미투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 가해자, 회사의 변화 지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미정 선생님의 “대학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는 미투운동 이후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존의 연구보고서를 축약하는 과정에서 분석이 미흡하거나 그래프 등에 오류가 있어 아쉬움이 있음. 김신아 활동가의 “조직/공동체 내 성평등 약속문 만들기 : 연결과 확장으로 가는 과정”은 공동체 내에서의 “성평등 약속문 만들기 프로젝트” 제작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의미 등을 드러냄으로써 공동체 내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당시 만들어진 약속문을 별첨으로 신지 못해 아쉬움이 남음

: 기고의 경우 디지털성폭력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는데, 노선이 활동가의 “텔레그램 N번방 이후, 해시태그운동으로 보는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 제·개정 내용 검토”는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었고, 양지혜 님의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이 필요하다 : 여성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일탈계’는 디지털성폭력 관련 담론 및 법령들이 여성청소년의 성적권리와 모순되는 지점들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고, 양예원 님의 “누구에게 분노해야 하는가? : 촬영물 성폭력, 동의와 강제 사이에서”는 피해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 성폭력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류수민 활동가의 『김지은입니다』 서평은 언론과 대중의 시선에 가려진 노동자 김지은의 시선을 따라가며 피해자 ‘일상회복’과 말하기의 의미를 되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된다 1월호에서 김지은씨의 편지와 함께 소개되면서 생존자와의 연결, 연대를 모색하는 기획이 되기도 했음

- 실무 및 과정

: 애초 대학과 직장, 기타 조직 내 성폭력을 포괄하려고 했으나 범위가 너무 넓어 일지분석과 동향분석을 직장 내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게 되었음. 범위를 축소하기 전까지 넓은 범위로 일지와 연구들을 살펴보느라 소비되는 시간들이 적지 않았음

: 내부/외부 저자의 비율을 비슷하게 균형을 맞추었고(연구소 제외), 향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구성하고자

함

: 외부 필진의 경우 원고를 받은 직후 수정 및 교열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저자들과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상반기 연구범위 설정의 변경 등과 코로나 및 책임연구원의 2일 근무, 연구원의 공대위 활동 등으로 원고집필이 계획보다 늦어져서 연말에 집중적 소진이 발생한 점은 아쉬움

- 향후 계획

: 일지분석 연구는 수정보완하여 상반기 내에 학회지 게재를 목표로 하고 책뭉치를 통해 대중들과 공유할 예정임

: 읽기모임 일정 정하기

1-2. 반성폭력 연구동향 분석

• 배경/필요성 :

- 반성폭력의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4호와 연결하여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리뷰함으로써, 반성폭력 연구활동의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음

• 목표:

-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관련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해 연구활동의 시야를 확장한다.

• 진행내용

(1) 연구리뷰 방법(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발간된 국내외 논문)

	국내	국외
키워드	-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 법, 성희롱 법 개선방안 등	- workplace sexual violence/harassment, sexual harassment law etc.
검색기관	- DBPIA, RISS	- JSTOR, SAGE journals, Wiley Online Library, Taylor & Francis Online, Heinonline
검색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원인과 조건 - 직장 내 성희롱과 구성원들의 성인식 - 직장 내 성희롱 법/제도/판례 - 직장 내 성희롱 처리절차/방법	- 직장 내 성희롱 원인과 조건 - 성별, 인종, 계층 등과 직장 내 성희롱의 관련성 - 직장 내 성희롱 법과 판례
분석에 반영된 연구	- 27편	- 16편

(2) 분석 진행내용

국내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1 연구동향

: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방법
3.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국내 논의
 - 1)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원인과 영향
 - 2) 직장 내 구성원들의 성인식과 성희롱 경험에 관한 연구
 - 3)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판단기준
 - 4) 직장 내 성희롱의 대응체계와 방법에 관한 논의

- (1) 사용자책임과 제3자 보호제도의 강화
- (2) 형사처벌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 (3) 성희롱 신고·처리 담당자 및 기구에 관한 연구
- 4.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해외 논의
 - 1)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원인과 조건
 - 2) 직장 내 구성원들의 성인식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 (1) 남성중심적 문화의 문제점과 리더십의 중요성
 - (2) 성희롱 신고를 막는 요인들
 - 3) 직장 내 성희롱의 처리과정과 제도적·법적 개선방안
 - (1) 처리 과정에서 관행 및 제도적 문제
 - (2) 법적 개념과 개선방안
- 5. 나가며

• 평가

- 국내외 자료검색과 관련하여 자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도움이 되었으나, 향후 자원활동가와 협업 시에 더욱 원활한 소통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연구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원인들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 구성원들의 성인식과 성희롱 피해/가해 경험, 현재의 성희롱 관련 법·제도의 미비함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룸.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직장 내 성희롱이 형법 상 규율되지 않고, 기본법, 노동법, 민사법 등에 의해 제재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혼란과 가해자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과 강제력의 미비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임. 더군다나 직장 내 성희롱은 사내의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신고, 처리,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훈련된 주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러한 주체와 기구를 양성하기 위한 기업의 의지가 없는 한 형식적인 기구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좀 더 강력한 처벌규정과 해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함.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의 중요한 특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권력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많은 경우 신고와 징계 이후에도 서로 만나야 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직장 내 구성원들은 대부분 가해자와 더 친밀하거나/친밀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쉽게 예측된다는 것에 있음. 그러므로 단편적인 예방교육이나 법의 제/개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 인권, 성평등, 페미니즘, 의사소통의 방법들이 토론되고 조직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으로서 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의 연구들은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원인과 조건을 분석하거나 직장 내 남성중심적 문화가 성차별, 성희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리더의 역할 및 중요성과 신고를 막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됨.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처리 과정에서 통념이나 편견에 의해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보게 되는 관행들을 지적하고 법적 개선방안들을 살펴보고 있음. 해외 연구들이 국내 연구들과 다른 지점은 성희롱의 원인, 조건, 성인식 등을 분석할 때 계층, 인종, 성적지향 등의 문제를 다중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그리고 특정한 법의 개정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법의 해석과정, 그 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무엇보다 적지 않은 연구들이 미투운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성희롱·성폭력 경험들과 미투운동이 드러낸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들을 직시하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3. 단행본 발간사업

•배경/필요성 :

- 2006년에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가 발간된 이후, 국내외적으로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어 왔음. 최근의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와 논쟁을 정리하고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상담소 30주년에 맞춰 발간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상담소 운동의 역사와 섹슈얼리티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운동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목표:

-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 관련 이슈들에 관한 공론장을 만들어 논의를 확장한다.

•진행내용

- 단행본 준비를 위한 활동가 세미나 진행(총 10명의 활동가들이 9회 진행)

일정	주제	텍스트
3/24	- 세미나 커리, 주제 논의 - 단행본의 위상 논의 등	- 없음
4/21	- 과학기술과 여성의 몸	- 테크노 페미니즘(주디 와이즈먼, 2009) : 주리 - 이미지착취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최란, 2017) : 오매 - 배틀 그라운드(성과재상산포럼, 2018) : 앎
5/19	- 성폭력 법적 판단기준과 개념:역량 접근이론과 성적자기결정권	- 성적동의(밀레나 포포바, 2019) : 파이 - 역량의 창조(마사 누스바움, 2015) : 신아 -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장다혜, 2018) : 유랑
6/30	- 공동체 내 성폭력사건 해결의 의미	-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권김현영외, 2018) : 달별 - 참고문헌없음(참고문헌없음, 2017): 앎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민우회, 2017): 주현
7/21	- 래디컬 페미니즘 비판	- 래디컬 페미니즘(실라 제프리스, 2018) : 수수 - 잘못된 길(엘리자베트 바덴테르, 2019) : 오매 - 논쟁 중인 한국의 여성운동(조주현, 2019) : 주리
8/25	- 교차성 페미니즘	- 교차성 페미니즘(한우리 외, 2018) : 유랑 - 제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김은주, 2019) : 달별 -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1299.(Crenshaw, K.,1991) : 주현
9/22	-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 원통한 감정에 관한 철학적탐색(허라금, 2017): 수수 - 여성주의 상담의 전복적 대화(로라브라운, 2012): 유랑, 신아 - 참고자료: 피해와 생계사이 자료집 / 수치의 윤리, 그 실천적 함의(허라금, 2016)
10/20	- 기본소득과 돌봄	- 기본소득(가이스탠딩, 2018): 달별, 신아, 주현 - 돌봄:사랑의노동(에바키테이, 2016): 주리, 수수
11/17	- 기본소득과 돌봄 논의 + 기획회의	- 기본소득과 돌봄 이론을 반성폭력운동과 연결하기 - 단행본 주제 및 내/외부 필진 논의

- 기타 : 단행본 챕터 구성을 위한 새로운 주제/필자/내용 등에 관하여 논의 필요, 외부 필진은 상담소와 신뢰관계에 있거나 앞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분 위주로 섭외할 필요 있음. 활동가들이 글을 쓸 경우 원고 지연이나 부담감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주로 외부로 구성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할 필요 있음

•평가

- 단행본 구성을 위한 세미나로 기획되었지만 활동가들이 발제문을 준비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평소 고민들을 확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 그간 논의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토론 사항이 많아 단행본에 담길 방향, 관점, 저자 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지점이 있음
- 바쁜 일정이 많은 화요일에 진행됨으로써 시간 등에 쫓겨 텍스트를 읽어오지 않/못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텍스트 기반의 심도깊은 논의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발제 등을 자원하고,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정보와 지식, 논의 지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갔음
- 특히 활동가들이 현장활동에 기반해서 단행본 기획을 고민하고, 학습 및 논의를 진행한다는 협업 과정으로서 긍정적 의미가 있음
- 참여한 활동가들은 발제 준비와 텍스트 읽기, 이해하기 등이 다소 부담은 되었으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30주년을 맞이하여 대중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세미나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실제 활동에 반영하는 등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추후 기획을 더 구체화할 예정

목표2. 반성폭력운동의 자료를 축적하고 연대한다

2-1. 상담일지 분석을 통한 현장기반 반성폭력운동 자료 축적

• 배경/필요성 :

- 상담일지는 성폭력피해자의 경험과 요구가 직접적으로 담겨있는 자료로서 반성폭력 운동과 연구에 필수적인 1차 자료임. 연구소에서 기존에 진행해왔던 것과 같이 연도별, 주제별 일지분석을 진행하여 현장의 언어가 대중의 인식과 법, 정책적 변화에 반영되도록 담론화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현장에 기반한 반성폭력 이론을 공유한다.

• 진행내용

(1) 일지리뷰 과정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의 주제를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과 의미 분석”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상담일지 분석 대상을 2019년 ‘직장/대학 내 성폭력’ 사례로 정하였음. 그러나 리뷰 결과 대학 내 성폭력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직장 내 성폭력과 공통으로 분석 가능한 키워드를 추출하기 쉽지 않아 주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적 사례로 사용함
- 기본정보(최초상담번호, 상담일련번호, 차수, 상담방법, 상담의뢰인), 피/가해자 정보 및 관계(피해자 성별·나이, 피해가 시작된 시점, 피해자 직업/소속 내 위치, 고용형태, 가해자 성별·나이, 가해자 직업/소속 내 위치, 피가해자 관계, 회사규모), 피해의 내용(피해 유형,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구체적 유형, 피해 장소, 지속피해 횟수/기간, 피해시 상태, 피해자 특성, 다른 피해자 여부 및 대처 내용), 2차 피해(가해자, 발생시점, 주변인의 2차피해 여부, 내용), 피해 이후 조치 및 대응(상담 전 조치 및 대응, 법적 절차, 제도적 절차, 학교 내 절차, 개인적 대처, 해당 대처방안을 선택한 이유, 피해자 요구, 상담원 지원 내용), 사건 개요, 역고소(유형, 신고/고소인, 피의자 인지 시점, 법적 절차 진행 단계 및 결과, 내용), 미투(동기 부여 매체, 미투판단요인, 그동안 망설인 이유, 내용)를 중심으로 직장 내 성폭력 사례 250건(312회), 대학 내 성폭력 사례 39건(46회) 리뷰함

(2) 일지분석 내용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일지분석

1. 들어가며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통계
 - 1) 상담 의뢰인
 - 2) 피해자·가해자의 성별
 - 3) 가해자 유형
 - 4) 피해 유형
 - 5) 2차 피해의 관계 및 유형
3.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조건
 - 1) 가해자가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 2) 목격자나 도와줄 주변인이 부재한 상황일 때
 - 3)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성으로 인해 대응이 극도로 어려울 때
 - 4) 이전의 가해행위가 제지되지 않았을 때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해결과정에서의 난점
 - 1) 문제제기의 어려움
 - 2) 조직 내에서의 미조치·은폐
 - 3) 가해자의 역고소
 - 4)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기계적 원칙 적용
 - 5)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조직 내 해결과정
 - 6) 직장 밖에서의 해결 시도와 어려움
5. 나가며

• 평가

- 직장 내 성희롱 및 대학 내 성폭력 기본 대응 체계, 관련법에서 행위자 및 피해자의 범위, 조직 내에서 대응 가능한 방법 및 현행법 내에서 대응 가능한 정도 등에 관한 활동가들의 상담 역량강화가 필요함
- 일지상으로는 수사재판과정 외 다른 대응과정(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동체/조직 내 해결 등)에 있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외의 과정을 선택할 경우 노무사, 고용평등상담실 등 자신이 선택한 대응과정에 적절한 지원자/지원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일 것임. 다만 수사재판과정 외의 대응지원을 대비하여 기본적인 대응역량(진정의 기본적 과정, 진정과정에서의 난점 파악, 공동체/조직 내 해결과정에서 주의할 점, 연계체계 마련 등)을 기를 필요가 있음
-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차별적 언동도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 언동과 관련하여 직장내괴롭힘금지법과의 관계, 젠더괴롭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 상담소 내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활동가들과 함께 상담동향과 연구동향, 필요한 연구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 토론하는 자리를 고민해 볼 필요 있음

2-2.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

• 배경/필요성 :

- 연구소는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슈의 쟁점을 발굴하고, 기존의 이슈들을 시대적 맥락에 따라 재해석해야 함

-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결과를 발제, 학회지 게재, 강의, 인터뷰, 학회 참여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알려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대활동을 통해 국내/외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동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음
- 목표 : 상담소/연구소에 축적된 연구와 활동들을 알리고 연대의 고리를 강화한다.
- 진행내용 <강의 : 총 11회>

날짜	주최단체	강의제목	대상
4/2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현황과 지원체계	폭력예방강사교육 통합편
6/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피해지원의 실제-2차피해 예방과 종사자 윤리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7/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	국방부 양성평등담당과
7/2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사건처리 쟁점과 예방교육	문화예술계 예방교육 강사
7/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	성매매 기관 종사가
8/18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의미	조직내 사건처리 지원자
11/5	민주노총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은 필요한가	민주노총 활동가
11/12	이화여대 여성학과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이화여대 성문화수업 학생
11/30	목포여성상담센터	여성혐오와 여성폭력에 맞서는 토크콘서트	목포카톨릭대학교 학생
12/8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역량강화워크숍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2/28	인천사람연대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은 여전히 필요한가	인천사람연대 회원

<자문 : 총18회>

일시	주최단체	회의명/자문명
1/9	우리원헬스케어병원	성희롱 사건처리 심의위원회
1/16	우리원헬스케어병원	성희롱 사건처리 심의위원회
1/21	정의당 서울시위원회	성폭력 사건 자문(서면)
2/4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연구 자문회의
2/4	보건의료노조	성희롱 사건처리 자문(서면)
2/11	넥스트바이오젠	성희롱 사건처리 심의위원회
3/1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종합안내서 자문(서면)
3/1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방부 교육 계획 및 개선방향 논의
3/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논문심사(서면)
4/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가해자 교육 사전/사후 설문지 자문(서면)
4/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 자문회의
5/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자문(서면)
6/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 자문회의
7/8	아름다운 재단	사건처리 관련 자문
11/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논문심사 (서면)

1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평가 : 젠더폭력정책 관련 연구 (서면)
12/10	이화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논문심사 (서면)
12/28	수원시	공직문화성폭력 예방관련 문화적, 조직적 노력 자문 (서면)

<원고 : 2건>

일시	기관	제목
4월	YWCA, 『월간 YWCA』	디지털 성착취를 끊어낼 행동하는 사유함을 위하여
12월	한국여성연구원, 『미투가 있다/있다: 끝나지 않는 변화의 연대(안)』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연대

<방송사 취재 및 인터뷰 : 약6회>

일시	언론사	회의명/자문명
1/6	KBS 뉴스	윤창중부터 정봉주까지...총선이 명예회복의 장? http://mn.kbs.co.kr/news/view.do?ncd=4367181
1/29	이데일리	원종건 전 여친이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나도 당하고 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073766625642640#forward
8/16	KBS 뉴스	"네가 유난스러운 거야"...침묵 강요당하는 성폭력 피해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8424&ref=A
10/20	KBS 뉴스	성범죄에 관대한 국민참여재판?...무죄율 7배 높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9891
12/2	KBS2 굿모닝대한민국라 이브 "이슈포착"	샤넬코리아 성추행 의혹
12/8	KBS 뉴스	성범죄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 되찾으려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9954&ref=A

<외부연대활동>

일시	활동	세부활동내용
4월~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사무국 협업)	- 4.29 성명서 작성 - 5.13 공대위 2차 회의 참석(부산) - 6.9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발언문 작성 - 10.30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 미투운동 '너머'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 참석
9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사무국 협업)	- 공대위 회의 및 관련 사건 공판 참석(약 주1회) -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설문 조사 진행 및 발제 예정(12월 22일)

<30주년 사업 준비 내부협업>

활동가	소속 TF	활동 내용
파이	규정 TF	- 상담소 내부 규정 및 매뉴얼 점검 및 수정, 윤리규정 작성 등
주리	스마트 워크 TF	- 상담소 운영에 도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검토, 체계 구축 - 기사, 뉴스, 인터뷰, 카드뉴스, 블로그 등에 대한 아카이빙 체계마련

- 평가
-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외부행사 자체가 취소되거나 줄었으나 점차 온라인 등으로 진행되면서 후반부에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됨
- 여름에 계획되어 있었던 각종 국제교류 활동들이 취소됨에 따라 국제연대에 대한 계획이 무산된 점은 아쉬움. 그러나 오매와 함께 일본 연구자들이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각국의 현황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었음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의 공대위 활동을 통해 성명서, 기자회견, 발언문 등을 작성하거나 여러 번 부산을 오가면서 연대활동의 경험을 쌓고 지역운동의 주체들과 교류할 수 있었음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에서는 특히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에 관한 설문조사와 연구분석을 진행하면서 직장 내 성폭력의 현황과 대한 담론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음

목표3. 상담소/연구소의 활동역량 강화한다

3-1. 반성폭력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

- 배경/필요성
- 여성학계에서 젠더폭력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론과 현장의 순환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진연구자들을 모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
- 연구활동가 및 젠더폭력에 관심이 있는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천학문으로서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미래 모색’의 내용에 관한 포럼을 열고자 함
- 이론과 현장의 공통점 및 차이점, 서로 어떤 전략 속에서 함께 하고 있으며 함께 해야하는지, 아카데미 페미니즘에 대한 성찰, 현장연구의 중요성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목표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한다.
- 진행내용
- 참석인원: 46명 참석(사전신청 66명 중 31명, 현장신청 15명), 후속 세미나 12명 신청
- 포럼 진행: 2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6시, 이안젤라홀에서 진행, 사회 : 김보화

<1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학의 만남, 그리고 현재

- 15:10~15:20 여성학과 여성운동, “마르지 않는 샘물”(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15:20~15:30 현장기반 연구의 현황과 의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연구활동가 발표 세션1

- 15:30~15:45 그루밍 성폭력 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 연구(김민주,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12기 석사)
- 15:45~16:00 가족주의를 통해 부정되는 성폭력: ‘가해자 아내’ 발화의 효과를 중심으로(남승현,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 16:00~16:15 젠더 폭력의 (탈)피해자화: 국가와 페미니즘 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박주현, 버클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16:15~16:30 쉬는 시간

연구활동가 발표 세션2

- 16:30~16:45 HPV 백신의 젠더화와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김보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 16:45~17:00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페미니즘'들' 속에서 '나의 페미니즘' 만들기(오혜진,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석사)

17:00~17:10 전체 질의응답

<2부>

- 17:10~17:50 주제별 모듬토론

- 17:50~18:00 공유 및 마무리

• 평가 (3월 11일 5차 상근자 회의에서 평가 완료)

(1) 실무 및 준비과정

- 원고수합과 홍보 등은 적절한 시기에 진행되었고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되었음
- 연구소 원고 작성과 발표, 행사 준비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음
-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추후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
- 발표자 섭외는 첫 행사인만큼 각 학교에서 한 명씩 섭외했지만 추후에 다른 형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추후에는 발표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듯함
- 펀딩을 받을 수 있다면 1년에 두 번도 가능할 듯
- 중앙대와 서강대를 섭외하지 못했는데, 꼭 학교당 한 명이 아니고, 학위논문 발표가 아니어도 네트워킹 하고 싶은 활동가들도 포함하면 좋을 듯함
- 연구소 2인이 발표와 사회를 진행하면서 실무총괄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우나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잘 진행되었음
- 예산이 다소 초과되었는데 추후 참가비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2) 포럼 당일

- 지리산과 연구소 발표가 좀 더 길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음
- 연구소 발표는 무난했지만, 추후 더 도전적인 질문들이 진행되면 좋겠음
- 준비가 잘 되지 않은 발표자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음
- 다양한 연구 진행 단계에 있는 연구자들의 발표 수위, 범위를 좀 더 일관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모듬토론을 못한 것과 관련해서 인원과 장소, 시간상 어쩔 수 없었고 전체 토론을 통해 보완하였음
- 사전신청과 더불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 연구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페미니스트 네트워킹과 최신 연구동향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됨
- 현장 연구에 대한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지 못한 점, 연구 주제에 통일성이 떨어지는 점, 소통과 교류의 측면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
- 향후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주최하거나 펀딩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음
- 후속 세미나는 페미니즘 신간읽기 회원 소모임으로 대체하였고, 2021년 2월, 2회 책뚝페 준비 예정

3-2. KSVRC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 다른 활동가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 뿐 아니라 받는 기회를 넓혀 외부활동 역량을 강화할 필요 있음

음

- 상담소 각 팀별 전문성 및 실무적 역량을 함께 공유할 기회가 필요함
- 외부 강사 교육을 통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넓은 이해를 도모해야 함
- 목표 : 활동가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고, 팀별 활동의 역량과 이슈를 확장한다.
- 진행내용

(1) 교육

- 시기 :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총 9회
- 정책/이슈 및 팀별 활동 내용과 고민들을 바탕으로 팀별로 준비

일정	담당팀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3월	성문화운동팀	연대 활동 및 이슈 토론	- 차별금지법/모낙페 등 연대활동 내용 공유 및 총선 관련 이슈 논의, 토론
5월	연구소	여성학 기본 교육	- 여성과 노동/가족 강의
6월	사무국(10일)	조직변화실험실1	-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 조직진단 워크숍 진행
	사무국(24일)	조직변화실험실2	- “일의 언어로 말하기” 강의
7월	사무국	조직변화실험실3	- “차이로 연결고리 만들기” 강의
9월	사무국	조직변화실험실4	- 마무리 워크숍 진행
10월	여성주의상담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 길라잡이	- 초기상담부터 지원구조화까지 - 신고부터 조사까지 피해자의 권리보장 - 재판과정 자세히보기
11월	열림터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현황과 과제	- 2019년 포럼 내용 발표 - 쉼터운동 이슈 공유(도난사건 대응하기, 강제퇴소에 대한 고민들)
12월	연구소	함께 나누기	- 모니터링 피드백 하기/받기 - 교육평가 - 전체 마무리

(2) 모니터링

-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하기 2회 의무(사전/사후 포함), 모니터링 받기 1회 의무였으나 코로나 상황 및 신선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참여율 저조하여 모니터링 하기·받기 관계 없이 1회라도 참여할 것을 독려함. 참고영상 리스트를 만들어 모니터링의 접근성을 높임

	재산	앓	감이	파이	주리	낙타	조은희	달별	박희	백은	유랑	오매	신아	전유	사자	수수
하기	1		1	1	1	1		1	1	1	1			1	1	1
받기		1			1		1				1	1	1			1

<참고영상 리스트>

일시	제목	출연자	영상 시청 링크
2019년 4월 4일	제정임의 문답쇼 함: '버닝썬 사태' 2015년에 예견됐다?	지리산	https://programs.sbs.co.kr/cnbc

			/humanimpact/ vod/54082/220 00328383
2020년 3월 28일	생방송 심야토론: n번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오매	상담소 아카이브 폴더
2020년 7월 13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1차 기자회견	지리산, 오매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2020년 7월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지리산, 오매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2020년 11월 24일	닷컴페이스 썸머쇼: 아직도 낙태죄 폐지하 는 게 찜찜해? 낙태죄에 관한 모든 것	얏	닷컴페이스 유튜브

• 평가

- 사무국에서 담당했던 4월의 교육 일정이 6월로 밀리면서 6월에 활동가들이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 점은 아쉬움
- 조직변화실험실의 워크숍 및 강의 기획을 활동가교육을 통해 수행하게 되면서 쟁점 이해 및 실무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소통 증진의 내용이 추가되었음. 일정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나, 활동가교육의 기존 계획을 수정해 활동가들이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내용을 소화할 수 있었음(조직변화실험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사무국 평가 참조).
-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9년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2020년에도 유지했으나 코로나 상황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지점이 있었으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외부활동영상 등을 공유하여 참여를 최대한 독려했음. 최종적으로 모든 활동가가 하거나 받기를 1회 이상 참여하였고, 하기, 받기를 모두 한 활동가도 3명이나 되었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서로에게 배운 점과 개선 사항 등을 주고 받는 과정은 임파워링되는 시간들이기도 하였음
- 향후 모니터링 시스템은 강제사항은 아니어도 활동가들이 서로의 활동을 함께 배우고, 피드백하는 상담소의 문화로 정착할 필요 있음
- 팀별 세부 교육
 - ① 3월 성문화운동팀 : 모낙페 활동과 차별금지법 활동에 있어서 법적 현황과 개선방향, 논쟁지점 등을 강의, 토론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소와 활동가들의 적극적 연대의 의지를 높임
 - ② 5월 연구소 : 여성학 기본 교육의 일환으로 가족개념,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의 다양성, 모성과 결혼, 여성노동과 성별임금격차, 고용상 성차별, 간접차별, 노동개념 등에 대하여 학습함. 기존에 활동가들이 노동과 가족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음
 - ③ 10월 여성주의 상담팀 : 수사재판 지원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직접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활동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예: 국선변호인제도, 국민참여재판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훑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④ 11월 열림터 : 쉼터운동에 있어서 '보호'의 의미와 실제 지원 과정에서의 최근 이슈(도난, 강제퇴소 등)들을 촘촘하게 타임라인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쉼터운동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 활동가 교육을 팀별로 준비하면서 팀별 중요한 이슈와 고민을 나누고 다른 팀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좀 더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었음

- 활동가 평가 응답내용(참여자 총 17명)

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1개 선택)

성문화운동팀의 차별금지법/모낙페 연대활동 공유 및 이슈논의	6명(35.3%)
연구소의 여성과 노동/가족 교육	3명(17.6%)
여성주의상담팀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 길라잡이	6명(35.3%)
열림터의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현황과 과제	3명(17.6%)
딱히 도움이 되는 교육이 없었다	0
계	18명

② 도움이 된 이유(서술형)

- 중요한 이슈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혼자 공부하지 않았는데 많이 공부가 됨
- 이후 토론시간이 유익했다.
-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음.
- 다른 팀의 활동을 집중해서 확인하는 시간
- 전화상담 시 어떤 점을 안내할 수 있을지 도움이 되었음
- 잘 몰랐던 성폭력 피해자 법적지원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낙태죄 폐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좋았음.
- 직접 준비하면서 업무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이슈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 당시 고민하고 있던 주제에 관하여 생각 정리에 도움을 줌
- 법적지원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 고민의 지점들을 논의할 수 있어서요^^
- 상세한 내부 논의를 통해 공유하는 것 : 열림터의 고민과 감각을 공유하게 되는 것
- 현재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 향상
-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열림터의 생활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성문화운동팀의 활동과 상담팀을 이해할수 있었고, 상담팀에서 팀원각각 조금씩 발표하는 부분이 좋아서 열림터 교육 때 참고했습니다.
- 상담소에서 잘 들을 수 없던 강의여서

③ 위에 선택한 교육 외에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되었던 교육(1개 선택)

성문화운동팀의 차별금지법/모낙페 연대활동 공유 및 이슈논의	2명(11.8%)
연구소의 여성과 노동/가족 교육	4명(23.5%)
여성주의상담팀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 길라잡이	7명(41.2%)
열림터의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현황과 과제	4명(23.5%)
딱히 도움이 되는 교육이 없었다	0
계	17명

④ 도움이 된 이유(서술형)

- 전화상담에서 도움이 됨
- 마찬가지로 토론이 유익했다.
- 팀에서 같이 했지만 준비하면서 좀 더 정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음.
- 상근자회의에서 부분적으로만 들었던 차별금지법/ 모낙페 이슈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이 교육을 준비한 열림터에 도움이 되었다. (저 열림터입니다)
- 열림터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음.
- 직접지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 성폭력 피해자 법적 지원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봐 상담 자신감을 키움(그러나 여전히 자신감은 없었다...)
- 띄엄띄엄 전해드던 열림터 주요 이슈들을 한번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상담팀의 고민의 흔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 잘 모르던 부분의 지식들 : 그러나 외워지진 않은 듯 하네요. 기억이 나려면 실제로 또 해봐야 할 듯 합니다.
- 법률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진행과정 습득
- 여성과 노동/가족에 관한 이론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넘 오래돼서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나네요...ㅠ.ㅠ)
- 여성운동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연대활동의 구체적인 이슈와 내용은 잘 몰랐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됨

⑤ 이후 활동가 교육에서 받고 싶은 교육내용, 주제, 섭외하고 싶은 강사 등이나 기타 의견

- (이런 말 싫어하시겠지만) 연구소의 기획 다 좋아요. 연구소 화이팅!
- 각 팀 활동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이후 활동가 교육에서는 포토샵 등 디자인 강의 (NGO 활동가를 위한), 우리의 활동을 언어화해줄 여성학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 연대의 기술. 효과적인 연대 방법
- 회의하는 법
- 반성폭력 이슈에 관한 교육내용이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좀.. 정보인권 관련한 기관에서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영역이라 궁금궁금~
- 상근활동가들과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함께 하는 시간도 좋을 것 같다, 각 팀별 의제와 고민점을 요모조모 알 수 있어서 올해 교육 구성이 좋았지만 각 활동가의 발표 형식보다 모듬/조별 토론 또는 워크숍 중심 교육이 더 집중도나 참여도가 높을 것 같다.
- 2년 간 강의식 교육을 들었으니 실무 위주 교육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연구소의 페미니즘 이론 강의 강추!!!
- 그 외 올해 회계 교육도 있었고, 잘 정리된 교육이었음이다
- 매년 받고 싶은 교육이 달라지는 듯 합니다. >>> 유튜브/ 인스타그램 무엇인가
- 교육담당 팀은 업무부담이 크지만 각 팀별로 집중하는 사업과 이슈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평소에도 알고싶었던 분야(사건지원, 법률, 장애/성소수자/이주여성 이슈 등)에 관해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도 좋고 이슈에 관한 활동가들 간 토론 시간도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 아로마테라피 같은 것도 한번씩 하면 좋겠다

- 향후 활동가교육 진행 담당 관련하여 논의하여 2021년은 사무국에서 담당하기로 함

3-3. KSVRC ‘보라! 페미니즘 책방’ 운영 및 발간자료 정리

•배경/필요성 :

- 각 층의 서고 공간이 부족하여, 신규 서적, 자료집 등의 보관 마련을 위한 빠른 재정비가 필요함
- 개별활동가들이 참여한 각종 발제, 토론 등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온/오프라인에서의

보관과 공유가 활발하지 않았음

- 목표 : 선행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이슈와 쟁점에 대한 역사적 맥락들을 이해하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진행내용
 - 상담소 내부자료 아카이브를 연도, 자료명, 성격, 주최/주관/후원기관, 저자, 행사명, 행사장소, 홈페이지 업로드 여부, 데이터서버 내 PDF 유무 등에 따라 정리하고 있음. 이 중 PDF 파일이 없던 자료 10권을 스캔하여 PDF화하였음
 - 3층 자료보관소 확장공사 완료(상담소 자체 예산)
 - 페미니즘 신간도서, 세미나 도서, 활동가 신청 도서 등 총 20권 구매. (12.6. 기준)
 - 현재 외부자료집 688종, 내부자료집 175종, 단행본 643종, 외서 6종, 학위논문 102종, 정기간행물 296종이 DB화 되어 있으며, 상담소 네트워크의 “WW책임연구원W책임연구원W2016년 2월부터W상담소 자료 목록 DBW2020년” 및 1층 서고에 비치된 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평가
 - 3층 자료보관소를 확장하였으므로 3층 서고 정리를 시작으로 1층/2층/3층에 산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계획을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기간 설정이 필요
 - 활동가들이 자료를 빌려가면서 대여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 시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향후 주의가 필요함
 - 스마트워크TF에서 정리한 홈페이지 상 발간자료 태깅 관련 아이디어를 발간자료 정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상할 필요가 있음

3-4. 연구소 자문위원 위촉 준비

- 배경/필요성 :
 - 연구소는 그간 해당시기 진행 사업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를 진행하였으나 연구소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이 부재함
 - 2017년 통합자문위원회에서 법/정책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한 이후 연구소 운영과 비전, 향후 연구과제 도출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음
 - 상담소 30주년 전에 연구소 자문위원 풀을 재정비할 필요 있음
- 목표: 자문위원 리스트를 재정비하여, 연구소의 인적 자원을 확대한다.
- 진행내용
- 평가(미진행 이유):
 - 연구소 자문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올림 개소 시 위촉된 객원연구원/자문위원들을 파악하고, 기존 성문화운동팀이나 사무국 소속의 법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재정비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
 - 그러나 현재 책임연구원의 2일 근무와 사업 최소화 등의 상황으로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나눌 수 있는 논의들이 많지 않아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함
 - 향후 연구소의 재정비 및 확장의 시기에 중장기적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될 필요 있음

〈추가 신규사업〉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 페미니즘 신간 읽기 소모임

•배경/필요성 :

- 최근 페미니즘 관련 도서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서들을 회원 및 관심있는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각자의 현장을 공유함으로써 대항적 감각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목표: 최신 페미니즘 논의들을 학습하고, 회원들과의 소통 장을 넓힌다.

•진행내용:

일정	텍스트	참석자 인원
4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밀레나 포포바(2020), 성적동의	3명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울림(2019),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3호	8명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온라인 중)	천관울 외(2020), 20대 남자	6명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온라인 중)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9명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온라인 중)	김은실 엮음(2020),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7명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온라인 중)	정세랑(2020), 시선으로부터	6명
10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온라인 중)	김지은(2020), 김지은입니다	5명
11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온라인 중)	윤이형(2020), 봉대감기	6명

•평가:

-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 포럼의 후속 사업으로 신진 연구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쌓고 최신 연구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가 기획되었으나 코로나로 모임이 한 달 지연됨으로써 처음에 참석을 희망한 사람들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았음
- 4월 첫 세미나 이후 더 많은 회원들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고자 페미니즘 신간 읽기 회원소모임으로 전환함
- 많은 참여 인원을 목표로 하지 않았음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10명 전후)이 신청하셔서 회원 및 대중들에게 페미니즘 독서토론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됨
-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가 가진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나눔으로써 여성주의 언어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었음
- 6월부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세미나로 전환되었고 전 달보다 참석이 다소 저조하기는 했으나, 7월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 ZOOM을 통한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함께 영상이나 파일을 공유하여 볼 수 있는 등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세미나에 잘 적응하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에 소극적인 경향도 있어 향후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두 분의 참여자가 상담소 회원에 가입하는 등 회원소모임으로서 의미가 있음
- 2020년 안젤라 어워드에서 “비대면세미나마스터상”을 수상하여,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더욱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음
- 내년 3월부터 시즌2를 진행할 예정임

2020 사무국 활동 보고

전체 활동 슬로건	
<p>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부연대활동에서 소식, 후기, 내용 등을 상담소 계정에 공유하는 활동을 팀에서 함께한다 - 상담소 사람들, 조직문화, 사건과 사안에 대한 나누고픈 이야기를 주1회 짧게 공유하는 ‘활동스토리’를 게재한다 (ex) 두 활동가의 ‘환갑휴가’ : 규정 안내, 소감, 활동 지속성 등))
<p>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 작성 및 발표에서 ‘적용해 볼 점’ 코너를 신설하여 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 국제교류협력에서 상담소 및 한국에서의 활동을 발표, 공유 (공식, 비공식 프로그램에 제안, 마련)한다 - 국제교류협력 비용 상향 현실화한다 (1인 200만원)
팀 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진전과 연대 2. 상담소의 운동을 더 보이게, 더 지속되게 3.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 4. 평등한 문화와 공간 만들기, 좋은 삶 살아가기 	

총평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과 정의연 사안 등 여러 격동이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상담소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리는 계기이기도 했음. 반면 후원회원 탈퇴도 있어 상담소의 정체성과 비전을 알리는 것을 더욱 할 필요
- FGI 등을 통해 상담소가 많은 영역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나, 이를 알리고 보이고 들리게 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많았음. 그 와중에 활동가 인터뷰 등을 통해 상담소 운동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 알리는 기획 콘텐츠가 마련됨
- 30주년 TF에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30주년의 지점을 고민하고 정리하고 시도하였고, 조직문화소 통체계에 대한 가시적 워크숍과 원칙 도출 논의가 있었고, 내년도 차기 대표단 구성에 대한 공동 논의 등 과 정도 있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및 교류 지침이 계속 변동되었고 긴장감 있게 관리를 해나갔음. 스마트 워크와 온라인 활용에 대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됨
- 시민단체에 대한 공격 등 외부적 역동 사이에서 행정과 조직 매니지차원에서 새로운 정비와 시도들이 있었음 (서류, 공시 등) 그러나 일상 관리 업무가 사소화되지 않도록 공동의 논의와 실천이 계속 요구됨
- 사무국이 많은 일을 각자의 몫으로 해내느라고 업무 백업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있었고, 구체적인 신뢰도의 축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됨

목표1. 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진전과 연대

1-1.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여부’ 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활동

- 배경/필요성 :
 -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은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고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에 국한하고 있음. 이러한 ‘최협의설’을 타파하기 위해 2019년 전국 209개 여성인권단체들과 「‘강간죄’ 개정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양한 형태로(기자회견 및 토론회, 의원실 방문 설명, 정부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거버넌스 활동,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 등) 활동 해오고 있음. 본 상 담소는 연대회의를 제안하고 사무국을 맡아 실무를 해오고 있음.
 - #미투운동 이후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법안만해도 150여개가 넘고 비동의간음죄 관련 법안도 10개이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었음. 이에 연대회의 내에 법학자,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조직하여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을 제안했으나 20대 국회 회기만으로 자동폐기됨.
 - 21대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와 법개정을 위한 국회 압박활동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임.
 - 법개정 활동과 함께 #미투운동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바로 세워야 함. 이를 위해 “동의”의 개념,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넓고 깊게 펼쳐갈 필요가 있음.

• 목표:

- (1) 현재 발의된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홍보 및 국회 압박활동
- (2) ‘동의’의 개념과 판단기준 관련 논의 장 마련
 - 형법학자, 여성학자 등과 ‘동의’ 개념 논의를 진행하는 TF 구성하여 연구 및 토론회 개최
 - 동의여부로 법제화된 해외의 사례 비교·분석
 -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점에 대한 반론

(3) 총선대응 전략

(4) 포괄적인 형법개정안 연구(장기 계획)

• 진행내용

(1) 연대회의의 전체회의(총 6회 진행)

차수	일시	내 용
1~12차	2019년	- 3/21 연대회의 발족 후 11/29일까지 12차에 걸친 연대회의 및 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총 13차)를 진행 함
13차	2/6(목)	- 추진 중이던 권미혁의원실 통한 개정안 발의 계획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함 - 각 단체별로 올해의 활동방향 및 구체적인 쟁점 및 입장을 논의해오기로 함 - 올해의 카드뉴스 제작 순서 정함
14차	3/31(화)	- 밀레나 포포바(2019), 『성적 동의』, 책 읽고 토론 - 총선후보 대상 강간죄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 진행하기로 함 (새도우핀즈, 닷페이스, 널채움에서 재능기부 하기로 함)

15차	4/2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 대응 call21st 프로젝트 평가 - 21대 총선 후보자 설문조사를 위한 새도우핀즈, 닷페이스, 널채움 개발자들과 미팅 - 추미애 법무부장관 면담 결과 공유 및 향후 방안 논의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황에 대한 입장 논의
16차	5/26(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세미나 : “동의기준에 따른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 및 반대주장에 대한 검토”-발제:이경환 변호사 -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Call21st 프로젝트”에 참여한 45명의 강간죄개정 찬성 표명 의원들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 검토
17차	6/18(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세미나(2) : “해외 각국의 강간죄 규정의 동향 및 판례”- 발제: 장임다혜 부 연구위원 - 이후 운동방향 논의 : 적극적인 입법활동 결의
18차	7/7(화) (*zoom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당 발의 예정법안 검토 - 정의당 주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간담회 : 성폭력 판단기준을 ‘동의여부’로> 참석 시 우리의 입장 논의 - 이후 운동방향 논의 : 법무부와 법안 관련 격차를 줄이는 방안 필요,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압박 활동 방안 - Call21st 사이트 운영방안 및 내용 논의
19차	8/18(화) (*zoom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당 발의 기자회견 평가: 비교적 의견 반영 많이 되었음 - 세도우핀즈 가입 승인 - 게임, 법개정 촉구 서명 등 플랫폼 활용 논의 - 민주당+백혜련 의원실 면담 추진기로 함
20차	9/15(화) (*zoom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대 국회 발의 법안 2개 검토 - 최근 2년간 강간죄 판례분석 추진 - 강간죄 개정 필요성 전문가 칼럼 조직
21차	10/15(목) (*zoom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널채움과 진행하는 ‘폭행협박’ 구성요건의 문제를 드러내는 게임 제작 논의 - 연대회의 블로그 개설 논의
22차	11/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l21 기획팀 활동 진행상황 공유 및 현안 논의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활동 아카이빙 블로그 역할 분담 - 연대회의 연명 명단 재정비 - 연대회의 활동 평가(2019. 3월 ~ 현재) - 2021년 연대회의 사무국 구성

(2) 논평 및 보도자료

- 2/20(목)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논평)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 3/30(월)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논평)
- 4/14(화)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호보 194명 누구?”(보도자료)
- 8/12(수)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성명서

(3) 국회 및 정부대상 압박활동

- 4/2 추미애 법무부장관 면담

1. 참석자 : 14명(법무부 8명, 여성단체 &기관 6명) * 3/9 면담요청 공문보냄
법무부) 추미애법무장관, 진재선 디지털성범죄대응TF총괄팀장, 유태석 형사법제과장, 박은정 검찰담당관, 서지현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김윤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구자현 대변인(단체) 고미경(한여전), 김민문정(여성연합), 나윤경(양평원장), 박봉정숙(인권진흥원장), 이미경(한국성), 장명숙(한국복지사회)
2. 내용 : 2시간여동안 김학의·윤중천 건, 강간죄 개정, 대상청소년 불처벌 등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
- 장관은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깊은 공감과 의지를 피력, 법개정 담당자인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불분명한 입장
- 문제는, 법무부 장관 간담회 이후 담당자에게 당일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달라고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문서로는 답변 못하겠다고 함. (1)'비동의 간음죄'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2)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건은 결과를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 함
-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3. 쟁점 : 4/17일 발표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보면, (1)처벌의 실효성 강화,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포함), (3)수요차단 및 인식개선,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 대책에 그치고 있음(*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 참조)

- 5/20(수) 오후7시, 여성연합 주최,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

1. 참석자: 민주당 당선 여성의원 7인(권인숙, 양경숙, 양이원영, 유정주, 신현영, 이수진, 최혜영)과 여성단체 대표, 당직자 등 30여명 (*기존 의원들은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길어져 불참)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 내용 : 각 단체별로 주요 입법의제를 발표 & 논의.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제언
'여성폭력 관련 형법 및 특별법 개정 특위'구성하여 전반적인 여성폭력 관련법 재정비 활동을 제안

- 5/28(목) 오후3시, 여성연합 주최, 정의당과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

1. 참석자: 정의당 당선 의원 4인(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이은주)과 정의당 여성본부 배복주 본부장 외 당직자, 여성단체 대표
2. 장소 : 국회 본관 232호 정의당 대표실
3. 내용 : 각 단체별로 주요 입법의제를 발표 & 논의.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제언
'여성폭력 관련 형법 및 특별법 개정 특위' 구성하여 전반적인 여성폭력 관련법 재정비 활동을 제안

- 7/8(수) 오후 2시, 정의당 주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간담회 : 성폭력 판단기준을 '동의여부'로> 참석

1. 참석자 : 정의당(류호정,배복주,김가영,김명정) / 강간죄연대회의(김수희,왓,이하영,이미경)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3. 주최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여성본부
4. 내용 : 형법 297조 조항 순서 조정('동의없이'를 1번으로), 강제추행도 비동의의 요건 추가, 형량 조정, 성교와 간음의 용어정리 등

- 9/28(월) 오후5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면담

1. 참석자: 이지선(국회 법사위 입법조사관),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3. 내용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검토의견서 작성 시 본 연대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동의여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협조 요청

- 9/28(월) 오후5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면담

1. 참석자: 이지선(국회 법사위 입법조사관),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3. 내용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검토의견서 작성 시 본 연대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동의여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협조 요청

(4) 카드뉴스

20/2/20(목)	카드뉴스 영상 제작·홍보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http://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searchValue=%B0%AD%B0%A3%C1%CB&searchType=subject&page=1&f_cate=&idx=5430&board_md=view
20/8/12(수)	카드뉴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 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처”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4&f_cate=&idx=5611&board_md=view

(5) 총선 대응 call21st 프로젝트

: 1,430명(지역구-1,118명/비례-312명)의 국회의원 후보대상 설문 167,398번의 질문과 206명의 응답

: 네티즌, 세도우핀즈와의 협업 진행

<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강간죄 개정에 찬성한 당선자 45명 명단 >

- 더불어민주당 (32명)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구갑), ▷고용진(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을),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성북구갑),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안구을), ▷박광운(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을), ▷설훈(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송영길(더불어민주당, 계양구을),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서구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을),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관악구갑), ▷이성만(더불어민주당, 부평구갑),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왕시과천시),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강동구갑), ▷최중윤(더불어민주당, 하남시),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홍영표(더불어민주당, 부평구을), ▷홍경민(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 더불어민주당 (5명)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원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용혜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미래통합당 (1명) : ▷하영제(미래통합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정의당 (6명) : ▷심상정(정의당, 고양시갑), ▷강은미(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정

의당, 비례대표), ▷이은주(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정의당, 비례대표)
 - 국민의당 (1명) : 권은희(국민의당, 비례대표)

< 활동 내용 : * <https://call21st.works/> >

- 4/2 call21st 오픈(1차 카드뉴스 & 보도자료)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 4/2~ call21st 각 단체 페이스북 등에 홍보
- 4/6 call21st 2차 카드뉴스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 4/9 call21st 사전투표 전 홍보
- 4/14 call21st 총선 전 결과발표(3차 카드뉴스 & 보도자료)
 (오전 : 논평) 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194명은 누구?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펴보기
 (오후 : 카드뉴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
- 4/28 call21st 프로젝트 평가회의
- 5/29 강간죄 개정에 동의한 국회의원 45명에게 당선축하증 발송

• 21대 국회에 상정된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입법안

번호	의안번호	발의자 (제안일자)	“비동의” 문언	관련조문	현황
1	2100245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안 (2020.6.8)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형법 297조(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조(강제추행), 305조의4(폭행 또는 협박)	- 8/25 법사위 안건 상정 - 현재 1소위 계류
2	2102898	정의당 류호정의의원안 (2020.8.12)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	형법 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300조(미수범), 301조(강간등 상해·치사), 301조의2, 303조(구금된 사람에 대한 성교·추행), 305조의2, 305조의3, 306조(정의)	- 9/21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

• 평가

- 1991년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 2005-07 여성인권법연대 활동, 2018년 미투운동 등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에서 2019년에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출발할 수 있었음.
- 아직 법개정은 안되었지만 대중 인식 변화는 고무적. 우리의 활동이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봄.
- 총선 때 세도우핀즈, 널채움 등과 협업으로 진행한 Call21st 활동은 새로운 운동의 지평을 열었음.
- 지역 활동가들은 정보 및 이 문제를 인식하는 데는 다소 온도차가 있음. 이 격차 줄이는 것이 과제.
- 여성운동 안에서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긴밀하게 만나는 경험에서 공부를 많이하였음.. 우리 안에서 합의를 높여간다는 것이 긍정적인. 다양한 운동 방식을 고민한 것이 신선하고 이런 방식도 가능하구나 배울 수 있었음. 아직 완결되지 않은 부분 어떻게 과제로 가져가야할까 고민이 됨.
- 피해자분들 중 법리적으로 폭행 협박 문제에 걸리면 “나 이거 동의 아니었다”라는 걸 꼭 말하고 싶다고 하는 분도 계심. 그 의지를 받아서 우리가 꼭 법개정 했으면 좋겠음.
-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여부가 아니라 동의여부로 보는 법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새롭게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2차 피해 근절하는 운동을 지속할 책무가 있음.

- 사무국을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수고에 감사. 2021년에도 우리 상담소에서 사무국 맡기로 함!
- 평가 측정지표 : 각종 강의, 학회 발제, 방송출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협의설 타파 관련 홍보
- 최협의설 비판 관련 언론보도 흐름 파악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 국회나 정부의 정책변화 모니터링, 적극적인 의견 개진, 로비활동, 압력 및 정책변화 촉구
- 작년에 완성한 연대회의 법안을 21대 국회 각 당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법개정에 반영하도록 로비하는 활동을 하반기에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후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활동과 대국민 홍보 활동이 필요함
- 본 상담소에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 역할수행하면서 반성폭력운동의 법제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음. 기존 담당 인력인 사무국 소장단 2인에 더해 올해부터는 성문화운동팀의 1인이 합류함으로써 연대회의 사무국 역할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음. 반면, 전체 연대회의 차원에서의 고른 역할분담이나 참여도를 높이는 노력은 앞으로 필요해보임.

1-2.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배경/필요성 : 2018년부터 시작된 미투시민행동의 활동 마무리 작업 및 이후 총선 시기 한국사회 변화 과제 도출 및 연결 필요
- 목표 : 미투운동에서 도출된 과제를 총선시기 과제 제안 및 실천 세력화로 연결되게 함
- 활동내용
- 미투시민행동 2020년 마무리 활동 관련 전체 대표자 회의 개최 (12월 및 이후)
- 2월 22일로 예정된 “미투 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가제)” 토론회 진행 사무국 활동
- 이후 미투시민행동 아카이빙 TF 구성 및 실무 이월
- 진행내용 :
- 2019. 10~2020.4월까지 사무국 활동

1/7 미투시민행동 토론회 기획회의

1/13 안태근 무죄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의 불이익 외면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일시_2020년 1월 13일(월) 오전 11:00 / 장소_대법원 앞 / 주최_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사회_감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1 _ 검찰 고위층에 의한 성폭력, 계속 방지되어야 하는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발언2 _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에 원점회귀로 답한 후안무치한 판결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발언3 _ 현실을 도외시하는 사법과 그에 맞서는 미투운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수경 여성국장)

발언4 _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싸움과 사회변화의 과제 (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2/3 미투 토론회 발제팀 2차 준비회의

2/6 미투 토론회 발제팀 3차 준비회의

2/11 미투시민행동 운영위 회의

2/17 연세대 젠더연구소 방문(토론회 장소 답사 건)

3/19 18차 확대운영위원회 10시30분

3/19 토론회 발제팀 집필회의

3/30 4차 집필진 회의

- 4월 3일,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된다」 토론회 개최함. 코로나로 인해 2월 22일 예정이었던 행사가 미뤄졌고, 대면 행사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됨.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 토론회의 목적 : 지난 2년 동안 한국 #미투운동의 다양한 활동과 변화들을 모아내고, 향후 과제를 짚어 보고자함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된다

· 일시_2020년 4월 3일(금) 14:00~17:40
· 참가 방법_ 온라인 생중계 시청(참가 신청자 분들께 생중계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 참가 신청_본문 URL 링크 참조

1부 14:00~16:00
사회 | 고미경 (한국여성정의전화)

#미투운동, 한국사회 변화의 구심이 된다

발제 |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도약_미투운동을 막아선 방해를 넘기

“침묵하는 피해자에서 성평등한 구조변혁의 주체로”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지역사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성폭력 대응하기” | 백영남 (전남여성인권단체협의회)
“#MeToo에서 #WeListen으로 - 스물미투 제2막을 여는 청소년들”
|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미투운동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들” | 볼날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동차)
“세상이 발전하며 생겨난 성범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 양예원 (스튜디오 불법촬영 피해고발자)

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된다

· 일시_2020년 4월 3일(금) 14:00~17:40
· 참가 방법_ 온라인 생중계 시청(참가 신청자 분들께 생중계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 참가 신청_본문 URL 링크 참조

2부 16:00~17:40
사회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페미니즘 정치가 된다

“양심병행의 법치: 정치하는 여성도 페미니스트도 많아져야”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세연)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된다” | 성지수 (페미니스트연국인연대, 녹색당 비례후보)
“2020총선과 그 다음을 그리며” |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장)
“‘매갈’에서 ‘한녀’로~20대 여성의 페미니즘 정치 가능성 사유하기” | 재하나 (연세대 젠더연구소)
“2020,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로 상상하며” | 최유경 (꽃물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말하는 우리가 ‘정상’이다. ‘정상 가족사회’에 갇힌 국가는 반성하라” | 푸른나비 (친족 성폭력생존자)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관해 어떤 것도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
|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0년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퍼포먼스

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 평가
 -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변화에의 열망이 구체화되었고, #미투시민행동 활동 속에서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배웠으며 자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성장했음. 우리 여성들은 연대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성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함.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와같은 #미투시민행동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리하며 의미화하는 자리였음.
 - 상담소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투 시민행동 사무국으로 활동해왔고, 이번 토론회의 실무를 맡아 준비했으며, 주제발제를 통해 2년동안의 미투시민행동 활동을 짚어보고 평가하는 활동을 함. 발제 및 토론회 준비는 2년동안의 방대한 운동자료를 정리하는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여성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하며 자료로 남기는 의미있는 활동이었음.
- >> 이후 미투운동 아카이브 활동 사무국은 여성연합에서 하기로 함

1-3. 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배경/필요성
: 사회적 자원의 연결과 연대가 필요한 사건에서 힘을 모으고, 사회적 의미와 변화 형성 필요
 - 목표 :
: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구호의 실현
: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사건, 비정형화된 조직 내 성폭력 등에서 정책 대안 및 사회적 의미 도출
 - 진행 내용
- 1) 진행중인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대책위원회 명칭	역할	활동내용
이운택 성폭력사건 공대위 (지리산, 조은희)	사무국	<p>2/11 이운택 공대위 마지막 평가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 139개 단체, 104명 공동변호인단 (* 사무국 : 본 상담소 - 조은희, 김가림, 오매, 이미경) 고소 및 재판과정 : 2018. 2/14 김수희 연출 SNS에 피해사실 게재, 2/26 공동변호인단 구성, 3/5 공대위 구성. 1심-징역 6년, 2심-징역 7년, 3심-징역 7년 확정! 기자회견 : 4차례(2018. 3/5, 9/19, 2019. 4/9, 7/24) 및 보도자료 수회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들 탄원서, 공대위 의견서 제출, 공판 방청기 공유, 12차 공대위 회의 긴급 집담회(2018. 7/23) 및 의의와 쟁점 토론회 :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2019. 11/26) 개최 예산 : 6개단체에서 40만원씩 분담금. 총 240만원 예산으로 활동 (*사무국에 봄 꽃 선물 - 39,860원 규모^^) 평가 : 104명의 공동변호인단 구성과 단체들의 연대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공대위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큰 용기와 힘을 낼 수 있었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음. 위력 및 상습성폭력에 대한 재판에서의 승리는 연극계성폭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교훈이 되었고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었으리라 봄. 고소인단들이 이제는 연극인으로서 무대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함. 더불어 이 사건은 성폭력 형사사건의 공소시효 및 민사사건의 소멸시효 관련 다들 부분이 많았던 사건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아직 2차 피해관련 임시라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임)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오매, 감이)	사무국 (4개단체)	<p>● 기자회견</p> <p>2/14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종식까지 멈추지 않는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p> <p>3/26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일시 : 2020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p> <p>○ 순 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과 유형 분석 _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 _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_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 </div>

	<div data-bbox="600 208 1204 26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_이하영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p> </div> <p>6/11 "우리의 연대는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p> <div data-bbox="600 314 1204 84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온라인 생중계 : bit.ly/여성연합유튜브 사회 : 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활동가</p> <p>○ 순 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법적쟁점과 피해자 지원의 과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2. '박사방' 공범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문제(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3. 전국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 지원 안내 및 전국의 법정모니터링 현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4.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언론과 시민의 역할(탁틴내일) 5. 온라인 성착취 관련 법 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한국여성단체연합) 6. 퍼포먼스 7. 기자회견문 낭독 </div> <p>11/26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전국 법원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p> <div data-bbox="600 923 1204 142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사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호린 사무국장</p> <p>○ 순 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법원을 바란다-법률지원 과정에서 바라본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은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2. 피해자 일상피해의 복구는 시작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대독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3.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효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4.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의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독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6. 퍼포먼스 </div> <p>● 입장/성명</p> <p>3/11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p> <p>3/18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검거에 부쳐</p> <p>4/13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 4월 13일 조주빈 구속 이후, 감경, 사법부, 언론, 시민들의 역할</p> <p>4/16 버닝썬 사건 송방망이 처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p>
--	--------------------------------------------------------------------------------------------------------------------------------------------------------------------------------------------------------------------------------------------------------------------------------------------------------------------------------------------------------------------------------------------------------------------------------------------------------------------------------------------------------------------------------------------------------------------------------------------------------------------------------------------------------------------------------------------------------------------------------------------------------------------------------------------------------------------------------------------------------------------------------------------------------------------------------------------------------------------------------------------------------------------------------------------------------------------------------------------------------------------------------------------------------------------------------------------------------------------------------------------------------------------------------------------------------------------------------------------------------------------------------------------------------------------------------------------------------------------------------------------------------------------------------------------------------------------------------------------------------------------------------------------------------------------------------------------------------------------------------------------------------------------------------------------------------------------------------------------------------------------------------------------------------------------------------

		<p>4/22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사법부는 직무유기다!- 'N번방' 성착취 가해자 '켈리'의 징역 1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p> <p>4/23 [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p> <p>4/23 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p> <p>5/18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p> <p>5/29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p> <p>21대 국회는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 <p>7/6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p> <p>9/2 '상식 밖 일탈행동' 아니다, '조직적 성착취'다-조주빈의 궤변에 부쳐</p> <p>● 토론회</p> <div> <p>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p> <p>일시 _ 2020년 10월 20일(화) 10-12시 장소 _ 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 참여 _ 온라인 생중계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사회 _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p> <p>발표1. 디지털성폭력 판결, 무엇이 문제였나 _ 백소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p> <p>발표2.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판결 _ 박예안(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p> <p>발표3.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언 _ 유승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 원국 변호사)</p> <p>발표4.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이현숙 (탁틴내일)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div> <p>● 시민참여 캠페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이런 기사 그만 써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문제적 언론 보도 시민 제보] <p>제보 링크: https://forms.gle/9q6uWxdzFWTAx14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국제적 성범죄자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에 대한 청원 <p>국회참여 입법시스템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클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N번방 관련 사건 공동탄원서 연대서명 <p>참여링크 https://forms.gle/pQFEWede2LK9WoV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 <p>12월 7일까지 1일 1회 이상 항의글 복사하여 팩스나 이메일로</p>
--	--	-----------------------------------------------------------------------------------------------------------------------------------------------------------------------------------------------------------------------------------------------------------------------------------------------------------------------------------------------------------------------------------------------------------------------------------------------------------------------------------------------------------------------------------------------------------------------------------------------------------------------------------------------------------------------------------------------------------------------------------------------------------------------------------------------------------------------------------------------------------------------------------------------------------------------------------------------------------------------------------------------------------------------------------------------------------------------------------------------------------------------------------------------------------------------------------------------------------------------------------------------------------------------------------------------------------------------------------------------------------------------------------------------------------------------------------------------------------------------------------------------------------------------------------------------------------------------------------------------------------------------------------------------------------------------------------------------------------------------------------------------------------------------------

		<p>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 와치맨, 갓갓, 조주빈, 켈리, 로리대장태범, 신동관, 안승진 등 재판 공대위 의견서 제출 - 10/20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제출 - 10/2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제출 ●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0명 피해자 지원 : 법률, 심리상담연계, 주거 및 범죄피해 자지원제도 연결, 보호시설, 개명 및 주민번호 변경, 추가 소송, 삭제 관련 안내 등 - 피해자 지원자 및 변호인단 월례회의(8월~12월) ● 카드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불법 촬영물 유포가 만연한 텔레그램' 2월 '일베는 싫지만 일베가 올리는 성착취물은 보고싶은 텔레그램 성착취범!' 2월 '근데 이런 방 운영하면 누가 수익을 얻노?' 3월 '지인능육에 대하여(1)' 3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3월 '돈은 없지만 n번방 성착취물을 보고싶어' 4월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4월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 6월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 연대/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0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동참 촉구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장주리, 지리산)	참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대위 결성 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 2020. 5. 13. 2. 참석자: 50여명(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 전성협대표단 및 서울인천권역 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 공대위 명칭 :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로 결정 ('권력'은 거의 모든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권력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함) - 사건경과 : 4/7 성추행 발생, 4/8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상담, 4/9~23 가해자 사퇴관련 세부사항 소통, 4/23 오거돈 사퇴, 이후 지속적인 2차 피해 발생 - 현재상황 공유 : 피해자 인권침해(사건개기, 신상털기 등), 정치 이슈화, 지속적 왜곡보도, 상담소 업무방해(곽상도의원 상담소 고발, 항의전화, 상담소 앞 취재진으로 면접상담 어려움 등) 장관 - 피해자의 주요 요구사항 : 가해자 엄벌, 피해자 일상 복귀, 중앙당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입장표명 등

		<p>- 활동방향 : (1)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활동 (2)피해자 지원단체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응활동, (3)정치적 이용 대응 활동</p> <p>●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행동, “가해자를 엄벌하고 2차 가해 중단하라!” 기자회견(6/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 2020. 6. 9. 오후 2시 2. 장소 : 부산시청 앞 3. 사회 : 4.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대위 결성배경 및 경과보고 - 발언1 : 정치권 성폭력근절 대책 촉구, - 발언2 : 피해자의 일상 복귀가 성평등의 시작이다, 장주리·달별(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언3 : 부산시의 구조적 개혁 촉구, - 발언4 : 피해지원기관 안전보장 요구, - 발언5 : 언론의 2차가해 규탄 - 피해자 입장문 대독 - 기자회견문 낭독 <p>● 성명서 발표(8/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은 오거돈을 빨리 기소하라! <p>●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 : 미투운동 ‘너머’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 2020. 10. 30. 오후 1:30 2.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3.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 발제1 : 우리는 이미 변화했다, 이다솔(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 - 토론1 : 최영아(부산시의원) - 발제2 : 권력형 성폭력의 도구화와 비전 없는 지역정치, 권명아(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장) - 토론2 : 석영미(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 발제3 : 오거돈성폭력사건 보도의 문제점과 변화를 위한 제언, 박정희(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 토론3 : 정은주(부산MBC 기자) - 발제4 :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를 넘어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를,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토론4 :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p>● 오거돈사건 대토론회를 시작하면서 공동행동의 긴급 규탄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29일 민주당의 당헌개정 예고. 민주당 출신 성폭력 가해자가 벌써 세 명이나 발생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당헌 제96조 2항을 개정하겠다는 당원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 이에 반대하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사건 공대위와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대위가 함께 규탄 성명 발표
--	--	-------------------------------------------------------------------------------------------------------------------------------------------------------------------------------------------------------------------------------------------------------------------------------------------------------------------------------------------------------------------------------------------------------------------------------------------------------------------------------------------------------------------------------------------------------------------------------------------------------------------------------------------------------------------------------------------------------------------------------------------------------------------------------------------------------------------------------------------------------------------------------------------------------------------------------------------------------------------------------------------------------------------------------------------------------------------------------------------------------------------------------------------------------------------------------------------------------------------------------------------------------------------------------------------------------------------------------------------------------------------------------------------------------------------------------------------------------------------------------------------------------------------------------------------------------------------------------------------------------------------------------------------------------------------------------------------

준강간 사건 (지리산, 조은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8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163개 단체) ● 7/7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 2020. 7. 7(화). 오전 11시. 2.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3. 사회 :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보고 - 발언1 : 준강간 사건에서의 법과 현실의 간극, 정은자(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2 : '범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은 없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조소영(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발언3 : 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현실,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언4 : 수사사법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아라,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4. 피해자 입장문 대독 : 조서윤숙(사단법인 평화의샘)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권현정(택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6. 질의응답 ● 7/24 탄원서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정의로운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총 6,129명 서명) ● 향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성협을 통해 2019년 준강간 사례조사 및 분석 2. 전문가 의견서 제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 (지리산, 오매, 장주리)	피해자 지원단체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기록

2) 공대위 후속 지원 활동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오매, 지리산)	피해자 지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대위 백서 작성 편집 작업 (1-2월) - 피해자 지원기관 : 상담, 생활, 기타 대응 조력 - 정치권 내 2차 피해 양상과 대응 "안희정 측근에 의한 2차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끌어안는 곳인가" (2020년 7월 9일 성명) - 후임 비서에 의한 모욕죄 재판 대응 - 피해자 지원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제출(9/29) - 1심 선고: 검찰 약식명령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고로 유죄 판결 (10/7) (현재 항소함) - 피해자조력자 (문비서) :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후보 추천 - 그 외 가해자 모친상 조문 행렬 및 '김지은입니다' 책 읽기 운동 및 일부 공공도서관 '금서지정'에 대한 언론 대응 등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성폭력사건 대책위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사건 지원 및 활동백서 등 후속 정리 활동

(지리산, 란)		
조두순사건 (지리산)	사무국	- 2차 피해 대응 등 후속 지원활동
밀양집단성폭력사건 (지리산)	피해자 지원단체	- 후속 사건 지원활동(상담 및 탄원서 제출 등) - 자립지원(00시 00구 사회복지관과 연대하여 지원)

• 내용 : 대부분의 공대위 활동은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었고, 활동 백서작업을 완료하여 상담소 활동 보관용으로 소량만 인쇄할 계획임. 자료집조두순사건이나 밀양집단성폭력사건은 16년전의 사건이지만 피해자와 연결되어 후속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대위는 해산되었지만, 후속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관련 소송 진행 및 민사소송 과정에 조력하고 있음.

• 평가

- 이운택사건, 연예기획사 건 등은 공대위 활동은 이미 마무리 된 상태이며, 관련한 활동자료를 모아 비공개 백서를 마무리하였음.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공개적인 백서발간은 하지 않기로 하고 내부 활동자료로 묶어 보관하기로 함.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그동안의 사건진행과정 및 공대위 활동들을 집적하여 활동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사건의 의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봄. 또한 이후 다른 공대위 활동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밀양집단성폭력사건은 2004년부터 지원해온 건으로 그동안 65차 상담을 통해 지속지원을 해왔고, 최근 다른 형사사건의 지원 및 피해자 거주 시청 및 구청의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하여 최초로 안정적으로 살 공간을 마련함. 이를 계기로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자립 등의 실제적 치유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더불어 상담소에서는 종결사례 포럼을 통해 그동안의 사건지원과정을 돌아보고 정리함.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타상담소에서 3년간 지원해온 사건에 대해 공대위 필요성 및 발족방안 등의 논의단계에 동참하였음. 공대위 구성 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서명운동 및 전문가의견서 조직화에도 본 상담소에서 공대위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위해서는 이후 좀 더 적극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해야 하리라고 봄.
- 오거돈성폭력사건공대위는 처음에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하다가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공대위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연대하게 되었음. 연구소와 사무국에서 1인씩 참여하여 활동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음. 10월30일에 있었던 오거돈성폭력사건대토론회에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대위 활동의 경험을 담아 “권력형 성폭력 기해자를 넘어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를”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음. 특히 이날, 상담소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의 당헌개정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하여 두 공대위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였던 점은 돋보이는 성과임.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정하여 기존의 반성폭력운동-피해자 자원단체와 여성인권 전문분야 변호사 그룹(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디지털 성폭력 전문 대응단체(한사성) 등이 서로의 노하우와 기획, 실무를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함. 입법 TF부터 재판 참여 및 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대중캠페인, 양형기준 의견제출, 입법 및 법개정 모니터링 및 의견서 제출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사건 또한 복잡하고 복수의 중층적인 피해로 나타나 매우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는 과정이었음. 디지털 성폭력을 더이상 ‘신종’ 젠더폭력에 머무르지 않고 통합되어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방향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향후 상황의 변동에 따른대응 체계의 개선은 계속 논의되어야 함 (이후 사무국에서 상담팀으로 업무 배치 전환)

● 서울시장 성폭력사건 대응

- 목적 : 서울특별시장과 비서의 위력관계 속에서 4년간 지속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함.
- 내용 :

(1) 지원예기 및 주요 과정

- 7/7(화) 형사고소를 결심한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인으로부터 사건 지원 요청을 받고, 연대하는 여성단체와 지원방안을 논의함.
- 7/8(수) 만약 지원한다면 한국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나 고소가 진행되어 다음 날 만나기로 함.
- 7/9(목) 오전 7시 30분에 두 단체에서 피해자와 변호인 첫 면담을 함.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각 단체 활동가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오후 5시경부터 피의자인 박원순 전 시장의 실종,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함. 이후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두 단체에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거의 매일 지원단체와 변호인단 회의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의료적 지원 및 법률지원 등의 통합적 지원을 함.
- 7/15(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모여 공동행동을 결의함.
- 9/10(목) 연대체 명칭을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으로 정하고 조직을 확대하기로 함.
- 10/15(목) 총 290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함.

(2)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 참여 단체 : 전국 289개(12월 31일 현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집행단위 8개단체)
(경기)광주여성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충청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 개령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산권선터부설군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대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앤나우상담지원센터 로딩성폭력상담소 마산천원여성노동자회 명덕복지재단부설천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정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동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지부성폭력상담소(경남)별달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부설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불꽃페미백선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새강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서울강사당천여성의전화 서울남시여성민우회 서울대학교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회 성소수자지원대우지개행동 성폭력예방지원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지원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지원센터경음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 강계안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부설통합상담소 수원일하는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씨름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이라리가족상담소 안산YWCA여성상담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환경연대 여수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연대복지회아산시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산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태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익산성폭력상담소 강계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교보복지협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교보간부지회아산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교보간부지회아산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교보간부지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적십자회장애인복지협의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강계여성공감 강계여성공감부설강계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설립회의(총 64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남여성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종교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의전화 젊은여교포를 계주YWCA통합상담소 계주여성인권연대부설계주여성상담소 계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계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전라장미연구소 여 세 천 중 춘 충북특별자치도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충청대학교여성인교보지회지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부설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원연구소 청주YWCA여성통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회아산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지회아산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성폭력·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태안나눔여성회충주성폭력상담소 통일YWCA성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 포천가족상담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부설북강성폭력·성폭력상담소 물푸러여성네트워크브람 필그림가정폭력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지원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보호회 한국여성복지상담회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대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차세대네트워크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미여성상담소 한시외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부드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기네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마을가정상담소(형성군통합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화성여성회 휴넷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동상담센터

(3) 공동행동 활동계획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
- 경찰 및 검찰 수사상황 모니터링 및 수사결과와 발표 촉구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의 충실하고 신속한 조사 촉구
-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활동
-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방, 경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대응활동
- 직장내 성차별 및 성폭력 철폐를 위한 활동
- 공공기관내 성차별 성폭력 실태조사 및 토론회
- 공공기관의 성차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변화 촉구활동

○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 ‘선언’으로만 남아있는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점검
- ‘견제’ 없는 지방자치장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한 대응책 촉구활동
- 시민들의 목소리로 성별 격차, 젠더 없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치적 과제로 의제화
- 철저한 진상규명, 성차별·성폭력 철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에 단체 외에도 개인연대(연명)형태의 서포터즈 모집 및 구성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진상 조사 및 해결을 촉구하는 천만 시민(가)’ 온라인을 통한 연대서명 진행

(4) 공동행동 활동 경과

7/8 검찰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 고소장 제출, 피해자 경찰조사
 7/9 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 접수
 7/9 피해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상담, 박원순 시장 실종 · 사망
 7/10 서울시 서울시장(葬) 결정
 7/13 피해자 지원단체 제1차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7/15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8개 단체)
 7/16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피해자지원단체 입장: ‘그 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 분들’의 이익이었다.
 - 7/19 공동변호인단 구성(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강윤영)
 7/22 피해자 지원단체 제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7/28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 제출 및 위원장 면담
 7/28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제3차 기자회견,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7/29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2차 회의
 7/30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회의 성명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7/31 지원단체·변호인단 입장문: 서울시장 사건 업무포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측 강력 문제제기
 8/12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3차 회의
 8/14 피해자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8/17 지원단체·변호인단 입장문: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8/19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4차 회의
 8/24 지원단체·변호인단 의견서 제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준강간사건 기소 촉구)
 8/26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5차 회의
 8/28 지원단체·변호인단 탄원서 제출: 북부지방법원 (준항고 기각 결정 촉구)
 9/3 위력 성폭력 성희롱 근절 공동행동(가칭) 활동가 비공개 간담회
 9/10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6차 회의: 연대체 명칭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으로 결정
 9/21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7차 회의
 9/28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8차 회의
 10/7 성폭력특별법 신원누설금지위반 고소장 접수

10/13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공문 발송 (청와대)
10/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제4차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9, 10, 11차 회의
10/30 [공동행동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 하라!
11/3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활동가 온라인 간담회
11/6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12차 회의
11/6 [공동행동 성명]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11/18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13차 회의
11/11~23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https://forms.gle/TMHyo6EbNHECerv9)
11/23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전문가 온라인 간담회
11/23~12/10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하는 천만시민행동 진행
12/11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12/16 [공동행동 카드뉴스]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12/17 위력성폭력 실체진실과 책임 촉구 토론회
12/22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12/29 [공동행동 입장] 경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
12/30 [공동행동 입장] 검찰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
1/18 [보도자료]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2차 피해 중단, 진실 규명, 책임 추구를 위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입장문
1/21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지원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1/22 [공동행동 성명]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보를 하라!
1/25 [피해자, 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5) 경찰, 검찰,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사 및 조사 상황 (2021.1.27일 현재)

① 수사재판 과정

고소인 (고소일)	내용	현재 상황
피해자 (20.7.8)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①강제추행 ②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③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지방경찰청 2020.12.29. 수사결과발표 검찰 송치
피해자(20.7.13)	피해자 진술서 유출 및 2차 가해행위 관련 형사고소사건	서울지방경찰청 2020.12.29. 수사결과발표 검찰 송치
피해자(20.10.7)	성폭력특례법 신원누설금지위반 구속촉구의견서 제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중 피의자신원특정됨

(20.10.15.)		
제3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20인)	서울지방경찰청 2020.12.29. 수사결과발표 검찰 송치
제3자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등	경찰 수사중
제3자	피해자 변호인(김재련) 무고, 무고교사죄 피소	경찰 수사중
제3자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고발된 사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12.30. 수사결과발표
제3자 (피의자 유족)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북부지방법원 선고 (12/10, “기각!”)

②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사건 경과 - 현재 1심 재판 중

- 2020.04.15. 성폭력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경찰고소
- 2020.09.10. 준강간치상 (불구속)기소
- 2020.10.22. 1심 1차공판(10.8.자 공판은 피고인측 요청으로 연기):
강간사실 부인, 유사강간인정/ 강간과 치상 사이의 인과관계 부인
- 2020.11.19. 2차공판: 피해자 증인출석(신뢰관계인 동석)
- 2020.12.10. 3차공판: 결심공판 (구형 - 징역8년, 취업제한 10년)
- 2021.01.14. 4차공판: 선고공판(*예정)

③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1)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내용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

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1월 25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결과 심의 및 발표

(2) 지원단체회의 및 주요 활동

분 류	날 짜
지원단체회의	- 7/8, 7/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8/3, 8/5(백서1차 작업), 8/6, 8/11, 8/12, 8/18, 8/20, 8/21, 8/27, 8/28, 9/1, 9/10, 9/13, 9/17, 9/18, 9/19, 9/21, 9/23, 9/24, 9/26, 10/4(백서2차 작업), 10/5, 10/8, 10/9(백서3차 작업), 10/12, 10/14, 10/19, 10/22(지원단 1차 평가회의), 10/25, 10/31(백서4차 작업), 11/2, 11/5, 11/9, 11/15, 11/20(지원단 MT), 10/22, 12/1, 12/5, 12/6, 12/9
피해자 면담 & 중회의	- 7/9, 7/11, 7/12, 7/13, 7/16, 7/17, 7/21, 7/22, 7/25, 8/3, 8/11, 8/14, 9/1, 9/4, 9/10, 9/13, 9/18, 9/19, 9/21, 9/22, 9/23, 9/24, 9/26, 10/5, 10/8, 10/12, 10/14, 10/19, 11/2, 11/11, 11/20, 12/6
피해자입원	- 7/10~23(1차), 7/31~8/15(2차)
경찰조사 동행	- 8/11 서울시장 성폭력사건 피해자 조사동행(방조죄 부분)-6시간
공동행동 회의 (확대 단체회의 포함)	- 7/15(1차), 7/29(2차), 8/12(3차), 8/19(4차), 8/26(5차), 9/10(6차), 9/21(7차), - 9/29(8차)-토론회 기획안, 공동행동 참여제안서 논의, 10/12, 10/20, 10/21, 10/23, 10/28, 11/3(공동행동 참여단체 온라인 간담회), 11/11(대표단 긴급 중회의), 11/30,
기자회견	- 7/13(1차), 7/22(2차), 7/28(3차), 10/15(4차)
간담회	- 11/3 공동행동 확대 참여단체 온라인 간담회 - 11/23 전문가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 7/28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 제출 - 7/28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위원장, 상임위원 1, 사무총장, 차별시정국장, 등) - 8/14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1차조사(조사단, 변호인, 피해자지원단체) - 12시간

	- 11/11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2차 조사 - 4시간
형사 재판 모니터링 (4월 사건)	- 10/8 1심 1차 공판 방청 - 11/19 4월사건 2차 공판(피해자 증인출두 - 신뢰관계인 동석) - 12/10 4월사건 3차 공판(징역 8년 구형) - 2021. 1. 14. 선고공판(*예정)
기타	- 7/20 민변여성위원장 미팅 - 7/21 여성변호사회 회장 미팅 - 9/21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인사과장, 여성정책담당관 면담 - 9/25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장 면담 - 10/5 정의당 이은주의원, 박선민 보좌관 면담(서울시 국감준비) - 10/8 정의당 박선민 보좌관 면담(서울시 국감준비) - 10/15 정의당 권수경 서울시의원 면담(서울시 행감준비) - 10/20 정의당 권수경 서울시의원 면담(서울시 행감준비) - 10/22 청와대 여가비서관 면담(서울시 피해자 2차피해 관련) - 10/22 국가인권위원회 최혜령 조사관 면담 - 11/2 정의당 권수경 서울시의원 면담(서울시 행감준비) - 11/10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고미경 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배석:서혜진변호사)

(3) 기자회견

● 1차 기자회견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 일시 : 2020. 7. 13(월) 오후2시
- 장소 : 한국여성의전화 회의실
-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1. 기자회견 취지
- 2. 지원단체 발언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 3. 변호인 경과보고 :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 4. 피해자의 편지(대독)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5. 질의응답

● 2차 기자회견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 일시 : 2020. 7. 22(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 모처
-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 사회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 _ 위력에 의한 성추행 신고부터 구조적 성차별까지 (사회자)
2. 법적 진행 상황 및 의미 _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3. 고소의 보호 및 피고소인 전달 문제 _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고소할 수 있습니까”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4.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_ 무엇도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5. 진상규명의 방향과 책임 _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 조사의 주체 아니다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6. 피해자 글 대독 _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 질의응답

● 3차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 일시 : 2020. 7. 28(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 국가인권위원회 (* 보랏빛 행진)
-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내용
 1.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유 : 진정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하며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판단을 하는 것임. 직권조사는 당사자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당사자 신청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조사 및 판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수 있음
 2.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 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 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

지는 광범위한 2차 피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정문자 상임위원, 사무총장, 차별시정국장, 홍보국장

: 피해자 측 및 단체 : 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변호사, 한국여성전전화 고미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 공동행동 참가자는 직권조사 발동 요청의 의미를 전달하고 제대로 조사해줄 것을 당부함. 최영애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이 사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문화·구조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권위 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4차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기념, 제4차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사회 : 바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경과보고: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 발언 1 : 서울시 공무원의 피해자 지지의 글(대독)

- 발언 2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발언 3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

- 발언 4 : 성평등 감수성/실천 없는 민주주의, 더이상 용납 안 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발언 5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

- 발언 6 : 성차별, 성역할, 성적대상화 - 여성노동권 침해 규탄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발언 7 : 민주노총

발언 8 :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대독)

퍼포먼스 진행

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 5차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로운 권고를!”

사회 |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발언 1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까지, 이후 진행 경과보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발언 2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발표, 4월 사건 1심에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 3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의 의미와 제대로 된 권고 촉구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 4 |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발언 5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없는 노동사회를 향한 향후 과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사회)

발언 6 |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에 입각한 사건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질의응답

1인시위 _ 오후 12-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

(4) 토론회

위력성폭력 실체진실과 책임 촉구 토론회 (*예정)

- 일시 : 2020년 12월 17일 PM 7시
- 장소 : 유튜브 생중계(구글설문을 통해 사전신청한 분들께 생중계 링크를 발송)
-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
- 사회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 패널 발표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묻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피해자 고소 이후 경과와 문제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 사건 쟁점과 법적/사회적 규명 과제 (OOO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성평등 운동사에 기반하여 서울시장 사건 보기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 '성폭력 부정주의'와 한국정치 구조 (권명아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
- 여성노동자의 언어를 복원하기 (이라영, 작가)
- 미디어를 통해 본 위력 성폭력사건의 문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 공론장과 '진보'의 재구성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 종합토론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예정)

- 일시 : 2020년 12월 22일 PM 7시

- 장소 : 유튜브 생중계(구글설문을 통해 사전신청한 분들께 생중계 링크를 발송)
-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
- 사회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제

- 장주리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 박귀천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권수현 : 여성학자
- 김태임 :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소장
- 최미진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5)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천만시민행동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천만시민행동

- 연대의 빔 퍼포먼스에 편당하기 : <https://www.socialfunch.org/seoulaction>
-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와 한정된 정치구조 내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배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BEAM을 쏩니다!
- (*일시와 장소는 비밀)
- 편당에 참여하여 연대명단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꽉꽉 채워주세요! (*모금액은 빔 퍼포먼스에 사용됩니다)

(6) 1인 시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해결하라 피의자가 있었다면, 수사·기소·재판·선고! 피해자가 자살하면, 피해자 공격·실명유폐·2차가해?

12월 8일(화)~12월 11일까지 4일동안, 매일 아침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개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 릴레이 1위 시위 일정

- 서울지방경찰청(12/8, 화)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구속수사하라!
- 서울북부지방법원(12/9, 수) : 증거폰을 즉각 수사현장에 돌려놓고, 포렌식하라!
- 서울지방경찰청(12/9, 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구속수사하라!

- 서울시청(12/10, 목) : 공공기관 장 지위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를 징계 착수하라!
- 여성가족부(12/10, 목) : 공공기관 장 지위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를 징계 착수하라!
- 경찰청(12/11, 금) :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

• 평가

- 3선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전 인권변호사로, 전 NGO 활동가로, 무엇보다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법과 제도를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사회적 리더였던 박원순의 범죄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범죄피해자가 실재하고 있고 시청 내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리 상담소가 본 사건 지원을 결정한 점은 너무 당연한 활동임..
- 고소와 동시에 피의자 실종, 사망 등 위낙 급하게 진행되는 사건 속에서 상담소 내 활동가들과 충분한 사건진행과정 공유 및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소장단만 긴밀하게 사건지원을 해온 점에서 효율적인 공유 및 논의과정 마련이 필요함. 특히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관련 상담소 내 충분한 평가와 향후 개선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임원, 회원, 대중과의 공유 및 평가 과정을 진행해야 함
-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 등 2차 피해가 극심하고 지원단체와 변호인에 대한 비난과 항의 등이 빚발쳤지만 흔들림 없이 피해자 지원을 해야할 사안이라는 판단과 결의가 있음.
- 제대로 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가고자 함. 이를 위해 초기 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뜻을 함께하는 289개 단체들로 연대를 넓혀갔음
- 특히 본 사건이 박원순이라는 한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이며 성불평등한 직장문화에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위력성폭력 근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성평등 문화로 바꾸는 운동으로 이어갈 것임.
-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뒤늦은 사과를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형식적이고 뒤늦은 조치가 되고 있고 여전한 실명 공개 등 2차 피해 현실이 있음. 향후 대응에 대한 설계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1-4. 반성폭력, 성평등 정책 생산 활동

• 배경/필요성

: 성폭력 양형기준, 판단기준, 공소시효 문제, 피해자 지원 정책 등에서 미비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

: 피해자 비난, 가해자 중심적 논리의 확산 등 백래시 국면에 대한 전략 논의 및 면밀한 대응 필요

• 목표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응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해당 의제의 사회적 개선을 위한 방식에 따른 유동적인 활동 수립 및 진행

• 활동내용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등 다른 조직된 활동이 미비한 사안에 대한 활동 계획 및 활동 지원, 견인
- [프로젝트] 예술인복지재단 예술로 기획사업 선정 진행

○ 리더예술인 : 최미경(아오리) / 참여예술인 : 김도영, 김다형(김다), 김소람, 명현우(존박)

○ 협업 주제

: 예술가의 시선으로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슈를 세상에 알리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

○ 기획의도 및 목적

: 반친족성폭력에 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예술작가들이 많지 않다.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이며, 피해자와 긴밀한 소통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업 과정에 있어서도 친족성폭력에 대한 토론과 논의 그리고 공부와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작업보다는 협업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20여 년에 걸친 (사)성폭력상담소의 활동과 여성인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여성 작가들의 결합은 친족성폭력에 대한 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

○ 진행내용

- 5/12 : 예술인 팀 미팅 / OT 사무국, 연구소, 상담팀, 성문화운동팀
- 5/19 : 친족성폭력을 보는 사회정책적 관점 (열린터 우수 참여)
- 5/21 : <간인한 나의 흠> 보기
- 5/26 : 친족성폭력 구조와 인식 (열린터 사자 참여)
- 7/14 : 친족성폭력과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와 논의 (성문화운동팀 앞 참여)
- 8/4 : 공소시효 관련 영상 기획 및 VR 참여프로젝트 기획안 논의 (사무국 오매)
- 9-10월 : 참여자 모집, 촬영, 영상, 사진, 그래픽 제작 및 온라인 전시관 구축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전시 '시간을 거스르다'

2020.11.11. - 11.30 www.sisters.or.kr

반성폭력 운동, 미투운동이 확산된 후에도 친족성폭력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원점부터 시작한다.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을 있다니?” “인면수심이 따로 없네” 처음부터 시작되는 원초적 놀라움과 분노는 역설적으로 ‘가족’을 다시 자연화하고, 사적 영역화하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승인한다. 가족에 대한 이런 관념과 규범 속에서 친족성폭력 피해 생존자는 55.2%가 그 일을 겪은 후 10년 후에야 처음 상담했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친족성폭력 내담자 중 55.2%가 성폭력 경험 10년 후 처음 상담)

가족이라서 - 위계와 폭력, 억압,
가족이라서 - 가해 행위 축소, 부인, 왜곡
가족이라서 - 법 제도의 사각지대, 권리의 유예
가족이라서 - 관계복구, 가족의례 수행강요, 용서예의 강요

한 사람의 생의 시간이 ‘정상가족’ 체계와 떨어져 흐르지 못하는 사회에서 법은 구체적인 현실을 모르는 채, 피해자의 목소리를 모르는 채 법의 시간, 단죄의 소멸시효, 공소시효를 설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스르려 한다

참여 작가 _ 다이브, 도영, 소람, 아오리, 존벽

제작 참여 _ 친족성폭력생존자 9명 / 친족성폭력공소시효폐지 지지자 50명

공동 주최 _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_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작가들의 말

개인의 시간을 법으로 멈춰 세우는 것은 정당한가. 이 가상의 전시는 피해생존자들이 법의 시간을 넘어 ‘개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조건에 대한 탐구이다. ‘정당하지 않음’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수의 생존자와 지지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여정에 동행했다. 시간의 방향을 가르는 그 마지막 목소리를 부르기 위해.

온라인 가상 전시관 vrplay.kr

※ PC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태블릿) window 운영체제에서만 가능합니다

※ 압축파일 다운로드 후 실행하면 온라인 가상전시관이 열립니다

온라인 가상 전시장 이용방법 안내

<https://youtu.be/AFoecXtUNME>

[전시 작품]

◎ 『법의 시간 너머』 (영상)

법과 가해자가 퇴정한 묵인의 법정에서, '피해자'로도 호명되지 못한 사람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위로만으로 충분하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시점이 왔다. 시효의 법적 모순과 부정을 공론화하지 않고서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것은 가능한가?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고 피해 너머의 시간을 장담할 수 있을까?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여성폭력 최후의 전선인 '집'안의 피해생존자들을 만나고자 한다.

◎ 『Time with you』 (AR)

가상의 공간을 수놓은 연대자들의 지지와 응원 메시지.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작가들이 틸트브러시로 3D 작업

“우리가 시간이니, 시간이 당신과 함께할 것”

◎ 『Time Slip』 (VR)

다섯명의 친족성폭력생존자가 나만의 시간이 새로 흐르는 행성을 구축하다

3D가상 붓을 이용해 피해경험과 생존 너머를 그린다. 새로 정의하는 나의 이야기

※ 행성버튼을 누르면 각 행성으로 이동합니다.

◎ 『불충분한 기록』 (인포그래픽)

차별은 운명이라는 신화에 대한 불충(disloyal)한 반박, '시간을 거스르는 사람'을 위한 불충분한 안내서. 성차별과 여성폭력(젠더폭력)의 역사적 인과의 고리를 최대한 빠르게 추론할 수 있도록 통계(statistics)-연표(timeline)-연대기(chronology)-사건부(cases)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소위 '가부장제'와 가족 내 성폭력은 불가분의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데 더이상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록의 종착지인 '가족 내 성폭력 사건부'를 끔찍한 일로 오독하지 않도록 떨리는 손으로 대지를 가로질러 안내선을 그었다. 고요할 수 없는 불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문을 해제하고 자기만의 시간 지도를 설정하는 데 일말의 단서가 되기를 바란다.

◎ 시간이 갇히다 (사진)

공소시효는 피해 생존자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 피해생존자들의 인터뷰와 수기를 바탕으로 그 갇혀진 시간 속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에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하였다. 빛과 그림자의 프레임 안에서 시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속성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언론보도

- “끊임없는 친족 성폭력...여가부 “10년 공소시효 연장·폐지 추진” (동아일보, 2020.11.11.)
- “가족 내 성폭력 생존자 9인이 들려준 이야기” (여성신문, 2020.11.15.)

• 평가

- 작은말하기에서 형성되고 미투시민행동 집회 등 대외적 활동을 하기 시작한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은 2019년 청와대국민청원, 한겨레21특집기사, 2019년 12월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행진 ‘공폐단단’, 텀블벅 책 발간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친족성폭력과 공소시효 폐지를 사회적 의제화하였고, 시민들과 언론 등의 큰 관심과 호응, 공명이 형성되고 있음
- 예술인들과 애초에 ‘친족성폭력’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상담소 팀과의 세미나와 자체 자료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전시회를 제안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준비함. 예술인들의 꼼꼼한 기존 자료조사와 상호토론, 기술적인 구현 도전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진, 인포그래픽, 영상, VR과 AR이 구축될 수 있었으며, 친족 성폭력에서의 생존자가 느끼는 시간과 감정을 진공상태와 우주로 표현하는 등, 시간의 의미와 법이 제한하는 문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고 어우러지는 기획이었음.
- 온라인 가상 전시관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방식으로 window기반 PC에서만 가능하고, 온라인 전시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따로 구축하지 않아 피드백을 증폭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움
- 이후 온라인 가상 전시관은 앱 형태로 전환되어 영구히 상담소 보관가능하게 위탁될 예정이며, 영상의 경우 후반 작업을 거쳐 영화제 출품, 영화 상영 사이트를 통한 배급, 유튜브 업로드 등이 필요함
- 큰 프로젝트였고 말하기대회의 모습을 띤 규모있는 전시였으며 필요한 의제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1인이 담당하고, 조직적인 역할나눔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점임
- 친족성폭력 문제가 ‘공소시효 폐지’라는 의제, 운동의 주제와 목표를 외형적으로 삼게 된 만큼 이후 단체로서 어떤 지지와 지원을 할지 상담소의 활동 계획 필요하며, 기초적인 의제 보고서 및 제안자료 정리 필요함

1-5. 성평등 / 반성폭력 상시 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공동연대활동을 통해 한국사회 2020년 필요한 성평등 과제, 전략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활동 전개

: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들의 활동 목표 및 운영 과제를 함께 점검하여, 위기를 줄이고 기회에 적극적으로 응대 필요

• 목표 : 여성운동/인권운동/성폭력상담소 운동에서 성평등한 방향과 활동을 위한 논의, 연대 높이기

• 진행내용 :

구분	활동내용
한국여성단체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 1/14-15 * 총회준비위원회(3회) - 이사회(연 4회) : 2/10, 5/18(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중회의), 11/5(중회의) - 임시이사회 : 7/13(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중회의) - 실무 임원회의 : 3/6(1차), 11/4(2차), 11/5(3차), 11/5(4차), 11/14(5차), 11/21(6차) 12/24(7차) 12/30(8차) - 서울시장 관련 유출, 상임대표 불신임 건 등 논의 -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연 4회) : - 정책수련회(연1회) : 코로나로 인해 취소 - 장자연사건 대응 TF : 2/4 - 필요 시 TF, 대책위원회, 논의, 기자회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제 논의 : 9/25, 10/27 자치경찰제 간담회 10/26 여성연합, 젠더시각으로 본 자치경찰제 토론회(토론) -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여성원으로 선언 활동 (000신문 전면광고)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촉구 여성원으로 100인 선언〉 2020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p>전국성폭력 상담소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 1/21 - 서울인천권역회의(연4회) : 5/26, 6/10, 9/8, 11/10 - 전성협 운영위원회(이안젤라홀 대여) : 6/8(옴저버로 참석) - 정책대응팀회의 및 이슈대응 : 필요시 - 성폭력 피해자의 일방적 후원, 기부에 의한 감경 중단 대응 -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추천 및 심사 : 1/6, 12/22 <p>* 참고 : 9/8 전성협 서울.인천권역회의(온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사항 : 1, 2, 4번은 전성협 차원에서 여가부, 서울시에 공문으로 문의 & 항의하기로함(* 본 상담소에서 다음 4가지 논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함께 논의 하여 결정한 사안임) <p>1. 시설장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기준의 차별적 요소에 관한 건</p> <p>(1) 현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p>*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72쪽)</p> </div> <p>(2) 문제제기: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음(차별이유 설명도 없음)</p> <p>2. 의료비 지원 상세 영수증 요구 건</p> <p>(1) 현황 : 마포구청의 상담소 운영 점검 결과, 현행 의료비 지원관련 보고서에 영수증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시정을 요구받음. 현재는 운영실적보고 시 통으로 보고함(예: 김00, ***병원, *회, 총액 #원).</p> <p>(2) 문제제기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영수증을 첨부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위험성이 높음. 이러한 요구는 여가부가 나서서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들어 막아야할 사안임.</p> <p>3. 의료비 & 무료법률지원비 소진의 건 ==> 무법은 1억5천만원 추가지원 가능성</p> <p>(1) 현황 : 9월 현재 의료비 및 무료법률지원비가 소진되어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함.</p> <p>(2) 문제제기 : #미투 이후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상담 건수가 상담소마다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의 건 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장기적으로 의료비와 무법지원비 예산의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당장 하반기 피해자의 법률·의료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p>

	<p>4. 상담소장의 자격요건의 건</p> <p>(1) 현황 : 상담소장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및 7년 이상 근무자로 상향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 소관부서에서 발표한 시설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한해 지급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관리자수당, 식대보조비, 조정수당은 지급 불가하고 있음.</p> <p>(2) 문제제기 : 현행 규정으로는 여성주의 인식을 가진 활동가가 소장으로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임. 성평등 관점을 갖춘 소장 자격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p> <p>11/10 서울.인천권역 제4차 회의(*이안젤라홀)</p> <p>● 전성협 의 연대활동 : 텔레그램 성착취공대위, 강간죄 개정연대회의, 56년만의 미투 재심 대책위,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대위, 준강간피해자 지원 공대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 등</p> <p>● 논의사항</p> <p>(1) 시설장 채용조건(서울시 처우개선 수당 지급의 조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 7년이상 경력자</p> <p>- 가폭,성매매쪽 공무원이나 법인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고자 사회복지협의회 모임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요구해서 시행된 것.</p> <p>- 전성협 차원에서는 성폭력상담소나 시설의 특성을 들어 이를 막거나 조율하는 활동을 못함.</p> <p>(2) 시설장과 종사자의 퇴직년령의 차별적 요소 : 전성협 운영위에서 논의 중</p> <p>(3) 의료비 지원시 상세 영수증 요구 건 : 지자체 담당자별로 차이가 있어 서울시 에 입장전달키로</p> <p>(4) 의료비 & 무료법률지원비 소진 건 : 여가부에 증액 필요성에 대한 입장 전달 및 요구(10월)</p> <p>(5) 치유회복프로그램 집단상담 예산의 개인상담 전용 여부 : 코로나로 인한 변화 수용키로 함</p> <p>(6) 시민감시단 사업 : 구체적인 방안 수립될 때까지는 일단 현재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p> <p>시상식 생략하고 추천단체에서 전달키로 함 (서울지역의 경우 성폭력위기센터에서 일괄 우편발송 가능)</p> <p>(7) 1월 정기총회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총회도 고려하기로 함</p> <p>(8) 내년 무법사업비 증액(1억6천9백만원) : 총 6억 7천 1백만원 예산 확보</p> <p>11/26 전성협 운영위원회(*이안젤라홀)</p> <p>-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한국성폭력상담소 추천 작업</p> <table border="1" data-bbox="395 1425 1212 1763"> <tr> <td data-bbox="395 1425 500 1763" rowspan="3">디딤돌</td><td data-bbox="500 1425 1212 1503">[미투 관련] 10/7 안희정 측근 명예훼손 댓글 유죄(1심) (10/21) (전형적인 2차 가해, 피해자 사생활)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td></tr> <tr> <td data-bbox="500 1503 1212 1667">[미투 관련] 서부지법 제11민사부 가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명예가 피해자의 말 할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성 범죄 피해자의 말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임 (6/17)</td></tr> <tr> <td data-bbox="500 1667 1212 1763">[친족성폭력] 대전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 대법원 2020. 8. 20. 선고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처벌불원’</td></tr> </table>	디딤돌	[미투 관련] 10/7 안희정 측근 명예훼손 댓글 유죄(1심) (10/21) (전형적인 2차 가해, 피해자 사생활)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	[미투 관련] 서부지법 제11민사부 가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명예가 피해자의 말 할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성 범죄 피해자의 말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임 (6/17)	[친족성폭력] 대전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 대법원 2020. 8. 20. 선고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처벌불원’
디딤돌	[미투 관련] 10/7 안희정 측근 명예훼손 댓글 유죄(1심) (10/21) (전형적인 2차 가해, 피해자 사생활)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				
	[미투 관련] 서부지법 제11민사부 가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명예가 피해자의 말 할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성 범죄 피해자의 말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임 (6/17)				
	[친족성폭력] 대전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 대법원 2020. 8. 20. 선고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처벌불원’				

	<div> <div>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8/26)</div> <div>[친족성폭력] 서울고법 형사 10부 (몇 년도?) 친부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1심 법정에서 번복한 피해자 사건에서 무죄를 내린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 “친족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특수성 이해해야 ” 친족 관계에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이 이어질 수 있음 (5/20)</div> <div>[위력성폭력] 5/31 대법원2019도9872 입사간격 2개월 불과 업무상 위력 인정 안한 1, 2심 깨고, 지시감독 받는 관계여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8/12)</div> <div>[동의] 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3/11) 술에 취했음을 피고인이 인정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야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선 안됨</div> </div>
	<div> <div>걸림돌</div> <div>[미투 관련] 9/24 충북스쿨미투 가해자 2심 징역 > 집행유예 (10/7) (피해자에게 합의제안, 반성문 제출) (대전고등법원 청구원외재판부)</div> <div>[디지털 카르텔]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3643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라고 보기 어려움 무죄 선고</div> <div>[가해자중심 양형]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고도 비만'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한 2019년 11월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작년) (7/1)</div> <div>[가해자중심 양형] 정준영 항소심 감형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부)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국가형벌권은 어떤 경우에, 어느 한계까지 개입 고민 (5/20)</div> <div>[가해자중심 양형] 동부그룹 전 회장 1심 2년6개월 4년 집유 고령인점 (그 외 가사도우미 및 비서 강제추행, 간음, 위력성추행 인정) (4/22)</div> </div>
인권운동더하기	- 인권적 반성폭력 여성운동과, 여성주의적 인권운동의 외연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 평가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과제들로 대표단 변경 이후 안정화, 디딤돌 걸림돌 시민감시단 사업의 15주년 이후 아카이빙, 심사단 차기 활동계획 등 향후 비전 수립, 전국성폭력상담소의 운영 및 통계 등 실력의 제고 및 자체 점검을 향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이 필요함. 이를 위해 6/8일 전성협 운영위원회에 읍 저버로 참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요청함. 이후 좀 더 구체적인 의견개진 및 논의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성협에서 오거돈부산시장성폭력사건공대위나, 박원순서울시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연대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음.
- 우리 상담소가 새 건물을 지은 이후 계속 전성협 운영위원회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 상담소가 전성협 논의와 활동의 아지트가 되고 있고, 본 상담소도 필요시 참여 및 제안이 용이함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의한 서울시장 유출 건에 대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을 통해 징계, 평가, 혁신 논의 등을 제안하였고, 실무임원회의와 이사회, 총회에서 최선을 다해 명확한 평가, 징계, 혁신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역할해 왔으며 이후에 계속되어야 함

1-6. 반성폭력 성평등 국제연대 협력 활동

- 목표 :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각국의 성평등/반성폭력 정책과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의 폭을 넓히고자 함.
- 배경/필요성 : 2020년은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BPfA) 도입 25주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도입 20주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도입 5주년 및 UN WOMEN 설립 10주년의 해임. 또한 국제여성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함. 이에 따라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베이징행동강령의 이행성과, 한계와 과리, 향후 과제들을 지역별(local), 국가별(national), 대륙별(regional), 글로벌(global) 차원에서 다양한 글로벌 여성인권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점검하고, 평등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실현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연대의 장이 2020년까지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임. 따라서 다양한 국제교류의 기회가 열려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계획 및 진행내용
- 국제교류협력 2020년 해당 활동을 중심으로 : 백목련, 신아, 오매
- 국제연대를 종류별 분화하여 활동가들이 자기 전망과 연결하여 전문적 활동을 쌓아갈 수 있도록 배분
- 기대효과 : 법제도 개선의 사례, 시행착오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의 동력, 문화, 아이디어를 나눔으로써 길게 활동할 수 있는 시야를 활동가들이 확보.
- 내용

분류	시기 /장소	내용
국제회의	3/9~20 뉴욕 UN본부	UN 여성지위위원회 64차 회의 (CSW) 1946년에 창립한 CSW는 성평등과 여성 임파워먼트를 위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정부 간 기구로, 국제적인 정책협의 및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약속 및 그 이행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역할. ▶ 코로나로 인해 연기됨
	5/7~8 멕시코	Generation Equality Forum(UN WOMEN 주최, 프랑스와 멕시코 정부가 공동의 장,글로벌시민사회 협력) 다양한 세대와 영역, 의제가 교차하는 글로벌 논의의 장으로서, 페미니스트 운동의 연대와 영 페미니스트들의 리더십에 주요 초점을 맞춰 전개될 예정 ▶ 코로나로 인해 연기됨
	7/7~10 파리	Generation Equality Forum(UN WOMEN 주최, 프랑스와 멕시코 정부가 공동의 장,글로벌시민사회 협력) 다양한 세대와 영역, 의제가 교차하는 글로벌 논의의 장으로서, 페미니스트 운동의 연대와 영 페미니스트들의 리더십에 주요 초점을 맞춰 전개될 예정 ▶ 코로나로 인해 연기됨
국제협약	5/28 UN 자유 권 규약	- “UN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5차 국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 ‘질의08-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연구/ 해외 학회	3/20-22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Meeting(AAS Boston) *발표 ▶ 코로나로 인해 연기됨

발표	9/24	<p>한일사회운동 포럼: 사회운동의 재생을 향해: 한국의 시민/여성/노동운동에서 배운다 Vol.1</p> <p>한국활동가가 말하는 #MeToo운동 - 한국의 여성운동은 어떻게 싸웠나?</p> <p>행사일시: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18시~21시</p> <p>방법: Zoom 미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MeToo운동과 여성운동"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 "반성폭력 운동의 전선 : 고위 공직자 성폭력사건과 공대위"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질의 응답(동시통역) - 사회운동가의 교류회
내방/교류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 : 두런두런 주최 「한국 ODA와 젠더전문성 토크아보기」 세미나에서 “젠더기반 폭력 대응운동과 정책” 발제 - 10/27 : 성공회대 외국인 대학원생(MAINS) 내방 강의 - 11/1 : KOICA 글로벌연수 이집트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온라인 교육)
외국인 교육	4/13	<p>휴먼아시아, 동아시아 인권활동가 워크숍(EAST ASIA YOUNG ACTIVISTS NETWORKING PROGRAM)</p> <p>▶ 코로나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됨</p>
	수시	<p>KOICA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공무원 교육</p> <p>▶ 코로나로 인해 진행이 안됨</p>

- 평가 : 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환경은 오프라인 국제교류를 할 조건이 아니어서 전면 중단된 상태이지만,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국제연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8차 한국정부 최종건해 중간이행 현황에 관한 NGO보고서 제출을 여성연합 및 8개 단체가 작성해서 제출했으나 우리 상담소에서는 이 활동에 함께하지 못하여 아쉬움. 이후, UN CEDAW, CSW 등의 중요한 국제적 활동은 챙겨서 참여할 필요가 있음.

1-6. 반성폭력 정책 거버넌스

- 배경/필요성 :
 -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자문위원 형태로 NGO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 상담소에서도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여 성평등 및 젠더폭력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활동을 하고 있음
 -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징적 참여’가 아니라 실제적인 민간위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NGO의 철학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목표: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적, 성평등적인 정책 마련 및 실행을 견인
 - 예산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에 배분하고 적용
 - 정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위기에 대한 포착 및 이를 여성운동 내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대응
- 진행내용:

<p>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2019.9~20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의 행정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 : 사법농단 이후 개혁의지로 마련된 자문기구(원래 사법행정위원회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안되어서 임시적으로 자문회의 형식으로 출범).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6인, 민간인 4인으로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연4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성평등 의제를 분과위원회(현재 재정·시설분과, 재판제도분과, 사법정책분과,
----------------------------------------------	--------------------------------------------------------------------------------------------------------------------------------------------------------------------------------------------------------------------------------------------------------------------------

	<p>기타분과위)로 제안하여 성평등 정책마련 및 실행을 건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일시 : 1/2, 3/12, 4/9, 5/14, 6/11, 7/23(소위원회), 9/24(중) 10/29(중), 12/10(중)
경찰청 여성안전자문단 (2020.5~2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이 추진 중인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 지난 5/20일에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함. -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회의를 열어 여성의 목소리를 시기·주제별 주요 여성안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여, 적극적인 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 활동을 할 예정 - 회의 : 5/20, 9/8(서면), 11/19(서면)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2018. 9~202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수사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안을 하는 위원회로 법학자, 변호사, NGO 활동가, 경찰청차장 및 수사관련 국장 등 총 20인으로 구성. -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한 밀도있는 정책리뷰 및 모니터링, 제안활동 - 성평등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 및 성폭력 등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 수사에서의 피해자 관점 존중과 2차 피해 없는 수사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 8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 종료. - 회의일시 : 4/17, 5/22, 6/19, 9/4(코로나로 취소)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2020.5~2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군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공군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로 최초 시작됨 - 코로나로 인해 위촉식이 늦어져서 5/20 1회 회의가 개최 : 위원장 호선이 있었으며 기존 정책 브리핑 및 질의응답, 토론 순서가 진행되지 못함 - 양성평등포스터 홍보물 공모에 대한 심사 의견 요청 : 성폭력에 대한 피해 자다움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의 배제 권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획위원회 (2016.12~20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 정기적인 회의 운영이 아니라, 연 2회만 개최되는 자문회의여서 자칫 상징성만 갖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제대로 된 문제파악 및 제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연 2회 자문회의 - 회의일시 :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열리지 않음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 (2019.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탁 2기 활동의 안정화 및 확산 지원 - 사업규모 및 예산 효율성에 대한 시의회 질의 반복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모델 유효성과 확산가능성 연구 용역에서 그룹 인터뷰 참여 - 새로운 페미니스트 그룹과 기존 단체 활동 지원, 기획과 예산의 배분에서의 의견 개진

• 평가 :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서 “성평등 정책 &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제안”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성평등, 성폭력 관련 통계자료를 비롯한 주요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준비하고 7차 회의에서 정식 논의안건으로 논의를 함. 논의결과, 법원행정처가 젠더법연구회와 협력하여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그 동안 사법부가 해 왔던 노력을 점검하고 그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한 뒤, 지속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이후 지속적으로 법원내 성평등 정책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함.
- 경찰청의 수사정책위원회에서는 텔레그램n번방 등 불법촬영에 관한 수사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문제제기 및 정책제언을 했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함. 8월로 수사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마치고 이후 여성안전자문단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이어가고자 함.

- 그동안 여성가족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의 자문위원 제안에는 응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우리 상담소에서 어떤 부처 및 분야에 자문단으로 누가 활동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6. 반성폭력 교육, 자문, 발표 활동

- 목표:
 - 다양한 활동가들이 자기 분야를 살려 교육, 발표, 자문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함
 - 성폭력에 대한 지식, 이해 또는 이슈에 대한 논의 흐름 공유, 사안에 대한 컨설팅과 조력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현장 운동단체의 생생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함
 - 연구소 강의 모니터링 사업과 더불어 활동가들의 강의력을 피드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순환체계 마련
- 진행내용 :

활동구분	2020년		2019년	
	횟수	참여자	횟수	참여자
강의	74	2,095	130	5,421
원고	8		14	
발제, 발표, 토론, 사회(패널)	19		38	
의견서	3		3	
자문/회의	101		159	

- 평가 :
 - 2020년에는 반성폭력 운동의 현황과 역사, 성희롱 및 성폭력 이해, 피해자의 말하기, 성평등 조직문화 등의 기본 교육에 이어 미투운동, 차별금지법, 디지털성폭력 등의 '의제'에 대한 강의, 원고, 발제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음
 -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와 발제, 토론 등이 예년에 비해 절반이 진행되었고, 미투운동에 대한 원고가 많았던 예년에 비해 횟수가 줄어들었으나 단행본 발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리 원고 등이 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위원회나 연구자문 등 각종 자문회의의 경우에는 온라인 진행 등으로 이어져 예년에 비해 소폭만 줄어들었음
 - 점차 전통적인 토론회, 언론보다 영상, 유튜브, 방송(TV, 생방송, 라디오, 팟캐스트 등) 등의 매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활동가들의 전달력 역량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목표2. 상담소의 운동을 더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2-1. 성폭력 재판, 양형기준을 바꾸자! 성폭력 가해자 감경후원 고발 액션

- 배경/필요성 : 2017년 가해자 감경후원 고발액션 이후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감형 목적으로 기부하는 사례만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2019년 한 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만 23건이 적발되었고, 그 외에도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례까지 하면 수십 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이어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부하라'는 팁을 보고 정기후원을 신청했다가 재판 이후 해지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감형 목적의 후원은 단순히 가해자들의 전략으로서만 이용되지 않는다. 성범죄 가해자 변호사 시장에서도 유리한 재판의 고지로 이용된다. 단순히 감형 목적의 후원만이 유효한 전력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가해자 카페(성전카페)에는 최근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실제 형사사건

에서 제출한 반성문 모음집 380p 분량을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가 하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범죄에서 반드시 시도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회사와 연결하여주기도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은폐 및 사건 축소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반성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재판 과정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가해자를 출발선에 서게 하는 과정조차 어렵다. 가해자 변호사 시장이 가해자의 '억울함'에 적극 동조하고, 경찰·검찰·재판부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이제는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을 바꿔야 한다. 가해자 사정 참작해주는 양형기준 대신, 피해자 시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목표 : 성폭력 관련 재판 양형기준 현황 파악 및 분석, 피해자 중심적 양형기준으로의 이행
- 방법 및 계획:
 - 2019년 한 해 동안 성폭력상담소에 집계된 감형 목적 후원 사례 수집
 - : 2020년 전성협 총회에 사례 수집 제안
 - 인턴, 로스쿨 실무수습 인원 참여하여 (연간 10명) 2019년 하급심(1, 2심) 판결문의 감경인자 집중분석
 - :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이용등촬영, 아청법 등 성폭력 관련 재판 전체 설정
 - 성폭력 가해자 커뮤니티, 성범죄 가해자 전문변호로펌, 책 등 자료 검색
 - 양형기준 판단 요인에 대한 언론 보도 기획
 - 감형 목적 후원이 양형기준 판단 내부로 들어가는 현황 짚는 토론회 개최
 - : 타 기관과 공동주최하여 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토론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문 발송
- 진행내용
 - (1) 로스쿨 실무수습
 - 일시: 2020년 2월 3일 ~ 2월 14일
 -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 참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및 실무수습 김채연, 박민아, 남현이, 김열국, 이원경, 김유엘, 권유진, 권혜준 (총 8인)

주제: 2019년 하급심(1, 2심) 판결문 감경인자 집중분석

- 2019년 1~11월 동안 이루어진 1, 2심 하급심 판결문 수집 및 정리(로앤비) : 김채연, 박민아
- 로스쿨 공익활동실무수습(2/3~2/14) 참여자(로스쿨 실무수습 평가 참조)들이 내용 분석 및 작성
- 신윤진 교수(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자문 및 상근활동가 질의응답 토론
- 보고서 정리, 한국성폭력상담소 정리 등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견서 발송 (20년 2월 19일)

(2) 카드뉴스 제작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오프라인 행사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감경후원 이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기획.
- 6개 요인 시리즈 카드뉴스 제작 배포 (6회차)

회차	제목	게시일
1	진지한 반성, 흉내내기만 해도 감형이 된다고?	3월 16일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재범 확률이 낮다고?	3월 20일
3	가해자가 대단한 사람이라 감형을 해 준다고?	3월 24일
4	술에 취한 가해자, 블랙아웃 상태라 봐 준다고?	3월 25일

5	재판이 처음이라 초범으로 감형해 준다고?	4월 1일
6	가족한테 성폭력 저질러도 돈만 벌어오면 감형해 준다고?	6월 1일

(3) 언론 인터뷰

언론사명	제목	종류
화난 사람들	성범죄가 무죄가 된다? : 문제 있는 성범죄 처벌기준	영상
SBS 모닝와이드	<수상한 소문>	영상
서울신문	서폭력 가해자의 뻔뻔한 기부. 돈으로 '용서' 살 수 있습니까	기사
매일경제	감형 받으려고... 성범죄자들 '뻔뻔한 기부'	기사
한국경제	반성문·기부·봉사·성교육... '감형 패키지' 내미는 성범죄자	기사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성협과 함께한 감경후원 대응활동의 연결선상에서 2019년, 2020년까지 활동이 이어짐. 이전 활동의 연장선에서 대법원 의견서와 함께 감경요소별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 실제로 제도를 바꾸는 담당부처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함께 정보를 제공하였음.
- '성폭력 범죄가 유난히 형량이 낮다' 는 문제의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성폭력 판결에서 작동하는 통념, 성폭력 범죄가 범죄화되지 않는 이유 등 현재 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발전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함. 직접 인터뷰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여러차례 인용됨.
- N번방 이슈와 맞물려, 상담소가 준비하던 '감경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여 여러 차례 뉴스 보도됨. 활동가 인터뷰는 물론 상담소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도 여러 차례 공유되면서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하는 법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사회적으로 공유되었음. 디지털성폭력 양형기준 마련과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상담소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준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17년 이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수조사를 앞두고 설문지 자문도 진행하였음.- '성폭력 범죄가 유난히 형량이 낮다' 는 문제의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성폭력 판결에서 작동하는 통념, 성폭력 범죄가 범죄화되지 않는 이유 등 현재 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발전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함. 직접 인터뷰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여러차례 인용됨.
- N번방 이슈와 맞물려, 상담소가 준비하던 '감경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여 여러 차례 뉴스 보도됨. 활동가 인터뷰는 물론 상담소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도 여러 차례 공유되면서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하는 법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사회적으로 공유되었음. 디지털성폭력 양형기준 마련과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상담소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준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17년 이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수조사를 앞두고 설문지 자문도 진행하였음.
- 평가: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토론회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상담소가 발간한 저작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이슈메이킹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2.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돌아보기, 나아가기

- 배경/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펼쳐온 반성폭력운동의 색깔, 결, 지향, 정치성 등에 대하여 공유하고 정리하고, 적용하고 논의의 밑바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여성폭력 사안에 대한 시각 등이 재현될 사회적 환경에서 상담소라는 거점의 위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역할 가능성 및 구체적인 실천을 논의할 필요
- 목표 :
 -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의 내부 돌아보기 및 외부에서의 위상 및 역할 점검
 - 2021년 30주년 해에 진행할 외화 사업의 내용을 마련하고 내부 논의 진행

• 활동계획 :

❶ <활동하는 사람들> 상담소 기록정리 및 사무-스마트워크 (2-5월)

○ 상담소 기록정리

- 1) 이사, 감사,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 자문위원 등 : 인력 관련 기록 정리
- 2) 연혁정리 - 폴버전 제작 홈페이지
- 3) 발간자료 정리 및 PDF 공유 - 알라딘 이북

○ 상담소 스마트워크 진입 (참여 활동가 + 전문가 자문)

- 1) 공동일정표 : 개개인 구글아یدی 연동
- 2) 휴가신청 및 관리 (별도 캘린더)
- 3) 상근활동가 회의 구글문서화
- 4) 사진 및 영상 구글 포토

>> <활동하는 사람들> 분야 30주년 생산물 기획안

❷ <상담소에 참여하기> 상담소 홍보 계획, 재정분석 및 후원의 밤 (5-9월)

○ 상담소 홍보

- 브로셔 재제작 문구 및 디자인 논의, 홈페이지 문구 변경 논의
- 자문위원, 이사, 전문위원용 상담소 OT 자료 제작

○ 상담소 재정분석

- 재정분석 전문회의 : 선민, 회계감사, 회계사 자문 1회 (활동가교육)
- 회원분석 : 다양한 각도의 회원분석 1회

○ 상담소 모금행사 기획

- 모금 TF와 앞서 진행 논의

>> <상담소에 참여하기> 분야 30주년 생산물 기획안

❸ <상담소의 비전> 상담소 비전 논의 (3-12월)

○ 비전 설정 및 선언

- 비전 설정하는 도구 관련된 스터디 및 자문 : 책자 1개 스터디
- 상담소 내부 회의 : 상담소의 향후 활동은 어떠한가 할까 관련 <상담소의 질문> 선정하기 회의
- 외부 위원 자문 토론회 : 전성협, 여연, 인권운동더하기
- 자문위원 및 이사회 토론회 : 상담소의 질문 내부 전체 토론회
- 향후 해나갈 운동에 대한 원칙, 지향, 가치 등 구체적인 언어로 도출 : 비전선언문 초안 및 향후 계획

○ 중장기 활동계획 논의

- 5년 활동계획 : 팀별, 부설기관 비전 논의
- 향후 사업분야 관련 재투자 논의

>> <상담소의 비전> 분야 30주년 생산물 기획안

• 진행내용 :

- 사무국회의를 통해 전 상근활동가 TF 구성 제안 및 팀 구성 논의 (4/22 상근활동가회의)
- 팀구성 및 팀별 논의진행, 상근활동가 회의 전체 논의

팀	구성원	회의일
사람, 조직, 비전	지리산, 사자, 신아, 앓, 오매	5/12, 5/18, 6/1, 6/19, 6/29, 7/7, 7/14,

		8/19, 9/8, 9/15, 10/29
스마트워크	달별, 주리, 수수	5/18, 6/29, 7/2~3 워크숍, 7/7, 7/11, 8/7, 8/11, 9/3, 9/14
+ 조직문화	달별, 앞, 지희	5/18, 6/2
원칙, 매뉴얼	은희, 유랑, 파이, 지희	5/12, 6/16, 7/7, 7/22, 8/25, 9/16, 10/27
홍보, 후원	감이, 백목련, 낙타 + 순유 + 달별	5/11, 6/2, 6/15, 7/13, 7/14, 9/29, 10/20

1) 스마트워크

① 구글 G Suite 시스템 도입 및 운영

<p>1) 테크숍코리아를 통한 비영리단체 IT 지원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G suite, 어도비 클라우드, 줌 등 무료-혹은 저가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툴 도입 <p>2) 구글 G Suite 기능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개인 계정 및 부설기관/팀 계정 분리하여 대내외 소통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관리 - 구글 캘린더에 팀, TF, 연대활동, 강의-발제 등 활동가들의 다양한 일정을 등록하고 상담소 내 공간대여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함. <p>3) 전 활동가 대상 기능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들이 간단히 따라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 2회에 걸쳐 개인계정 생성 방법 및 일정 등록 교육 진행. -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 (8월 ~ 11월)

5/18 1차 회의	<p>1. 활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의 자료 온라인화하여 아카이빙 - 스마트워크 구조 세팅하여 활동가 업무 효율 높이기 <p>1) 구글비즈니스계정 활용 : 각 활동가 및 팀 일정 구글 캘린더화, 개인별 업무용 메일 생성</p> <p>2) 서버 아카이브 폴더 체계화 : 출간물, pdf, 카드뉴스, 성명서, 후기, 인터뷰, 영상 등의 정리와 이중백업</p> <p>3) 홈페이지 개편 : 외부 공개된 자료를 내용별로 태깅하여 상담소 자료 접근성 향상 (홍보팀과 협업 필요)</p> <p>2.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 스마트워크 매뉴얼 작성 7/2~3 팀 1박2일 매뉴얼 작성 워크숍 8/12 상근자회의 공유 및 실습 - 8월 : 내부자료 아카이빙 9/23 상근자회의 공유 - 9월 : 상담소 자료 외부플랫폼 공유 관련 구상도 그리기 10/21 상근자회의 공유
6/29 2차 회의	<p><스마트 워크 매뉴얼 작성></p> <p>1. 일정: 7/2-3</p> <p>2. 내용:</p> <p>1) 업무용 구글 계정 만들기</p> <p>1-1) 팀 계정 생성</p> <p>1-2) 개인 업무용 구글 계정 생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상담소 구글 드라이브 접속 권한 부여, 구글 캘린더 사용 - 내용 : 구글 계정 생성 방법, 개인 메일과의 연동 방법 <p>2) 구글 드라이브 활용 방안</p> <p>2-1) 상근자회의 회의록 공동 작성</p> <p>2-2) 자원활동가 출퇴근현황 전산화</p>

	2-3) 기타 3) 구글 캘린더 활용방안 3-1) 전체, 각 팀, 개인 일정 공유 / 공간사용 / 당번일정 / 식사당번 - 목적 : 활동 아카이빙(필수), 동료 일정 상호 공유(부수) - 방안 : 아침나눔 진행자가 캘린더 정리(필수), 공간사용, 당번일정 등은 담당자가 정리. 3. 추후 고민 지점 1) 구글 드라이브 초기 활용 방안 및 정보 접근 권한 제한 2) 구글 비즈니스 계정 활용방안 고민, 일반 계정으로도 될 것인가! 3) FGI 이후 텔레그램 소통 개선 방법 고민
7/2~3 워크숍	1. 한국성폭력상담소 구글 G Suite 이용현황 파악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 앞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 탐색 2. 구글 G Suite 기능으로 전환 가능한 사무관리 초기 세팅 - 개인 업무용 메일 생성 - 구글 캘린더 연동 및 일정 추가 - 공간/비품예약 기능 설정
7/7 3차 회의	- 자원활동가 출퇴근현황 시트 생성 - 기존에 사용하던 메일과 지메일 연동&데이터 이전
7/11 4차 회의	3. 기능 매뉴얼 작성 - 구글 캘린더 이용 방법 - 공간/비품 예약하는 방법 - 업무용 구글 개인메일 생성하는 법 - 구글 G Suite 기초 기능 소개
8/7 5차 회의	1. 상근자회의 공유내용 - 구글캘린더 일정 기입 매뉴얼 교육 - 구글캘린더 활용방안 매뉴얼 교육 - 구글 캘린더 시연 2. [상근활동가 숙제]
8/11 6차 회의	배포된 개인계정 생성 매뉴얼 참조 + 8/26 상근자회의까지는 개인 sisters.or.kr 메일 만들어오기 → ksvrc@sisters.or.kr 구글드라이브 > 사무국 > 2020 > 조직변화실험실 > 온라인 소통 TF > ★활동가를 위한 스마트워크 매뉴얼 > ★개인메일생성매뉴얼_내부용 3. [미리알림] 8/26 상근자회의 : 개인계정 생성 매뉴얼 교육(필요시) 및 GSuite 기능 소개, 구글 캘린더에서 개인계정 추가해서 개인 일정 공유/확인하는 법 시연

② 상담소 자료 아카이브 체계 마련

9/3 7차 회의	1. 상근활동가 공유내용 - 구글 G suite 기초 강의 (공유안전 1) - 개인계정을 일정에 추가하는 방법 - 상담소 계정 구글드라이브 관련 안내 2. 서버 아카이브 폴더 체계화 : 출간물, pdf, 카드뉴스, 성명서, 후기, 인터뷰, 영상 등의 정리와 이중백업 - 아카이빙의 기준 정하기: 카드뉴스는 해당 이름 폴더에, 블로그/인터뷰 기사는 pdf로 따서 저장 / 자세한 기준은 다음 회의 (9/10 10시 반)에 정할 예정. 3. 홈페이지 자료 접근성 높이기- 외부 공개된 자료를 내용별로 태깅하여 상담소 자료 접근성 향상 (홍보팀과 협의 필요) - [의견 요청] 해시태그+카테고리 세분화 vs 해시태그+카테고리 없애기
9/14 8차 회의	1. 데이터서버 아카이브 폴더(WWkSvrc-pc데이터서버Archive) 체계화 :: 출간물, pdf, 카드뉴스, 성명서, 후기, 인터뷰, 영상 등의 정리와 이중백업 - 아카이빙의 기준 정하기: 카드뉴스는 해당 이름 폴더에, 블로그/인터뷰 기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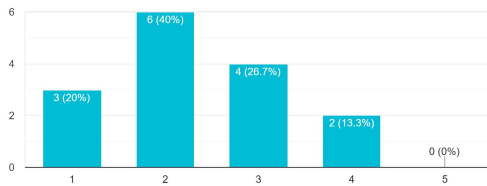
	<p>pdf로 따서 저장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Ksrc-pcW데이터서버WArchive 중, [하담]-열림터, [상담소 리플렛브로셔]-회원담당, [사진]-자원활동가(연도-행사명 별 분류 필요), [발간자료목록]-연구소, [동영상]-수수, [데이터원본파일]-연구소, [다른하드들에서/상담팀, 상담팀백업, 통계, 폴더2]-상담팀, [다른하드들에서/동고비]-오매, [다른하드들에서/폴더1]-말하기대회(자원자 구함!), [다른하드들에서/회원자료집]-달별, [다른하드들에서/나눔터]-성문화운동팀 <p>:: 고려 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리지 않는 아카이브 파일이 다수. [미복구]폴더 및 파일 처분 방식 논의 필요. - [다른하드들에서/나눔터] 현재 나눔터가 백업되는 별도의 폴더 있음. 이중백업이라면 현재 백업 중인 파일을 Archive 폴더에도 백업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로 통일 부탁. <p>:: 한탄: 자료는 잘 정리합시다~ 10년 뒤의 우리가 괴로워집니다~</p> <p>2. 홈페이지 자료 접근성 높이기</p> <p>:: 아이디어: 현재 '발간물' 게시판에서 외부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내용별로 태그. 태그 검색을 통해 필요 자료 검색 가능. (참조: 쿼어아카이브 쿼어락)</p> <p>:: 태그 구성: [공통태그] #팀명, #행사형태(집담회, 총회, 워크숍 등), [주제별태그] #주제(색수열리티, 교차성, 낙태죄폐지, 생존자, 씬터, 자립, 최협의설, 상담일지분석 등)</p> <p>:: 고려 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 담당자가 발간물 게시판에 pdf 파일을 업로드하며 태그를 달게 될 것임. 따라서 '#미투운동' '#미투'와 같이 유사하지만 다른 이름의 태그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1) 원활한 검색을 위해 태그 검색을 지원할 필요 있음. 2) 태그 입력 시 기존 태그가 제안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태그 이름 통일화가 가능해짐. - 해시태그 개수 상한선을 정할 필요 있음. <p>:: 실행 시기: 홈페이지 자료 태깅 작업은 홈페이지 개편이 진행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음. 내년 과제로 제언함.</p> <p>3. 차기 회의</p> <p>10/29(금), 아카이브 폴더 점검 및 자료 외부 플랫폼 공유 구상(알라딘 ebook 제공 등)</p>
10/29 9차 회의	<p>데이터서버 아카이브 폴더 기준으로 정리 후 기준 만들기</p> <p>정리 체계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p>
12/8 10차회의	<p>스마트워크TF 1년 평가회의</p>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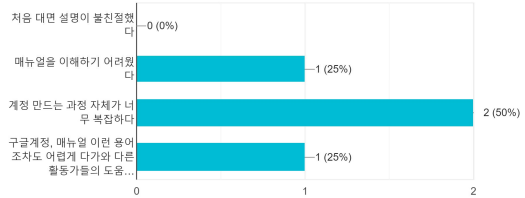
① 구글 G Suite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구글 G Suite 도입으로 개별 상근활동가들과 상담소 각 팀이 업무용 메일계정을 생성하게 됨. sisters.or.kr 도메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온라인 소통에서 통일성이 생김. 개인별 업무 계정 활용 여부 및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체크해 볼 필요 있음.

개인 구글계정 만들기, 매뉴얼 보고 따라하는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응답 1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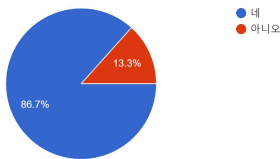


따라하기 어려웠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응답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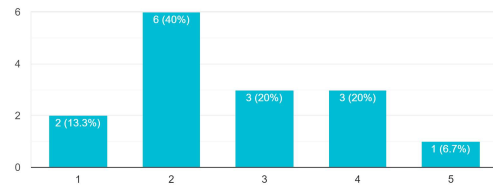


- 구글 계정 생성 난이도 설문에서 응답자 15명 중 6명이 '쉬움'을, 매우 쉬움에 '3명'이 응답하였음. '보통'이라고 응답한 활동가도 4명(26.7%)로 약 86.7%의 활동가가 계정 생성이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함. 그러나 주관식 의견에서 '구글계정', '매뉴얼' 같은 용어도 너무 생소하여 따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런 지점을 우려하여 스마트워크TF에서 상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근활동가들과 조력함. 그러나 스마트워크TF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2021년부터 헬프데스크의 공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1회 이상 추가해 보셨나요?
응답 1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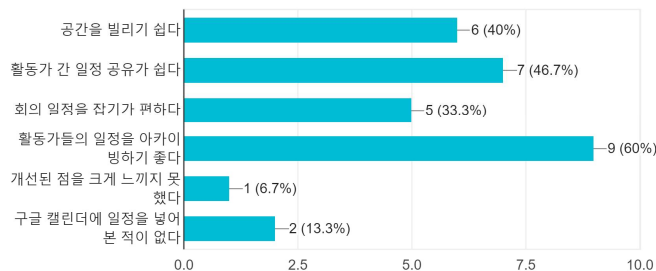


구글 캘린더 일정 넣기 및 활용법 매뉴얼, 따라하는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응답 15개



- 캘린더 일정 넣기 및 활용법의 난이도는 계정생성보다 어려움을 토로하는 활동가가 증가하였음. 15명 중 8명(53.3%)이 '매우 쉽다'와 '쉽다'를 선택, 4명(26.7%)의 활동가가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를 선택하였음. 캘린더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온라인 툴에 익숙해져야 하는 점, 툴 사용에 대한 감각이 이용 폭에 영향을 주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구글 캘린더를 이용한 후,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응답 15개



- 구글 캘린더에 익숙치 않은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피드백도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상담소 공간 관리가 용이해짐. 장소 대여 시간이 겹치거나 하는 상황이 다소 줄어들었음. 또한 외부 근무가 많은 활동가들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회의 일정 체크 등 상호 일정조율에서 드는 피로함이 줄어들었음.

- 구글 캘린더에 익숙하지 않아 빠진 일정들이 생기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침나눔 담당자가 빠진 일정을 채워넣기로 약속함. 하지만 담당자별 편차가 큼. 상담소 활동 아카이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상근활동가들이 모두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상담소 구글계정의 드라이브도 팀별, 사업별로 정리 한 뒤 팀별 드라이브 분리 및 필요 없는 파일 삭제 를 여러 차례 공지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스마트워크TF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2021년부터는 전혀 관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상근자회의 회의록의 클라우드(구글 드라이브) 저장이 진행 중이며, 서기 담당 활동가들이 협업하는 톨로 활용되고 있음. 재택근무 및 데이터서버 접속 불가 시 기존 회의록 참고하여 이전 논의/결정사항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으나 활동가 간에 잘 합의되지 않음. 목적을 다시 공유 하고 합의할 필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회의록을 작성한 후, 데이터서버에도 빠짐없이 백업되고 있는지도 점검 필요.

② 상담소 자료 아카이브 체계 마련

- 기존 데이터서버의 Archive 폴더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 모든 자료는 추후 참조 가능한 형태로 아카이브 되어야 의미를 가지기에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함.
- 다만 상근활동가들의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실제로 아카이빙을 할 실행력(기술, 의지)의 발휘 는 별도의 문제임. TF에서는 체계 마련,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기술적인 보완은 하였으나, 이것을 실행 하는 것은 모든 상근활동가의 역할이므로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아카이브 활동이 이어지지 않을 것임.

<프로젝트팀> * 조직문화 프로젝트팀 진행 내용은 4-1 참조

활동 목표

상담소 내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상근활동가들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활동가마다 의견 차이 존재. FGI 통해 내부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진행자가 제시한 결과 참고하여 상근활동가끼리 답을 도출

6/24 활동가교육	일의 언어로 말하기(최혜정) 2020년 6월 24일(수) 13:30-16:30
7/22 활동가교육	차이로 연결고리 만들기(이은주) 2020년 7월 22일(수) 13:30-16:30
6/10 FGI 사전 워크숍	FGI 진행 전 사전 워크숍 (3시간) 강사: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권지현, 박운정 연구원 1) 온라인 소통의 어려움 2)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회의'의 문제 3) 분리되지 않는 공-사적 관계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3가지 주제로 그룹워크숍 진행 후 FGI 진행할 키워드 뽑아내기
6/26 FGI 설계 회의	참석: 달별,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연구원 사전 워크숍 결과 공유 후 첨언할 내용 및 활동가 입장에서 본 내용 첨언 등 FGI 진행 시 필요한 내용 추가하여 주제 및 참석자 범위 정하기
7/20 리더그룹 워크숍	진행자: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연구원 참석자: 사자, 지리산, 오매 (3명)
8/5 온라인 소통의 문제 워크숍	진행자: 민주주의기술학교 박운정 연구원 참석자: 순유, 낙타, 감이, 은희, 달별 (5명) 주제: 텔레그램을 이용한 소통에서 겪는 어려움, 우리가 온라인 소통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
8/13 의사결정의 문제 워크숍	진행자: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권지현 연구원 참석자: 주리, 신아, 오매, 지희, 달별, 수수, 백목련, 앵,, 유랑 (9명) 주제: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9/16 총정리 워크숍	진행자: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권지현, 박운정 연구원 참석자: 상근활동가 전체 주제: 그간 진행한 3그룹의 FGI를 정리해 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2) 홍보/BI팀

<p>1. 활동 목표</p> <p>① 신/구 후원회원에 대한 멤버십 부여 및 강화</p> <p>② 로고 및 홍보물의 리뉴얼을 통해 조직의 정체성을 가시화하고 통일성 부여</p> <p>③ 비용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p> <p>2. 활동범위 - 상담소 로고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후원 경로 개발</p> <p>① 로고 및 서체 : 상담소 및 부설기관 통일</p> <p>② 캐릭터 : 작년 의지로 캐릭터로 변경</p> <p>③ 슬로건과 비전 : 활동가 전체와 논의 후 결정 가능(7월 활동가 워크숍?) '의심에서 지지로' 역시 관철은 슬로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음.</p> <p>④ 색깔 : 보라와 분홍</p> <p>⑤ 명함 :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산만한 현재 디자인을 간결하게 변경</p> <p>⑥ 브로셔 : 목적에 따라 다르게 발행(홍보 기관) or 간결하게 1장으로 축약(비용 간소화)</p> <p>⑦ 홈페이지 : 모바일버전 기획 → 5/18 사무국 업무회의 중 제안된 내용</p> <p>⑧ 후원회원 멤버십 : KSVRC 후원회원 자각을 위해 후원의 성과를 공유+참여 유도, 후원회원 웰컴키트 개발 → 사무국 업무회의에서 제안</p> <p>⑨ 문자후원 사이트 : 비용 발생 감안하고 후원문자 바로 알 수 있도록 변경</p> <p>3. 진행내용</p> <p>~7월 : 비전 및 슬로건 확정</p> <p>~10월 : 홍보물에 대한 상근활동가 의견 청취 및 전문가 미팅, 회원관리 등 SR 미팅</p> <p>11월 : 홍보물 리뉴얼 계획안 작성 → 이후 진행</p>

+ 한국성폭력상담소 슬로건 창조 워크숍 <엠평! 슬로건!> 진행

<p>- 일정: 2020년 7월 15일(수) 오전 11:15~16:00</p> <p>- 취지: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명할 수 있는 멋진 슬로건이 필요하다</p> <p>- 목표: 발제와 토론, 마인드맵핑을 이용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메인 슬로건을 만든다</p> <p>- 홍보TF 역분: 오후 전체 진행 설명-감이 / 타임키퍼-백목련 / 포토그래퍼-낙타</p> <p>- 방법 및 타임라인</p>			
순서	시간 및 활동	상세 진행방식	준비물
0		<p>모둠 구성</p> <p>1. 지리산, 지희박, 감이, 신아, 유랑</p> <p>2. 사자, 으니조, 앵, 낙타, 달별, 김파이</p>	세 모둠으로 자리 배치

		3. 순유, 김오매, 백목련, 주리, 수수	
1	11:15~13:00 발제와 토론	1. 발제를 들으며, 키워드를 포스트잇에 적어 전지에 붙인다. 1) 이 운동을 움직이는 동력은 (리산) 2) 이 운동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자) 3) 이 운동에서 뽀이 차는 순간은 (신아) 2. 토론 중에도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인다.	포스트잇, 매직세트, 전지, 스티커 등
2	13:00~14:00	식사 맛나게 하기	도시락
3	14:00~14:20 키워드공장	3.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관련된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뽑아 적어 붙인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도 적는다)	상당소와 연대 활동 등의 홍보 물 (브로셔, 스티커, 책자 등)
4	14:20~14:50그 룹핑과 맵핑	4. 적은 키워드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본다	간식
5	14:50~15:00	휴식시간	
6	15:00~15:10 공감스티커	5. 다른 모둠의 마인드맵을 보고 키워드에 공감한다면 스티커를 붙인다. 6. 다른 모둠에서 가져올 만한 키워드를 우리 모둠 마인드맵에 추가하여 풍성하게 해본다.	투표용 스티커 각자 5개씩
7	15:10~15:30 문장완성기능	7. 마인드맵으로 문장을 만들어본다. 8. 30주년 슬로건으로 쓸만한 문장을 골라본다.	
8	15:30~15:50 반짝반짝하게	9. 각 모둠에서 결정한 슬로건 발표와 피드백 (모 듬별 발표 3분+ 피드백 2분씩) 10. 슬로건 멋지게 윤색	
9	16:00	엠텔! 슬로건!!	박수와 환호

3) 조직 및 비전논의 팀

1. 활동 목표 및 주요 방향

1	중장기 목표와 실천 이행 방안 마련	-강간죄개정, 차금법 제정이 목표? -1년 단위 계획-평가만으로는 사회변화 만들기, 실행 어려움	- 중장기 목표 도출 목표 이행 전략 공동워크숍 필요
2	활동가들의 진로와 비전, 역량 나누기	-조직의 비전과 다르고 겹쳐지는 -활동가들의 비전, 역량, 진로 점검	- 직무만족도 조사 검토 - 면담 등 하반기 진행
3	내년 조직도 및 팀별 로테이션 제도 논의, 도입	-내년도 팀, 사무국 체계 개편 논의 -팀 로테이션 제도 논의, 도입 필요	- 내년도 대표단 선출 선관위 구성 및 후보등록공고 등 논의 - 팀 로테이션 논의 - 하반기 계획회의 <지속가능한 KSVRC 을 위한 방향> 발제 및 논의
4	상당소와 논의하는 관계망	-친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활용할 수 있는 자문위원 운영방안 마련	- 이사 개별면담 (이사회 안내 자료, 임 기, 진로, 평가 인터뷰 등)

	점검 및 구축	-구체적으로 알고 책임지는 이사회 역할과 운영방안 마련 -자원활동가 : 참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다각도의 관계와 활동 마련	- 자문위원 회의 (자문위원 OT, 운영방안, 상담소 평가) - 자원활동가 관련 논의 (하반기)
5	정체성, 알리기	-상담소의 위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표현 / 적극 활용	- 20-30주년 단체 탐방인터뷰 6/19 민우회, 6/29 여전 / 장공감 - 7/15 정체성 정리 워크숍 초안 마련 및 홍보 TF와 진행
6	30년 활동평가	-30년 활동의 의미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 필요	- 평가설문조사 : 회원, 전 활동가, 동료 단체, 자문위원-이사, 국회-언론 등 관련자들 진행 - FGI 진행
7	지향, 가치 꿈 가치	-단기간 이슈대응 말고 장기적인 꿈, 희망, 가치를 함께 알고 공유하고 있는가	- 상근활동가 논의 - 회원 등 여러 사람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 우리가 걱정하고 환호하고 떨리는 순간에 대한 오랜 포착 - ex) 꿈 대화방

2) 한국성폭력상담소, 내일을 위한 FGI 진행 (4회)

일정	그룹	장소	참여자
11월 24일(화) 10시반	자문위원	온라인 zoom	이어진, 원민경, 이산, 배은경 오매(진행), 앓, 신아, 감이(속기), 닷별(속기)
11월 24일(화) 7시	자문위원		천정아, 조중신, 천정환, 이은심 지리산(진행), 신아, 조은희(속기), 사자(속기)
11월 27일(금) 7시	자원/소모임활동		김가림, 채연, 박주현, 열쫂, 남지민, 영서 앓(진행), 지리산, 신아(속기)
12월 2일(수) 7시	생존자		리나, 나연, 민지, 푸른나비, 명아 오매(진행), 지희(속기), 유랑(속기), 지리산

주제 및 키워드	질문				
미션, 비전, 핵심 역할, 영향력	1.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30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상담소가 한국 사회와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2. 현재 상담소의 핵심 활동과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활동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table><tr><th>핵심 활동</th><th>2020년 활동 내용</th></tr><tr><td>① 성폭력 피해 생존자 상담 및 지원 활동</td><td>-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운영 -생존자 치유 회복 프로그램 집단상담 <지금 여기 반짝이는 삶> -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운영</td></tr></table>	핵심 활동	2020년 활동 내용	① 성폭력 피해 생존자 상담 및 지원 활동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운영 -생존자 치유 회복 프로그램 집단상담 <지금 여기 반짝이는 삶> -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운영
	핵심 활동	2020년 활동 내용			
① 성폭력 피해 생존자 상담 및 지원 활동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운영 -생존자 치유 회복 프로그램 집단상담 <지금 여기 반짝이는 삶> -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운영				

		<p>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존자 법률 및 의료적 지원 활동 -열린터 치유회복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 및 문집 작업 -열린터 퇴소인 자립지원금 ‘또우리 풀썩기금’ 운영
	② 이슈 대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호한 시선 논평 활동 -이슈대응 포럼 (‘16세 미만의 동의’) 등
	③ 성폭력 연구 및 출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설 연구소 올림 운영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책을뚫고나온페미니스트’ -연간 반성폭력이슈리포트 발행
	④ 젠더감수성, 인권감수성 확산 및 성차별 성폭력 문화 바꾸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적극적 합의 담론 생성
	⑤ 강의 및 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내 사건지원자를 위한 심화교육
	⑥ 법정책 모니터링 및 제개정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양형기준 비판(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등) - 로스쿨 실무수습
	⑦ 수사 재판부 의식 개선 활동	감경 후원
	⑧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와 연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협업 프로젝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폐지를 위한 <시간을 거스르다> (그 외 거버넌스 및 협력, 연대 활동 참고)
3. 10년 후 반성폭력운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대 및 사회적 변화	<p>1. 성폭력 말하기와 공론장</p> <p>정치계, 연예계 등 유명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이 계속 공론화되면서 성폭력 문제가 대중적인 화두가 되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공개적인 성폭력 말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성폭력 공론장도 활발하게 만들어졌지만 유의미한 토론보다는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으로 점철되어 2차 피해와 다름 없기도 했습니다. ‘공론장에서 성폭력 통념을 없애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이슈를 토론할 수 있도록 상담소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시나요?’</p> <p>2. 온라인 활용도</p> <p>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활용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행사, 집회 등을 홍보하고 대중을 조직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온라인 문화와 특성과 기술을 반영하여 기획부터 대중의 참여까지 이루어지는 운동 현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p>	

	<p>3. 페미니즘의 분화와 세대 단절 이른바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운동권 기성 페미니스트가 분화되고 상담소는 기성 페미니즘 단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성폭력 및 여성인권 의제에 대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는 순간도 있었지만, 차별과 혐오에 맞선다는 기조 아래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즘의 여러 관점들 사이에서 어떤 관점이 확산되는지 중요해집니다. 상담소가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더 와닿고 임파워링 되는 언어와 활동을 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p> <p>4. 생존자의 욕구 상담소는 전화 상담, 의료적 법적 지원, 자조 모임(작은말하기) 운영, 치유회복프로그램, 쉼터 열림터 운영 등을 통해 생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성폭력 생존자의 욕구를 상담소가 파악하고 지원 및 활동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한편으로 운동의 제도화 이후 활동가와 생존자의 관계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의 관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현장에서 지원자와 생존자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관계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p>
지속가능성	<p>1. 상담소가 지난 30년의 활동을 상담소 안팎으로 축적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p> <p>2. 새로운 경험, 문화, 배경, 정체성을 가진 활동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나요?</p> <p>3. 국가 보조금의 비율을 줄이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후원회원을 비롯하여 상담소의 반성폭력 운동을 지지하는 분들이 재정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후원회원이 후원을 결심하거나 후원하기 잘했다고 느끼는 계기가 언제일까요? 후원회원들이 상담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p>
거버넌스 및 협력, 연대	<p>1. 상담소가 정부, 부처, 국회, 수사재판부 등의 권력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하나요?</p> <p>2. 상담소는 현재 다음과 같은 연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연대 활동을 통해 우리의 궁극적인 미션인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상담소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여성연합 ·미투시민행동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전시협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각종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안희정, 해군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오거돈, 준강간, 서울시장) </div>

생존자, 여성, 소수자 시민 등 활동 대상과의 상호작용	1. 상담소 활동에 참여하면서 선생님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 가요? 2. 상담소 활동에 참여했을 때 장벽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 요? 3. 상담소가 함께 가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재정 및 운영의 투명함	지난 30년 동안 상담소가 전반적인 운영과 회계를 후원자 및 시민들에 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평가하시나요? 시민단체로서 상담소의 운영과 회계에서 신뢰도, 투명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어떻게 생각해?” 설문조사 진행

- 기간 : 2020년 11월 9일~27일

- 참석 : 516명 (중복 확인 정리 예정)

이 설문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구성원들과 상담소의 활동과 운영을 돌
아보고 향후 비전 탐색과 회원 사업 강화 방향을 고안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약 5분 정
도 소요되며 결과는 기획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소정의 인원을 추첨하여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오니 주변에도 많
이 홍보해 주세요!)

[상담소와의 관계 및 상담소에 대한 이해]

1. 상담소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 상담소 행사에 참여하면서 ☐ 지인 소개 ☐ 학교 등의 기관을 통해(인턴, 실습 등)
☐ 책을 통해 ☐ 뉴스를 통해 ☐ 온라인 매체를 통해
☐ 기억나지 않는다 ☐ 기타(직접 입력)

2. 상담소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중복 응답)

- ☐ 후원회원/정회원 ☐ 상담·지원을 받은 내담자 ☐ 자원활동가/인턴
☐ 행사, 교육, 소모임 등 참여자 ☐ 전 활동가 ☐ 현 활동가
☐ 자문위원/운영위원 ☐ 이사 ☐ 연대단체/협력기관 등
☐ 온라인 채널(SNS, 뉴스레터 등) 구독자 ☐ 기타(직접 입력)

3.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어떤 기관으로 알고 있나요?

- ☐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 유료로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는 심리 상담 기관이다
☐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고,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일만 한다
☐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고,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다

4.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 들어본 적 없다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 ☐ 활동 소식을 종종 접하며, 대강 알고 있다
- ☐ 활동 소식에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다
- ☐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직접 참여도 하고 있다

※ 5-9번은 2번에서 후원회원/정회원으로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진행

5. 상담소에 후원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 ☐ 정기후원 ☐ 일시후원 ☐ 문자후원 ☐ 현물후원

6. 현재 정기후원을 하고 계신 경우, 어떤 경로로 후원을 하게 되셨나요?

- ☐ 지인 권유 ☐ 활동가 권유 ☐ 후원의 밤 등 모금행사 ☐ 행사 참여
- ☐ 교육 및 강의 수강 ☐ 언론 보도 ☐ 포털 검색 ☐ SNS ☐ 기타(직접 입력)

7. 후원을 결정할 때 고려한 요소는 어떤 것인가요? (중복 응답)

- ☐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하고 싶어서
- ☐ 상담소 활동 및 활동가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하고 싶어서
- ☐ 의미 있는데 돈을 쓰고 싶어서
- ☐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 ☐ 후원을 권유한 지인 혹은 활동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 ☐ 기타(직접 입력)

8. 후원회원이 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용해 보신 것은 무엇인가요?(중복 응답)

- ☐ 회원 가입 시 상담소 굿즈 및 소식지 발송 ☐ 행사, 교육 시 참가비 할인
- ☐ 소모임 등 회원 활동 참여 ☐ 온/오프라인 소식지 발송 ☐ 기타(직접 입력)

8-1. 위의 예우 중 좋았거나 유용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중복 응답)

- ☐ 회원 가입 시 상담소 굿즈 및 소식지 발송 ☐ 행사, 교육 시 참가비 할인
- ☐ 소모임 등 회원 활동 참여 ☐ 온라인 소식지 발송 ☐ 오프라인 소식지 발송
- ☐ 기타(직접 입력)

8-2. 위의 예우 중 부담스럽거나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중복 응답)

- ☐ 회원 가입 시 상담소 굿즈 및 소식지 발송 ☐ 행사, 교육 시 참가비 할인
- ☐ 소모임 등 회원 활동 참여 ☐ 온라인 소식지 발송 ☐ 오프라인 소식지 발송
- ☐ 기타(직접 입력)

9. 후원회원에 대해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 응답)

- ☐ 상담소 저작물 구입 시 할인 ☐ 회원 참여 행사 확대 ☐ 회원 전용 기념품 배포
- ☐ 자원활동이나 실습 시 우선 선발 ☐ 기타(직접 입력)

10. 주위 사람들에게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가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 ☐ 이미 추천하였다 ☐ 기회가 되면 추천할 것이다 ☐ 추천하고 싶지 않다

10-1. 추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 상담소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다
☐ 주변 사람들이 상담소 활동에 동의할 것 같지 않다 ☐ 조용히 후원하고 싶다
☐ 기타(직접 입력)

11. 후원 중단을 고민하신 적이 있거나 후원 중단을 하신 상황인가요?

- ☐ 후원 중단 중이다 ☐ 후원 중단 고민한 적 있다 ☐ 후원 중단 고민한 적 없다

11-1. 후원 중단을 고민하셨거나 후원 중단 중이시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경제적 어려움 ☐ 상담소보다 더 열악한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서 ☐ 회원 예우 불만
☐ 상담소 입장에 동의하지 않음 ☐ 기타(직접 입력)

[상담소 활동 평가 및 비전]

12. 상담소의 활동은 주로 어떻게 접하고 계신가요? (중복 2개까지 허용)

- ☐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 홈페이지 ☐ 이메일 뉴스레터
☐ 소식지 「나눔터」 ☐ 부설 연구소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 행사 및 교육 참여
☐ 주변 지인을 통해(활동가 포함) ☐ 자원활동 또는 인턴, 실습하면서 ☐ 포털 검색
☐ 기타(직접 입력)

13. 상담소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때는 주로 언제인가요? (중복 2개까지 허용)

- ☐ 자료, 출판물 등을 활용할 때
☐ 상담소 활동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을 때
☐ 특정 이슈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입장을 참고하게 될 때
☐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상담 및 지원을 받았을 때
☐ 교육 및 강의 참여했을 때
☐ 자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 때
☐ 기타(직접 입력)

14. 상담소 활동에서 아쉬움을 느낄 때는 주로 언제인가요? (중복 2개까지 허용)

- ☐ 특정 이슈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상담소의 활동이 주변에 잘 전달되지 않을 때
☐ 활동가 중심으로 활동해서 회원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할 때
☐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족
☐ 기타(직접 입력)

15. 행사 및 교육, 회원소모임, 자원활동 등 상담소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 있다 ☐ 없다

15-1. 있으시다면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5-1-1.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접 입력)

15-2.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물리적 거리 ☐ 시간상 한계 ☐ 관심이 가지 않음 ☐ 기타(직접 입력)

16. 상담소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활동 형태는? (중복응답)

☐ 성명·논평 ☐ 기자회견·인터뷰 ☐ 시위·집회 ☐ 토론회·집담회 ☐ 자료발간·출판
☐ 대중홍보·캠페인 ☐ 교육 ☐ 자조모임·소모임 ☐ 온라인 소통 ☐ 기타(직접입력)

17. 상담소가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활동 형태는? (중복응답)

☐ 성명·논평 ☐ 기자회견·인터뷰 ☐ 시위·집회 ☐ 토론회·집담회 ☐ 자료발간·출판
☐ 대중홍보·캠페인 ☐ 교육 ☐ 자조모임·소모임 ☐ 온라인 소통 ☐ 기타(직접입력)

18. 지난 30년간 상담소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주요 활동 분야는 무엇인가요? (중복 3개)

☐ 성폭력 피해생존자 상담·지원 활동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비롯한 섹슈얼리티·여성주의 관련 강의, 교육
☐ 성폭력 관련 연구
☐ 섹슈얼리티·여성주의 관련 연구
☐ 성폭력 관련 법 개정 활동
☐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성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
☐ 낙태죄 폐지와 같은 여성인권 관련 이슈대응 활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퀴어문화축제 참여 등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각종 연대 활동
☐ 언론 대응 활동
☐ 회원 예우 및 회원 대상 사업
☐ 후원회원 배가, 모금행사 등 재정 독립성 확보를 위한 모금활동
☐ 기타(직접 입력)

19. 상담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복 3개)

☐ 성폭력 피해생존자 상담·지원 활동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비롯한 섹슈얼리티·여성주의 관련 강의, 교육
☐ 성폭력 관련 연구
☐ 섹슈얼리티·여성주의 관련 연구
☐ 성폭력 관련 법 개정 활동
☐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성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
☐ 낙태죄 폐지와 같은 여성인권 관련 이슈대응 활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퀴어문화축제 참여 등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각종 연대 활동
☐ 언론 대응 활동
☐ 회원 예우 및 회원 대상 사업
☐ 후원회원 배가, 모금행사 등 재정 독립성 확보를 위한 모금활동
☐ 기타(직접 입력)

20. 상담소 30주년 기념하여 새롭게 준비한 슬로건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슬로건을 골라 주세요.

☐ 침묵을 깨뜨리고 우리는 움직인다
☐ (시대에)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 ☐ 당신의 말하기를 환대하는 흔들림 없는 연대
- ☐ 당신의 말하기를 환대하는 흔들림 없는 연대, 함께 버티는 힘, 용기가 여는 가능성

21. 상담소 구성원으로서 상담소에 제안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응답자 정보]

22. 응답자의 성별을 알려주세요.(※자신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응답하셔도 좋습니다. 구글 설문지 양식상 직접 입력 칸을 '기타'로 분류함을 양해 바랍니다.)

- ☐ 여성 ☐ 남성 ☐ 기타(직접 입력) ☐ 응답을 원치 않음

23. 응답자의 연령대를 알려주세요.

-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24. 응답자의 직업을 알려주세요.

- ☐ 학생 ☐ 직장인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시민단체활동가 ☐ 전업주부 ☐ 무직 ☐ 기타

25. 응답자가 사는 지역을 알려주세요.

-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해외 ☐ 기타

※ 후원참여 감사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경우 기프티콘을 발송할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4) 규정 및 원칙작성 팀

1. 활동목표

: 상담소 내 주요원칙들을 재정비하고 상담/연구윤리를 강화하여 활동역량을 높인다

2. 주요 진행 내용

1) 상담소 주요 규정 리스트 정리

2) 상담 윤리 규정 마련

- 기존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내규 대폭 수정 방향. 내담자 컴플레인 접수 및 상담원 보호 방침(소진 방지) 내용 신설. 상담원 의무 항목에 윤리규정 추가. 규정 이름 변경 검토.

면접상담신청서에 개인정보이용 동의 추가할 것.

3) ARS 지능망 서비스 검토 : 인사말 100자 이내만 가능. ARS 서비스번호당 4,400원의 요금 발생. 착신통화전환 서비스 중복 불가함. 비어 있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함. 현실적으로 ARS 서비스 어려움.

전화상담에서 내담자의 개인정보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이용 동의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 검토

4) 상담 사건 지원 내부 매뉴얼 작성

● 2020년 30주년 TF와 2021년 30주년 사업의 연결 계획

2020년	<p>[30주년 TF활동]</p> <p>① 비전팀 : 안식년, 휴가, 조직운영파트(대표자) 선출 등 상근활동가 지속가능 순환 체계 논의 : 자문위원, 이사회 등 주요 상담소 논의 및 의사결정 구조 점검, 체계 마련 :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준비 TF 진행 (회원, 생존자, 자문위원 - 11월 중 4회)</p> <p>② 내외부 소통 및 스마트워크 : 전체 상근활동가 및 팀별 구글 계정 (이메일, 드라이브 도입) : 전체 일상 일정 구글 캘린더 도입 : 상근활동가 회의자료 및 회의록 구글 문서화 시작 : 내부 소통 (조직변화실험실 프로젝트) 진행 - 온라인 소통 및 내부 논의 원칙 제정 + 중장기 소통 과제 선정</p> <p>③ 홍보 : 한국성폭력상담소 내일을 위한 설문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어떻게 생각해?” 진행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 현재 500명 설문조사 응답) : 30주년 슬로건 선정중 : 한국성폭력상담소 BI 디자인 리뉴얼 및 상담소-열린터-연구소 홍보물 리뉴얼</p> <p>④ 규정 : 피해자 지원업무 윤리규정(안) 작업 및 2021년 제정 : 상담 및 사건지원 매뉴얼 정리</p> <p>⑤ 기록 및 아카이브 : 상근활동가, 상담원교육 이수자, 자원활동가 등 함께한 사람들 기록 DB화 : 문서 기록 정리</p>
2021년	<p>30주년 기념사업 상근활동가 워크숍 논의결과 (11월 4일)</p> <p>① 홈페이지 및 SNS 개편 : 의제별 30년 반성폭력 운동의 발자취</p> <p>② 생존자말하기대회, 2차 피해 의제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최협의설 비판과 성폭력 개념 변경 운동,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 공동대책위원회 등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연 주요 반성폭력 운동의 전략과 의제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이룬 성취를 힘있게 발표. 현재 변화하는 지형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대중화 작업 (강연회 또는 연속기사화, 홈페이지 아카이브 등)</p> <p>③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 : 상반기 중 진행</p> <p>④ “성폭력의 개념 : 적극적 합의로”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다시 ‘적극적 합의’로 성폭력 개념 변경 운동의 정리, 의미화, 대중교육 및 워크숍 개발, 담론화 작업 향후 중장기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시작 2018년부터 진행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 지속 활동</p> <p>⑤ 연구소 단행본 발간 및 북토크</p> <p>⑥ 그외 2020년 30주년 TF 활동의 과제 지속 및 실현</p>

• 평가:

- 전 상근활동가들이 TF에 참여하여 연간 사업계획 수행 과정에서 노동력이 더 투입되게 됨. 그러나 별도의 TF 구성으로 인한 역할분담과 정보격차, 논의격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안이었으며 모든 상근활동가들의 여러 팀의 안배와 협업으로 기본적인 과제에 대한 장기간의 논의와 실행, 시도가 가능하였음
- 조직운영논의(비전), 홍보, 스마트워크, 조직문화와 소통, 규정마련 등 네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슬로건 워크숍, 설문조사, FGI 등에서 협업을 통해 워크숍이나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진행하여 해당 결과가 서로에게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순환됨
- 30주년 슬로건 도출 워크숍은 2020-2021년 현재 반성폭력 운동의 지형에 대한 활동가들의 진단을 함께 나누고, 상담소의 비전과 역할을 다시 공유/공감함으로써, 상담소를 표현하는 간략한 슬로건을 효과적으로 도출함. 4가지 슬로건 후보에 대해 설문조사에서 골고루 응답한 결과가 이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함
- <한국성폭력상담소 내일을 위한 설문조사/FGI>는 회원, 지지시민, 일반시민 및 활동회원, 자문위원, 생존자들이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생각과 애정, 관심, 기대와 제언을 가지고 있었음과 그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함. 잘 구조화된 질문지 속에서 향후 비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2020년 TF 활동의 마무리와 2021년 사업계획으로의 연결과 30주년 기념사업, 향후 활동방향의 안착과 실천이 실현되는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음

2-3. 상시 모금 및 특별 모금 사업(일시후원)

- 배경/필요성 : 제도화 과정에서 NGO로서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의 안정성 확보하여야 함.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외부 기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필요한 서류 업무 등에 인력을 소모하게 하여 고유사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 안정적인 사업비 마련이 필요함.
- 목표 : 상담소 활동, 사업과 참여-모금을 연결하고, 후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공유하여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 방법 및 계획

<상시모금>

- 기업후원 미팅 및 상세 진행
- 텀블벅 등 온라인 모금 제안 검토 및 미팅, 진행 및 후속작업
- 팬클럽 등 소규모 시민 그룹 후원 - 검토 및 리워드, 후속 작업

<특별모금 - 후원의밤>

- TF 수립(3월 초; 순수익 3,500만원)
- 계획 실행(3~9월)
- 후원의 밤(9/4 금요일 저녁 예정)

• 내용:

- 기업후원

후원일시	후원내역	후원금액(원)
2/21	문학동네	4,000,000
3/12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2,000,000
9/18	한샘 후원약정서 체결식	5년간 월 200만원

- 특별후원

후원일시	후원내역	후원금액(원)	SNS 업로드
19.12.23.	한겨레 바다해-황예랑 기자 상금 후원	1,000,000	20년 1월 14일

1/8	위밋업스포츠	300,000	20년 2월 14일
3/10	Bon Iver 내한공연(프라이빗커브)	1,571,000	20년 1월 12일
3/27	스트레스컴퍼니 물품 후원	-	20년 4월 1일
4/21	김다연 작가 에세이집 후원 (20권)	-	20년 4월 24일
5/21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생일맞이 팬클럽 후원	1,000,000	20년 5월 21일
6/15	움직씨출판사 출간도서 후원 (4종, 20권)	-	20년 7월 7일
6/30	유튜버 알간지&구독자 알맹이, 텀블벅 후원	68,899,598	20년 7월 20일
7/14	성폭력피해자, 합의금 후원	2,000,000	X
7/14	개인 후원자 김양신 님 후원	10,000,000	X
7/20	이정연님 개인 프로젝트 수익금 후원	150,000	X
9/1	나윤경님 후원	1,000,000	X
11/5	지정기부, 이경환님 후원	4,000,000	X
11/25	추적단 불꽃 X 수신지 작가 후원	1,000,000	20년 11월 27일
12/4	23년전 열림터 생활인 000님 후원	20,000,000	X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금행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소 활동을 응원하는 각계각층의 후원자들이 고액후원으로 지지 의사를 표시함.
- 올해 상담소의 활동이 주목받으며 일시후원 전체 액수도 함께 증가하였음.
- 평가
 - 일시후원자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음. 상담소가 보이는 감사 인사가 확산되어 다른 시민의 연쇄적인 일 시/정기 후원을 이끌어내기도 함. 올해는 이례적으로 큰 액수의 일시후원이 있었지만 올해 상담소의 활동 이 대중에 많이 노출된 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인 방식의 후원행사에서 벗어나,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후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4. 후원회원 확대, 예우(정기후원)

- 배경/필요성
 - : 회원예우에 공을 들일수록, 후원회원과의 정기적으로 소통할수록 후원회원이 느끼는 효능감이 커진다. 반 성폭력 운동의 영역으로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이 필요하다.
- 목표:
 - 정확한 절차 진행을 통해 후원회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 후원회원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방식의 후원을 유도한다.
- 방법 및 계획:
 - 1) 신규회원 관리
 - 스마트레이저 확인 및 개별 전화 소통
 - 신규회원 가입 감사 굿즈 발송 (나눔터 최신희, 상담소 굿즈 1개 이상, 가입감사편지)
 - 특별후원회원 스토리 SNS 게시
- 내용:
 - 신규회원 관리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누적 인원
신규 및 증액	26	41	103	90	49	34	161	46	30	29	31	
중단 및 탈퇴	7	11	10	5	13	17	18	8	16	11	5	
(정기)납 입회원 수	1,061	1,050	1,072	1,169	1,199	1,217	1,264	1,355	1,358	1,350	1,353	
정기후 원회비 (단위: 천원)	17,707	17,459	17,449	19,367	19,915	20,104	20,987	21,792	21,767	21,533	21,167	
일시 (단위: 천원)	1,605	300	12,400	4,190	6,254	70,304	15,897	2,480	4,240	824	2,937	

- 상담소가 지원하는 사건 중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 연달아 기사화되면서 정기 후원회원이 대폭 증가하였음. (3월부터 8월까지) 그러나 그만큼 가해자도 많이 증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상식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을 고정적 후원자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할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 있음.
- 신규회원 증가를 위해 활동가별 후원회원 유치 할당량이 있었으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거나 늘어난 후원자만큼 늘어난 가해자 색출로 인해 활동가들의 후원회원 가입 권유는 올해 진행하지 않기로 함.
- 평가:
 - 후원자가 급증한 만큼 가입동기 확인도 늦어져 전반적으로 웰컴키트 발송이 늦어졌음. 전체 상근활동가들이 함께 일정량을 나누어 가입동기를 확인하여 3월부터 5월, 7월에서 8월에 가입한 후원회원까지는 활동가들과 나누어 가입동기 확인 완료. 후원회원이 평소 대비 현저히 증가한 경우, 빠르게 동료 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업무분배할 필요가 있음.

2) 기존회원 관리

- 목표: 후원중단율을 낮추고 반성폭력 운동의 지지자 확대
- 진행내용:
 - 회원정보 수정 메뉴얼 홍보
 -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등에 후원 안내
 - 미납 알림 및 장기미납회원 관리
 - 총회 정회원 안내 및 소통
 - 소모임 홍보 및 참여 독려
- 진행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중단회원	13	17	18	8	16	11	5
특정이슈 중단회원 - 정의연 건	4	3	5				
특정이슈 중단회원 - 서울시장 건			5	1	1		
코로나19 중단회원	1	1	1	1	4	4	1

-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과 지원하는 사건 방향성이 맞지 않는 문제로, 기존 회원 중 일부가 후원을 중단함. 상담소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온 회원에 대한 예우로 상담소의 입장을 정중히 설득하였음. 중단자 중 일부는 후원중단을 철회하기도 함.

- 서울시장 건으로 10년 이상 후원해온 후원자의 후원중단이 5건이나 있었으나, 이후 후원중단 건을 처리한 활동가의 이야기가 SNS상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후원회원이 평소의 5배가량 증가하였음. 대부분은 20대 ~ 40대 사이의 서울시장 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지하는 시민들임.
- 코로나19 이후 조금씩 관련 중단자가 생기고 있음. 후원회원들이 후원을 중단할 때 단순하게 개인사정이 라고만 밝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후원중단이 실제보다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평가
 - 담당자가 다른 사업과의 균형 조절 실패, 재택근무의 장기화로 인한 연락의 어려움 등으로 기본적인 후원관리 제의 기존회원관리에 여력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여 아쉬움. 타 업무와의 적절한 업무 조율을 통해 회원 관리에 조금 더 공을 들여야 함.

3) 가해자대응

- 목표: 감형 목적 후원자를 걸러내고 기록하여 데이터를 축적한다.
- 방법 및 계획:
 - 모든 회원가입자 전화통화 및 후원동기 확인
 - 가해자 후원 적발 시 후원중단 및 반환 절차 진행
 - 대응 과정 기록 및 가해자 전략 탐색
-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가해(추정)자	4	3	6	6	7	7	4	1	4	3	2	47
가해자 주변인	1	-	-	1	-	2	-	-	-	-	-	4

- N번방 사건, 부산시장에 의한 성폭력사건,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사건 등 상담소가 지원하는 사건 중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기사화되면서 가해자(가해추정인)과 일반 후원자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더군다나 남성 후원자의 경우, 상담소 후원회원 확인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후원동기 및 성폭력 재판 여부를 물었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됨. (가해자 취급하거나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추후에 이메일로 실망스럽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 남성 후원자와 가해자(추정인)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움.
- 평가
 - 가해자의 회원가입 팁, 방식 등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가해자와 후원자의 경계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음. 가해자를 적발하는 데에 담당자의 여력 및 감정도 소모가 큰 상황. 후원 동기를 모두 확인하여 가입 동기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곳에 더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함.

4) 상담소 생일 축하

- 목표: 상담소 역사를 알리고 후원회원과 유기적 관계 형성
- 방법 및 계획:
 - 생일 떡 나눔
 - 상담소 29주년 생일맞이 문자후원 이벤트 개최
- 내용:
 - 상담소 개소일인 4월 13일에 문자이벤트를 기획하였으나, N번방 사건이 대대적으로 기사화된 상황에서 별도의 이벤트를 기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았음. 대신 온라인 소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격월 활동가 인터뷰 4월편을 상담소 개소일인 4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간 연재. (평가는 2-5의 온라인 소통 및 홍보 참고.)

- 회원과의 결속력 강화라는 목표와는 다소 멀어졌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른 단체와 떡을 나누는 대신 활동가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변경하여 김밥을 싸서 한강 소풍 진행함. 여러 성착취,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면 사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겹쳐 활동가들이 느낀 소진을 해소할 수 있는 행사였음.

5) 문자후원

- 배경/필요성: 전통적 후원방식인 정기후원에 부담을 느끼는 후원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일회성으로, 여윌 돈이 생겼을 때 몰아서 후원하는 방식도 낯선 사람들에게 가벼우면서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후원이 필요하다.
- 목표: 주기적인 문자 내역 체크 및 홍보를 통한 문자후원 빈도수 증가
- 방법 및 계획:
 - 특정 기념일이나 상담소 행사에 문자후원 홍보
 - 문자후원 이벤트 진행
 - 내용:
 - * 드디어 나눔플러스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됨. 실시간 문자후원이 가능해져 7월부터 12월까지 조회 가능.
 - * 나눔플러스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2020년 1월 ~ 6월 문자후원내역 데이터가 분실되었음. 상황 파악 후 문제제기 및 대응 중.
 - 상담소 개소일인 4월 13일에 문자이벤트를 기획하였으나, N번방 사건이 대대적으로 기사화된 상황에서 별도의 이벤트를 기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았음. 대신 기자회견이나 집담회 등에서 상시적으로 상담소 문자후원을 안내하고 있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자후원(건)	1675건	15건	21건	8건	7건	5건

-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사건 기자회견을 했던 7월에 문자후원이 집중적으로 쏟아짐. 내용 역시 대부분이 서울시장 피해자를 응원하는 내용. 이후 9월에는 열림터 생일축하, 11월 말 ~ 12월은 낙태죄 폐지 관련 내용이 많았음.
- 평가
 - 매달 정기적인 후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상 속 소소한 후원을 하고 싶어하는 후원자들의 호응도가 문자후원을 통해 꾸준히 드러나고 있음. 특정 이슈로 인해 주목받는 상황 이외에, 일상적으로 문자후원에 참여할 후원자 포섭 필요.

2-5. 온라인 소통 및 홍보

- 배경/필요성
 - 모든 사람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 지금,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이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역시 온라인 공간을 의견 교류의 장이자 새로운 담론 습득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온라인 공간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주체를 만나야 한다.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외화하고, 상담소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 방법 및 진행내용:
 - 1) 상담소 활동스토리 발굴
 - 뉴스레터, 나눔터 등에 담기에는 사소하지만 상담소 회원 및 잠재적 후원회원이 궁금해할 만한 소식을

발굴하여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

: 2020년 3월 ~ 2020년 12월까지 매달 1회 게재 (총 10회)

- 내용: 상담소 소식을 담은 글을 조금 더 심화하여 상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활동가 인터뷰'로 전환. 격월 연재 예정.

4월	활동가 인터뷰 : 활동가 환갑 맞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터뷰 일시: 2020년 3월 13일 연재 일시: 2020년 4월 13일 ~ 4월 27일 누적 조회수 937회 (5회차 합산)
6월	활동가 인터뷰 :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인터뷰 일시: 2020년 6월 11일 연재 일시: 2020년 6월 29일 ~ 7월 3일 누적 조회수 1060회 (5회차 합산)
8월	활동가 인터뷰 : 활동가 인생곡선!	인터뷰 일시: 2020년 8월 14일 연재 일시: 2020년 8월 24일 ~ 8월 26일 누적 조회수 1060회 (3회차 합산)
10월	활동가 인터뷰 : 젠가!	인터뷰 일시: 2020년 10월 16일 연재 일시: 2020년 10월 누적 조회수 288회 (게재처 합산)
12월	(가제) 활동가 인터뷰 : 상담소와 함께 보낸 6개월을 돌아보며	인터뷰 일시: 2020년 12월 8일 연재 일시: 2020년 12월 말

2) SNS 상시 관리 및 활성화

: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상시 관리

: 카드뉴스, 영상형 카드뉴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 및 반성폭력 담론 외화

- 내용:

현황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2019	2020 (12/3 기준)	2019	2020 (12/3 기준)	2019	2020 (12/3 기준)	2019	2020 (12/3 기준)	2019	2020 (12/3 기준)	2019	2020 (12/3 기준)
게시물	417	346	123	115	481	375	5,756 (누계)	6,777 (누계)	10	3	64	64
구독자	-	-	-	-	7,453	8,524	7,765	8,711	109	231	476	1,304
증감율	-	-	-	-	▲14.3%		▲12.2%		▲112%		▲174%	
방문자 (월평균)	약 247, 429	약 259,1 05	8,247	7,040	-	-	-	-	-	-	-	-

- 주 소통 채널은 페이스북, 홈페이지, 트위터이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서브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 1인이 상담소 SNS채널을 모두 관리해야 해서 모든 SNS에 상담소 게시글이 동시에 업로드되지는 않지만, 주요 채널인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선택과 집중을 보이고 있음. 인스타 스토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7개월 사이에 315% 증가함. 그 외 SNS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페이스북 자동응답 메시지 설정하여 (1)상담부스 운영시간 및 번호 안내, (2)후원 안내, (3)부재중 메시

지를 자동으로 출력, 단순 문의 응답률을 높임.

- 티스토리 블로그 카테고리를 정리/신설하여 상담소 최근 활동의 가독성을 높임.
- 유튜브-인스타 등 상담소가 잘 사용하지 않던 SNS의 반응도 및 팔로워 수가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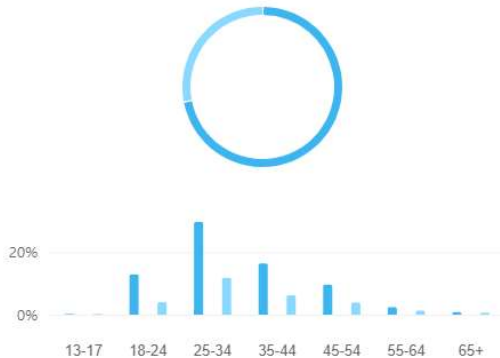
타겟

Facebook 페이지 좋아요 ①

8.2천

연령 및 성별 ①

■ 여성 72% ■ 남성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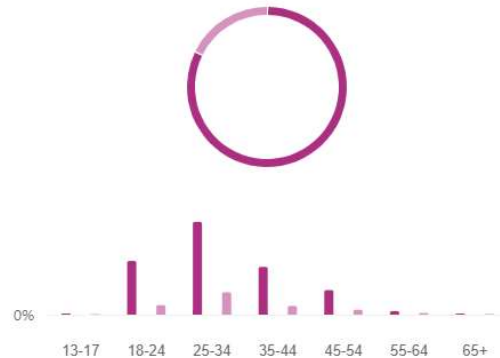


Instagram Followers ①

1.3천

연령 및 성별 ①

■ 여성 82.3% ■ 남성 17.7%



고 있음. 상담소 SNS 중 팔로워 대비 가장 반응이 즉각적인 SNS는 인스타그램.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두 25세 ~ 34세 사이의 여성 팔로워가 가장 많음.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여성 팔로워가 페이스북에 비해 약 10% 많은 상황. 텔레그램 N번방, 낙태죄 폐지 등 해당 세대가 주요하게 공감하는 이슈의 게시글이 꾸준히 가장 높은 조회수 및 반응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평가

- 각 채널에 맞는 적절한 활용으로 기존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팔로워 증가를 이끌어냈음.
-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지집단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해당 이슈에 대한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업로드할 것인지 조금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 잠재적 후원자를 비롯,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타겟에 맞는 SNS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목표3.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

3-1. 인턴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 배경/필요성 : 개별 활동가들의 인턴 및 자원활동은 상호 간 오래 지속되는 경험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정성을 들여야 함. 인턴 및 자원활동 기록, 평가, OT 시스템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속성을 도모하여야 함.
- 목표 : 상시적으로 인턴 및 자원활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며 계획가능

하고 풍성한 인턴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 방법 및 계획
 - 학기 중 : 서울대학교(하반기)/고려대학교(상/하반기) 인권센터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 방학 중 : 씨티은행-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겨울), 로스쿨 실무수습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자 모집
 - 기타 개별 실습 및 연구, 정책 자원활동 신청자 면담 및 활동 배치
 - 사전에 주요 활동 및 일상활동 명확히 오리엔테이션 진행
 - 활동 종료 시 활동나눔회 진행 및 후기 공유
- 진행내용

기간	자원활동가명	활동내용
2019.12.17. ~2020.2.12.	김채연, 박민아 (경희citi인턴십)	제29차 총회 준비, 제1426차 수요시위 준비, 상담통계 시각화 자료 제작, 그 외 상담소 일상 업무 보조
2020.01.01.~ 2020.12.18.	김가림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대위 백서 작업
2020.05.01.~ 2020.11.30.	아오리, 다이브, 도영, 소람, 준벽 (예술인복지재단)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전시 <시간을 거스르다> 기획 및 실행
2020.05.22.~ 2020.12.18.	박주현	상담소 인사 관련 서류 정비 및 기타 행정 업무 지원
2020.07.03.~ 2020.12.18.	신승은, 권세린 (서울대 인권센터)	홍보 업무 및 기타 행정 업무 지원
2020.07.20.~ 2020.08.14.	로즈 마리(정다은)	동의 관련 미국 법체계 및 페미니즘 담론 자료 조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미국 판례 분석(로스쿨 실무수습 합류)

- 평가: 각자 전공이나 활동기간 등에 맞춰 업무를 배정하여 활동 만족도를 높이고 상담소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녹취록 작성 등 재택으로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진행하여 자원활동가/인턴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었음. 다만, 대면 활동이 적은 기간에는 활동가들과의 교류나 여성인권운동 현장 상황에 대한 전달력이 떨어져 재택업무 시의 연결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2. 로스쿨 법률 실무수습

- 배경/필요성 : 여성주의자 법률가 풀을 확장해야 하는 상담소와, 비영리공익단체 및 여성운동단체, 성폭력 등 문제해결의 법정책 과정 및 지원 체계 배움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예비 법률가들의 욕구와 필요가 존재하며, 이를 매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존재. 그 외에도 직접 신청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법조인들의 존재
- 목표 : 반성폭력 운동과 법정책에 개입하는 운동의 역사, 개념, 방법을 이해하고 - 지속되어온 과제에 대한 좀더 새롭고 필요한 접근과 소정의 성취를 함께 일구어 냄, 향후 활동의 기반이 됨
- 방법 및 계획
 - 2월 : 2/3(월)부터 이화여대 로스쿨 80시간 (3명), 서울대 법전문 40시간 (4명)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용

내용 - 상담소 법정책 운동의 역사와 쟁점, 팀별 활동 (교육)

지난 3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성폭력 가해자 감경 및 가중 요인 분석

작업 발표, 피드백 및 토론, 외화 작업 (발제 또는 기고)

2-1. 감경분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

- 여름 : 이화여대 로스쿨, 서울대 법전문, 그 외 개인 참여자들에게 여름 방학 프로그램을 알리고 적정 규모 (최대 10명)을 접수, 심사, 결과 발표하여 프로그램 진행

• 진행내용

구분	기간	참여자	활동내용
동계	2/3~2/12	권유진, 김열국, 남현이, 이원경(서울대) 김유엘, 권혜준(이화여대)	-팀별 오리엔테이션 -특강 : 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세미나 : 의제화간의 메커니즘 -과제 : 성폭력 양형기준 일반 감경인자의 문제점 분석 -참여활동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발표 : 과제 발표회 및 종합토론 -향후 연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폭력 일반 감경인자 문제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및 카드뉴스 발행
하계	8/3~8/14 (2주)	김현진, 안수현, 임현진, 장상아(이화여대) 로즈 정(UCLA)	-팀별 오리엔테이션 -특강 : 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세미나 :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매뉴얼 및 카메라등이 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통계 분석,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과제 : 디지털성폭력관련 2019~2020년 판결 동향과 쟁점 -참여활동 : 조주빈 외 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재판방청 -발표 : 과제 발표회 및 종합토론

• 평가

- 동계 로스쿨실무수습에서 ‘성폭력 양형기준 일반감경인자 비판적 분석’을 양형위원회 의견서로 제출하고 대중적 비판의제로 확산한데 이어 하계 로스쿨실무수습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판결분석을 진행하여 하반기 양형기준 문제 의견서 작성 및 활동으로 연결하는 등 ‘양형기준’ 문제를 의제화하고 내용을 형성하는데 실무수습이 유기적인 역할을 하도록 배치함
- 반성폭력 운동기관인 본 상담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과, 일괄적 배치에 의해서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적극성이 차이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 현장과 이론-판례의 연결작업 등을 통해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법에 ‘비판적 개입’을 하는 방향과 취지와 성인지적 합리성을 보완하는 작업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물을 함께 도출해냄
- 상담소 내 실무수습 계획과 진행, 유기적인 향후 의제활동으로 연결에 상담소 업무력을 배치하는 문제가 선순환이 어려워 2021년부터 동계 서울대 법률수습(총 5일 진행)은 진행하고, 겨울 로스쿨실무수습(2주)는 진행하지 않되, 여름철 실무수습(2주)는 광고를 통해 모든 학교 학생이 참여가능하게 하여 진행할 것을 논의함.
- 사무국 이외에도 상담팀, 연구소, 성문화팀 모든 팀에서 특성을 살려 기획, 진행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3-3.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

- 목표 : 논의하고 참여하는 총회, 정회원 활성화, 법인 행정변경

• 진행내용 :

- 총회 안내, 홍보 : 2019년 12월 30일 개최 공고, 1월 정회원 신규 신청, 재적수 확정 참석여부 확인
- 정회원 활성화 : 정회원-후원회원 전환신청 2020년 1월 16일에 완료 : 최종 6명 후원회원으로 전환, 15명 정회원으로 전환신청하여, 최종 2020년 정기총회 정족수 79명 (자료집 5쪽에 명단 수록 후 SR 반영)
- 감사 : 회계 감사 및 사업 감사(1월 17일)를 통한 감사 및 총회 보고
- 특별보고 : 인권침해 대응 및 평등문화 활동 (동료상담원) 보고 및 질의응답
- 총회 진행 순서 및 내용

시간	순서	내용	역할
18:30~19:20	식사	식사 나눔	인사, 감사
19:20~19:30	개회 준비	정족수 확인, 의장 착석, 현장 확인 공증변호사(법무법인 원 원민경) 도착 확인	이사장 의장석
19:30~19:40	개회	성수보고, 개회선언, 인사말 (79명 중 31명 출석, 위임 20명, 51명) 서기승인, 전차회의록 공증변호사 확인, 인사	이명숙 이사장 이미경 소장
19:40~20:00	2019 활동보고	- 활동영상보기 (질의응답) - 인권침해대응 및 평등문화 활동 보고 (질의응답 안선민, 김신아 초대 동료상담원)	
20:00~20:10	감사보고	회계감사, 사업감사 보고	배자하 감사(대독) 김미순 감사
20:10~20:20	2019 결산 승인	- 상담소 결산보고 - 열림터 결산보고	
20:20~20:40	2020 활동계획	- 전체 슬로건 및 목표 - 팀별 발표	
20:40~20:50	2020 예산승인	- 상담소 예산 소개 - 열림터 예산 소개	
	신입활동가 소개	신입활동가 (류수민, 한소망, 김주아 활동가) 소개	
20:50~21:00	임원선출	퇴임이사 (장철우, 변혜정 이사) 신임이사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임이사, 퇴임이사 소개
21:00~21:10	공로상시상	감사패 : 장철우 전 이사, 김의창 열림터 운영위원 공로상 : 황금명륜 회원, 안선민 활동가	시상
21:10~21:20	공연	- 상근자노래 “이 얼음같은 세상을 깨고”	
21:20~21:30	폐회 및 사진촬영		이사장 폐회선언

• 평가

- 6명의 정회원이 후원회원으로 전환하고, 15명이라는 신규 정회원이 신청함으로써 상담소 총회에서 참석, 사업 및 예결산 의결 등 조직 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 매년 총회에서 정족수가 안정화될

- 필요가 있으면서도 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는 회원들로 활성화되기 위한 정회원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2019년 총회에서 인권규정을 제정한 이후 진행한 상근활동가 동료상담원 제도와 실행평가에 대해 특별 보고를 함으로써 회원들의 관심, 의미에 대한 평가들을 나눌 수 있었으며, 초대 동료상담원들의 질의응답으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했음
 - 사업감사 도입 2년차로 팀별 사업 뿐 아니라 상담소 전체적인 중점 및 일상사업, 이에 투여되는 활동가들의 노력과 운영 및 방법에 대한 의미와 평가, 제언이 큰 도움이되었음
 - 2020년 전체 목표를 회원들과 공유함. 작년과 다르게 팀별 목표를 전체 목표와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고, 슬로건에 따른 활동계획은 모으고, 팀별 목표는 팀과 부설기관 상황에 맞게 정리하였음
 - 총회 자료집에 총회 참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면서도 이를 보기 쉽게 목차에 배치하여, 상세하고 정돈된 정보를 잘 제공하는 자료집이라는 후기가 있었으며 총회자료집 논의 끝에 처음 홈페이지에 PDF로 업로드하여 보다 투명한 정보 공유를 향하게 됨

3-4. 이사회

- 목표 : 논의 및 참여 활성화
- 계획 :
 - 신임 이사 선출 / 상담소 내방 오리엔테이션 진행
 - 퇴임 인사 등기 변경 및 인사, 평가
 - 연간 5회 이사회 : 저녁 시간 진행으로 참석 및 논의 내실화
 - 논의 및 협력 활성화 : 소식 나눔, 전문가 네트워크, 엠티(논의하여 시기 결정)
- 진행내용 :

종류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정기이사회 (운영위원회)	1/21 서라벌 한정식	1. 2020년 29차 정기총회 관련 논의 및 결정사항 - 2020년 29차 총회 정족수 확인 의결 - 2020년 29차 총회 진행순서 및 이사 역할 -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부설기관 활동 보고 2. 2020년 29차 총회 안건 검토·부의 ① 2019년 결산안 작성 ② 2020년 사업계획 ③ 2020년 예산안 작성 ④ 신임 임원 추천 3. 안건 처무규정 개정안 검토·의결 : 가결 4. 신임활동가 인준 및 퇴임활동가 보고	참석이사 : 이명숙, 박부진, 이경환, 이운상, 이미경 (5명) 위임이사 : 홍순기, 배순희, 최보원 (3명) 배석 : 정정희, 김혜정, 안선민
	5/25 법무법인 나.우리	활동보고 : - 정의연 ‘성노예’ 명칭 변경, 활동방향 등에서 상담소가 논의하고 개입할 수 있는 관계망인지. 주요 시위 등도 평가하며 참여가능해야 - 1만원 후원회원에게도 설명 필요와 책무가 있음, 사무국(상근활동가들)의 할일 무겁고, 이사들의 책임 매우 무거움 - 내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상담소에서도 언제나	참석이사 : 이명숙, 박부진, 이운상, 이경환, 장다혜, 이미경 (6명) 위임이사 : 최보원, 배순희, 홍순기 (3명) 배석 : 김혜정, 전혜

		<p>다루고 소통해야 이슈들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실무수습 온라인으로도 진행가능 + 현장 방문하여 교육 받고 교류할 필요도 존재 <p>안건1 관항목 변경 (결과) 가결 (의견) 회원들에게 어떻게 잘 보이게 설명하냐가 중요 (인건비, 경상비 비율, 그래프 등), 전자시스템 도입 고민 필요</p> <p>안건2 30주년 TF 활동방안</p> <p>안건3 공시 확인 및 주석 변경 (결과) 가결</p>	영
정기회의	8/25 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활동 평가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재정 평가 보고 - 지속가능한 조직운영 기본방향 안 논의 : 소진예방비용 등 산출필요 내부 자료 생산 필요 (활동가의 업무) - 2020년 30주년 준비 사업 진행안 - 코로나로 인한 대비 및 활동 보완 논의 - 기자재, 참여 및 모금 사업, 사업변동 등 	<p>참석이사 : 이명숙, 박부진, 이운상, 장다혜, 이미경, 홍순기 (6명)</p> <p>위임이사 : 최보원, 배순희, 이경환 (3명)</p> <p>배석 : 정정희, 김혜정, 백목련</p>
정기회의	11/26 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임명승인 - 2021년 제30차 정기총회 개최 결의 - 처우규정 및 재정내규 개정 :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서의 고용보험 사용 필요성 및 상담소 안 변경 필요 논의 - 한달 이내 근무자에 대한 급여 규정에서의 필요성 및 문구 논의 필요 - 30주년 준비 및 계획 논의 :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에서의 문제점 최소화 방안 - 이사회 활동평가 및 향후 방안 : 이사회비 최저선 인하 필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회의 참석 어려운 경우에 대한 논의 - 신규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의 건 	<p>참석이사 : 이명숙, 박부진, 홍순기, 이운상, 장다혜, 이미경, 이경환 (7명)</p> <p>위임이사 : 최보원, 배순희</p> <p>배석 : 정정희, 김혜정, 최란, 전해영</p>
퇴임이사 인사	2/20	변혜정, 장철우 퇴임이사 선물증정 및 인사 식사 변혜정 이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표 해촉과정에서의 문제점 공유 및 논의, 토론	이명숙 이사장, 이미경 소장, 김혜정 부소장
이사 등기	2월	신임 및 중임 이사 사무실 방문 및 자료 확인 법무법인 원 방문, 원민경 변호사	김혜정 전혜영
이사 면담	11/26	배순희 이사 방문 면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이사회 참석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유와 30주년 준비 논의와 공감	김혜정 부소장 최란 사무국장

• 평가

- 코로나19 상황과 날짜 및 요일 변경의 조건(국제교류협력 및 대학원 일정 등) 불구하고 정기이사회에 성

- 실하게 참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감. 온라인 회의를 통해 참석이 용이해진 경우도 있었으며, 반대로 질환이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시기 오프라인 참석과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 참여가 어려워 개별 연락과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보완할 필요가 제기됨
- 상담소의 재정내규, 처무규정 등이 개정안건이 제기되었고 이 때 이사회로서의 비판적, 신중한 논의가 심도깊게 진행되어 휴가의 다변화가 실질적 휴가사용으로 이어지는지,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상담소의 급여보전 이전에 제도활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논점이 제기되어 논의 보완으로 연결됨. 또한 비영리단체의 회계사용, 후원금사용, 결산공시 등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조함.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담소 업무용 설비 개선과 회원, 시민 참여방안 개선이 주목됨
 - 오랜 이사가 사임하고 신규 이사를 제안하는 들고 닐이 펼쳐지고 있으며, 사업감사(김미순)의 사임으로 인한 공석에 새로운 사업감사 선출이 필요하여 비영리단체로서, 여성운동단체로서의 상담소의 정체성과 위치를 이해하고 비전에 애정있게 참여하는 인사들의 초대와 팀빌딩이 향후 과제임

3-5. 한해보내기

- 목표: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상담소와의 친밀도를 키운다.
- 방법 및 계획:

일정	계획
10월	행사 전체 기획
11월	세부기획 마무리 및 행사 홍보
12월	행사 진행 (담당 : 달별, 수수, 지리산, 사자)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인원: 50인

- 기대효과 : 상담소의 1년 정리 및 주체 간의 연결 강화
- 향후 신입활동가 두 명의 담당진행이 아닌 팀별 담당 등의 방식으로 전환 논의하기로 함

3-6. 정책, 운영,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 목표 : 상담소 운동방향, 사업내용에 대한 긴밀한 자문과 참여 활성화
- 진행내용 :
- 자문위원회 체계 및 분야 확정 정리,
- 위촉장 발급 및 2년 갱신 제도 안내

○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은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과 사업, 운영에 있어 전문가들로부터 더 좋은 자문을 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운영, 성문화, 상담, 법률, 법정책, 국제협력 6개 분야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 중 사무국, 여성주의상담팀, 성문화운동팀이 해당 연관 분야 자문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와 부설 연구소 올림은 별도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 취지와 미션에 동의하는 전문가 중 기존 상근활동가, 이사, 감사, 자문위원 2인 이상이 추천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활동 의지를 가지고 수락하신 분입니다.

○ 자문위원 운영 : 상담소 역할

- 위촉

: 매년 12-1월 재위촉 혹은 신규 위촉을 상호 의사 타진으로 결정합니다

- : (재위촉) 시기는 매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총회 일입니다
- : 신규 위촉서 발급 ※ 재위촉시마다 재위촉 서류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주세요
- 공고
 - :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자료집
 - : 홈페이지 > 소개 > 연혁 및 조직구성 > 함께하는 사람들 > 자문위원 (현재 자문위원 분야별 이름)
 -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420>
- 자문위원회
 - : 연 1회 이상 부문별 자문위원회 개최
 - : 그 외 사업별, 주제별 자문 요청
- 자문위원 역할
 - 제출 : 자문위원 수락서 및 경력서(이력서, 프로필 등) ※ 최초 수락시 1회 ksvrc@sisters.or.kr
 - 자문 : 연 1회 자문위원회 참석 및 사업별 주제별 자문
 - 후원 : 월 정기 후원 및 일시 후원 참여(후원의 밤 등)
- 정회원 : 자문위원 중 의사가 있으시다면 정회원이 되어 정기총회 참석 및 논의, 의결에 함께 해주세요!
- 사임 : 사정에 의하여 사임을 원하실 때는 자문위원 사임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연속으로 자문이 불가능했거나, 상담소 활동 참여가 어려웠을 경우 해촉을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 연간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팀별 (상담팀, 성문화팀, 연구소, 사무국) 자문위원회 개최
- 수시 자문위원 역할 도모
- : 이슈별 대응기구 논의, 사업별 자문위원 활동, 조직운영 방안 자문
- : 30주년 준비 작업과 함께 연동

목표4. 평등한 문화와 공간 만들기, 좋은 삶 살아가기

4-1. [신규] 상담소 조직문화 점검 및 소통 체계 내실화

- 목표: 내부 소통도 점검하고 온라인 친숙도도 높여 온라인 소통을 잘 하는 조직을 만든다
- 담당
조직문화TF: 닷별, 앞, 지희 / 스마트워크TF: 닷별, 주리, 수수
- 내용

1. 조직문화 TF

5/18 1차 회의	1. FGI 진행자 섭외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연구원 컨택 중. 6/4 오전 자세한 일정 및 진행 커리큘럼 협의하기로.			
6/2 2차 회의	2. 상근활동가 강의 섭외 완료 6/24 일의 언어로 말하기(최혜정) / 7/22 차이로 연결고리 만들기(이은주)			
	3. 6/10 상근활동가 교육 기획 회의			
	타임라인	프로그램	소요시간	진행자
	13:40 ~	조직변화실험실 사업계획 설명 작성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사이클을 설	20분	닷별

	14:00	명		
	14:00 ~ 15:00	성평등한 조직문화 체크리스트&뇌구조 작성 : TF에서 편집한 체크리스트 질문지를 활동가들이 작성. 이후 체크리스트 바탕으로 뇌 구조 그리기.	20분 (최초 10분, 이후 추가시간 부여)	지회
		체크리스트/뇌구조 바탕으로 조별 토론 - 각자 작성한 내용 공유	10분 (최대 20분)	
		조별 발표 - 각 조에서 인상깊었던 내용 중심으로 발표(2분)	15분 (최대 20분)	
	15:10 ~ 16:20	개인 포스트잇 작성하기 Q1. 나는 __할 때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고 느낀다. Q2. 이상적인 듣는 사람의 태도는? Q3. 이상적인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10분	얏
		조별로 포스트잇 공유하며 이야기 나누기	30분	
		조별 발표 - 칠판에 유사한 포스트잇끼리 모아 정리하기	30분	
	16:20 ~16:30	마무리 - 소감 공유 및 평가	10분	

1)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강의 진행

6월	<p>일의 언어로 말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년 6월 24일 오후 1시 반 - 강사: 코너스톤 포 굿 최혜정 대표 - 참가자: 15명 <p>: 우리가 쓰는 말에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의미가 숨어있다.</p> <p>: 책임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적절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자가 해야할 일이다.</p> <p>: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바뀐 행동에서 오는 인지와 교육은 그 다음이다.</p>
7월	<p>차이로 연결고리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년 7월 22일 오후 1시 반 - 강사: 와이즈서클 이은주 대표 참가자: 16명 <p>: 우리가 어떤 논조로 말하고 있을까?</p> <p>평가/부정/충고/중지가 아닌 지지와 응원, 능동적 경청이 필요하다</p> <p>: 위력의 언어가 아닌 힘의 언어로 말하기</p> <p>정당화되는 언어가 아니라 에너지를 불어넣는 말하기로</p> <p>: '협력' 대화법 시도해보기</p>

	평가회의에서 부정적 피드백이 아닌 긍정적 피드백 시도해보기
--	----------------------------------

2) 소통문제 진단 FGI 진행

사전 워크숍	<p>일시: 2020년 6월 10일 오후 2시 ~ 오후 5시</p> <p>진행: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권지현, 박운정 연구원</p> <p>1) 온라인 소통의 어려움</p> <p>2)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회의'의 문제</p> <p>3) 분리되지 않는 공-사적 관계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p> <p>3가지 주제로 그룹워크숍 진행 후 FGI 진행할 키워드 뽑아내기</p>
FGI 설계 회의	<p>일시: 2020년 6월 26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2시간)</p> <p>참여자: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한국성폭력상담소 달별</p> <p>사전 워크숍 결과 공유 후 첨언할 내용 및 활동가 입장에서 본 내용 첨언 등 FGI 진행 시 필요한 내용 추가하여 주제 및 참석자 범위 정하기</p>
리더 그룹 FGI	<p>일시: 2020년 7월 20일 오전 10시 ~ 오후 1시</p> <p>진행: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대표이사</p> <p>참가자: 3명</p> <p>- 진행내용</p> <p>: 우리 조직 내 리더의 역할</p> <p>: 구성원들이 바라는 리더에 대한 기대</p> <p>: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p> <p>: 리더가 바라보는 평가, 비판, 비난하는 말하기 방식과 분위기</p>
온라인 소통 FGI	<p>일시: 2020년 8월 5일 오후 2시 ~ 5시</p> <p>진행: 민주주의기술학교 박운정 이사</p> <p>참가자: 5명</p> <p>- 진행내용</p> <p>: 온라인 소통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의 구체화</p> <p>: 온라인 소통의 규칙과 약속 논의</p> <p>: 새로운 협업툴 전환 시도와 가능성 확인</p>
의사결정 FGI	<p>일시: 2020년 8월 13일 오전 10시 ~ 오후 1시</p> <p>진행: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대표이사, 권지현 이사</p> <p>참가자: 9명</p> <p>- 진행내용</p> <p>: 회의 진행의 문제점 파악 및 회의 진행 방식 제안</p> <p>: 새로운 사업의 진행 여부, 업무 분배와 역할 등 의사결정 필요 지점 확인</p> <p>: 의사결정의 기준과 권한에 대한 논의</p>
마무리 워크숍	<p>일시: 2020년 9월 16일 오후 1시 반 ~ 4시 반</p> <p>진행: 민주주의기술학교 서진 대표이사, 권지현 이사, 박운정 이사</p> <p>참가자: 16명</p> <p>- 진행내용:</p> <p>: 서로 다른 언어와 말하는 방식으로 인한 갈등</p> <p>→ '내가 인식하는 나' '타인이 인식하는 나'에 대한 서로 이해</p> <p>: 다른 이해의 폭, 의도의 왜곡, 감정 전달의 어려움에 대한 서로 이해</p> <p>: 기존 진행된 워크숍 및 FGI 결과 공유 및 우선순위 선정, 후속과정 계획</p> <p>→ 각자가 느끼는 문제의식 공유 및 합의 과정. 리더 그룹, 온라인 소통, 의사결정 FGI별 결과 정리</p>

3) 상근자회의 규칙 제정 및 시행

* 2020년 9월 16일 초안 작성, 2020년 10월 7일 최종 결정 및 도입

밀도 높고 내실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한 상근자회의 안전 작성규칙

- 1) 상근자회의 안전지는 기본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한다.
- 2) 상근자회의 안전은 상근자회의가 있는 주 월요일까지 안전지에 작성해 넣는다.
→ 차기 상근자회의 진행자는 미리 안전지를 검토하여 논의하기에 내용이 부족한 안전을 보완하도록 화요일까지 피드백을 준다.
- 3) 공유, 아이디어, 논의, 평가 양식에 맞춰 안전지를 작성한다. 해당 안전에 대해 팀별로 어떤 논의를 진행했는지, 팀의 의견인지 안전 제안자 의견인지를 함께 표시한다.
- 4) 공유안전의 경우, 정해진 내용(일정, 간략한 내용, 지난번과 달라진 지점, 후속과정 등)만 전달한다.
→ 바뀐 내용에 추가 의견이 있다면 별도로 안전제안자에게 전달한다.
- 5) 논의 및 합의 안전의 경우, 단순 결정 건인지 토론이 필요한 건인지 구분하여 안전을 올린다.
→ 안전을 올릴 때 좋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완성된 형태로 안전을 가져온다.
→ 목표 공유, 안전 내용, 명확한 합의 및 논의 지점, 피드백 위한 정보 제공, 배경 설명, 진행 일정, 결정기한(시급성) 등
- 6) 상근자회의 주요 결정사항 1년치를 문서에 정리해 둔다.
- 7) 회의록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구글 문서로 작성한다.

4) 상근자 특방 규칙 제정 및 시행

* 2020년 9월 16일 초안 논의, 2020년 10월 7일 최종 결정 및 도입

우리가 만드는 온라인 소통의 규칙과 약속

- 1) 온라인 소통의 공식 이용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한다. (오전 9시 ~ 오후 6시)
예외) 시급하게,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상담소 공식 일정인데 저녁이나 주말에 진행될 경우
- 2) 시간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자
- 퇴근 시간 이후에는 단체텔방에서 사적인 대화 하지 말자
- 개인텔에서 사적인 대화와 업무 얘기 구별해서 하자
- 3) 휴가 중인 경우에는 연락하지 않기 (온-오프라인 공통)
- 4) 온라인 소통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오히려 정중한 표현을 쓰자
- 5) 공식 이용시간 이외의 전체 공지일 경우, 상황설명 등으로 양해를 구하자
- 6) 목적성에 의해 만들어진 방은 그 역할을 다 하면 정리하자
상근자 전체 방이나 오프라인에서 결정, 확인하고 소멸

• 평가

1)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강의 진행

: 두 강의 모두 소그룹 형태의 토론/미션수행형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어 활동가들의 참여 만족도가 높았음.

: 쉽고 간단한 시행 미션이나 새로운 개념으로 구성되어 강의 당시에는 흥미있게 들었지만, 이후 강의 내용을 일상적으로 실천해 보는 뒷심이 조금 부족했음.

: 상근활동가 워크숍 등에서 소소하게 규칙으로 시행해보는 것 외에 일상적으로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으면 강의 내용을 일상적 문화로 녹여낼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음.

2) 소통문제 진단 FGI 진행

① 리더그룹 FGI

: 3인 모두 매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FGI가 진행되었다고 응답. 3인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은 구성원을 편안한 분위기의 주 이유로 꼽았음.

: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민주적 운영의 가치가 병행되면서 겪는 현실적 문제점 등 현재 조직의 리더들이 겪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외부 진행자와 함께 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볼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② 온라인 소통의 문제 FGI

- FGI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음. (참여자 5명 중 2명(40%)이 '편안함', 3명(60%)이 매우 편안함에 응답)
- 중복 응답을 포함하여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은 구성원으로 꼽힌 점으로 보아, 본인의 흥미 분야에 따른 FGI 팀 구성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나 온라인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던 활동가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 보이는 활동가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여 조직 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게 된 점이 고무적인 성과임.

③ 의사결정 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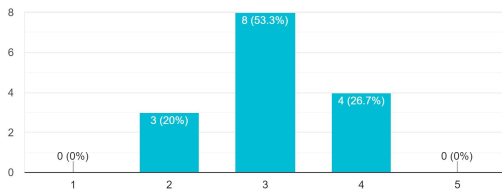
: 타 FGI에 비해 편안한 분위기를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는데, (보통이 28.6%, 편안함이 57.1%, 매우 편안함이 14.3%.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불편한 점으로 응답한 활동가가 1인 있음.) 주제 자체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다소 무게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거나, 평소에 느꼈던 문제의식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던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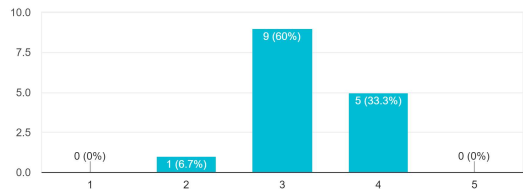
: 앞으로 상담소의 활동이나 조직문화 등에 어떻게 반영할 지의 상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있어, 장기계획 설정 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3) 상근자회의 규칙 제정 및 시행

위의 작성규칙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응답 15개



FGI 규칙이 만들어진 이후, 회의에서 느끼는 효능감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응답 1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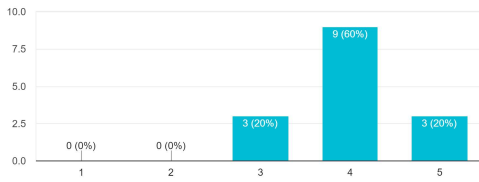


: 아직 규칙 도입 초반이라 큰 변화가 체감되지는 않지만, (변화 체감 척도에서 '보통' 응답자가 53.3%) 말머리 도입 등 소소하게 적용 가능한 규칙은 담당자의 정리로 작게나마 이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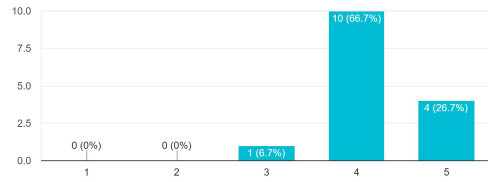
: 논의 방식 등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였음.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회의를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등 보완이 필요.

4) 상근자 특방 규칙 제정 및 시행

규칙이 만들어진 이후, 온라인 소통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나요?
응답 1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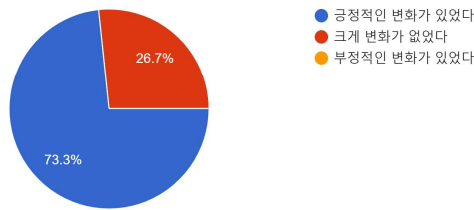


위의 작성규칙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응답 15개



- FGI를 통해 도출된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로, 활동가들끼리 상호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이 긍정적 평가의 요인임.
- 규칙의 존재로 인해 근무 시간 외에는 ‘삼’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고방식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 규칙 생성 이후 온라인 소통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활동가들의 경우, ① 원래부터 온라인 소통에 크게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였거나, ② 업무 관련 연락과 사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해야 할 톡방이 한 개 더 생성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감정소모의 측면에서, 온라인 소통의 피로도에 변화가 있었나요?
응답 15개



- 텔레그램 소통에서 느끼는 피로도의 대부분은 텔레그램 방을 통해 오가는 논의 및 정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는데, 공지방/사담방으로 방의 성격에 따라 텔레그램 방이 구분되면서 때에 따라 중요도를 선택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의 활동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함 (총 15명 중 8명 응답, 53.3%). 크게는 퇴근 이후에도 텔레그램 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진 점이 긍정적 평가의 큰 측면으로 작용.
-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한 활동가들은 정해진 규칙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전체 활동가가 있는 공지방/사담방 이외의 텔레그램 방 (팀방, TF방 등)에서는 정해진 시간 외에도 연락이 오가고 있어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본 규칙이 전체 활동가가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 담당 활동가의 업무 부담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의 사이클이 길어짐. 계획되지 않은 일을 새로이 시작할 때 업무 조율이 반드시 필요함.
- 스마트워크TF의 경우 실무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졌지만, 조직문화TF는 실무 부담이 거의 되지 못했음. 스마트워크TF는 기존에 구성되어있던 TF인데 반해 조직문화TF는 기존에 속한 TF외에 새로이 만들어진 TF라 동력이 떨어지는 면이 존재.

- 약 6개월동안 활동가 공동체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언어화하고 구체화하며 다듬는 밑작업을 진행한 것이라, 조직문화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중장기 계획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 3년에서 5년 정도, 긍정적 변화를 위한 장기 플랜을 세워 이제 막 시작한 변화를 우리 조직의 좋은 문화로 가져가야함.

4-2. 전체 논의 및 팀별 회의 지원

- 목표 : 팀별 안정화, 2021년을 향한 핵심목표 설정과 수행지원
- 계획 및 진행내용 :

계획	진행내용
- 팀별 인원충원 및 변동에 따른 안정화	-2021년 대비 총 상근활동가 TO 조정(향후 11인) -성문화운동팀 3인에서 2인으로 축소 -상담팀 부스전담 활동가 종료, 3인에서 4인으로 충원
- 신규활동가 채용 및 교육 연수	-열림터 신규활동가 교육(3주) 진행 -상담팀 신규활동가 2인 채용 및 연수 진행
- 주0일 활동가 업무체계 마련	-상담활동가 업무체계 정리 및 근로계약 체결 소진예방관련 담당팀과 사무국 논의 -주2일, 주4일 활동가 휴가 등 규정 적용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시행 및 제도적 보완 논의
- 팀별 회의 참석 및 팀간 협력	-성문화운동팀 정기회의 참석 -상담팀, 연구소 월1회 및 간헐 참석 -열림터 긴급업무 사안시 회의 참석 및 개입, 진행
- 사무국 정기회의 진행	- 1/8, 1/22, 1/31, 2/5, 2/6(재경), 2/10(후원관련), 2/20, 3/13/ 3/31(프로젝트), 4/6, 4/29, 5/18, 5/25, 6/8, 6/22, 7/6, 7/14, 9/7, 9/14, 10/5, 10/26, 11/9, 11/23, 11/30
- 2021년을 향한 핵심목표 수립	-30주년 TF 구성 및 진행
- 프로젝트 및 자체 기금 마련 사업 수립	-프로젝트 진행 : 성문화팀 서울시 기금 1개 : 상담팀 - 복권기금 3개 사업/ 자체 예산 사업 : 사무국 서울시NPO지원센터 기금 1개 : 연구소 - 자체 예산 사업
- 상근활동가 회의 내실화	격주 1회 수요일 오후 2-5시간 회의 체계로 변동
- 팀간 소통	주요 사업 협력, 이슈 공유 및 논의활성화
- 더 좋은 조직문화	
- 평가 계획회의	상반기 업무과다로 일정 변경하여 진행 7/30(목) 상반기 평가회의 8/27(목) 하반기 계획회의 12/

-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계속된 지침 및 근무방식 변동 등이 있었으나, 다양한 시간제 근무, 육아휴직 복직 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팀별 로테이션 필요 논의, 상담부스 운영방식 변경 및 충원, 차기 대표단 마련을 위한 논의 등을 진행함.
- 2021년을 대비하여 전체 활동가 TO를 줄이는 방향을 논의한 바 있으나, 성문화운동팀과 연구소 향후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홍보 분야 투여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조직규모와 관련된 향후 계획논의가 필요함
- 외부프로젝트 기금의 사용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면서 업무담당 활동가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외부 기금 지원을 적게 하게 됨. 성문화운동팀의 경우 외부프로젝트 사업을 1개로 축소할 결과 본연 업무에 보다 집중하게 되는 등 만족도가 높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상시 사업비-후원금 확보 필요

4-3. 인권규정 평등문화 정책 시행

- 목표: 인권규정마련 및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신뢰를 높이고, 차별과 배제 없는 활동의 내실을 높여감
- 진행 내용: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인권침해 예방 및 사안처리 규정 적용
 - : 홈페이지 공고 논의 및 진행
 - : 동료 상담제도 실시 - 2기 위원 선정 (조은희, 수수 활동가)
- 인권 및 성평등 의무교육 진행 : 조직문화 프로젝트 도입으로 7, 8월 교육으로 대체
- 이 공간의 약속 운영 활성화
 - : 이 공간의 약속 활용 - 홈페이지 게재, 활동가,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행사 및 교육 시작시 OT
- 제 규정 점검 및 운영 : 30주년 TF에서 팀으로 구성하여 진행
- 향후 계획
- 동료상담원 활동보고 및 평가 (하반기)

4-4. 일하기 좋은 조직 만들기

- 계획 :
- 처무규정 개정 논의 : 표준취업규칙과 휴가 및 돌봄, 안식년 등 규정의 신설 및 도입(11-1월)
- 상근활동가 워크숍 :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18일(금)
- 장소 : 제천 수수천
- 목표 : 휴식하기, 못다한 이야기 나누기, 더 친해지기, 모르는 것 알게 되기
- 사전 준비 : 휴무공지 (홈페이지 완료, 사무국 전화 비워두기), 1366 공문
- 프로그램

1일차	2일차	3일차
10:00 모이기, 출발 13:00 중간식사 (원주신림) 14:30 입실, 방배정, 휴식 16:30 활동가 아무말대잔치 18:00 저녁 바베큐 준비	휴식 자유로운 아침 12:30 대화가 필요해 짧은여행 (조별 출발 + 카드받기, 미션 '모르는 거 1개씩 알아오기') 18:00 같이 저녁 먹기(식당예약)	09:00 각자 아침 휴식 10:20 뒷정리 시작 11:20 엠티회고 나눔 12:00 차량별 자유 귀가

19:00 바베큐 시작 20:30 뒷풀이	20:00 뒷풀이	
---------------------------	-----------	--

- 평가

: 사무실에 사건지원, 생활인관련 사안 등 산적인 과제가 있었지만 멀리 떠나 재충전할 수 있었음

: 쉽고 편안한 놀이, 서로를 돌보고 릴렉스 하는 시간을 확보함

: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프로그램 없이 이야기 나누고 휴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매우 적절했음

: 다양한 팀별 시간으로 여행, 레저스포츠 등을 할 수 있었음

: 활동가 3분 주제 스피치로 서로의 근황과 스토리, 관심사 등을 알게 되어 좋았음

: 소장단이 긴급 회의를 워크숍 중에 다녀오는 등 긴장감이 있었으나, 휴식중 활동가가 참여하여 좋은 시간이 됨

- 공통업무 : 분담표의 적절한 배분 검토 및 수행
- 사무실 대청소 : 매월 마지막 상근자 회의가 있는 날 오전 : 본인 책상, 구석 쓸기 닦기, 창틀, 1층 곳곳, 냉장고 정리 등
- 월별 나눔업무 이월 확인 : 9시 출근 / 쓰레기배출 담당 / 월말 이월 수행, 확인
- 급여 기본급 : 이사회 검토 및 의결
- 쾌적하고 대안적인 점심시간
- 휴가운용
 - : 월차, 연차 사용확인 및 독려 / 야간 휴일 근무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 성실이행
 - : 1, 2차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휴가 사용 독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 도입
- 평가
 - 월 1회 정기 대청소로 진행하여 작년보다 청결한 환경 유지와 시설, 비품 및 소모품 관리가 원활해 졌음. 다만, 격무에 지친 활동가들이 대청소에 대한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도입하는 동안 전체 일정 수행이 어려워졌음. 청소구역 순환제나 청소주간 지정으로 기간 내 청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퇴근시간 유연화, 점심시간 3부제, 소독당번제도 등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대비 장기화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이 변할 때마다 유동적으로 내부 지침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함. 식사 및 회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및 1층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하여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여야 하거나 회의 중 음료 취수 시 보다 안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교육문화비 사용 현황: 11명 중 8명 전액 사용(지리산, 파이, 신아, 백목련, 달별, 앞, 오매, 유랑)
 - 육아, 학업 등으로 시간 단축형 근무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 감축과 팀 내에서의 배분, 대안적 소통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며, 급여 및 휴가 감축 방식 및 육아 관련 고용보험 대체지급 및 조직적 보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 지속가능한 방식의 제도가 논의될 필요가 있음

4-5. 사무국 문서 기록 및 행정 총괄

- 목표: 상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관리한다
- 계획 :
 - <각종 기록 관리>
 - 수발신문서 및 문서대장 검토

- 주요 기록 문서 관리

- 상담소 발간물 관리

〈건물 관리 및 안전 점검〉

- 공간 및 시설 운영 : 관리 및 지속가능한 건물 돌봄

- 안전점검 및 구청 보고

- 안전매뉴얼 및 장치 점검 (소화기, 대피로 등)

〈행정 처리〉

- 2020년 운영지침 확인 및 내부 검토

- 주요공문과 상담소 내·외 문건 검토 및 총괄

- 지자체 각종 서류 제출, 지도·점검 대응 등 행정업무 사항 총괄

- 주요 의무 교육 진행 및 관리

〈재정 및 회계〉 :

- 재정 총괄

- 공익법인공시

-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연간 4회; 홈페이지 1회, 지자체 1회, 국세청 2회)

〈각종 요청 사항〉 : 공통메일 관리 및 강의, 자료 요청 응대

• 진행내용 :

- 재정 및 회계 관련 관항목 계정과목 변경 및 전달 연수 진행, 수입/지출결의서 신규 양식 도입

- 수발신문서대장, 보안점검표, (자료/강의) 영수증 발급대장을 엑셀 자동화양식을 도입하여 정비하였으나 인사기록철, 자원/인턴 활동기록철,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생 명단(이와 관련된 증명양식 포함)의 경우 원 데이터 입력 중으로 내년 1분기 안으로 엑셀 자동화양식으로 구현 계획 중임.

-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및 공시 논란 이후 상담소에 제기된 공익법인 공시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대한 문제제기 대응

6/4 공시 오류사항에 대한 문제제기 제보받아 오류 내역 파악

6/12 공시 오류사항에 대한 사무국장 연석회의 참가(오매)

6/23 신동아에서 본 상담소 포함한 3개 여성단체의 공시내역 중 기부금 관련 문제제기 보도자료 배포

7/13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법인 공시 상담 후 재공시하기로 결정

7/17 공시오류 수정 도움서비스 제공(국세청), 오류 사항 관련 마포세무서 담당자 전화통화(재공시 기한 안내; ~8/31)

8/24 2019 재공시 1차(자산현황 및 운용소득사용명세서 등; 세무사사무소 1차 수정사항)

8/31 2019 재공시 2차(오류사항 전체; 운용소득사용명세서 등 세무사사무소 2차 수정수정), 2018

재공시 1차(운용소득사용명세서; 세무사사무소 1차 수정사항)

- 인터폰 교체 및 연구소 책장 추가 제작, 투척식 소화기 구비, 문고리 수리, 상담팀 방배치 변경 및 추가, 2층 등교체, 문서수발공간 재장비 등 진행함

- 마포구청 현장점검 진행 7/27

개선권고사항 : 보조금 사용시 타견적서 첨부, 보조금 사용시 포인트 적립분 반환, 의료비 분기별 증빙자료 구청 보고 및 제출(전성협 논의 후 여성가족부에 해당 지침 변경 필요성 건의하기로 응답함)

• 평가

- 30주년 준비 일환으로 지난 인력 중심으로 기록 DB화 및 관련 문서 발급 자동화를 구축하고 있음

- 활동가들 요청에 따라 향후 공문 작성법 등 행정 업무에 필요한 전달연수를 진행할 예정임.

- 공익법인 부실공시 문제제기 이후 기한 내 자료 제출에만 급급했던 관행에 대해 성찰하게 됨.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공개 및 공익법인 재공시 중 겪은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공시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함..한편으로는 기부금 관련 제출사항은 총 4건으로 제출시기, 제출처, 양식도 각각 다른 데다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기 쉬운 상황임. 기부금모집단체 및 공익법인에서 작성할 수 있는 양식으로 통일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도 있음.

- 법정 의무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다변화로 집체교육이 어려워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이수증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이에 대한 활동가 평가 필요함)
- 스마트워크 팀의 활동으로 폴더 정리 및 일부 온라인 문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안전하고,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는 문서 방식을 안착할 필요 있음
- 여분의 노트북을 장기 대여하고, 인터넷을 업그레이드 교체, 업무폰 마련 등을 진행했으나 -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사무실 업무 및 대외적 소통의 효율을 위한 설비 증설이 요구됨 (B1층 쌍방향 AV 설비 마련, 활동가들의 재택근무를 위한 장비 기기 지원 필요 등)

인권침해대응 및 평등문화 증진 활동 보고

○ 동료상담원 활동 보고

작성일	2021.01.05	활동기간	2020.02.01 - 2021.01.31	
동료상담원	수수, 은희	상담건수	2 건	
상담내용	수직적인 업무분장과 소통 구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동료상담원에게 개입을 요청함.	중재 여부	X	
	업무와 관계 상 발생하는 난처함에 대해 상담을 요청함.	중재 여부	X	
활동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과 마찬가지로 개별 동료들이 관계나 업무상 발생하는 고민이나 불편한 지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료상담원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있었음. - 작년 동료상담원 평가와 제언 덕분에 동료상담원 매뉴얼을 잘 인지할 수 있었고, 상담 이후 동로의 상황 변화에 대한 공유를 요청하는 등 동료상담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음. - 이용이 활발하지는 않았음.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아지며 사무실에서 대면하는 상황이 줄어든 것도 적은 이용의 이유일 수 있음. 적은 이용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활동가들의 평가가 필요함. - 상담에 임하는 동료들이 동료상담원제도를 통해 문제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 동료상담원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게 되어 실제로 중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동료상담원제도가 문제해결시스템으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음. 			
조직에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준비할 때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료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조직에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의지와 동료에 대한 애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 모두가 평등한 조직을 지향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연차와 직책에 따른 수직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조직은 관계의 수직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스스로의 여유가 없어지면 서로를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됩니다. 이에 더 민주적인 업무분장과 서로를 존중하는 소통을 위해 여유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 인권침해 사안접수(문서 접수)는 2020년 0건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논의 경과보고 및 임시총회 제안

1. 유출 사건 경과

2020. 7. 7. 오후 2시경, 피해자변호사 본 상담소 소장에게 지원 요청

2020. 7. 7. 저녁, 본 상담소 소장은 공동대응의 필요성 판단으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연락하여 다음날 아침 논의 제안

2020. 7. 8. 아침 8시경, 본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미팅 (공동대응 필요성 공감, 당일 저녁 7시 피해자 면담 후 지원 여부 결정하기로 논의)

2020. 7. 8. 오전 10시 40분경, 본 상담소 소장에게 상담소 정회원이자 운영자문위원이었던 당시 서울특별시 젠더특보 임순영 회원이 전화함. “오늘 저녁에 변호사를 만나는가, 무슨일인가라고 물음. 본 상담소 소장은 (약속을) 어떻게 알았나? 말해줄 수 없다고 밝힌 후 전화를 끊었음.

2020. 7. 8. 오후 2시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한국여성단체연합 지도위원)에게 당일 저녁에 있을 변호사와 단체 간 미팅일정을 말한 것을 알게 됨

2020. 7. 8. 오후 8시경, 본 상담소 소장, 부소장과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사무처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통화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했는지 확인함. 이때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국여성단체연합 지도위원) → 서울특별시 젠더특보로 피해자지원 정보가 전달된 것을 인지함.

2020. 7. 16~17. 본 상담소 소장, 부소장과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사무처장은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에게 위의 피해자 지원 정보 전달 경로를 공유함. 이때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는 해당 단체(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힘. (+그 외의 타단체, 공동행동 집행부 등 공유시기 및 범위 등 기록중)

2020. 12.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결과,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가해자는 위 특보, 임순영 회원으로부터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을 알 수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가 예상되고, 여성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예정이더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은 것을 확인.

2. 내부 논의 진행 과정

2020. 10. 22.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 경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활동가들과 공유

논의결과 : 한국여성단체연합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 논의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함.

2020. 11. 4. 실무임원회의(1차) 11. 5. 실무임원회의(2차), 11. 15. 실무임원회의(3차)
 11. 21. 실무임원회의(4차), 12. 20. 실무임원회의(5차), 12. 24. 실무임원회의(6차)
 12. 30. 실무임원회의(7차) 2021. 1. 4. 임시이사회(1차), 1. 7 임시이사회(2차), 1. 10.임시이
 사회, 1. 19 임시이사회(4차), 1. 22 임시이사회(5차)등 본 상담소 소장이 한국여성단체연합 실
 무임원회의 총 7차, 이사회 총 5차에 걸쳐 참여하여 사안의 논의 제안 및 진행

2021. 1. 14.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에서 상임대표 불신임 및 혁신위원회 구성 가결

2021. 1. 6.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회의 : 내외부 입장발표 및 회원 처분 필요성 논의

2021. 1. 8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회의 : 상담소 입장문 구성에 대한 논의

2021. 1. 20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회의 : 논의 기초자료① “본 사건 ‘유출’ 관련 피해자 지
 원자들의 대응과 판단을 돌아보며” 제출, 입장문 작성과 회원 처분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 판단

2021. 1. 22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회의 : 상담소 입장발표를 위한 사전 논의, 회원 처분에
 대한 총회 안건(안) 논의

2021. 1. 23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회의 : 논의 기초자료②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
 자지원정보 유출에 대한 평가, 보고, 입장” 제출, 상담소 입장발표를 위한 사전 논의, 회원 처분에 대
 한 총회 안건(안) 확정

2021. 1. 25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회의 : 상담소 입장문(초안) 논의

2021. 1. 26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회 : 상담소 입장문(초안) 및 회원 처분에 대한 총회 안건(안)
 논의

3. 이후 진행 방향

1) 상담소 입장 발표

상담소 입장문(초안)에는 해당사안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가 서술되어있으나 사건 경과와 평가, 과
 제가 완성된 형태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임.

해당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과정에서 드러난 여성운동의 현실과 한계, 성찰과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 또한 필요함.

이는 반성폭력운동 단체에서 피해자 지원의 원칙을 세우고, 공유하고 환류하는 첫 시작이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상담소내에서도 다양한 층위의 직면한 과제에 대한 논의와 실천방안 마련 등의 계획이
 필요함.

이에 임시총회 때까지 입장문 완성을 위해 내부 평가 회의를 지속 진행하고 과제 및 실행 방안 마련
 을 담은 계획안 도출

2) 임시총회 개최 제안

① 회원 처분의 건 논의, 의결

민법 제71조,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에 의거, 회원 처분 안건의 경우 1주일 이전 통지되지 않아 절차상 적법하지 않음. 이에 해당 안건 발의 및 의결을 위한 임시 총회를 제안.

2021년 2월 25일(목) 저녁 7시 개최 (2021. 1. 26. 이사회 의결)

대상 회원은 정관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2항에 의거,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을 모두 포함함.

② 반성폭력운동단체로의 상담소 운동의 원칙, 과제 및 실행방안 논의

이번 사안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지점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변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임시총회에서 논의

이를 기반으로 2021년 해당 과제 이행을 위한 실행 방안 실천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전체 9권

제목	발행월
자료집	
2020년 29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자료집	1월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	6월
2019 <의심에서 지지로> 연속집담회 : 피해와 생계사이, 성폭력을 말하다	8월
[열린터 문집] 거친 파도도 잔잔한 바다다	9월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9월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10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85호	2월
나눔터 86호	8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이슈리포트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4호	12월

2020년 블로그 “똥다! 상담소” www.stoprape.or.kr 포스트 목록

전체 120건 (전년 120건)

카테고리	월	일	제목
상담소는 지금 (49건)	1	8	[후기] 공폐단단 액션 캠페인 <그 평범을 깨고, 우리의 평범을 찾자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부터!>
	1	8	[후기] 아시아여성학대회(5th Congress of AAWS 2019) 참가 및 부스 운영
	1	9	[후기] 2019.12.20. 일본 희망씨앗기금 한·일 대학생 방문단 맞이
	1	28	[후기] 제34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1	28	[후기]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1	30	[후기]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제20차 정기총회 후기
	2	21	[의견서]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판단이 필요합니다”
	2	21	[후기] 제142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부터"
	2	24	[후기]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
	2	27	[후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첫 번째 텀블벅, <의심에서 지지로 Q&A>, 성공적!
	3	31	[후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온라인' 한국여성대회 후기
	4	1	[후기]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4	29	[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권_보장
	4	29	[후기]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
	6	1	성폭력 양형기준 변경 캠페인 6. 가족한테 성폭력을 저질러도 돈만 벌어오면 봐 준다고?
	6	18	[후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
	6	30	[후기]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6/11
	7	1	[후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7	29	[후기]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7	29	[후기]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
	7	31	[후기]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집회 <분노한 우리가 간다>
	7	31	[후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카테고리	월	일	제목
	7	31	[후기]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7	31	[후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8	14	2020 여름 로스쿨 실무수습을 마치며
	8	15	국회, '낙태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8	31	[후기]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채연 님의 후기
	8	31	[후기]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하은 님의 후기
	9	1	[후기] 2020 성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 <조직 내 성폭력 사건지원자 역량강화교육: 흔들리던 성냥불이 우직한 등대가 되기 위해>
	9	29	[후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10	20	[후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10	30	[후기]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10	30	[후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10	30	[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10	30	[후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가정복귀와 시설 사이에 놓인 삶들' 포럼
	10	30	[후기]젠더와 개발 통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수료
	11	27	[후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11	30	[후기] 이 사건, 아직도 판결이 안 나왔다고? —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12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하철 액션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1, 2회 후기
	12	1	[후기]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청와대 앞 1인시위
	12	1	[후기] 미투운동 '너머'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 -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
	12	24	[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12	29	[후기]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저자와의 낭독회 "이제는 우리가 말한다, 친족 성폭력"
	12	29	[후기]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경찰조사한다고? - 활동가의 부당한 경찰소환에 대응하는 법
	12	29	[후기]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액션들

카테고리	월	일	제목
	12	31	[후기]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2020년 한해보내기~
	12	31	[후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주최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12	31	[포토후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빔 퍼포먼스 액션
	12	31	[후기] 12/17 실체진실과 책임추구를 위한 토론회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시끌시끌 상담소 (49건)	1	23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첫 모임!
	1	29	2019년 문자후원 결산 : 성차별, 성폭력 없는 세상으로!
	1	30	[후기] 회원소모임 <내가 반한 언니> 2020년 첫 모임
	2	14	[후기]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_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재판부 방청
	2	17	[동계공익법무실습 후기]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24	[후기] 제14기 경화-Citi NGO 인턴십 후기
	2	24	[후기] 자원활동가 가림의 8개월 돌아보기
	2	25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2월 모임
	2	26	[이벤트] 활동가 환갑 맞이 질문 코너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	27	[사진으로 보는 후기]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공동 판화 프로젝트
	4	1	[후기] 회원소모임 내가 반한 언니 : 조가 결혼을 했다고? 도대체 왜? - 영화 <작은 아씨들> 후기
	4	13	상담소 29주년 생일축하: 활동가 환갑맞이 질문 코너 1
	4	14	상담소 29주년 생일축하: 활동가 환갑맞이 질문 코너 2
	4	15	상담소 29주년 생일축하: 활동가 환갑맞이 질문 코너 3
	4	16	상담소 29주년 생일축하: 활동가 환갑맞이 질문 코너 4
	4	17	상담소 29주년 생일축하: 활동가 환갑맞이 질문코너 5
	4	21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4월 모임
	4	27	[후기] 내가반한언니 4월 모임 : 새로운 관점으로 본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
	4	29	[후기]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9주년 생일맞이 소풍(feat. 점심시간)
	5	29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5월 모임
	6	1	[후기] 내가반한언니 5월 모임 : 투지와 죄의식, '밀리언 달러 베이비'
	6	1	[질문 모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진로탐색 편

카테고리	월	일	제목
	6	1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첫 모임(2020년 5월) 후기
	6	29	6월 활동가 인터뷰 :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1편
	6	30	6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2편
	7	1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6월 모임
	7	1	6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3편
	7	2	6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4편
	7	3	6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5편
	7	6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6월 모임
	7	29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7월 모임
	7	31	[후기] 내가반한언니 7월 모임 <밤샐: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7	31	[후기] 법정모니터링단 <매서운 눈초리(a.k.a. 매초리)> 상반기 모임
	7	31	[후기] 2020 상근활동가 워크숍
	8	3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7월 모임
	8	24	8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인생곡선 1 감이 편
	8	25	8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인생곡선 2 오매 편
	8	26	8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인생곡선 3 감이와 오매, 그리고 상담소
	9	1	[2020 네마프 대안영화제] <생존자의 자리>가 영화제에!
	9	8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8월 모임
	9	28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9월 모임
	10	8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9월 모임
	10	30	[후기] 여성주의상담팀 MT (캠핑에 도전하다)
	11	4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10월 모임
	11	25	[후기] 내가반한언니 10월 모임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11	30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11월 모임
	11	30	10월 활동가 인터뷰: 젠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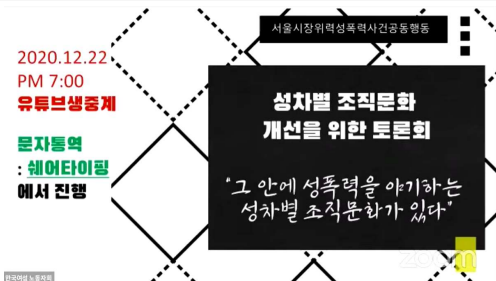
카테고리	월	일	제목
	12	3	[후기] 매초리는 안녕해요.
	12	29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2월 모임
성폭력에 대해서 (22건)	1	2	[보통의연대] 021. 성폭력, 인간으로서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는 장미의 인터뷰
	1	8	[보통의연대] 022. 공동체 내 성폭력 나만 몰랐던 이유, 너무 마초적이어서? K의 인터뷰
	1	16	[보통의연대] 023. 인간은 권력이 생기는 순간 다른 인격이 된다? 권력 다루는 교육이 필요해! 무열의 인터뷰
	1	30	[보통의연대] 024. 피해자의 편을 들어 싸웠지만…… 나중에는 후회됐다는 햇님의 인터뷰
	2	6	[보통의연대] 025. ‘설마’라고 웃어넘겼던 기억들……지금 생각해보면 성폭력, 놀보의 인터뷰
	2	13	[보통의연대] 026.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는 태윤의 인터뷰
	2	20	[보통의연대] 027. 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관심 갖고 이슈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웅의 인터뷰
	2	27	[보통의연대] 028. 반성폭력 운동, 뭘 더 열심히 했어야 친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로로의 인터뷰
	3	5	[보통의연대] 029. “언론의 힘 무시할 수 없더라”, “반페미니즘 진영만의 문제 아니야” H와 J의 인터뷰
	3	12	[보통의연대] 030. 기사 댓글을 보면 아직도 피해자탓……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주희의 인터뷰
	3	19	[보통의연대] 031. “학부모도 페미니즘 공부하면 좋겠다” 딸과 아들을 키우는 에버그린의 인터뷰
	3	26	[보통의연대] 032. “가해자를 두둔하는 주변인은 가해자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해” 익명의 직장인의 인터뷰
	4	2	[보통의연대] 033. 대학에서 상담자 겸 성희롱·성폭력 신고 담당자로 일했던 나난의 인터뷰
	4	8	[보통의연대] 034. 생존자이자 주변인, 보통의 연대에 응답하고 싶은 해달의 인터뷰
	4	16	[보통의연대] 035.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으로 활동하며 내가 깨달은 것들, 다희의 인터뷰
	7	29	[후기]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9	1	나눔터 85호 <생존자의 목소리①> 내가 나로 살아가는 동안에 - 캐시
	9	1	나눔터 85호 <생존자의 목소리②> 반도 안 왔다는 말은 이제 그만! - 하루
	9	1	나눔터 85호 <생존자의 목소리③> 이 세상의 별빛이 될 모두에게 - 별

카테고리	월	일	제목
	9	1	나눔터 85호 <생존자의 목소리④>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 - 정소담
	9	1	나눔터 86호 <생존자의 목소리①> 목소리 - 지안
	9	1	나눔터 86호 <생존자의 목소리②> 상처 입은 치유자 - BSH

2020년 유튜브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영상 목록

전체 6건

영상 제목	썸네일	분량	게시일
[보통의연대] 025. '설마'라고 웃어넘겼던 기억들.....지금 생각해보면 성폭력, 놀보의 인터뷰		6:00	2/7
[보통의연대] 035.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으로 활동하며 내가 깨달은 것들, 다희의 인터뷰		9:10	4/16
10월 활동가 인터뷰: 젠가 편!		22:15	11/9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 온라인 한해보내기!		19:29	12/4

영상 제목	썸네일	분량	게시일
<p>이제는 우리가 말한다, 친족 성폭력 :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저자와의 낭독회</p>		2:16:50	12/22
<p>[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p>		3:01:55	12/31

2020년 입장, 논평, 성명

전체 159건 (전년 111건)

월	일	제목
1	8	[논평] 정부는 유엔의 낙제점을 부끄러워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	9	[성명] '인사상 불이익'은 조직 내 성폭력의 수단이자 은폐 도구. 안태근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1	13	[성명] [기자회견]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1	28	[공동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1	28	[공동논평] 군 복무 자격을 남근중심적 기준으로 판단한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1	28	[논평] 성적으로 직업 차별, 직업으로 사람 차별, 이제 그 고리를 끊자 - 한 사교육 강사의 발언 논란에 부쳐-
1	28	[성명] 혐오표현의 해악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뉴스앤조이의 싸움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1	28	[논평] 육군은 부대원들의 지지와 응원에 응답하여 변희수 하사의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보장하라
1	30	[입장] 노콘노출마 [콘돔 거부하는 자, 출마 거절한다] : 왜 콘돔 사용은 정치적 과제인가?
2	4	[논평] 한동대 '부당징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2	4	[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2	6	[논평] 우리는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꾼다
2	10	[논평]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동참해주세요!
2	11	[입장] 가해자 변호사 김00님께
2	12	[성명] 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부터 - 제142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2	12	[논평] “페미니스트를 고용해서 죄송합니다”? #게임계_내_사상검증OUT
2	14	[공동성명]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종식까지 멈추지 않는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1]
2	14	[공동성명]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2	18	[공동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2	20	[공동논평]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월	일	제목
2	20	[입장]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 :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부쳐 첨부된 파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디스켓 아이콘
2	20	[카드뉴스]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2	21	[카드뉴스]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① 배 안 성폭력, 저항 안해 무죄? 해군들이 분개한 판결 첨부된 파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디스켓 아이콘
2	21	[카드뉴스]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② 성소수자 성폭력 피해자 '불편하다'는 군대, 뒤집힌 판결
2	21	[카드뉴스]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③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 재연해봐라'... 군사법원의 민낯
2	21	[공동논평] 수원지방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을 환영한다
2	28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카드뉴스] 불법촬영물 유포가 안전한 텔레그램
2	28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카드뉴스] 일베는 싫지만 일베가 올리는 성착취물은 보고싶은 텔레그램 성착취범!
2	28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카드뉴스] 근데 이런 방 운영하면 누가 수익을 얻노?
3	2	[입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회 금지!? 상담소 활동은?
3	6	[공동성명]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응답하라0411
3	6	[공동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3	11	[공동성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출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3	13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카드뉴스] 지인능육에 대하여 (1)
3	16	[카드뉴스] 01. 진지한 반성, 흉내내기만 해도 감형이 된다고?
3	17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3	18	[공동논평]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검거에 부쳐
3	19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카드뉴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3	20	[카드뉴스] 0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재범 확률이 낮다고?
3	24	[카드뉴스] 03. 성폭력 가해자가 대단한 사람이라 감형을 해 준다고?
3	24	[성명] 수십 명의 참여자 중 기소는 단 1명, 그것도 ‘약식명령’?
3	24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카드뉴스] '돈은 없지만 n번방 성착취물을 보고싶어'
3	25	[카드뉴스] 04. 술에 취한 가해자, 블랙아웃 상태라 봐 준다고?
3	26	[성명] [기자회견문]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월	일	제목
3	30	[공동논평]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3	31	[논평] [카드뉴스] 모두가 평등한 선거를 위해!
4	1	[카드뉴스] 05. 재판이 처음이라 초범으로 감형해 준다고?
4	3	[공지] [CALL21ST OPEN]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4	3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카드뉴스]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4	3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카드뉴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4	3	[성명] 해일이 몰려오는데 여성에게 돌멩이나 던지고 있는가? 해일인 우리는 '성평등'에 표를 던질 것이다.
4	13	[공동성명]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 4월 13일 조주빈 구속 이후, 감경, 사법부, 언론, 시민들의 역할
4	14	[공동논평] [#call21st] 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194명은 누구?
4	14	[카드뉴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
4	16	[공동성명] 버닝썬 사건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4	22	[공동성명]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사법부는 직무유기다! - 'N번방' 성착취 가해자 '캘리'의 징역 1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4	23	[공동논평] [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4	23	[공동논평] 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
4	27	[논평]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공개
4	29	[성명]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 및 비방에 부처
5	4	[공동성명] “포기하지 않고 싸운 10년!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새 역사를 쓰다!”
5	8	[논평] [단호한시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
5	12	[공동성명]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
5	12	[공동성명]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5	15	[논평] [단호한시선] 진지한 반성은 ‘반성문’이 아니라 ‘책임짐’에서 나온다
5	15	[공동성명]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사법부가 공범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판단을 규탄하며-

월	일	제목
5	18	[카드뉴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아이다호 : 군대 내 성소수자 권리, 정치가 나서서 해결할 때
5	18	[공동성명]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5	19	#2020_05_19_오늘부터 #자기촬영물_비동의유포_처벌 #불법촬영물_소지구입저장시청_처벌 #촬영물이용_협박강요_처벌
6	1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6	1	[공동성명]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 21대 국회는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1	[카드뉴스] 06. 가족한테 성폭력을 저질러도 돈만 벌어오면 봐 준다고?
6	2	[입장] [#call21st] 강간죄 개정에 "찬성"으로 응답한 제21대 국회의원께
6	5	[공동성명]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
6	8	[입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6	9	[성명] [KSVRC활동가성명] 고 손영미 활동가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6	11	[공동성명] [기자회견문] 우리의 연대는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6	19	[공동성명] 2차 피해를 재생산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규탄한다
6	24	[논평] 21대 국회 인권의 척도는 차별금지법에 달려있다
6	24	[논평]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6	24	[논평] 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6	24	[논평]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남은 건 제정뿐이다
6	25	[카드뉴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6	29	[논평]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6	29	[논평]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6	30	[논평] #때가왔다_차별금지법 - 21대 국회는 지체 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7	1	[입장] 용기 있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뒤에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7	7	[공동성명] [故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요청에 답하기 위해 모인 스포츠/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7	7	[공동성명]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부처-
7	7	[공동성명]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중간간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 피해자의 시간은 여전히 2017년 5월 5일이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월	일	제목
7	9	[공동성명] 안희정 측근에 의한 2차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끌어안는 곳인가
7	10	[입장]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에 반대한다
7	13	[입장]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7	16	[입장]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 "그 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 분들'의 이익이었다"
7	23	[성명]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7	24	[성명] [기자회견]여성들이 요구한다!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7	31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7	31	[논평]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 의원실 테러에 부처
7	31	[성명]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
7	31	[성명]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란?
7	31	[성명]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은 어떤 영역에 적용될까요?
7	31	[논평] [논평]뿌리깊은 성차별 구조에 분노하며 피해자와 연대한다
7	31	[공동논평] 서울시장 사건 업무포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측 강력 문제제기 입장
8	12	[공동성명]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처
8	12	[공동성명] [카드뉴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8	21	[공동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8	25	[논평] 더불어민주당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목소리 환영한다
8	26	[성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은 오거돈을 빨리 기소하라
8	26	[논평] 통제에서 보장으로,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권고를 환영하며
8	31	[공동논평] 대통령의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8	31	[공동성명] 전국의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어왔다. 국회는 평등에 탑승하라
8	31	[공동성명]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8	31	[공동성명] 8/17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월	일	제목
8	31	[성명] [단호한시선] 속아서 '동의'한 성행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을 환영하며
9	3	[공동성명]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9	4	[공동논평]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9	7	[공동논평]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여야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9	10	[공동논평]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9	10	[공동논평] 서울시의회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
9	11	[공동성명] [의견서]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장 전체 삭제를 촉구합니다.
9	21	[카드뉴스]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10가지 팁
9	23	[공동성명]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혹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혹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9	23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9	25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 '낙태죄'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사전 공지!
9	28	[성명]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4]
9	28	[공동성명] [공동선언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10	7	[공동성명]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10	13	[공동논평]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10	15	[공동성명] [의견서] “낙태죄 전면 폐지는 종교를 넘어선 시대적 요구” <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 선언(1,015명)>과 <낙태죄 폐지 촉구에 관한 의견> (요약)
10	19	[입장] [단호한시선]'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첨부파일 포함)
10	20	[공동논평]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10	29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10	29	[공동성명]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성명문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10	30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10	30	[공동성명] [카드뉴스][해군상관예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여군이 아닌 전우로 대해 달라" 대법원의 응답은?

월	일	제목
11	5	[공동성명] 피해자를 학습 교재로 취급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11	6	[공동성명]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11	10	[공동논평] [모낙페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1	13	[입장] [단호한시선]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첨부파일 포함)
11	16	[공동논평]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11	16	[공동논평]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청와대 앞 1인시위 경과 및 후기 모음
11	26	[공동성명] 기자회견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12	1	[공동성명] 더 이상 시설 거주가 답이 아니다. 정부는 '한부모들의 시설 입소확대' 발표 철회하고 탈시설 방안 마련하라!!!
12	1	[공동성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성범죄를 방기한 기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11/16)
12	1	[공동성명] 2020년 11월 11일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 계획 발표- (11/11)
12	2	[공동성명]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12	3	[공동성명]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12	11	[입장] [단호한시선] 이제 우리는 '조두순'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성폭력 가해자를 이야기해야 한다
12	11	[입장]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12	14	[공동성명]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12	16	[공동성명] 가해자 봐주기 감경요인 대신, 피해자 일상회복이 우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에 부쳐
12	16	[공동성명] [카드뉴스][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12	28	[공동성명] [카드뉴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2	30	12/29 경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
12	30	12/30 검찰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

월	일	제목
12	31	[공동성명]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12/17 권력형 성폭력, 그 피해는 너무 크다. 오거돈을 구속하라!
12	31	[공동성명]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12/18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에 분노하며 - 권력형성폭력 해결의지 없는 부산지방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2	31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12/24)
12	31	[공동성명]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선포한다!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외부 강의 활동

총 81회, 약 2,466명 대상 교육 (전년 131회, 약 5,421명)

월	일	의뢰기관	주제
1	9	꽃피는학교	학내 성평등규정의 이해와 실무
1	15	스틸박스	작은 조직에서 성평등 약속문 만들기
2	1	한사회장장애인성폭력상담소	쉼터역할의 지원체계 이해
2	7	서울대법학전문대학교	성폭력 법.정책운동: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하는가
3	3	시흥여성의전화	성폭력 2차피해와 피해자중심주의
4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n번방과 디지털 성범죄
4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n번방과 디지털 성범죄
4	10	헤이조이스	n번방과 디지털 성범죄
4	2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현황과 지원체계
5	4	연세대학교 고등교육원	인권의 광장 : 90년대 이후 여성운동
5	11	군인권센터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5	14	함께크는여성	미투운동과 인권
5	19	KBS 성평등센터	성희롱관련법 내용 및 강간죄 개정 필요성
5	21	민주노총 교육원	직장내성희롱의 이해
6	1	방화6종합복지관	직장내성희롱의 이해
6	3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성희롱예방교육
6	3	이우학교	성폭력 사건의 이해
6	12	수원여성회	성폭력관련법제화 과정과 쟁점
6	15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6	25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6	25	광명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성인지 감수성
6	25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쟁점
6	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피해지원의 실제-2차 피해 예방과 종사자윤리

월	일	의뢰기관	주제
7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7	2	지역사회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성상담 사례로 보는 젠더감수성과 성폭력
7	8	용인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7	13	신나는여성자갈자갈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7	13	장애여성 공감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7	14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7	14	서울시 직장 성희롱·성폭력센터	한국의 반성폭력운동 지형의 이해
7	18	위밋업스포츠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이해
7	2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사건처리 쟁점과 예방교육
7	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
7	29	국방부 양성평등담당관실	성폭력 상담 & 사건지원자로서의 나
7	29	용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지원체계이해
7	29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조직 내 성폭력 이해와 대응
7	31	장애여성 공감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8	7	수원시 여성정책과	성폭력 상담사례로 이해하는 젠더감수성과 섹슈얼리티
8	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8	10	광주여성의전화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8	11	양평원, 국방부(1)	한국사회 성문화의 이해
8	1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8	18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동체내 성폭력 사건해결의 의미
8	2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9	5	평택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9	11	기업법무협회	젠더적 사회변화와 성폭력 대응
9	17	대전여민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9	21	양평원, 국방부(2)	한국사회 성문화의 이해
9	24	한국YWCA연합회	여성폭력대응운동과 차별금지법
10	5	화성여성회	페미니즘 강좌 : 한국의 반성폭력운동과 인권
10	7	한국여성의전화	강간죄 개정운동의 현황과 과제

월	일	의뢰기관	주제
10	8	경기인력개발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해(1)
10	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디지털 성폭력 바로알기
10	12	양평원, 국방부(3)	한국사회 성문화의 이해
10	13	광주창자연	디지털 성폭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10	13	타투유니온	성폭력의 이해와 대응
10	18	정의당 경기도 위원 교육	차별잇수다
10	27	성공회대 대학원	한국의 반성폭력운동, 법, 정책
10	30	천안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이해와 지원
11	1	경기인력개발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해(2)
11	2	연세대 간호학과(1)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11	5	민주노총	공동체내 성폭력 사건 해결은 필요한가
11	6	평택평화센터	차별잇수다
11	6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위원회	디지털성폭력의 현황과 과제
11	9	연세대 간호학과(2)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11	9	은평병원	미투운동과 여성인권
11	12	이화여대 여성학과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11	12	경희대 문과대학	반성폭력 교육
11	17	영등포문화재단	성평등 조직문화
11	19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탈가정 청소년 주거경험을 권리로 말하기(정리)
11	20	경기차제연	성평등교육
11	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1366초기지원 모니터링 후속 컨설팅 사전회의
11	26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성폭력 지원체계와 법률
11	30	목포여성상담센터	예비사회복지사 성인식 향상을 위한 토크콘서트
12	1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페미니즘 & 여성운동, "마르지 않는 샘"
12	8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강사역량강화워크숍
12	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1366 초기지원모니터링후속컨설팅

월	일	의뢰기관	주제
12	15	산마을고등학교	성평등교육
12	18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말하기
12	26	인천사람연대	공동체내 성폭력 사건 해결

2020년 외부 자문 및 정책위원회 참여

전체 114건 (전년 158건)

월	일	주최기관	내용
1	2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1	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포용국가 여성가족·성평등정책 분과 포럼(2) :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의 의미와 입법과제 등
1	9	우리원헬스케어병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1	16	우리원헬스케어병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1	21	정의당 서울시위원회	성추행 사건 관련 자문
1	21	쌍마픽처스	다큐멘터리 영화 자문 - 성폭력 피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2	4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착수자문회의
2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자문
2	6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 활동단체 조직 역량강화 사업 자문
2	1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 포럼 - 성희롱 규정 검토
2	1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 포럼 - 성희롱 규정 검토
2	11	넥스트바이오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자문회의
2	1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협의체대표자회의
2	17	연세대 젠더연구소	KOICA 성폭력대응체계 수립 연구용역 자문회의
3	4	위밋업스포츠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 설계 자문회의
3	10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자문
3	1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자문
3	12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코로나로 서면 회의)
3	1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피해자지원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자문(서면)

월	일	주최기관	내용
3	1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방부 교육계획, 방향 및 교육 개선안 논의
3	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피해자지원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자문(서면)
3	27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활동지원기관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자문
3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행물 여성연구 논문심사
3	31	00대학교 의대 성평등센터	대학내 성폭력 사안 처리과정에 대한 자문의견 (e-mail)
4	1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논문 심사(김보화) : "성폭력 탈정치화 담론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성폭력 가해자 지원시장과 피해자 치료담론을 중심으로"(가제)
4	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설문지 감수
4	9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4	17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회
4	1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위기대응 조직 자문회의
4	21	서울시 교육청	스쿨미투 성인권 시민조사관 운영 자문회의
4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 실무위원회 자문회의
4	23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 관련 전문가 간담회
4	28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광역단위 디지털성범죄센터 필요성 연구 자문
5	7	서울시	위드유센터 선정 심의회의
5	14	성공회 대전교구	대법원
5	14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5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코로나19의 성별 불평등 현황과 성평등 관점의 정책과제 전문가 간담회
5	15	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서식 검토(서면)
5	16	박지현 연구자	활력향연 - 여성인권단체 성폭력피해지원활동가 소진 연구 자문
5	17	위밋업스포츠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 설계 자문회의

월	일	주최기관	내용
5	20	경찰청	여성안전정책자문단회의
5	21	쌍마픽처스	다큐멘터리 영화 자문 - 성폭력 피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5	21	공군본부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5	22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회
5	25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사성x닷페이스 일상회복프로젝트 사업 자문 회의
5	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자문(서면)
6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정책에서 보호담론의 한계와 정책방향 연구 자문(서면)
6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경행동강령 이행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 폭력/인권 분야 자문회의
6	11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6	1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피해시설컨설팅자문회의
6	17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채용 면접위원
6	19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회
6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 실무위원회 자문회의
6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정책에서 보호담론의 한계와 정책방향 연구 자문
6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군조직 양성평등 지표조사연구 자문(서면)
6	3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피해시설통합적피해지원안내서자문
7	8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개발 교육훈련 커리큘럼 개발 FGI
7	2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강사 선발 심의회의
7	27	사람마음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심리대응 프로그램 개발 자문
8	4	이우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 평가 및 상담 방안
8	6	한국여성가족재단	성평등활동가지원센터 평가연구 자문
8	1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베이징여성행동강령 25주년 서울행동강령 워크숍
8	12	서울대학교 연구소	성폭력 상담 챗봇 자문

월	일	주최기관	내용
8	1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컨설팅: 부산사랑의집장애여성피해자보호시설
8	21	부천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밀양집단성폭력 사건지원 사례회의
8	22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TS워킹그룹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 자문
8	28	Chihiro Ishikawa	동양의 사회 움직임 동원: 한국 페미니스트 사회단체들의 SNS 사용과 무명 - 연구인터뷰
9	4	이우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 평가 및 상담 방안
9	8	경찰청	여성안전정책자문단회의 (이메일 회의)
9	1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컨설팅 준비 중회의 : 대전 기아대책 이주여성쉼터
9	10	류호정 의원실	2차 피해 방지법 TF 자문회의
9	15	이우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 평가 및 상담 방안
9	24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10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컨설팅 : 대전 기아대책 이주여성쉼터 (중회의)
10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전문가 자문)
10	13	마포구청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지원금 선정 심사(2건)
10	13	마포구청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지원금 선정 심사(2건)
10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범죄자신상정보제도 관련 연구 전문가조사(서면)
10	1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컨설팅 :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10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조사(1) (서면)
10	1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컨설팅:원주마야의집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29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10	2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추방주간 슬로건 공모 심사
11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조사(2) (서면)
11	3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여성주의와 반성폭력 활동 내에서의 트랜스젠더 인권’ 간담회
11	3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여성주의와 반성폭력 활동 내에서의 트랜스젠더 인권’ 간담회

월	일	주최기관	내용
11	5	퍼플레이	성평등 교육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자문
11	5	퍼플레이	성평등 교육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자문
11	5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민원상대 경찰관 업무매뉴얼 점검 자문회의
11	11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슬로건/에세이 공모전 심사
11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임원장과 여성단체 간담회
11	1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전문강사 선발 심의
11	13	대한민국 공군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2차 회의
11	13	서울시 교육청	제2차 성인권 시민조사관 운영위원회
11	16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논문심사 : "수치심과 규범의 맥락, 그리고 여성의 삶"
11	19	경찰청	경찰청 여성안전자문회의 (서면)
11	24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서울시 혐오와 차별표현 예방을 위한 용역(서면, 전화)
11	25	퍼플레이	영화를 활용한 성평등 가이드북(서면)
11	26	이음컨텐츠	국방부 성희롱예방동영상 대본 자문(서면)
11	26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20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프로그램 평가회(중)
11	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논문심사
11	2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컨설팅:원주마야의집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2차)
12	1	경찰청	경찰 성범죄 대응, 누구나 알기쉽게 설명한 가이드북 검토의견(서면)
12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평가 : 젠더폭력정책 관련 연구
12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화계 성폭력예방 연구 자문(서면)
12	12	경찰청	경찰 성범죄 대응, 누구나 알기쉽게 설명한 리플렛 자문(서면)
12	9	이음컨텐츠	국방부 성폭력예방동영상 대본 자문(서면)
12	10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중회의)
12	10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논문심사
12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30 여성자살에 관한 전문가 자문의견

월	일	주최기관	내용
12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30 여성자살 관련 정책제안 방향성에 대한 실효성 혹은 기타 추가 의견
12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관실 발전방향 연구 자문
12	1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운영안내서 - 회계 파트 감수의뢰
12	28	수원시	수원시 특별성별영향평가 자문(서면)

2020년 발제, 발표, 토론, 사회

전체 24건 (전년 24건)

월	일	주최기관	토론회, 발표회 제목	사회, 발표자
2	18	본 상담소 부설 올림	포럼 : 책을 뚫고나온 페미니스트	파이
2	18	본 상담소 부설 올림	포럼 : 책을 뚫고나온 페미니스트	주리
2	18	본 상담소 부설 올림	포럼 : 책을 뚫고나온 페미니스트 - "여성학과 여성운동, '마르지 않는 샘'"	지리산
2	11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존엄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 - 기본소득, 주거권	수수
3	5	국가인권위원회	체육관련 단체 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발표회	오매
3	31	여성신문	2020 총선 대비 여성정책 현장 전문가 간담회	오매
4	3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토론회 :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지리산
4	2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미니즘 이슈로서의 차별금지법 : 안전할 권리를 말하다	오매
6	12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7회 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 : 성범죄 블랙홀, 사이버세계를 진단하다	오매
7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성평등교육 재구조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지리산
7	9	두런두런	한국 ODA와 젠더전문성 토크아보기 세미나	지리산
7	20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신아
9	24	일본 생활경제정책연구회	제1회 온라인세미나 "한국의 여성운동 활동가에게 듣는 MeToo 운동"	오매
10	20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양형부당 : 디지털 성폭력 양형기준을 말하다	오매
10	26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시각에서 본 자치경찰제 토론회	지리산
10	30	오거돈성폭력사건공대위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 미투운동 '너머'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	지리산
11	8	다다름네트워크	몸 다양성 영화제 2020 다다름필름파티 섹션3 #불법촬영 #임신중지 패널	얏
11	29	여성가족부	여성폭력추방주간 : 피해자의 목소리	오매
12	3	한국여성의전화	서울여성인권영화제, 피움영화제, "피움톡톡"	지리산

월	일	주최기관	토론회, 발표회 제목	사회, 발표자
12	3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기억의 문을 열다 관객과의 대화	얌
1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실제	오매
12	1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2차 여성폭력방지 전문가포럼	지리산
12	22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 건공동행동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리
12	28	인디스토리	Nth Room 디지털 성폭력 다큐멘터리	오매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기고

전체 7건 (전년 14건)

월	일	제목	게재지	담당자
3	8	『김지은입니다』를 읽고] 재난 속에 쓰고 보내온 연대의 편지	여성신문	오매
4	1	〈지금 여기, 바로 그 이슈〉: "21대 국회는 #미투에 응답하라"	뉴스레터(3월호)	지리산
4	7	디지털 성착취를 끊어낼 행동하는 사유함을 위하여	YWCA 기관지	파이
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여성과인권	오매
11	20	〈해미를 찾아서〉 인권 해설	제24회 서울인권영화제 홈페이지	얏
12	30	미투가 있다/있다: 끝나지 않는 변화의 연대: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의 의미와 과제	단행본	지리산
12	30	미투가 있다/있다: 끝나지 않는 변화의 연대: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연대	단행본	파이

2020년 언론에 난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158건 (전년 340건)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1	2	공감신문	[공감신문 시사공감] 끊이지 않는 '교내 단톡방 성희롱 논란'에 대하여
1	6	국민일보	조카 성추행 50대 檢 송차… 가족 회유·압박에 피해자 또 운다
1	9	국민일보	“신체주권 찾은 판결”… 무용계, ‘위계 성폭력’ 유죄 연대 물결
1	10	JTBC 뉴스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서지현 "인사보복이 재량이란다"
1	10	KBS NEWS	[오태훈의 시사본부] “성추행 고발 뒤 유례없는 인사 2번, 그런데도 안태근 무죄?”
1	16	여성신문	[부부간 강간 인정 10년] 여전히 부부의 침실은 닫혀있다
1	22	KBS NEWS	윤창중부터 정봉주까지…총선이 명예회복의 장?
1	29	전남일보	"단순 성범죄 아닌 아동학대로 확대해서 대처해야"
1	29	스냅타임	원종건 전 여친이 당했다는'가스라이팅', 나도 당하고 있다?
1	30	아시아경제	"성관계 중 몰래 콘돔 빼셨나요?" 명백한 '스텔싱 성범죄'입니다
1	30	비마이너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모든 남성 후보자는 '노코노출마'해야
2	11	한겨레	[세상읽기] 무지의 공포 / 권김현영
2	12	민중의소리	성폭력 공포는 트랜스젠더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2	14	서울신문	성폭력단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공동대응 나선다
2	22	경향신문	돌아온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 스쿨미투는 무엇을 남겼나
3	4	연합뉴스	"성폭력 87%는 아는 관계…직장·학교가 가장 많아"
3	4	뉴시스	성폭력상담소 "친족에 당한 피해 절반, 10년 지나 호소"
3	5	뉴스포스트	인천교통공사,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올려... “이제 와서 뭘”
3	5	민중의소리	학교·학원 성폭력, 남성 제자에 의한 피해들 발견...“성별 권력이 교육기관서 재연”
3	7	국민일보	“성관계 동의받았나” 강간죄, 이제는 가해자에게 묻자
3	8	국민일보	“불리하면 성폭행?” 남자들 걱정하는 강간죄 개정 [팩트체크]
3	10	국민일보	[n번방 추적기②] “신검 받는 중ㄴ” 자기 덮에 걸린 놈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3	13	국민일보	[n번방 추적기④] “우리 포르노 아니다” 함께 싸우는 여성들
3	17	세계일보	여심 잡기용' 공약들 내놓지만... 채용·임금 등 알맹이는 빠져 [4·15 총선 공약 진단]
3	22	여성신문	[W정치인사이드] '강간죄 개정'은 슬그머니 공약이어선 안된다
3	24	노컷뉴스	n번방 터지자 10대들도...‘텔레그램 탈퇴’ 긴급 검색
3	24	노컷뉴스	민심 들끓으니 n번방 '뒷북 공약'...알고는 내놓나
3	24	연합뉴스TV	조주빈의 이중생활...일상에 숨어든 악행
3	26	이투데이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3	27	한국경제	n번방 사건에도...신체노출 등 SNS '일탈계' 기승
3	27	topstarnews	[이슈] “단순 성범죄”로 알아” 범무법인 오현, 변호 사임에도 과거 행적까지 논란
3	27	KBS NEWS	“지금 중요한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연대와 지지가 중요
3	28	경향신문	n번방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
4	1	한국경제	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입장한 사람 달리 판단해야" [라이브24]
4	1	연합뉴스TV	박사방 피해 추가 확인...“피해자 제보도 절실”
4	1	서울신문	성폭력 가해자의 뻔뻔한 기부... 돈으로 ‘용서’ 살 수 있습니까
4	2	한국일보	[뷰엔] 23년 전에도 존재한 n번방... '성착취' 악의 연대기
4	2	여성신문	[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폭행·협박 없이는 강간 아니다? 모든 정당 ‘후퇴’
4	2	국민일보	일베·남초·지인 능욕... ‘n번방’ 잡고보니 10대 수도룩
4	3	국민일보	“그런 사람 입 없어져야 해” 황교안 발언에 분노한 n번방 폭로자
4	3	경향신문	[성범죄법 잔혹사]①여성이 죽고, 분노해야...법은 바뀌었다
4	4	뉴시스	"신고하면 또 신상털릴라"...n번방 피해자들 아직 두렵다
4	4	오마이뉴스	나체사진 합성해도... 숨방망이 처벌로 끝난 '지인능욕'
4	5	경향신문	여성 대상 범죄 때마다 시민 분노 뒤로 숨었던 ‘국가의 책임’, 이번에는 다를까
4	5	한겨레	‘피해자의 말이 살아날 때 사회도 변화할 수 있어요’
4	4	한겨레21	이윤택 #미투 극장전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4	5	한국일보	LIVE ISSUE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파문 n번방 저격한 '리셋·불꽃', 그들은 왜 '비밀주의'를 택했나
4	6	매일경제	모르는 사람과 채팅 말라고만...초등 성교육 교재는 '고인물'?
4	6	세계일보	친분 → 유인 → 협박... 'n번방'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신고도 못 했다
4	7	YTN	[팩트와이] 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 5천만 원 받는다?
4	7	여성신문	김어준, 'N번방' 사건 정치공작 가능성 제기... 미투 이어 또 음모론
4	9	연합뉴스TV	"유료회원 고소·고발"...용기 내는 피해자들
4	12	미디어스	'기자단톡방' 사건, 검찰 '기소유예'·'혐의없음' 이유는
4	12	MBC뉴스	[오늘 이 뉴스] 반성문 '고박고박'
4	13	MBC	[시선집중] "정치권, n번방 해결이 아니라 이용만 하고있어"
4	13	시사IN	완벽한 삭제와 처벌이 가장 확실한 지원이다
4	13	뉴시스	텔레그램 성범죄 규모 논란..."2600만명" 주장까지 등장
4	13	민중의소리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배제한' 수사가 송방망이 처벌 부른다"
4	16	뉴시스	'조주빈 공범' 2001년생 부파, 신상공개될까...심의위 개최
4	18	한국경제	반성문·기부·봉사·성교육... '감형 패키지' 내미는 성범죄자
4	20	오마이뉴스	n번방 사건, 그리고 어느 항소이유서의 '피해자 탓'
4	20	MBC뉴스	[당신뉴스] 가림막 너머로 쏙 쳐다본 '그놈'...피해자 '소름'
4	21	서울경제	"단속 끝나면 마구 올리겠다"...정신 못 차린 '제2의 조주빈'
4	21	한겨레	"스토킹·강간모의·성착취물 소지도 처벌"...n번방 관련 입법 속도낼까
4	22	쿠키뉴스	대학생 2명이 잡은 n번방, 여가부 '집중단속' 뒤흔다
4	23	KBS NEWS	디지털 성범죄 대책, '실효성'·'실행 의지'가 관건
4	24	미디어오늘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책, 놓치고 있는 것은
4	24	뉴데일리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후에도 출근... 언론 보도에 '부라부라' 징계
4	27	법률방송뉴스	"만3세 성추행 흉악범 처벌"... 아이 '진술'만 있는 재판, 유죄 성립할까
4	28	아시아경제	'속옷빨래' 초등교사 논란 커지자, 교육청 부라부라 징계...시민들 '분통'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4	29	서울신문	'오거돈 성추행'인데 피해자에 집중된 호기심 "우린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
4	30	아시아경제	"당장 파면하라" 성범죄 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취지 무색
4	30	참세상	민주당의 성폭력 사건 대응... '아문따' 제명은 옳은가?
5	2	아시아경제	[사이드B]환갑의 활동가上_"여성운동 17년, 하길 잘했어요."
5	9	아시아경제	[사이드B]환갑의 활동가下_"페미니즘 30년 역사,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죠"
5	14	한겨레	[뉴스AS] 정준영·최종훈 '감행'...피해자 관점서 생각해봤나요?
5	15	오마이뉴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안전할 권리'를 말하다
5	21	뉴스핍	"택시 타기 두려워요"...사적 질문, 성희롱 발언에 여성들 '고충'
5	22	문화일보	1993년 서울대 교수가 조교 성희롱... 공동대책위 꾸려 국내 첫 성희롱 판결 이끌어내
5	22	문화일보	"성폭력, 갑자기 나타난 괴물 아닌 권력관계에서 일어나"
5	27	연합뉴스TV	"기생·매춘·집단 사기극"...극우·일부 유튜버 막말
5	29	BBC NEWS 코리아	n번방: 또 다른 팬데믹... 최전방 활동가들이 말하는 사건의 핵심은?
6	9	뉴스1	오거돈 성폭력대책위 "가해자 실형 선고...민주당 국민 사죄해야"
6	9	오마이뉴스	전국 290여 여성단체, 오거돈 강제추행 사건 공동대응
6	10	조선비즈	정의연, 수요집회서 언론 망비난... "광란의 칼 끝에 천사같은 분 희생"
6	10	뉴스토마토	정의연 "광란의 칼끝에 희생"...심터 소장 언론 취재 비판
6	11	BBC NEWS 코리아	'박사방' 조주빈 재판 시작... 혐의와 주요 쟁점은?
6	24	한겨레	"신상 다 털려 피신"...n번방 피해자는 여전히 고시원 전전
6	26	오마이뉴스	"10살 초등생 저항 정도가..." 듣고도 믿기 힘든 판결
6	30	뉴스1	"21대 국회, 사회적 요구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 박차 가해야"
7	7	한겨레	"만취한 여성 상대 성범죄 처벌해야"...'준강간 공대위' 출범
7	8	MBC 뉴스	[탐정M] '클럽에 간 죄?'..."성폭력 피고인은 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나"
7	10	한겨레	"피해자 신상털이로 2차가해 말라" 커지는 연대 목소리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7	10	여성신문	"4년간 성폭력 피해… 서울시에 알리지 '박원순 그럴 사람 아냐 답변"
7	13	노컷뉴스	성폭력상담소 "박원순 서울시장장·시민조문소 반대"
7	13	경북일보	"거대 권력 앞에서 숨이 막힌다" 박원순 전 비서 성폭력 '폭로'
7	13	마이데일리	박원순 시장 고소인 "4년간 성폭력 지속, 속옷사진 전송·신체접촉" 주장
7	13	MBC 뉴스	[Right Now] 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측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시달려"
7	13	국민일보	박원순 성폭력→2차가해 논란에… 靑 "드릴 말씀 없다"
7	16	NESW1	서울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조사단 제안 응해야"
7	16	세계일보	초범·반성·합의… 국민 눈높이 무시하는 성범죄 감경 요인
7	22	동아닷컴	서울시, 합동조사단 계획 사실상 철회…"조사·수사 적극 협조"
7	27	한겨레	'위력 성폭력'의 또 다른 족쇄 '피해자다움'
8	3	JTBC 뉴스	"12년간 성폭력" 고소당한 법원 공무원…피해자는 친딸
8	7	이로운넷	[알면 the 이로운 건강] 41. 의료행위에서 '동의'
8	12	민중의 소리	서울시, 합동조사단 계획 사실상 철회…"조사·수사 적극 협조"
8	12	민중의 소리	류호정, 민주당·국민의당 여성 의원 지지 속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8	16	KBS NEWS	"네가 유난스러운 거야"…침묵 강요당하는 성폭력 피해자
8	20	여성신문	송영길 사과했지만…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넘어가라' 종용하나" 비판 일어
8	22	프레시안	젠더 위계가 지배하는 사회,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
8	26	기자협회보	성범죄 보도의 최우선 고려사항 '피해자 권리침해 최소화'
8	28	강원도민일보	n번방 최초고발 '추적단 불꽃' 정부포상 받는다
9	2	여성신문	이선종 원불교 교무 등 성평등 확산에 기여한 75명 정부포상
9	6	중앙일보	공포의 택시기사…여성승객에 대뜸 "저기 모텔 가고싶다"
9	15	경향신문	형사법 원칙 어긋난 내용 다수…어이없는 '조두순 방지법'
9	18	여성신문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변호인 향해 '길거리 불링'까지… 2차 가해 점입가경
9	21	한겨레21	국군 정보사 군인 성폭력 사건 기소 피해자 "이제 시작"
9	27	여성신문	[전문] 호주제 폐지한 여성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촉구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10	6	TV 조선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여성계 '낙태죄 유지' 반발
10	7	MBC 뉴스	'성폭행 피해' 김지은 비방한 안희정 전 수행비서에 벌금 2백만원
10	8	중앙일보	낙태하면 상속 못받는다? 낙태 허용하면서 이 법은 놔둔 정부
10	16	아시아경제	박원순 사망 100일...실체는 없고 2차가해만 남았다
10	19	KBS 뉴스	"성추행 피해자인데 국민참여재판 증인까지 해야 하나요"
10	20	KBS NEWS	성폭력 피해자는 원치 않는 국민참여재판...무죄율 7배 높아
10	21	경향신문	여야, 여가위 국감에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 참고인 채택 합의 불발
10	24	일다	디지털 성범죄자 감형 사유,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10	28	문화일보	김기덕 감독, '미투' 여배우·MBC 상대 손배소 패소
10	30	연합뉴스	권력형 성폭력 토론회 "피해자 보호 사회·제도적 장치 필요"
10	31	SISAFOCUS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이낙연, 무언에 대해 사과한다는 건가요?"
11	5	여성신문	가족 내 성폭력 생존자 9인이 들려준 이야기
11	11	NEWS1	끊임없는 친족 성폭력...여가부 "10년 공소시효 연장·폐지 검토"
11	19	이데일리	'해군 장교 성폭력 사건 유죄' 시민단체, 대법원에 유죄판결 촉구
11	19	NEWS1	'서울시 성폭행' 피해자에 "당신 잘못 아냐" 다독인 법원
11	25	쿠키뉴스	[댓글에 답하다]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성폭력 피해 고발도 불법되나요
11	26	NEWS1	여성단체 "조주빈 징역 40년, 끝 아냐"...피해자 "공범도 엄벌"
11	26	경향신문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 "아버지가 죽어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요"
11	28	한겨레21	성폭력 피해자에 "남성혐오 심한 것 아니냐?" 묻는 의사
12	3	기자협회보	SBS 친족 성폭력 보도 부적절 제목에 사과
12	8	KBS NEWS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외교관 성추행 사라질까
12	9	노컷뉴스	#가장 오래 기다린 미투, 친족성폭력 생존자의 이야기
12	9	세계일보	박원순 성폭력 의혹 피해자 '실명 유포자' 고소
12	10	뉴스핍	[우리결에 조두순]①초범이라서, 반성문 내서...여전한 솜방망이 처벌에 '공분'
12	11	민중의 소리	'출소 D-1' 조두순만 가두면 끝? 아동 성범죄 가해자 70%는 가족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12	12	KBS NEWS	성범죄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 되찾으려면?
12	14	한겨레	‘조두순 조희수’ 올리는 유튜버들…여성계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12	18	쿠키뉴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해결하라” 서울시청 외벽에 비춰질 메시지
12	23	한겨레	‘사무실 분위기 업하게 좀 웃자’…심기노동을 아십니까?
12	25	중앙일보	[현장에서]박원순 피해자의 편지 3통…'SNS 단두대'에 올린 그들
12	26	이데일리	“합법이라고?”...규제 공백 틈탄 리얼돌 체험방 속수무책
12	28	SBS 뉴스	"피해자 실명 공개하면 누가 나서겠나"…엄벌 촉구
12	29	뉴스핍	67년만에 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여성 권리 보호정책 필요"
12	29	SBS NEWS	박원순 의혹 못 풀고 수사 종결..."밝혀낸 거라도 알려라"
12	29	TV조선	[포커스] 2차 가해로 얼룩진 6개월...수사 의지 있었나
12	30	헤럴드경제	“박원순 죽인 살인죄 물어야”...수사 종결에 다시 거세진 ‘2차 가해’
12	30	JTBC 뉴스	검찰 "박원순 피소사실, 여성단체·여당 의원이 유출"
12	31	LIVE ISSUE	같은 박원순 휴대폰 봤는데... 검·경 발표 내용은 천양지차
12	31	경향신문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측 "박 시장도 인정해...책임자들 사과해야"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2021. 1. 28 기준

팀	상근활동가	비고
성문화운동팀 (3명)	박아름(앓) 김신아(신아) 한소망(달별)	(전임) 달별 2021.1.1
여성주의상담팀 (5명)	조은희 유호정(유랑) 노조선이(감이) 윤경진(경진) 김현지(파랑)	(입사) 경진 2020.12.3 (입사) 파랑 2020.12.3
사무국 (4명)	이미경(지리산) (소장) 김혜정(오매) (부소장) 최란(란) (사무국장) 전혜영(백목련)	(전출) 달별 2020.12.30 (복직) 란 2020.11.9
부설기관	상근활동가	비고
연구소 울림 (2명)	김보화(파이)(책임연구원) 장주리(연구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5명)	정정희(사자) (원장) 박지희 전순유 류수민(수수) 김주아(낙타)	

회 제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을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회계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이 제반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감사 배 자 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귀중

한국성폭력상담소 예결산서(수입)

(단위 : 원)

과목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실행률	산출내역	2021년 예산
장 관 항 목								
한국성폭력상담소				804,061,625	986,575,270	123%		859,705,904
사업수입				734,100,000	912,072,680	124%		694,160,000
모금사업수입				381,100,000	554,901,180	146%		401,310,000
정기후원금				191,000,000	257,751,079	135%		249,600,000
							◎ 회비 10,000 원 × 80 명 × 12 개월	9,600,000
							◎ 후원회비 20,000,000 원 × 12 개월	240,000,000
일시후원금				114,500,000	273,756,372	239%		66,360,000
							◎ 일시후원금 2,000,000 원 × 12 개월	24,000,000
							◎ 기업후원금 3,000,000 원 × 12 개월	36,000,000
							◎ 문자후원금 3,000,000 원 × 2 회	6,000,000
							◎ 온라인후원금 30,000 원 × 12 개월	360,000
현물후원금				-	130,000			-
							◎ 현물후원금	-
후원행사수입				45,000,000	-	0%		50,000,000
							◎ 30주년기념식 100,000 원 × 400 명	40,000,000
							◎ 크라우드펀딩 50,000 원 × 200 명 × 1 회	10,000,000
찾아가는홍보기부금				28,100,000	20,192,314	72%		32,200,000
							◎ 강의 외 1,500,000 원 × 12 개월	18,000,000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350,000 원 × 40 명	14,000,000
							◎ 특강 10,000 원 × 20 명	200,000
자료이용후원금				2,500,000	3,071,415	123%		2,900,000
							◎ 굿즈 125,000 원 × 4 회	500,000
							◎ 자료집 200,000 원 × 12 개월	2,400,000
파발마기금				-	-			250,000
보조금수입				260,000,000	269,948,000	104%		216,000,000
국비보조금				143,000,000	146,016,000	102%		118,000,000
							◎ 운영비	118,000,000
시비보조금				117,000,000	123,932,000	106%		98,000,000
							◎ 종사자 처우개선비	98,000,000
특별사업수입				92,000,000	85,080,000	92%		75,850,000
성폭력피해자의료비				50,000,000	50,000,000	100%		40,000,000
치료회복프로그램				27,000,000	20,080,000	74%		15,850,000
여성가족부양성평등공모사업				-	-			15,000,000
NPO지원센터지원사업				7,000,000	7,000,000	100%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사업				8,000,000	8,000,000	100%		-
한국여성재단지원사업				-	-			5,000,000
공동분담금수입				1,000,000	2,143,500	214%		1,000,000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1,000,000	2,143,500	214%		1,000,000
사업외수입				69,961,625	74,502,590	106%		165,545,904
이월금				64,661,625	64,661,625	100%		159,520,904
전년도 이월금				64,661,625	64,661,625	100%		159,520,904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	-			-
예수금 수입				-	-			-
기타수입				5,300,000	9,840,965	186%		6,025,000
이자수입				2,300,000	3,181,588	138%		3,500,000
							◎ 이자수입 875,000 원 × 4 분기	3,500,000
내부강사료수입				3,000,000	1,800,000	60%		2,025,000
							◎ 치료회복프로그램 202,500 원 × 10 개월	2,025,000
잡수입				-	4,859,377			500,000
							◎ 법인세 환급수입 500,000 원 × 1 회	500,000
							◎ 기타 잡수입	-
과년도 수입				-	-			-
과년도 수입				-	-			-

한국성폭력상담소 예결산서(지출)

(단위 : 원)

과목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실행률	산출내역	2021년 예산
장	관	항	목			
한국성폭력상담소		804,061,625	1,000,415,270	124%		859,705,904
인건비		354,600,000	357,054,810	101%		361,870,400
기본급		290,000,000	292,192,180	101%		289,958,000
기본급		140,000,000	143,531,180	103%		175,860,000
					◎ 상근활동가	175,860,000
					○ 12호봉	2,160,000
					○ 11호봉	25,236,000
					○ 8호봉 (주2일)	9,780,000
					○ 6호봉	47,520,000
					○ 5호봉	23,364,000
					○ 4호봉	22,860,000
					○ 3호봉	22,620,000
					○ 2호봉	22,320,000
기본급(보조급)		150,000,000	148,661,000	99%		114,098,000
					◎ 기본급	114,098,000
					○ 3급 18호봉	3,680,000
					○ 3급 9호봉	30,690,000
					○ 5급 7호봉	26,640,000
					○ 5급 5호봉	53,088,000
수당		64,600,000	64,862,630	100%		71,912,400
상여금		12,000,000	10,647,770	89%		14,652,000
					◎ 상여금	14,652,000
장기근속수당		3,200,000	3,842,000	120%		5,388,000
					◎ 상근활동가	5,388,000
					○ 12호봉	120,000
					○ 11호봉	1,572,000
					○ 8호봉 (주2일)	432,000
					○ 6호봉	936,000
					○ 5호봉	948,000
					○ 4호봉	780,000
					○ 3호봉	600,000
가계보전수당		14,000,000	13,997,080	100%		17,500,000
					◎ 비혼수당	7,200,000
					◎ 가족부양수당	840,000
					◎ 육아수당	960,000
					◎ 명절휴가비	8,500,000
가계보전수당(보조급)		16,200,000	17,223,000	106%		14,282,400
					◎ 가족수당	1,200,000
					◎ 명절휴가비	13,082,400
복리후생및실비보상		1,000,000	944,780	94%		1,080,000
					◎ 기타 급여보전비	1,080,000
복리후생및실비보상(보조급)		6,000,000	6,000,000	100%		4,800,000
					◎ 정액급식비	4,800,000
직무수행		9,800,000	9,808,000	100%		11,810,000
					◎ 직책수당	7,390,000
					○ 부소장	2,160,000
					○ 국장	150,000
					○ 선임	4,600,000
					○ 선임(주2일)	480,000
					◎ 활동보조비	3,820,000
					○ 부소장	2,400,000
					○ 사무국장	100,000
					○ 책임연구원(주2일)	720,000
					○ 연구원	600,000
					◎ 특정업무수당	600,000
					○ 재정수당	600,000
직무수행(보조급)		2,400,000	2,400,000	100%		2,400,000
					◎ 직책수당	2,400,000
					○ 관리자수당	2,400,000
물건비		53,260,000	45,633,038	86%		44,066,000
일반운영비		52,760,000	44,650,638	85%		42,966,000
사무관리비		10,700,000	4,668,505	44%		9,540,000
					◎ 지급수수료	5,340,000
					○ 세무대행용역비	2,640,000
					○ 공익법인세무확인수수료	2,100,000
					○ 기타	600,000
					◎ 사무비	3,000,000
					○ 사무용품 구입비	1,800,000
					○ 도서인쇄비	600,000
					○ 기타 소모품 구입비	600,000
					◎ 유지보수비	1,200,000
					○ 홈페이지 관리비	600,000
					○ 기타	600,000
사무관리비(보조급)		16,000,000	16,641,188	104%		9,398,000
					◎ 지급수수료	

				○ 도메인 및 서버 유지비	500,000 원 ×	1 회	500,000
공공운영비	4,600,000	617,190	13%				810,000
				◎ 통신비			240,000
				○ 우편발송요금	20,000 원 ×	12 개월	240,000
				◎ 제세공과금			450,000
				○ 법인세	350,000 원 ×	1 회	350,000
				○ 법인등기수수료	50,000 원 ×	2 회	100,000
				◎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			120,000
				○ 기타수선비	10,000 원 ×	12 개월	120,000
공공운영비(보조금)	8,000,000	8,446,105	106%				9,670,000
				◎ 통신비			6,120,000
				○ 전화요금	150,000 원 ×	3 회선 × 12 개월	5,400,000
				○ 인터넷요금	60,000 원 ×	12 개월	720,000
				◎ 수도광열비			2,760,000
				○ 상하수도요금	50,000 원 ×	6 개월	300,000
				○ 전기요금	200,000 원 ×	12 개월	2,400,000
				○ 가스요금	5,000 원 ×	12 개월	60,000
				◎ 보험료			490,000
				○ 종합안전배상공제	350,000 원 ×	1 회	350,000
				○ 화재공제	60,000 원 ×	1 회	60,000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35,000 원 ×	1 회	35,000
				○ 신원보증보험	45,000 원 ×	1 회	45,000
				◎ 의료지원비			100,000
				○ 의약품 구입비	50,000 원 ×	2 회	100,000
				◎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			200,000
				○ 경화조 청소	150,000 원 ×	1 회	150,000
				○ 기타수선비	50,000 원 ×	1 회	50,000
복지포인트(보조금)	1,330,000	-	0%				-
복리후생비	11,800,000	11,802,670	100%				12,348,000
				◎ 급량비			6,528,000
				○ 중식대	8,000 원 ×	34 명 × 12 개월	3,264,000
				○ 야근식대	8,000 원 ×	34 명 × 12 개월	3,264,000
				◎ 소모품비	150,000 원 ×	6 개월	900,000
				◎ 교육문화비	300,000 원 ×	12 명	3,600,000
				◎ 경조사비	100,000 원 ×	12 개월	1,200,000
				◎ 기타	30,000 원 ×	4 회	120,000
방역물품구입비(보조금)	330,000	2,474,980	750%				1,200,000
				◎ 방역물품구입비	100,000 원 ×	12 개월	1,200,000
여비	500,000	982,400	196%				1,100,000
여비	500,000	982,400	196%				1,100,000
				◎ 교통비	100,000 원 ×	5 회	500,000
				◎ 숙박비	80,000 원 ×	5 회	400,000
				◎ 식비	8,000 원 ×	25 회	200,000
경상이전	67,164,750	65,988,018	98%				67,698,846
연금부담금 등	67,164,750	65,988,018	98%				67,698,846
퇴직급여부담금	17,500,000	18,415,583	105%				18,856,800
				◎ 퇴직적립금	1,571,400 원 ×	12 개월	18,856,800
퇴직급여부담금(보조금)	14,550,000	14,489,990	100%				11,298,000
				◎ 퇴직적립금	941,500 원 ×	12 개월	11,298,000
사회보험부담금	17,000,000	17,831,125	105%				23,477,588
				◎ 국민연금보험료	18,857,500 원 ×	0 × 12 개월	10,183,050
				◎ 국민건강보험료	18,857,500 원 ×	0 × 12 개월	8,655,593
				◎ 고용보험료	18,857,500 원 ×	0 × 12 개월	2,376,045
				◎ 산재보험료	18,857,500 원 ×	0 × 12 개월	2,262,900
사회보험부담금(보조금)	18,114,750	15,251,320	84%				14,066,458
				◎ 국민연금보험료	11,298,360 원 ×	0 × 12 개월	6,101,114
				◎ 국민건강보험료	11,298,360 원 ×	0 × 12 개월	5,185,947
				◎ 고용보험료	11,298,360 원 ×	0 × 12 개월	1,423,593
				◎ 산재보험료	11,298,360 원 ×	0 × 12 개월	1,355,803
자본지출	2,000,000	2,824,500	141%				5,000,000
시설비	2,000,000	-	0%				2,000,000
시설비	2,000,000	-	0%				2,000,000
				◎ 시설유지보수비	500,000 원 ×	4 분기	2,000,000
자산취득비	-	2,824,500					3,000,000
비품비	-	2,824,500					3,000,000
				◎ 비품구입비	750,000 원 ×	4 분기	3,000,000
사업비	172,602,000	136,432,034	79%				207,220,800
영역별사업비	48,192,000	34,660,648	72%				89,419,000
사무국사업비	15,100,000	9,953,047	66%				14,839,000
				◎ 평가 및 계획회의비	8,000 원 ×	17 명 × 4 회	544,000
				◎ 활동가워크숍진행비			4,000,000
				○ 식비	10,000 원 ×	18 명 × 7 식	1,260,000
				○ 숙박비	1,000,000 원 ×	2 박	2,000,000
				○ 교통비	60,000 원 ×	5 대	300,000
				○ 재료비	440,000 원 ×	1 회	440,000
				◎ 국제교류협력사업비	500,000 원 ×	1 회	500,000
				◎ 정기총회비			3,135,000
				○ 회계감사비(선물)	75,000 원 ×	1 회	75,000
				○ 공증수수료	1,560,000 원 ×	1 회	1,560,000
				○ 인쇄비	13,000 원 ×	80 부	1,040,000
				○ 재료비	460,000 원 ×	1 회	460,000
				◎ 이사회회의비			650,000
				○ 식비	8,000 원 ×	10 명 × 5 회	400,000
				○ 다과비	5,000 원 ×	10 명 × 5 회	250,000
				◎ 자문위원회회의비			650,000
				○ 식비	8,000 원 ×	10 명 × 5 회	400,000
				○ 다과비	5,000 원 ×	10 명 × 5 회	250,000
				◎ 동료상담운영비	8,000 원 ×	3 명 × 5 회	100,000
				◎ 신규채용경비	20,000 원 ×	3 명 × 1 회	60,000

				◎ 30주년기념사업비 ○ 리브랜딩용역비 5,000,000 원 × 1 회 5,000,000 ◎ 회의비 25,000 원 × 4 분기 100,000 ◎ 예비비 100,000	
대외협력사업비	4,600,000	3,275,920	71%		4,100,000
				◎ 연회비 600,000 원 × 1 회 600,000 ◎ 참가비 30,000 원 × 5 명 × 2 회 300,000 ◎ 공동분담금 200,000 원 × 6 회 1,200,000 ◎ 타단체후원금 100,000 원 × 10 회 1,000,000 ◎ 기타 250,000 원 × 4 회 1,000,000	
대외협력사업비(보조금)	500,000	520,000	104%		520,000
				◎ 연회비 400,000 원 × 1 회 400,000 ◎ 회의참가비 30,000 원 × 4 명 120,000	
조직사업비	4,220,000	1,467,720	35%		3,900,000
				◎ 회원참여행사진행비 2,500,000 ○ 회원놀이터 1,500,000 - 재료비 122,950 원 × 2 회 245,900 - 강사비 250,000 원 × 2 명 × 2 회 1,000,000 - 문자통역용역비 84,700 원 × 3 시간 × 1 회 254,100 ○ 한해보내기 1,000,000 원 × 1 회 1,000,000 ◎ 자원활동보조비 8,000 원 × 100 명 800,000 ◎ 소모임활동보조비 120,000 원 × 5 개 600,000	
모금사업비	14,300,000	10,858,461	76%		35,968,000
				◎ 회원관리프로그램이용료 3,760,000 ○ 월 이용료 230,000 원 × 12 개월 2,760,000 ○ 문자사용료 및 인증요청료 250,000 원 × 4 분기 1,000,000 ◎ 후원금출금대행수수료 600,000 원 × 12 개월 7,200,000 ◎ CMS 이행보증보현료 20,000 원 × 1 회 20,000 ◎ 회원예우사업비 10,788,000 ○ 신규회원 1,500,000 - 굿즈제작비 300,000 원 × 1 회 300,000 - 굿즈인쇄비 4,000 원 × 300 1,200,000 ○ 클라우드펀딩 9,288,000 - 자문회의비 8,000 원 × 21 명 168,000 - 기획회의비 8,000 원 × 5 명 × 3 회 120,000 - 디자인용역비 1,000,000 원 × 1 회 1,000,000 - 인쇄비 35,000 원 × 200 부 7,000,000 - 우편발송비 5,000 원 × 200 명 1,000,000 ◎ 후원행사진행비 14,200,000 ○ 디자인용역비 500,000 원 × 1 회 500,000 ○ 인쇄비 2,200,000 - 초대장 1,000 원 × 500 부 500,000 - 포스터 2,000 원 × 100 부 200,000 - 팸플렛 5,000 원 × 300 부 1,500,000 ○ 대관료 500,000 원 × 1 회 500,000 ○ 진행비 3,900,000 원 × 1 회 3,900,000 ○ 홍보비 100,000 원 × 3 개월 300,000 ○ 자문비 100,000 원 × 3 명 300,000 ○ 굿즈제작비 10,000 원 × 500 부 5,000,000 ○ 발송비 3,000 원 × 500 명 1,500,000	
홍보사업비	8,972,000	8,092,139	90%		28,692,000
				◎ 나눔터 제작비 7,780,000 ○ 인쇄제작비(1500부) 2,800,000 원 × 2 회 5,600,000 ○ 우편발송비 700,000 원 × 2 회 1,400,000 ○ 발송용역비 240,000 원 × 2 회 480,000 ○ 원고료 30,000 원 × 5 명 × 2 회 300,000 ◎ 온라인홍보비 712,000 ○ 이메일소식지 제작플랫폼 이용료 26,000 원 × 12 개월 312,000 ○ 광고수수료 50,000 원 × 4 회 200,000 ○ 기타 50,000 원 × 4 회 200,000 ◎ 기획비 50,000 원 × 4 회 200,000 ◎ 홈페이지 및 소통-홍보 채널 리뉴얼 20,000,000 ○ 자문비 100,000 원 × 5 명 500,000 ○ 인터페이스개선통용역비 4,500,000 원 × 1 회 4,500,000 ○ 아카이브서버구축비 15,000,000 원 × 1 회 15,000,000	
홍보사업비(보조금)	500,000	493,361	99%		1,400,000
				◎ 홍보물제작비 200,000 원 × 5 종 1,000,000 ◎ 온라인홍보비 100,000 원 × 4 회 400,000	
목적사업비	31,410,000	18,395,432	59%		40,951,800
인권사업비	7,320,000	2,307,442	32%		5,400,000
				◎ 세계여성의날 150,000 원 × 1 회 150,000 ◎ 수요시위 300,000 원 × 1 회 300,000 ◎ 서울퀴어문화축제 400,000 원 × 1 회 400,000 ◎ 연대활동사업비 720,000 원 × 1 회 720,000 ◎ 이슈대응사업비 3,000,000 ○ 사업진행비 250,000 원 × 6 회 1,500,000 ○ 긴급집담회 1,500,000 - 패널리스트비 200,000 원 × 4 명 800,000 - 문자통역용역비 84,700 원 × 3 시간 254,100 - 인쇄비 400,000 원 × 1 회 400,000 - 재료비 45,900 원 × 1 회 45,900 ◎ 자문회의비 130,000 ○ 식비 8,000 원 × 10 명 × 1 회 80,000 ○ 다과비 5,000 원 × 10 명 × 1 회 50,000 ◎ 적극적합의(자부담) 500,000 원 × 1 회 500,000 ◎ 회의비 25,000 원 × 4 분기 100,000 ◎ 예비비 100,000	
상담사업비	6,390,000	7,565,700	118%		13,625,000
				◎ 사건지원비 2,100,000	

				○ 증거 확보실비 등	125,000 원 × 10 명		1,250,000
				○ 식비	8,000 원 × 2 명 × 20 회		320,000
				○ 교통비	125,000 원 × 4 분기		500,000
				○ 기타	30,000 원 × 1 회		30,000
				◎ 상담원 지원비	500,000 원 × 1 명		500,000
				◎ 슈퍼비전			400,000
				○ 다과비	5,000 원 × 15 명 × 3 회		225,000
				○ 기관방문선물구입비	50,000 원 × 1 회		50,000
				○ 식비	8,000 원 × 10 명		80,000
				○ 기타	45,000 원 × 1 회		45,000
				◎ 상담일지임기모임			380,000
				○ 식비	8,000 원 × 17 명 × 2 회		272,000
				○ 다과비	3,000 원 × 17 명 × 2 회		102,000
				○ 기타	6,000 원 × 1 회		6,000
				◎ 일지 및 통계 자문비	200,000 원 × 2 회		400,000
				◎ 월요법률상담운영비	10,000 원 × 10 회		100,000
				◎ 자문위원회회의비			195,000
				○ 식비	8,000 원 × 15 명 × 1 회		120,000
				○ 다과비	5,000 원 × 15 명 × 1 회		75,000
				◎ 연대활동비(공동분담금)	200,000 원 × 4 회		800,000
				◎ 의료기관네트워킹	50,000 원 × 3 회		150,000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8,400,000
				○ 강사비	350,000 원 × 20 명		7,000,000
				○ 홍보비	300,000 원 × 1 회		300,000
				○ 인쇄비	20,000 원 × 40 명		800,000
				○ 재료비	200,000 원 × 1 회		200,000
				○ 기타	100,000 원 × 1 회		100,000
				◎ 회의비	25,000 원 × 4 분기		100,000
				◎ 예비비			100,000
상담사업비(보조금)	1,000,000	984,880	98%				1,276,800
				◎ 상담사업운영비			526,800
				○ 업무용 휴대폰요금	33,000 원 × 12 개월		396,000
				○ 천리안 이용료	10,900 원 × 12 개월		130,800
				◎ 사건지원비(우편발송요금)	3,000 원 × 50 회		150,000
				◎ 슈퍼비전	300,000 원 × 2 회		600,000
파발마가금사업	5,000,000	252,040	5%				5,000,000
				◎ 내담자지원비	500,000 원 × 10 명		5,000,000
정책개발사업비	6,500,000	651,950	10%				1,200,000
				◎ 일반정책개발사업비	50,000 원 × 4 분기		200,000
				◎ 친족성폭력공소시효폐지사업비			1,000,000
				○ 워크숍			200,000
				- 식비	8,000 원 × 15 명		120,000
				- 간식비	5,000 원 × 16 명		80,000
				○ 활동비	100,000 원 × 8 명		800,000
연구소운영비	10,200,000	6,885,460	68%				14,450,000
				◎ 출판홍보비			9,200,000
				○ 반성폭력 14호			1,500,000
				- 봉투발송대행비	150,000 원 × 1 회		150,000
				- 봉투제작비	100 원 × 1,500 장		150,000
				- 발송비	1,200,000 원 × 1 회		1,200,000
				○ 반성폭력 15호			7,700,000
				- 제작인쇄비	5,200,000 원 × 1 회		5,200,000
				- 원고비(정점과입장)	200,000 원 × 3 명		600,000
				- 원고비(기고)	100,000 원 × 4 명		400,000
				- 발송비	1,200,000 원 × 1 회		1,200,000
				- 봉투발송대행비	150,000 원 × 1 회		150,000
				- 봉투제작비	100 원 × 1,500 장		150,000
				◎ 연구사업비			3,350,000
				○ 연구활동가 네트워킹			1,600,000
				- 발제비	150,000 원 × 3 명		450,000
				- 토론비	150,000 원 × 3 명		450,000
				- 다과비	50,000 원 × 1 회		50,000
				- 홍보비	300,000 원 × 1 회		300,000
				- 인쇄비	350,000 원 × 1 회		350,000
				○ 단행본발간사업비			1,750,000
				- 기획회의비	25,000 원 × 10 회		250,000
				- 면접사례비	50,000 원 × 15 명		750,000
				- 재료비	750,000 원 × 1 회		750,000
				◎ 연구활동비			1,800,000
				○ 도서관구입비	20,000 원 × 25 권		500,000
				○ 사무비	100,000 원 × 4 분기		400,000
				○ 연구소미래전망모색사업비			400,000
				- 다과비	25,000 원 × 8 회		200,000
				- 사례비	50,000 원 × 4 명		200,000
				○ 정책개발사업비	200,000 원 × 1 회		200,000
				○ 발간자료정리비			200,000
				- PDF화	5,000 원 × 20 권		100,000
				- 제본	10,000 원 × 10 권		100,000
				○ 회의비	25,000 원 × 4 분기		100,000
				◎ 예비비			100,000
특별사업비	93,000,000	83,375,954	90%				76,850,000
성폭력피해자의료비	50,000,000	50,000,000	100%				40,000,000
치료회복 프로그램	27,000,000	17,227,590	64%				15,850,000
				◎ 개별상담	100,000 원 × 6 명 × 15 회기		9,000,000
				◎ 작은말하기			6,300,000
				○ 강사비	202,500 원 × 1 명 × 10 회		2,025,000
				○ 장소대관비	200,000 원 × 10 회		2,000,000
				○ 식비	8,000 원 × 13 명 × 10 회		1,040,000
				○ 다과비	5,000 원 × 13 명 × 10 회		650,000

				○ 홍보비	400,000 원 ×	1 회	400,000
				○ 재료비	100,000 원 ×		100,000
				○ 회의비	5,000 원 ×	4 명 × 4 회	80,000
				○ 예비비	5,000 원 ×	1 회	5,000
				◎ 존엄한 생존자의 신나는 외출			550,000
				○ 식비	8,000 원 ×	15 명	120,000
				○ 재료비	300,000 원 ×	1 회	300,000
				○ 회의비	8,000 원 ×	4 명 3 회	96,000
				○ 예비비	34,000 원 ×	1 회	34,000
	적극적합의	-	-				15,000,000
				◎ 인건비	5,400,000 원 ×	1 회	5,400,000
				◎ 운영비	9,400,000 원 ×	1 회	9,400,000
				◎ 업무추진비	200,000 원 ×	1 회	200,000
	한국여성재단지원사업비	-	-				5,000,000
	자기방어훈련	8,000,000	8,000,000	100%			-
	조직변화실험실	7,000,000	6,995,406	100%			-
	공동분담금	1,000,000	1,152,958	115%			1,000,000
				◎ 모두를위한낙뢰피해공동행동			1,000,000
사업 외 지출	75,000,000	184,200,000	246%				45,000,000
사업 외 지출	70,000,000	180,000,000	257%				38,000,000
예탁금 및 예수금 지출	70,000,000	180,000,000	257%				38,000,000
				◎ 예금			38,000,000
법인전출금	5,000,000	4,200,000	84%				7,000,000
부설기관보조금	5,000,000	4,200,000	84%				7,000,000
				◎ 열림터			7,000,000
예비비 및 기타	-	48,431,966					31,590,342
예비비	-	-					-
반환금	-	48,431,966					31,590,342
국비보조금 반환금	-	2,855,779					-
시비보조금 반환금	-	36,076,305					31,590,342
후원취소 반환금	-	9,499,850					-
기타 반환금	-	32					-
차기이월금	79,434,875	159,850,904	201%				97,259,516

회 계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 세계잉여금(안)을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회계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일반회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계잉여금(안)이 제반 법령이나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감사 배 자 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귀중

열린터 예결산서(수입)

수입

과목		2020년	2020년	실행률	산출내역	2021년
장	관	항	목			
한국	성	육	력	상	달	소
				513,318,498	494,566,902	96%
				383,112,000	365,406,672	95%
				62,000,000	66,140,892	107%
				50,000,000	50,899,000	102%
					○ 후원회비	21,000 원 × 200 명 × 12 개월
				12,000,000	12,333,200	103%
					○ 일시후원금	800,000 원 × 12 개월
				-	2,908,692	
					○ 후원회비	300,000 원 × 12 개월
				308,512,000	285,905,780	93%
				226,962,000	195,973,780	86%
					○ 운영비	167,524,000
					○ 생계비	15,000,000
					○ 성폭력피해자의료비	15,000,000
					○ 사회훈련비	3,600,000
					○ 퇴소자립지원금	5,000,000
				80,000,000	89,652,000	112%
					○ 종사자	88,072,000
					○ 방역물품구입비	-
					○ 복지포인트	1,250,000
					○ 열혈위원금	-
				1,550,000	280,000	18%
					○ 준계부식비	75,000
					○ 하계수련회비	200,000
					○ 김장비	75,000
					○ 열혈위원금	-
				12,600,000	13,360,000	106%
				12,000,000	12,660,000	106%
				600,000	300,000	50%
					○ 광열비지원금	300,000 원 × 1 회
				-	-	-
				-	400,000	-
				130,206,498	129,160,230	99%
				124,106,498	124,106,498	100%
				124,106,498	124,106,498	100%
				5,000,000	4,200,000	84%
				5,000,000	4,200,000	84%
				-	-	-
				-	-	-
				-	-	-
				1,100,000	853,732	78%
				1,000,000	847,732	85%
					○ 이자수입	300,000 원 × 4 분기
				100,000	6,000	6%
					○ 기타	-
				-	-	-
				-	-	-

열린터 예결산서(지출)

지출

과목		2020년	2020년	실행률	산출내역	2021년
장	항 목					
한국성육력상당소		513,318,498	494,786,902	96%		448,507,555
인건비		182,462,000	173,350,410	95%		172,968,900
	기본급	147,562,000	138,270,000	94%		141,904,070
	기본급	7,562,000	-	0%		1,780,000
					○ 본봉 1,750,000 원 × 1 명 × 1 개월	1,750,000
					○ 호봉 30,000 원 × 1 명 × 1 개월	30,000
	기본급(보조금)	140,000,000	138,270,000	99%		140,124,070
					○ 기본급	140,124,070
					급 9호봉(4월) 3,066,000 원 × 1 명 × 1 개월	3,066,000
					급 6호봉(3월) 2,879,090 원 × 1 명 × 11 개월	31,669,990
					급 6호봉(12월) 2,257,670 원 × 1 명 × 12 개월	27,092,040
					급 4호봉(3월) 2,173,000 원 × 1 명 × 2 개월	4,346,000
					급 2호봉(3월) 2,184,170 원 × 1 명 × 12 개월	26,210,040
					급 2호봉 2,175,000 원 × 1 명 × 12 개월	26,100,000
					급 1호봉 2,164,000 원 × 1 명 × 10 개월	21,640,000
수당		34,900,000	35,080,410	101%		31,064,830
	상여금	-	-			148,330
					○ 상여금 148,330 원 × 1 명 × 1 개월	148,330
	장기근속수당	-	-			-
					○ 장기근속수당	-
	가계보전수당	-	-			600,000
					○ 비혼수당 100,000 원 × 1 명 × 1 개월	100,000
					○ 명절휴가비 500,000 원 × 1 명 × 1 개월	500,000
	가계보전수당(보조금)	15,000,000	14,857,200	99%		11,579,340
					○ 명절휴가비 16,898,930 원 × 0.6 × 2 회	10,139,340
					○ 가족수당 40,000 원 × 3 명 × 12 개월	1,440,000
	복리후생/실비보상	2,500,000	2,431,870	97%		2,431,920
					○ 기타 202,660 원 × 12 개월	2,431,920
	복리후생/실비보상(보조금)	15,000,000	15,391,340	103%		13,905,240
					○ 경매급식비 100,000 원 × 5 명 × 12 개월	6,000,000
					○ 연장근로수당 658,770 원 × 12 개월	7,905,240
	직무수행	-	-			-
	직무수행(보조금)	2,400,000	2,400,000	100%		2,400,000
					○ 직책수당	2,400,000
					관리자수당 200,000 원 × 1 명 × 12 개월	2,400,000
물건비		34,230,000	33,588,844	98%		32,460,000
일반운영비		33,830,000	33,168,544	98%		31,980,000
사무관리비		8,000,000	6,102,120	76%		5,440,000
					○ 일반사무비	400,000
					사무비 100,000 원 × 4 분기	400,000
					○ 운영수당	5,040,000
					속직비 70,000 원 × 6 명 × 12 개월	5,040,000
	사무관리비(보조금)	15,000,000	15,316,930	102%		14,420,000
					○ 일반사무비	13,420,000
					지급수수료 10,620,000	10,620,000
					- 세무회계용역비 235,000 원 × 12 개월	2,820,000
					- 경비용역비 150,000 원 × 12 개월	1,800,000
					- 기타 500,000 원 × 12 개월	6,000,000
					사무비 1,800,000	1,800,000
					- 사무용품 200,000 원 × 4 분기	800,000
					- 도서인쇄비 200,000 원 × 4 분기	800,000
					- 기타소모품 50,000 원 × 4 분기	200,000
					유지보수비 1,000,000	1,000,000
					- 사무기기 500,000 원 × 4 분기	500,000
					- 기타 500,000 원 × 4 분기	500,000
					○ 보수교육비 250,000 원 × 4 회	1,000,000
	공공운영비	500,000	468,138	94%		610,000
					○ 통신비	360,000
					우편발송요금 30,000 원 × 12 개월	360,000
					○ 의료지원비 50,000 원 × 4 분기	200,000
					○ 제세공과금	50,000
					법인세 50,000 원 × 1 회	50,000
	공공운영비(보조금)	5,000,000	5,123,196	102%		5,260,000
					○ 통신비	1,980,000
					우편발송요금 15,000 원 × 12 개월	180,000
					전화요금 50,000 원 × 12 개월	600,000
					인터넷요금 100,000 원 × 12 개월	1,200,000
					○ 수도광열비	2,040,000
					수도요금 50,000 원 × 12 개월	600,000
					전기요금 70,000 원 × 12 개월	840,000
					가스요금 50,000 원 × 12 개월	600,000
					○ 보험료	40,000
					화재보험 20,000 원 × 1 회	20,000
					신원보증보험 20,000 원 × 1 회	20,000
					○ 시설관리	1,200,000
					엘리베이터유지관리비 100,000 원 × 12 개월	1,200,000
	복지포인트(보조금)	-	1,250,000			1,250,000
	복리후생비	5,000,000	4,578,160	92%		5,000,000
					○ 급량비 8,000 원 × 5 명x 15 회	600,000
					○ 소모품비 10,000 원 × 5 명x 12 회	600,000
					○ 교육문화비 300,000 원 × 5 명x 1 회	1,500,000
					○ 결혼사비 100,000 원 × 3 회	300,000
					○ 팀발 50,000 원 × 5 명x 1 회	250,000
					○ 상담지원비 650,000 원 × 2 명	1,300,000
					○ 기타 37,500 원 × 12 개월	450,000
	방역물품구입비(보조금)	330,000	330,000	100%		-
여비		400,000	420,300	105%		480,000
여비		300,000	311,400	104%		360,000

				◎ 식비 ◎ 교통비 30,000 원 × 12 개월 ◎ 숙박비	- 360,000 -
	여비(보조금)	100,000	108,900	109%	120,000
				◎ 식비 ◎ 교통비 10,000 원 × 12 개월 ◎ 숙박비	- 120,000 -
경상이전		28,500,000	28,334,750	99%	29,441,620
	연금부담금	28,500,000	28,334,750	99%	29,441,620
	퇴직급여부담금	300,000	202,610	68%	412,800
				◎ 퇴직적립금 34,400 원 × 12 개월	412,800
	퇴직급여부담금(보조금)	15,000,000	14,243,020	95%	14,000,400
				◎ 퇴직적립금 1,166,700 원 × 12 개월	14,000,400
	사회보험부담금	1,200,000	1,129,280	94%	239,860
				◎ 국민연금보험료 108,810 원 × 1 개월 ◎ 국민건강보험료 88,910 원 × 1 개월 ◎ 고용보험료 25,380 원 × 1 개월 ◎ 산재보험료 16,760 원 × 1 개월	108,810 88,910 25,380 16,760
	사회보험부담금(보조금)	12,000,000	12,759,840	106%	14,788,560
				◎ 국민연금보험료 543,370 원 × 12 개월 ◎ 국민건강보험료 487,070 원 × 12 개월 ◎ 고용보험료 98,010 원 × 12 개월 ◎ 산재보험료 103,930 원 × 12 개월	6,520,440 5,844,840 1,176,120 1,247,160
자본지출		-	1,870,000		-
	시설비	-	-		-
	시설비	-	-		-
	민간대행사업비	-	-	◎ 기타시설유지보수비	-
	민간대행사업비	-	-		-
	자산취득비	-	1,870,000	◎ 기능보강사업비	-
	자산취득비	-	1,870,000		-
				◎ 비품구입비	-
사업비		141,954,460	95,649,485	67%	125,016,350
	영역별사업비	1,420,000	1,366,280	96%	1,520,000
	모금사업비	1,000,000	946,480	95%	1,020,000
				◎ 후원금출금수수료 85,000 원x 12 개월 ◎ 회원예우사업비	1,020,000 -
	홍보사업비	-	-		-
	홍보사업비(보조금)	-	-		-
	대외협력사업비	20,000	19,800	99%	100,000
				◎ 회의비 ◎ 기타	- -
	대외협력사업비(보조금)	400,000	400,000	100%	400,000
				◎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비	400,000
목적사업비		102,900,000	70,097,193	68%	95,588,000
	생활인지원사업비	22,000,000	10,279,379	47%	19,080,000
				◎ 일상생활지원비 750,000 원x 12 개월 ◎ 식생활보조용역비 360,000 원x 12 개월 ◎ 학교학습지원비 200,000 원x 12 개월 ◎ 의료법률지원부대비용 280,000 원x 12 개월	9,000,000 4,320,000 2,400,000 3,360,000
	생활인생계비(보조금)	20,000,000	12,252,760	61%	15,000,000
				◎ 생계비 1,250,000 개월	
	생활인준계부식비(보조금)	75,000	75,000	100%	75,000
				◎ 준계부식비	
	생활인하계수련회비(보조금)	180,000	160,000	89%	200,000
				◎ 하계수련회비	
	생활인김장비(보조금)	45,000	45,000	100%	75,000
				◎ 김장비	
	생활인사회훈련비(보조금)	3,600,000	3,600,000	100%	3,600,000
				◎ 사회훈련비	
	생활인지원사업비(보조금)	40,000,000	36,725,574	92%	37,392,000
				◎ 일상생활지원비 1,900,000 원x 12 개월 ◎ 학교학습지원비 500,000 원x 12 개월 ◎ 의료법률지원부대비용 209,000 원x 12 개월 ◎ 프로그램비 207,000 원x 12 개월 ◎ 직업훈련비 300,000 원x 12 개월	22,800,000 6,000,000 2,508,000 2,484,000 3,600,000
	생활인명절위문금(보조금)	-	-		-
	퇴소자립지원금(보조금)	5,000,000	-	0%	5,000,000
	도우리지원사업비	12,000,000	6,959,480	58%	15,166,000
				◎ 일상생활지원비 155,000 원x 12 개월 개인연담 자립생활지원비 200,000 원x 7 명 대학입학지원금 1,000,000 원x 5 명 의료법률지원부대비용 50,000 원x 12 개월 ◎ 도우리모임사업비 식비 8,000 원x 20 명x 4 회 다과비 5,000 원x 20 명x 4 회 재료비 20,000 원x 4 회 ◎ 도우리특별기금사업비 개별지원금 500,000 원x 10 명x 1 회 다과비 5,000 원x 12 명x 2 회 식비 8,000 원x 12 명x 1 회 재료비 50,000 원x 1 회	8,860,000 1,860,000 1,400,000 5,000,000 600,000 1,040,000 640,000 400,000 80,000 5,266,000 5,000,000 120,000 96,000 50,000
	연구사업비	-	-		-
특별사업비		37,634,460	24,186,012	64%	27,908,350
	성폭력피해자의료비	25,000,000	12,597,020	50%	15,000,000
	치료회복프로그램	12,000,000	11,372,870	95%	12,490,000
				◎ 개별 강사비 150,000 원x 6 회기x 5 명 다과비 5,000 원x 6 회기x 5 명 ◎ 자기방어훈련 강사비 300,000 원x 15 회기	4,650,000 4,500,000 150,000 5,260,000 4,500,000

					다과비	5,000 원x	15 회기x	8 명	600,000
					재료비	20,000 원x	8 명		160,000
					◎ 심신회복캠프				2,580,000
					교통비	100,000 원x	12 명		1,200,000
					숙박비	70,000 원x	6 일		420,000
					식비	10,000 원x	5 식x	12 명	600,000
					다과비	5,000 원x	2 회x	12 명	120,000
					재료비	20,000 원x	12 명		240,000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금	634,460		216,122	34%
									418,350
					◎ 광열복지원금				418,350
					하계냉방비				-
					월동난방비	209,175 원x	2 개월		418,350
사업		39,394,161	99,394,161	252%					30,000,000
	사업	39,394,161	99,394,161	252%					30,000,000
	예탁금	39,394,161	99,394,161	252%					30,000,000
예비비		50,000	1,318,840	2638%					50,000
	예비비	-	-	-					-
	반환금	50,000	1,318,840	2638%					50,000
	국비보조금	50,000	1,318,817	2638%					50,000
	시비보조금	-	-	-					-
	구비보조금	-	23	-					-
	후원취소	-	-	-					-
	기타	-	-	-					-
차기이월금		86,727,877	61,280,412	71%					58,570,685

재무상태표

제 19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8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19(당)기		제18(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유 동 자 산		781,211,364		507,935,102
(1)당 좌 자 산		781,211,364		507,935,102
현 금		557,480		477,761
보 통 예 금		203,834,210		219,266,420
정 기 예 . 적 금		540,000,000		260,667,023
퇴 직 적 립 예 금		34,146,754		26,962,758
미 수 금		0		69,240
가 지 급 금		2,052,420		0
선 납 세 금		620,500		491,900
(2)재 고 자 산		0		0
Ⅱ.비 유 동 자 산		1,148,529,760		1,175,360,989
(1)투 자 자 산		0		0
(2)유 형 자 산		1,148,409,760		1,175,240,989
토 지		313,063,774		313,063,774
건 물	953,483,600		953,483,600	
감 가 상 각 누계액	127,054,690	826,428,910	103,217,600	850,266,000
비 품	119,630,140		114,935,640	
감 가 상 각 누계액	114,317,361	5,312,779	107,425,010	7,510,630
시 설 장 치	23,413,297		23,413,297	
감 가 상 각 누계액	19,809,000	3,604,297	19,012,712	4,400,585
(3)무 형 자 산		0		0
(4)기 타 비 유 동 자 산		120,000		120,000
기 타 보 증 금		120,000		120,000
자 산 총 계		1,929,741,124		1,683,296,091
부 채				
Ⅰ.유 동 부 채		46,894,083		38,029,858
미 지 급 금		1,346,885		0
예 수 금		9,449,458		8,973,468
가 수 금		0		69,240
퇴 직 적 립 예수금		34,048,231		26,889,457
미환급사업비예수금		98,928		147,112
대외협력사업위탁금		1,950,581		1,950,581
Ⅱ.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46,894,083		38,029,858
자 본				
Ⅰ.자 본 금		225,294,914		225,294,914
보 통 기 금		225,294,914		225,294,914
Ⅱ.자 본 잉 여 금		0		0
Ⅲ.자 본 조 정		0		0

재 무 상 태 표

제 19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8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19(당)기		제18(전)기	
	금 액		금 액	
Ⅳ .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1,657,552,127		1,419,971,319
미 처 분이익잉여금		1,657,552,127		1,419,971,319
(당 기 순 이 익)				
당기 : 237,580,808 원				
전기 : 31,551,559 원				
자 본 총 계		1,882,847,041		1,645,266,23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929,741,124		1,683,296,091

손익계산서

제 19(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8(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 원)

과목	제19(당)기		제18(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1,234,812,172		1,050,164,008
정기후원금	307,460,079		237,588,024	
일시후원금	244,912,392		101,819,998	
현물후원금	3,038,692		2,773,000	
자료이용후원금	3,071,415		2,429,863	
후원행사수입금	0		40,640,000	
국비보조금	341,989,780		520,324,760	
시비보조금	213,284,000		0	
구비보조금	280,000		17,841,410	
성폭력피해자의료비수입	50,000,000		0	
치료회복프로그램	32,740,000		36,435,000	
서울시공익활동지원사업	8,000,000		22,560,349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금	300,000		3,600,000	
NPO지원센터지원금	7,000,000		0	
민간대행사업수입	0		5,200,000	
모낙폐분담금	2,143,500		12,789,891	
찾아가는홍보기부금	20,192,314		46,161,713	
기타수입	400,000		0	
II. 매출원가		0		0
III. 매출총이익		1,234,812,172		1,050,164,008
IV. 판매비와관리비		1,008,058,114		1,026,188,631
기본급여	143,531,180		194,355,390	
사회보험부담금	18,960,405		19,271,530	
상여금	10,647,770		4,000,000	
제수당	30,971,730		0	
퇴직급여부담금	18,618,193		16,528,763	
복리후생비	16,380,830		12,128,450	
여비	1,293,800		0	
공공운영비	1,085,328		13,724,250	
사무관리비	10,770,625		7,684,126	
시설비	0		5,145,381	
감가상각비	31,525,729		30,707,600	
모금사업비	11,804,941		0	
대외협력사업비	3,295,720		2,462,200	
대외협력사업비(보조)	920,000		0	

손익계산서

제 19(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8(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 원)

과목	제19(당)기		제18(전)기	
	금	액	금	액
사무국사업비	9,953,047		13,692,970	
상담사업비	7,565,700		20,342,464	
상담사업비(보조)	984,880		0	
홍보사업비	8,092,139		7,172,261	
홍보사업비(보조)	493,361		0	
인권사업비	2,307,442		4,472,980	
조직사업비	1,467,720		19,423,360	
정책개발사업비	651,950		2,409,060	
연구소운영비	6,885,460		8,513,895	
자기방어훈련비	8,000,000		22,789,567	
조직변화실험실비	6,995,406		0	
파발마기금사업비	252,040		0	
성폭력피해자의료비	62,597,020		67,356,760	
사무관리비(보조)	31,958,118		22,335,400	
공공운영비(보조)	13,569,301		26,341,715	
복지포인트비(보조)	1,250,000		1,000,000	
방역물품구입비(보조)	2,804,980		0	
기본급여(보조)	302,322,340		289,789,090	
제수당(보조)	42,880,200		0	
사회보험부담금(보조)	28,011,160		26,316,570	
퇴직급여부담금(보조)	28,733,010		24,148,630	
공동분담비	1,152,958		10,674,530	
건강지원사업비	0		3,000,000	
여비(보조)	108,900		0	
생활인생계비(보조)	12,252,760		16,511,410	
생활인지원사업비(보조)	36,725,574		33,725,525	
생활인지원사업비	10,279,379		16,385,086	
생활인사회훈련비(보조)	3,600,000		3,600,000	
생활인명절위문비(보조)	0		30,000	
생활인김장비(보조)	45,000		90,000	
생활인춘계부식비(보조)	75,000		90,000	
생활인하계수련비(보조)	160,000		120,000	
퇴소자자립지원비(보조)	0		10,000,000	
복권기금사업비	28,650,460		36,435,000	
연구사업비	0		1,759,880	

손익계산서

제 19(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8(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 원)

과목	제19(당)기		제18(전)기	
	금	액	금	액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비	216,122		865,599	
또우리사업지원비	6,959,480		8,735,345	
민간대행사업비	0		5,200,000	
구비보조금반환금	23		0	
국비보조금반환금	4,174,596		16,769,900	
시비보조금반환금	36,076,305		0	
기타반환금	32		83,944	
V. 영업이익		226,754,058		23,975,377
VI. 영업외수익		15,040,557		12,576,452
이자수익	4,175,180		3,346,197	
상담소보조금	4,200,000		5,000,000	
보조금수입	0		155	
복권내부강사수입	1,800,000		4,122,500	
잡이익	4,865,377		107,600	
VII. 영업외비용		4,213,807		5,000,270
부설기관보조비	4,200,000		5,000,000	
잡손실	13,807		270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237,580,808		31,551,559
IX. 법인세등		0		0
X. 당기순이익		237,580,808		31,551,55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9(당)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제 18(전)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1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 2020년 03월 31일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원)

과 목	제 19(당)기		제 18(전)기	
	금 액		금 액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657,552,127		1,419,971,31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19,971,319		1,388,419,760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과	0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이 익	237,580,808		31,551,559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익액		0		0
1.	0		0	
2.	0		0	
합 계		1,657,552,127		1,419,971,319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0		0
1. 이 익 준 비 금	0		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0	
3. 배 당 금	0		0	
가. 현 금 배 당	0		0	
나. 주 식 배 당	0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0	
5. 감 채 적 립 금	0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0	
IV. 차 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657,552,127		1,419,971,319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팀 · 부설기관 활동계획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30주년 기념사업

1.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의 발자취 _반성폭력 운동의 아카이빙
2.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비전 논의 및 선포
3.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기념식
4.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맞이 리뉴얼
5. 30주년 단행본 발간

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 여성주의상담 윤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여 여성주의 상담과 사건지원의 방향 제시
- 30주년 비전 선언, 단행본 작업, 홈페이지 및 소통·홍보 채널 리뉴얼 작업을 비롯한 30주년 기념 사업을 적극 수행
- 체계적인 일상지원으로 생활인의 삶의 안정 도모
- 교육과 모임, 홍보활동을 통해 생활인·퇴소인과 상담소 활동 공유
- 30년간 축적한 반성폭력운동의 시각으로 섹슈얼리티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담론을 확산할 수 있는 단행본 발간
- 반성폭력운동의 탄탄한 연구 기반을 모색
- 30년간의 발자취를 기록, 정리하고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
-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비전 선포를 통해서 운동의 방향과 좌표를 만들기
- 이미지 리뉴얼 공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롭게, 친근하게, 명확하게 다가가기
- 상근활동가 및 자문위원, 이사회, 회원 등 한국성폭력상담소 운영 참여자의 성장과 소통을 위한 과정 실행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생존자 자조모임의 다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생존자와 현장에서 함께하며 풍성한 연결망 견인·온라인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물리적·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장 형성

-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의 현장에 함께 함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연대망 확장
- 코로나 상황을 유의하며 비대면모임과 물품지원 등의 새로운 방안으로 유대감 확장
- 연구 뿐 아니라 각종 연대 활동 및 소모임을 통해 다양한 배경에서의 관점과 시각들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 형성
- 여성운동, 반성폭력 운동 단체, 연대체들의 성찰 작업, 운동성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 네트워크 마련

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상담 통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존자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필요한 정책 제언
-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을 통해 반성폭력운동 이슈를 발굴하고 새로운 담론제시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적 합의' 개념 정립·확산
- 비동의 강간죄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활동
-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열림터의 의견을 드러내고 각 단체들의 다양한 운동과 연결
- 친족성폭력에 관한 법·정책·제도·문화적 이론과 담론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
- 강간죄 개정,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위력성폭력 사건 정의 실현을 향한 활동

2021년 팀 · 부설기관 활동계획

여성주의 상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통합적 지원체계 안정화에 힘쓴다. 2. 성폭력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3. 생존자 역량강화와 연대의 확장을 모색한다. 4.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 5. 생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한다.
성문화운동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2. 더 나은 활동을 위한 30주년 기념 사업을 수행한다. 3.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에 상담소가 연대하는 의의를 알린다. 4.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회원 및 지지자에게 다가간다.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유회복과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의 일상회복을 돕는다. 2. 퇴소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여 고립을 해소하고 유대를 강화한다. 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진에 방에 힘쓴다. 4. 여성주의 십터운동의 연대를 강화하여 반성폭력운동을 확산한다.
부설 연구소 올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소 반성폭력운동 30년의 의미를 정리하고 확산한다. 2. 상담소/연구소에 축적된 연구와 활동들을 알리고 연대의 고리를 강화한다. 3. 현장에 기반한 반성폭력 이론과 담론을 생산한다.
사무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성찰과 비전으로 함께 열기 2. 반성폭력 운동 의제, 더 너른 연대와 참여로 실행하기 3. 함께 성장,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 지속성 높이기 4. 성평등 인권운동의 성찰성과 영향력 함께 넓히기

2021 여성주의상담팀 활동 계획

202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 여성주의상담 윤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 여 여성주의 상담과 사건지원의 방향 제시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생존자 자조모임의 다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생존자와 현장에서 함께하며 풍성한 연결망 견인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연대망 확장
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상담 통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 여 생존자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필요한 정책 제언 -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을 통해 반성폭력운동 이슈를 발굴하고 새로운 담론제시
팀 활동 목표	
<p>목표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통합적 지원체계 안정화에 힘쓴다.</p> <p>목표2. 성폭력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p> <p>목표3. 생존자 역량강화와 연대의 확장을 모색한다.</p> <p>목표4.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p> <p>목표5. 생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한다.</p>	

목표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통합적 지원체계 안정화에 힘쓴다.

1-1. 여성주의 상담과 통합적 지원의 체계화 및 전문화

• 배경/필요성 :

- 2020년 3명의 상담팀활동가(상근)외에 1명의 상담활동가(반상근)를 주3일 배치하였으나, 상담활동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소진과 재교육 기회의 불균형 등 반상근인 상담활동가의 활동 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에 상담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말 상담팀활동가(상근)를 4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함
- 상담부스는 1차 상담이 주로 진행되는 창구로서, 기본적인 안내 뿐 아니라 심리 정서 지원, 향후 법적, 의료적 지원까지 피해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초기 상담이 진행됨. 안정적으로 상담부스가 운영되는 것은 여성주의 상담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 활동가의 상담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 있음
- 상근활동가들이 직접 상담부스에서 1차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고, 관련 이슈와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져 사건지원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활동가별 지원 경험을 축적하여 역량 강화함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 경험을 통해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강화
-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를 도출하고 법·정책 제언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
- 목표: 전문적인 상담과 사건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상담부스 운영 및 지원 경험 확대

• 방법 및 계획 :

1) 상담부스 운영

: 상담팀 4일(월~목)

: 상근활동가 1일(금) 2타임(10:00~12:30 / 1:30~16:00) 배치

2) 사건 지원

: 개별 사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되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개개의 사안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의제 및 지원 여부 검토

: 활동가별 총 10사례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기관으로 적극 연계. 격주 1회의 업무회의 시 지원사례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 및 사건지원의 질 향상

3)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단위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의 경우, 팀 회의 및 상근활동가 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원 전략 논의

: 활동가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대 활동을 경험

: 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

연대체	담당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랑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감이, 파랑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유랑, 경진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 상담 부스 및 사건지원의 안정화
-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 공동대응을 통한 깊이 있고 전략적인 사건지원 모색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을 통한 연대감 성취 및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 강화

1-2. 성폭력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적 지원

• 배경/필요성 :

- 성폭력은 여성의 건강권과 연결됨. 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제언이 필요
-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 도모를 위한 정신적, 신체적 치유로의 접근성 향상
- 미투운동 등 피해생존자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호소가 증가하여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한 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유가 절실하나, 의료 및 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기존 의료비 지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피해생존자들에게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목표: 치료비 지원을 통한 성폭력 생존자의 의료적, 심리적 안정 도모하며, 피해생존자로서 공식적인 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예외적인 치유과정이 필요한 내담자를 지원

• 방법 및 계획 :

1) 의료비

- 1인 6개월 이내 3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
- 팀 내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결정
-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 및 상담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례를 충실히 관리

2) 개별상담(복권기금)

- 전화 상담을 통해 수시 지원자 확보
-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피해자 연계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도모하며 의료지원체계 파악
- 의료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소외되기 쉬운 피해생존자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로써 안정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
- 개별상담의 경우 전년도 대비 이용 대상 인원을 줄이는 대신 대상자 1인당 회기수를 연장(10회기→15회기)을 통해 주호소문제를 보다 깊게 다룰 수 있음

1-3. 여성주의 상담 윤리규정 및 매뉴얼 공식화

- 배경/필요성:
 - 30주년을 맞아 상담활동가 윤리규정 및 상담 매뉴얼 마련
 - 상담 및 사건지원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일관적인 지침과 기준 필요
 - 처음 상담활동을 시작하는 상담활동가를 위한 여성주의 상담 교육 자료 필요
- 목표 : 여성주의 상담 윤리 규정 및 매뉴얼을 통한 사건지원 및 상담 기준 방향 제시
- 방법 및 계획:
 - 주요원칙매뉴얼TF팀 및 상담팀 회의 통해 윤리규정 및 상담 매뉴얼 활용 방안 논의
 - 윤리규정 및 상담 매뉴얼 완성 후 상근활동가에게 공유
 - 홈페이지 게시 및 사무실 배치
- 기대효과:
 - 윤리규정을 통한 상담활동가의 의무 및 권리 공식화
 - 상담 매뉴얼을 통한 상담활동가의 역량강화 및 상담의 질 향상

1-4. 월요법률상담

- 배경/필요성:
 - 무고와 역고소, 명예훼손, 성매매 중 성폭력 피해 사건 등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움츠러들게 하는 많은 상황 존재
 - 피해자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에서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들과의 유대감 확장 및 연대가 필요함
- 목표: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생존자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체계적인 법적지원 제공
- 방법 및 계획:
 - 2월 중 홈페이지 홍보 및 지원자 확인
- :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률자원활동 의사를 밝힌 신규변호사와 기존 변호사 매칭하여 실습 진행
- : 신규변호사의 경우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 3월~11월 법률상담 진행
- : 격주 1회, 1회당 2건의 상담 진행
- 담당자: 파랑
- 기대효과:
-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에 대한 갈증 해소
- 사건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법적 지원을 함

1-5. 파발마 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 지역에 사는 피해자의 원활한 사건 지원을 위해 기부된 지정기부금 [파발마 기금]의 적극적 운영 필요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면접상담이 증가하는 상황. 이에 IT인프라 소외현상을 겪는 내담자가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참여를 위한 IT인프라 지원 필요
- 목표: 지역의 내담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IT인프라 지원
- 방법 및 계획:
- 1인 50만 원 지원 한도
- 사건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 비서를 지역에 사는 내담자에게 교통편 및 숙박 시설 비용 지원
- IT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내담자가 비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트북 혹은 공간 대여료 지원
- 지정후원자에게 기금 사용 변경 건 및 지출 내역 보고
- 담당자: 파랑
- 기대효과:
-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건지원과 활동 참여 담보
- 경험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새로운 일상에 피해자가 적응할 수 있음

목표2. 성폭력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2-1. 상담통계 분석

- 배경/필요성 :
- 본 상담소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생존자들의 전화상담이 많아, 통계분석을 통해 최근 성폭력 관련 이슈의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음
-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사회 이슈에 대응하고 반성폭력 의제를 확산하고자 함.
- 2018년 자원활동상담원제도가 폐지되면서 1차 초기 상담 이후 지속지원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존과는 다른 내용과 방식의 상담 통계 분석 필요성이 대두됨
- 목표: 상담일지와 통계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지원현황 파악과 이슈대응 및 발굴에 활용
- 방법 및 계획 :
- 상담일지 교차 확인 및 검토 : 상담팀 활동가의 일지 검토 및 슈퍼비전 진행
- 월별 일지 점검 : 매월 초 전월 누락 일지 확인 및 월별 통계 데이터 정리

- 지자체 및 여가부 등 실적보고 : 요청 시 상담 관련 실적 및 통계 보고
- 지원 현황 보고 : 이사회, 나눔터, 상하반기 평가회의 등 지원 현황 보고
- 이슈별 통계 제공 : 필요시 혹은 요청시 해당 이슈와 관련한 세부적 상담 통계 분석 제공
- 일반상담통계 및 세부통계 배포 : 전체 및 키워드 중심의 1년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외화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 상담일지 분석자료를 외화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책 제언

2-2. 효과적인 상담통계 활용을 위한 논의

- 배경/필요성 :
 - 초기상담이 많은 상담소의 특성상 현시기의 주요한 성폭력 상담 경향 파악 가능
 - 반성폭력 운동 이슈 대응에 상담통계의 적절한 활용 필요
- 목표: 논의를 통해 상담통계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
- 방법 및 계획:
 - 반성폭력 이슈에 상담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 3월 중, 연구소 및 상담팀 내부 업무회의를 통해 상담통계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내용 정리
 - : 외부 자문을 통한 교육 또는 통계 및 일지 개선
- 담당자: 유량
- 기대효과 :
- 이슈 대응을 위한 상담 통계 활용

2-3 일지읽기모임

- 배경/필요성:
 - 해당 모임에 활용할 일지 선별부터, 진행과 평가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슈 발굴하고 현황 파악 도모
 - 최근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례담당자만의 상담 및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 있음. 이에 상담활동가들과 의견 나눔을 통해 다양한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목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도 향상 및 전체활동가의 역량강화
- 방법 및 계획:
 - 전체 활동가 대상
 -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 오전: 상담일지사본 배포 및 읽기, 오후: 의견나눔 및 평가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발굴된 이슈를 통계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추후 유사사례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 가능
 -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담당자의 심리적 소진 해소

목표3. 생존자 역량강화와 연대의 확장을 모색한다.

3-1. 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상담소에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와 구별하여 더욱 가까운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인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가 있음
 -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말하기의 힘과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 작은 말하기는 본인의 피해 경험을 재해석하고 피해자 간 연대가 가능한 일상적인 말하기 공간으로서 중요성을 가짐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피해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 마련
- 방법 및 계획:
 -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회 진행
 - : 매달 참가신청 받아 모집(모집인원 기준: 활동가 포함 13명 내)
 - :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집인원 기준을 최대한 적용
 - :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 대관하여 자유로운 말하기 진행
 - : 이후 참여 소감과 설문 진행
 - : <모임후기> 작성하여 사후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
 - : 12월에는 작은말하기 송년회 행사 진행
 - 전염병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진행방식

단계	주요 방역조치	진행방식
1단계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종교>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활동가 포함 13인 이내 참여자 모집 - 일회용 마스크, 체온계 및 손소독제 구비 - 상호 2m 이상 간격 유지 가능, 환기가 가능한 공간 대여 - 식사 안 할 때는 마스크 착용
1.5단계	<모임/행사>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종교>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활동가 포함 10인 이내 참여자 모집 - 일회용 마스크, 체온계 및 손소독제 구비 - 상호 2m 이상 간격 유지 가능, 환기가 가능한 공간 대여 - 식사 제공 없이 마스크 착용 후 모임 진행
2단계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종교>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2단계 이상이 되면 모임 취소 - 2단계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3개월째에는 온라인 비대면 모임 진행
2.5단계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종교>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3단계	<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 <종교>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세부일정

상반기	3/31(수)	4/28(수)	5/26(수)	6/30(수)	7/28(수)
하반기	8/25(수)	9/29(수)	10/27(수)	11/24(수)	12/15(수)

- 담당자: 파랑
- 기대효과:

- 피해 경험을 말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치유의 힘을 얻음
- 작은말하기 공간을 통해 피해생존자 간 지지망 구축

3-2. 존엄한 생존자의 신나는 외출(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미투운동 이후 내담자 및 작말 참여자들의 대외적인 말하기 욕구가 커짐에 따라 정교하게 세팅된 말하기 무대가 아닌 작은 규모의 집회나 게릴라식 퍼포먼스 형태의 아웃도어 액션으로 기획하고자 함
- 목표: 외부 장소에서 생존자들의 힘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 마련
- 방법 및 계획:

시기	장소	내용
3/31	작은말하기	취지 설명 및 기획참여 제안
4~5월	본 상담소 내·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 구성 - 세부 기획회의 2회 - 준비 실무회의 1회
6월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바이버 아웃도어 액션<존엄한 생존자의 신나는 외출> - 게릴라 홍보 - 진행 - 후기 작성하여 외화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생존자리더십 구현과 그를 위한 조력의 경험 축적

목표4. 더 나은 사건자원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

4-1. 사건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 지원단체별 사건자원의 체계 운용의 방식과 지원 전략의 상하므로 타 상담소와의 교류 및 슈퍼비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유대적 활동을 통해 연계망을 확대. 지원자 간의 고충을 나눔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 토대를 마련
 - 개별 사안을 지원하는데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전체 상근활동가들에게 묻고 나누며, 종결까지의 지원 과정 및 체계 대한 공유 및 평가를 통해 이후 지원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확인하는 등 각 활동가가 지원하는 사례의 경험을 공유함. 상근활동가가 함께 사례를 검토하고 고민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 기회제공
- 목표: 사건자원의 경험을 정리·공유함으로써 개별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함
- 방법 및 계획 :

분류	시기	내용
----	----	----

전문가슈퍼비전	5/13, 10/7	상담 사례의 성격에 맞는 슈퍼바이저를 섭외하여 전문가 슈퍼비전 진행 (상, 하반기 2회)
동료슈퍼비전	8/20	타 상담소 교류 및 사례 슈퍼비전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상시	상근자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담 사례를 나누고, 지원방법을 논의함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상담 및 사건 지원 역량 강화와 활동가 소진 예방

4-2. 자문회의

- 배경/필요성 :
 -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적 사건지원 활동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음
 - 자문위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가할 수 있음
 - 법률, 의료, 심리적인 자문뿐 아니라 상담소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도모함
- 목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며 자문위원들의 상담소에 대한 연대를 활성화함
- 방법 및 계획 :
 - 법률, 의료, 상담 분야 자문위원의 통합자문위원회를 3월 중 개최
 - 상시 자문 활성화: 사건지원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자문을 활성화하여 사건지원의 질을 높이고 연대함

팀 자문회의	3/25	- 법률, 상담, 의료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 - 팀 보고 및 안건 논의
--------	------	--------------------------------------------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 활성화된 자문활동으로 상담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높이고, 양질의 상담 및 사건지원 도모

4-3.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 상담 및 사건지원으로 개별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도록 1년차, 3년차에 재충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하므로, 지속가능한 활동지원을 위해 상담팀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 예방을 진행함
- 목표: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
- 방법 및 계획 :
 - 1년차 활동에 해당하는 1인의 활동가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프로그램을 진행
 - 금액 부족분 발생 시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소진예방프로그램 적극 활용
- : 방법, 시기 등은 개별 활동가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되, 상근자 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회복탄력성을 높임

목표5. 생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한다.

5-1.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더 많은 사건지원자 양성 필요
 - 반성폭력 교육의 필요성 및 성폭력 관련 법, 지원체계, 지원내용의 대중적 확산 필요
 -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실시에 대한 많은 수요
- 목표: 성폭력 전문 상담원 기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건지원자 양성
- 방법 및 계획:
 - 교육 기획
 - : 연구소와 커리큘럼 및 강사 논의
 - : 3~4월 기획팀 구성 및 세부 기획 논의, 강사 섭외
 - 성폭력 전문 상담원 기본교육 실시
 - : 7월에 주중 (10시-5시) 100시간 진행
 -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 예정
 - : 교육 이후 상담소 활동에 참여할 기회 고려 (법정 모니터링 소모임 등)
- 기대효과 :
 - 여성주의 시각과 지원역량을 갖춘 독보적 사건지원자 양성
 - 사건지원 활동을 함께 할 인적자원을 확보

5-2 의료기관 네트워크

- 배경/필요성:
 - 피해생존자들이 방문하는 기관과의 회의와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활동을 도모
 - 신규 피해생존자들이 상담소를 이용하기 전부터 방문해오던 의료기관의 경우 성폭력피해 및 기관 이용자 등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진료 및 상담의 질이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활동이 요구됨
 - 피해생존자들은 성폭력 피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호소함. 이처럼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 가능한 새로운 기관 탐색 활동이 필요함
- 목표: 소통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의료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
- 방법 및 계획:
 - 비대면 소통
 - : 사례 진행 상황에 따라 유선을 이용한 소통
 - 신규 기관 탐색
 - : 기존 의뢰 기관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여성폭력방지 활동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
 - 대면 소통
 - : 1년 중 약 3회(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장기 의뢰 기관 - 점검회의를 통한 개선 사안 등의 논의

: 신규 의뢰 기관 - 기관 안내를 통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도 높임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각기 다른 피해자생존자들의 주호소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기관에 진료 의뢰 가능

- 피해생존자 지원 외에도 상담소 차원에서 필요한 의료적 자문을 구할 수 있음

2021 성문화운동팀 활동 계획

202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 30주년 비전 선언, 단행본 작업, 홈페이지 및 소통·홍보 채널 리뉴얼 작업을 비롯한 30주년 기념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온라인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물리적·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장 형성. -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의 현장에 함께 함.
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적 합의' 개념 정립·확산. - 비동의 강간죄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활동을 함.
팀 활동 목표	
<p>목표1.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p> <p>목표2. 더 나은 활동을 위한 30주년 기념 사업을 수행한다.</p> <p>목표3.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에 상담소가 연대하는 의의를 알린다.</p> <p>목표4.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회원 및 지지자에게 다가간다.</p>	

목표1.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1-1.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적극적 합의'

• 배경/필요성:

- 전 사회적인 성폭력 말하기 흐름 속에서 성폭력이 협소하게 인정되는 현실이 드러났으며 새로운 판단 기준 '적극적 합의'를 통해 바꿀 필요가 있음. 공론화되었던 성폭력 사건들은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를 활용하여 명백한 폭행·협박 없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음. 실제 성폭력 사안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속임수나 신뢰 등 피해자와의 관계, 저항할 수 없는 맥락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법적 인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로 제한하여 인정하는 실정임.
- 다가올 강간죄 개정을 '적극적 합의' 담론 확산을 통해 사회적 견인할 필요가 있음. 강간죄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고 있음. 국내적으로는 19대 국회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5개 정당에서 10개의 형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이어서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두 개의 강간죄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음. 국제적 수준에서도 성폭력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보편적인 추세임.

- 반성폭력 운동 현장의 언어가 반영된 ‘적극적 합의’ 개념이 필요함. 상담소는 그동안 2017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발간, 2018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및 워크북 발간, 2019년 <의심에서 지지로> 사업과 <적극적 합의>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극적 합의’ 담론화 작업을 진행해왔음. 2021년에는 ‘적극적 합의’ 담론의 현 흐름을 확인하고 기본 개념을 정립·확산하고자 함.
- 목표: 성폭력의 새로운 판단 기준이자 미투 운동 이후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적극적 합의’ 개념을 심화 및 확장하고 대중화함.
- 방법 및 계획:
 1. 성교육, 성폭력 지원 현장에서 활용될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워크북 제작
 -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자문을 받아 자료를 제작하며, 기획부터 활용의 전 과정에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 합의’ 개념 및 담론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자료 및 대중 인식 조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현장 가이드라인/워크북 제작
 2. ‘적극적 합의’ 담론 심화 및 확산하기 위한 연속집담회
 - ‘적극적 합의’를 둘러싼 구체적인 실질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장을 마련함. 개인들의 성적 관계 및 실천을 보다 입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함.
 - 연속집담회 진행, 집담회 심층 취재 및 언론 기고, 사후 자료집 배포
 3.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젠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합의’ 대중 콘텐츠 제작
 - 자칫 이론적일 수 있는 ‘적극적 합의’라는 개념을 대중이 더 가볍고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성평등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 홍보함.
 - 대중 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개념의 시청각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진행
- 담당자: 달별, 신아, 얍
- 기대효과:
 - ‘적극적 합의’ 개념을 심화하고 확산함으로써 성폭력 판단 기준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함.
 -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성교육 현장에서 ‘적극적 합의’가 활용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잡음.
 - 대중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젠더 감수성을 높임.

1-2.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 모니터링

- 배경/필요성: 상담소는 그동안 2006-2007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2015-2017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사업’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배제해온 법과 판결을 분석·비판해왔음. 2019년에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발족, 성폭력 관련 법의 기본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없음’으로 개정하기 위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음.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안, 류호정 의원안 등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대중적 여론화가 필요함.
- 목표: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활동가, 회원, 대중 등과 공유함.
 -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국회 및 대중에 구체적으로 알림.
- 방법 및 계획: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 상시 모니터링, 필요시 이슈대응 활동으로 연결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사무국과 협업)
- 담당자: 달별, 앞
- 기대효과: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의 변화를 신속하게 확인·검토하여 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에 반영함.
- 성폭력 판단기준으로서 ‘동의’, ‘적극적 합의’ 개념에 관한 담론을 확산하며 대중 인식을 개선함.
- 제21대 국회가 비동의강간죄 개정 법안을 더는 미루지 않고 하루속히 논의 및 가결하도록 촉구함.

1-3. 여성주의 관점의 이슈대응

- 배경/필요성: 성폭력은 성별규범과 가부장적 성문화, 권력관계가 사회구조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구조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함.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근절을 위해서는 성폭력 행위나 성폭력 사건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가 성평등하게 변화해야 함.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변화는 성폭력만 제거된 사회가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조건이 함께 만들어지는 것임. 이를 위해 반성폭력 현장단체로서의 경험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수준의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 목표: 시시각각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여성주의 시각을 기반으로 한 상담소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알려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사회적 담론 형성.
- 방법 및 계획:
 1. 단호한 시선: 월 1회 이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단독 성명/논평, 카드뉴스 등으로 법제도, 담론, 성문화 등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함.
 2. 연대성명 및 논평: 여/성/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성명과 논평 등에 연대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카이빙하고 알림.
 3. 온/오프라인 이슈대응활동: 적극적 대응이나 토론이 필요한 이슈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긴급집담회, 온라인 액션,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을 추진함.
- 담당자: 달별, 신아, 앞
- 기대효과: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점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법·제도·문화에 비판적으로 개입함.
- 정해진 사업이나 이슈 외 사건들을 놓치지 않고 예리한 관점을 개진함으로써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함.

목표2. 더 나은 활동을 위한 30주년 기념 사업을 수행한다.

2-1. 상담소 30주년 기념 사업 수행

- 배경/필요성: 2021년 상담소는 개소 30주년을 맞이함. 이에 그동안 상담소가 연 주요 전략과 의제, 성취를 소개하고 변화한 지형을 진단하며 새로운 과제를 짚어보는 ‘반성폭력 운동 발자취’ 사업, 상담소 반성폭력 운동의 비전을 모색하고 공공적으로 공유하는 ‘비전 선포’ 사업 및 ‘기념식’ 사업, 상담소 활동을 이론회하는 ‘단행본 발간’ 사업, ‘홈페이지 및 소통/홍보 채널 리뉴얼’ 사업,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적극적 합의’ 담론 확산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음. 성문화운동팀도 다년간 축적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30주년 이후의 상담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어가고자 함.
- 목표: 성문화운동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타 팀과의 협업을 통해 30주년 기념 사업을 수행함.

- 방법 및 계획 : 비전 선포 및 기념식 사업, 홈페이지 및 SNS 리뉴얼 사업 등에 기획·실무 담당으로 협업, 단행본 제작 사업에 저자로 참여, 그 외 상담소 30주년 기념 사업 실무 참여
- 담당자: 닷별, 신아, 얌
- 기대효과: 3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지난 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감.

2-2 홈페이지 및 소통·홍보 채널 리뉴얼

- 배경/필요성: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지지자 그룹·개인과 만나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상담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연결오류, 모바일 최적화가 되지 않는 문제, 가독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리뉴얼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가독성 좋게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모바일 최적화를 달성함
 - 상담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 페이지의 기반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1. 모바일 최적화
 - 현재 홈페이지를 모바일 버전으로 리디자인 할 수 있는 업체 탐색 및 기타 플랫폼 미팅
 - 전반적인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개선 회의 진행
 2. 아카이브 체계 마련
 - 스마트워크TF 아카이브 체계 관련 인수인계 회의 진행
 - 시민단체 아카이브 사이트 탐색 및 자문
 - 아카이브 전문 업체 미팅 및 선정
- 담당자: 닷별
- 기대효과: 온라인 공간의 접근성이 좋아져 상담소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됨.

목표3.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에 상담소가 연대하는 의의를 알린다.

3-1.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운동

- 배경/필요성: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자로 효력을 잃었음. 수많은 여성과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마침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뤄낸 것임. 2021년에는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등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
- 목표:
 - 낙태죄 폐지 이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와 사회문화 조성
 - 임신중지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담론 확산
- 방법 및 계획 : 연대활동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입법 모니터링 및 적극적 의견 개진
 - 시의성 있는 이슈대응 및 대중인식 개선 활동
 - 모낙폐 사업비 모금과 집행 위탁 처리

- 담당자: 얌
- 기대효과:
 - 국회 및 정부가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도록 견인하고, 접근성을 낮추는 장벽을 만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 각계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행동을 통해 성·재생산 권리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시의성 있게 논의하고 추진함.

3-2. 반차별운동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배경/필요성: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안과 함께 국회 입법을 권고하였음.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고자 하는 등 20대 국회에서 발의 초차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 그러나 2020년 하반기에 발의 준비 중으로 알려졌던 종교기관예외조항이 명시된 평등법은 차별금지법이 마주한 장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음.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애초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공공영역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차별 및 혐오를 예외로 만드는 여지가 발생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원칙을 확인하고 종교기관예외조항의 문제점을 전사회적으로 알리며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대중의 더욱 단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촉구함.
 - 여성인권운동 및 반성폭력운동 현장의 관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림.
- 담당자: 신아
- 방법 및 계획: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략조직팀에서 활동, 집행위 참여
- 기대효과: 성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인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차별운동과 반성폭력운동을 연결함.

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배경/필요성: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8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연대체를 함께 발족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대응해왔음. 군형법 제92조의6(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은 사실상 동성 간 합의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사회적으로 동성애 혐오와 이성애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고, 그동안 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자행하거나, 성폭력 가해자를 축소 처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왔음. 그동안 3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고(2002년, 2011년, 2016년), 2차례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2014년, 2017년)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로 이어지는 못하였음.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으나 수년간 계류 중이므로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목표:
 - 헌법재판소에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 결정을 촉구함
 - 군형법상 ‘추행’죄가 어떻게 왜곡된 성문화·인식을 만들고 성소수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함.

- 방법 및 계획: 연대활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헌법재판소 모니터링 및 대응
- 변호인단과 소통 및 연대
-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워크숍 등을 통한 대중과 시민사회 연대·조직
- 담당자: 얏
- 기대효과: 대중과 시민사회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조직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촉구함.

3) 서울퀴어문화축제

- 배경/필요성: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된 지 20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역퀴어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혐오세력의 목소리와 제도권의 차별 또한 지속되고 있음. 코로나19로 혐오의 확대-재생산이 심화된 요즘,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함께 목소리 내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목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연대하고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와 상담소의 의제를 알림.
- 방법 및 계획: 온라인부스 참여 및 캠페인 기획·실행, 자원활동가 및 인턴 참여 독려
- 담당자: 달별
- 기대효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함께 목소리 내고 자긍심을 높이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상담소를 알림.

3-3.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배경/필요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부터 28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에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 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곱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정부 여전히 2015한일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합의의 상징인 화해·치유재단이 2019년에 공식 해산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점으로 정기 수요시위를 연 1회 주관함으로써, 일본군 성노예제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폭력의 역사이자 끝나지 않은 문제임을 밝힘.
- 방법 및 계획: 제147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 성유정, 정민정 인턴활동가(씨티-경희 NGO인턴십) 주도의 기획 및 실무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및 수요시위의 역사에 대한 공부와 사전 답사 진행
-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둘러싼 성폭력 통념 및 피해자상에 대한 균열을 도모
- 활동 후 실무자 및 상근자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정의기억연대에 전달하여 상호 평가 진행

제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시 : 2021년 2월 10일(수) 오후 12-13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전체 순서

: 여는 노래 <바위처럼>

: 경과 보고(정의기억연대)

: 참가 단체 소개
: 문화공연
: 연대 발언
: 성명서 낭독

- 담당자: 신아
- 기대효과 : 상담소가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에 연대하는 이유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논의하며 정의기억연대와 상호 평가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역사를 문제화하는 다중적인 목소리에 동참함.

2) 3.8 세계여성의날

- 배경/필요성 :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로 전세계 여성들이 연대하는 날임. 그동안 상담소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며 2018 '세계여성인권운동지도' 제작·배포, 2019 'ONE BILLION RISING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전국 공동 퍼포먼스 진행 및 뮤직비디오 제작·배포, 2020 'SNS 발언대:3.8 말하기' 온라인 액션 등 여성 연대를 확인하는 활동을 진행해왔음. 올해는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하여 온라인 기반으로 새로운 연대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목표: 여성단체로서 연대의식을 확인하며 여성인권운동의 가치를 확산함.
- 방법 및 계획 :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함.
- 담당자: 닷별, 앞
- 기대효과: 상담소의 올해 주요 의제를 대중과 공유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연결하여 유대감을 강화함.

3) 다양한 연대활동

- 배경/필요성: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이슈를 대중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성폭력과 성차별을 양산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연대함.
- 방법 및 계획: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 활동 및 신규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연대체	내용	담당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네트워크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철회시키고,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공론화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신아
전환치료근절네트워크	전환치료의 문제를 알리고, 전환치료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한다.	앞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생리대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하며, 나아가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진다.	신아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하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비롯한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맞서기 위한 여성단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한다.	감이

- 담당자: 신아, 앞
- 기대효과 :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폭을 넓혀, 구조적 변화를 위한 힘을 모아내는 경험을 쌓음.

목표4.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회원 및 지지자에게 다가간다.

4-1. 후원회원 확대 및 예우

1) 정기후원

- 배경/필요성: 후원회원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회원예우에 공을 들일수록 후원회원이 느끼는 효능감이 커짐. 반성폭력 운동의 영역으로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이 필요함.
- 목표: 후원회원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방식의 후원 유도, 정확한 절차 진행으로 후원회원과 신뢰 관계 형성, 후원중단율을 낮추고 반성폭력 운동의 지지자 확대.
- 방법 및 계획
 - 신규회원관리: 스마트레이저 확인 및 개별 전화 소통, 신규회원 웰컴키트 발송, 신규회원 굿즈 개발
 - 기존회원관리: 미납 알림 및 장기미납회원 관리, 총회 정회원 안내 및 소통, 소모임 홍보 및 참여 독려, 3/5/10년 지속후원자 특별예우 시스템 정비
- 담당자: 닷별
- 기대효과: 후원회원이 증가하고 후원을 장기간 지속하는 회원이 많아짐.

2) 일시 및 특별후원

- 배경/필요성 : 정기적인 후원을 부담스러워하는 후원자,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어하는 후원자,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후원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시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일시 후원자가 장기적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가 필요함.
- 목표: 상담소 활동과 후원을 연결하고, 후원 필요성과 효과를 공유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일시후원: 감사인사 및 연말정산 안내
 - 특별후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후원사례 발굴하여 이미지와 함께 후원스토리 SNS 게시
- 담당자: 닷별
- 기대효과: 일시 및 특별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증진함.

3) 문자후원

- 배경/필요성: 전통적 후원방식인 정기후원에 부담을 느끼는 후원자들이 다수 존재함. 문자후원 업체의 리뉴얼이 완료되어 문자후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지금, 일회성으로 여윌돈이 생겼을 때 몰아서 후원하는 방식도 낯선 사람들에게 가벼우면서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후원이 필요함.
- 목표: 주기적인 문자 내역 체크 및 홍보를 통한 문자후원 빈도수 증가
- 방법 및 계획:
 - 특정 기념일이나 상담소 행사에 문자후원 홍보
 - 문자후원 이벤트 진행
 - 연 2회 문자후원 후기 발행
- 담당자: 닷별
- 기대효과: 상담소 인지도 및 모금액수 증가

4-2. 온라인 소통 및 홍보

- 배경/필요성: 모든 사람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 지금,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공간이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역시 온라인 공간을 의견 교류의 장이자 새로운 담론 습득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특히나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만남이 어려운 요즘 다양한 의제가 오가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할 다양한 주체를 만나야 함.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외화, 상담소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
- 방법 및 계획:
 - SNS 상시 관리 및 활성화
 -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상시 관리
 - 카드뉴스, 영상 등을 이용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 및 반성폭력 담론 외화
- 담당자: 닷별
- 기대효과: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상담소 활동을 널리 알려 잠재적 후원회원을 확보함.

4-3. 이메일 소식지 발송 및 관리

- 배경/필요성: 상담소 회원 및 지지자에게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목표: 회원과 이메일 소식지 구독자 및 유관기관에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상담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함.
- 방법 및 계획: 월 1회 이메일 소식지 발행(2021년 1월호~12월호, 총12회)
- 발송 대상: 상담소/열린터 회원 및 구독자, 여성·시민사회단체, 성폭력상담소, 언론 등
- 발송 내용: 주요 활동 홍보 및 이슈 전달
- 담당자: 신아
- 기대효과: 매월 회원 및 구독자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소 활동 소식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채널로 기능함.

4-4. 나눔터 발간

- 배경/필요성: 나눔터는 1991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개소 초기부터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임.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회원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음. 2010년 여름에 발행된 6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주기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회원소식지로서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했음. 매호마다 상담소의 상반기/하반기 주요 활동 소식을 알리고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나누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상담소의 연간 상담통계를 공유하고 있음.
- 목표: 상담소의 활동을 기록·홍보하고,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에게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하며, 회원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회원 소통 증진을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나눔터 87호 발간(1월), 88호 발간(7월), 89호 발간 준비
- 기획 회의를 통한 내용 구성 및 필자 선정
- 원고 청탁 및 수합
- 편집 및 편집 디자인(외주 제작), 교정
- 발간 및 홍보, 발송·배포
- 반송분 처리
- 담당자: 닷별(하반기), 앞(상반기)
- 기대효과:
 - 상담소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상근/자원/인턴 활동가, 회원, 비회원 등)의 목소리를 통

- 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상담소에 친숙감을 느끼게 함.
- 더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생존자의 경험과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함.

4-5. 회원 참여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이 상담소를 보다 친근하게 여기고,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행사들을 소소하게 만들어,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상담소와의 접점을 늘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1. 회원 놀이터(연 2회)
 - 상반기(4월)와 하반기(11월)에 각 1회 진행
 - 비혼 여성 유연장 쓰기 워크숍,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성폭력 판결문 쓰기 워크숍 등 진행 상담소가 만나고 싶은 그룹들과의 활동 기획·추진
 - 다양한 생존자, 주변인, 페미니스트 회원들이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채널(ZOOM,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
 2. 회원소모임(연중)

소모임명	성격	담당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여성주의 수다 모임	성문화운동팀 앞
내가 반한 언니	페미니즘 콘텐츠 비평 모임	성문화운동팀 신아/달별
매서운 눈초리	2019년 기본교육 후속 법정모니터링 소모임	여성주의 상담팀 감이
싸우기위해읽는다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연구소 주리
자원활동가 소모임	반성폭력 활동 기획 및 실행	성문화운동팀 앞

- 담당자: 달별, 신아, 앞
- 기대효과: 상담소에 소속감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은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회원들은 후원회원 가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4-6. 자원활동가 모집 및 소통과 연계

- 배경/필요성: 자원활동가는 상담소 활동의 적극적인 지지자/참여자/동료이자 외부의 시선에서 피드백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중과 상담소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지속적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함으로써 자원활동가를 확대하고 잠재적 활동가 및 회원들과의 만남을 늘리고자 함.
- 목표:
 - 코로나19 시국에서 자원활동가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함.
 - 자원활동가들이 반성폭력 활동 주체로서 상담소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원활동 신청자를 중심으로 격월 1회(총5회) ‘자원활동 신청자 모임’ 진행
 - 프로젝트 및 일상 업무에서 자원활동가의 수요가 있거나, 활동을 신청하는 자원활동가가 있는 경우에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계
- 담당자: 앞
- 기대효과:
 - 자원활동가들이 상담소에 소속감과 친숙감을 느끼도록 하며, 다양한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자원활동 신청자 모임을 통해 상담소 자원활동가로서 숙지해야 할 ‘이 공간의 약속’, ‘비밀유지 의무’ 등을

안내·교육하고, 각 자원활동가가 스스로 상담소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실행함.

4-7. 자문회의

- 배경/필요성: 성문화운동팀의 운동 방향, 사업내용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긴밀한 자문과 참여를 활성화함.
- 목표: 자문위원들의 익숙한 혹은 낯선 시선으로 성문화운동팀의 2021년 활동 방향, 특히 ‘적극적 합의’와 온라인 활동을 중점에 두고 점검함.
- 방법 및 계획: 상반기 내 1회 성문화운동 자문위원들과 온라인/서면 자문회의 개최
- 담당자: 닷별, 신아, 얀
- 기대효과: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문화운동의 빈 공간을 채움.

2021 부설 열림터 활동 계획

202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 체계적인 일상지원으로 생활인의 삶 안정시킨다. - 교육과 모임, 홍보활동을 통해 생활인· 퇴소인과 상담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 눈다.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코로나 상황을 유의하며 비대면모임과 물품지원 등의 새로운 방안으로 유대를 넓힌다.
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열림터의 의 견을 드러내고 각 단체들의 다양한 운 동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다.
팀 활동 목표	
<p>목표1. 치유회복과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의 일상회복을 돕는다.</p> <p>목표2. 퇴소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여 고립을 해소하고 유대를 강화한다.</p> <p>목표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진예방에 힘쓴다.</p> <p>목표4. 여성주의 심터운동의 연대를 강화하여 반성폭력운동을 확산한다.</p>	

목표1. 치유회복과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의 일상회복을 돕는다.

1-1. 일상생활지원

- 배경/필요성 : 열림터 특성상 각 생활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이 매우 다름. 입소 이후 생활인의 욕구와 현재 필요한 지원 내용을 사정하여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인 간의 지원 편차를 줄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 목표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야 할 생활인들에게 특성에 따른 개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일상을 회복하여 스스로 자립하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방법 및 계획 :

입소의뢰	의뢰 단계에서부터 연계기관에 열림터의 생활규칙과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여 적절한 입소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용 공간 확보로 입소인의 수에 제한을 둬. 공동생활이 어려운 입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도록 함.
입·퇴소 지원	입소 전 코로나 검사를 지원하여 안전한 입소를 도움.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소 절차를 진행함. 퇴소 전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열림터와 지속적인 교류할 수 있도록 함.
생활지원	용돈, 교통비, 미용비, 의류구입비 등 지급. 외식(명절, 퇴소환송회 등) 입소사실확인서 등 필요서류 발급. 주민센터, 은행 등 기관 동행. 가족회의.
생활상담지원	열림터 생활 과정에서 비롯되는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생활인별 개인 상담 진행.
심리치료지원 (성폭력피해자치료비)	입소 후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으로 열림터 적응과 치유회복을 돕고 사례에 따라 팀미팅 진행.
법률지원	사례별 상황에 맞는 법률지원.
의료지원	병원비, 약제비 지급/ 병의원 동행 등. 상비약품 비치, 응급처치 등.
학교·학습지원	사례별로 학교 전학 및 학교 생활 적응, 부족한 학습 지원.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사례별로 진로 및 자립계획을 구상하는데 조력.
정서문화지원	문화누리카드 신청으로 문화생활비 사용 범위 확장.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 등 지급.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생활인들 개개인에 맞는 지원을 통해 열림터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과 심신회복을 도움.
- 퇴소 전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인의 역량강화를 돕고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주체적인 자립을 도움.

1-2. 입·퇴소 가이드라인 워크숍

- 배경/필요성 : ① 현재 입소 상담을 하고 입소여부 판단에 필요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음 ② 최근 들어 타인과 소통이 어려워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생활인들의 입소가 증가했고, 다른 생활인과 활동가를 공격하는 상황도 발생함. ③ 입소의의를 받고 입소를 결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입·퇴소를 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목표 : 열림터의 치유회복과 역량강화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인들이 피해를 회복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구조를 확립함.
- 방법 및 계획 :

회기	시기	내용
1회기	1월21일	2020년 입소의의 자료 분석 및 계획 수립
2회기	2월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3회기	3월	운영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공유 및 자문
4회기	4월	상근활동가와 가이드라인 작업 공유 및 논의
5회기	4월	가이드라인에 대한 객관성 논의 후 가이드라인 완성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열림터가 안전한 공간으로써 생활인들의 치유회복하는 기능을 회복하고, 활동가들도 생활인 지원에 전념할 수 있음.

1-3. 치료회복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① (자기방어훈련) 입소 전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생활인들의 위기상황대처 능력 계발과,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회복이 필요함. ② (성교육) 페미니즘 관점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 ③ (심신회복캠프) 공동의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열림터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자기방어훈련, 성교육, 심신회복캠프를 통해 생활인의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 자기방어훈련(위협업스포츠) : 상반기 강의 15회기 진행.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대일 수업 진행.
 - 성교육(호연/인권교육센터 등) : 하반기 개별 교육 각 6회기 진행. 필요시 회기 연장.
 - 심신회복캠프 : 하반기 진행 예정하되,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하지 않을 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경제교육/유스크리에이팅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예산 변경 예정.
- 담당자 : 수수
- 기대효과 :
 - 자기방어훈련과 성교육을 통해 피해로부터 치유회복을 도모하고,
 -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면서 공동으로 자기치유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함

1-4. 생활인 대상 성인권교육

- 배경/필요성 :
 - 생활인들이 폭력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열림터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예방함.
 -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피해가 발생한 맥락을 파악하여 향후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함.
- 목표 :
 - (1) 공동의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함께 지켜 나가야할 약속과 규정 이해
 - (2)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폭력 바라보기
 - (3) 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 증진
- 방법 및 계획 :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진행하며 마지막 5회기에는 교육내용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발표하고 평가의 시간을 마련함.
 - 교육진행 전에 사전미팅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진행에 대해 효율성을 증진함.
 - 상반기 일정

회기	주제	강사
사전회의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전체 강사진
1회기	이 공간의 약속	목련
2회기	상담소의 역사, 활동	란
3회기	여성주의란?	주리
4회기	디지털성폭력	감이
5회기	정리 및 평가	은희

-하반기 일정

회기	주제	강사
사전회의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전체 강사진
1회기	이 공간의 약속	신아
2회기	상담소의 역사, 활동	오매
3회기	여성주의란?	파이
4회기	최근 이슈들(상담소 활동)	앎
5회기	정리 및 평가	은희

- 담당자 : 조은희
- 기대효과 :
- 공동주거 공간인 열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려하고 지켜야할 규칙들을 숙지함.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
- 상담소 활동 및 열림터 운영 목적에 대한 이해

1-5. 환경·식생활·안전교육

- 배경/필요성 : ① 공동생활공간인 열림터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유지를 위해 개인위생과 청결한 환경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자신과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생활인들 대부분이 불규칙적인 식사, 과식, 편식 등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건강저해의 위험이 있고, 돌봄이 부족한 환경에 오래 노출된 경우에는 영양불균형 및 비위생적인 식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함. ③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함. ④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형성에 관한 생활인의 의지를 함양하고 안전에 관한 필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개인안전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방법 및 계획:
 - 환경·식생활교육: 격월 1회, 4주차 목요일에 시행, 생활인과 함께 주제를 탐색한 후 PPT 자료 및 동영상, 퀴즈 등을 이용하여 생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안전교육: 연간 2회 보라매안전체험관 방문하여 재난체험(지진, 태풍, 화재, 교통안전) 시행.
 - 화재예방교육 : 격월 1회 1주차 목요일에 시행. PPT 자료 및 동영상, 퀴즈 등을 이용,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함.
 - 생명존중교육 : 연간 2회(상반기 : 지희, 하반기 : 은희) 시행. 열림터 내의 자해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구체적 방법을 공유함.
- 기대효과 :
 - 공동생활에 필요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음.
 - 개인위생 및 식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실천하며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능력을 향상함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향상 시킴.

-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음.

1-6. 생활인 운영평가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 배경/필요성 : ①매주 생활인 주도로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호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②열린터 운영 전반에도 생활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 필요가 있음.
- 목표 : 상하반기 열린터 생활인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생활규칙개정에 생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 방법 및 계획 :
 - 생활인 운영평가 : 7월, 1월 1회씩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
 -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 7월, 1월 1회씩 진행. ① 생활규칙 변경 논의 및 워크시트 배부 , ② 열린터 업무회의 논의, ③ 가족회의에 변경 생활규칙 안내.
- 담당자 : 열린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주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며 생활인들의 권한을 강화함.
 - 열린터 운영에 생활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쉼터 운영에 새로운 관점을 반영함.
 - 비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함.

목표2. 퇴소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여 고립을 해소하고 유대를 강화한다.

2-1. 퇴소자지원

- 배경/필요성 : ①친족성폭력 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렵거나 퇴소 이후 안정적 자립이 어려우므로 개별적인 열린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② 타기관연계 시 지속적인 약물치료비용,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률지원, 타시설 연계등의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퇴소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움.
- 방법 및 계획 :
 - 퇴소지원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은 미성년 시기에 입소하여 1년 이상 생활, 성년 시기에 퇴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1년 이상 생활한 퇴소자에게도 일정의 퇴소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1인 100만원).
 - 대학학자금 지원: 대학합격시 등록금 일부지원.(1인 100만원)
 - 자립물품지원 : 퇴소자립 시 생활할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1인 최대20만원)
 - 개인면담 : 필요 시
 - 약물처방비용지원 : 시설연계 퇴소 시 의료지원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물치료 비용지원
 - 법률지원 : 퇴소이후 상황에 맞는 법률지원
 - 물품지원 : 연간 1회이상 물품지원을 시행.
- 담당자 : 열린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퇴소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열린터와의 관계를 유지함.

2-2. 또우리모임

- 배경/필요성 : ① 열림터 생활인 대다수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가정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② 열림터에서 퇴소생활인(또우리)들의 친밀감과 유대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③ 성폭력피해생존자이자 열림터 퇴소생활인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상, 고충, 피해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지지와 연대를 꾀할 장이 필요함.
- 목표 : 또우리, 전·현 활동가들이 함께 또우리모임을 진행한다.
- 방법 및 계획 :
 - 또우리모임 안내 (2, 4, 6, 10월 말)
 - 또우리모임 실행 (3, 5, 7, 11월 평가·계획 모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에 또우리모임을 계속 취소한 바 있기에, 2021년에는 온라인 비대면 모임의 방식을 계획할 필요 있음.
- 담당자 : 수수
- 기대효과 :
 - 정기적인 또우리모임을 통해 퇴소 이후에도 열림터가 또우리들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음.
 - 전·현 활동가들이 개인적 부담을 줄이면서 또우리들과 유대를 유지할 수 있음.
 - 생활인들이 퇴소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2-3. 퇴소자지원기금 “또우리폴짝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 ① 열림터 생활인의 대다수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이거나 원가정에 의한 2차피해를 경험하기에 퇴소/자립 시 원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② 기댈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부재는 새로운 삶의 준비를 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을 당면했을 때 삶의 불안정성을 강화함. ③ 또우리들이 경험하는 자립 과정의 불안정성을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 (1) 퇴소자지원기금을 통해 또우리들의 경제적 지지기반을 마련함.
 - (2) 퇴소자지원기금의 마련 및 시행을 통해 쉼터 퇴소생활인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초석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 열림터 연간 후원금액의 약 10%(총 500만원)을 기금 예산으로 설정.
 - 열림터 퇴소생활인들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연간 10명을 대상으로 기금 집행.
 - 1회 지원선정 시 이듬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최대 2회 지원/선정 가능.
 - 기금 신청서는 지원자의 빈곤함이나 긴급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 활용 방안과 해당 경제적 자원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위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
 - 당해연도 폴짝기금참여자 발표 이후 사전 인터뷰를 1회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이는 ① 기금이 또우리 본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휘발되어버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자, ② 또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외화하고, ③ 내·외부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생활인 지원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함임.
 - 일정

일시	진행	비고
4월	- 홍보 및 모집	
5월 중순	- 지원대상 발표 - 폴짝기금참여자 사전인터뷰	개별 진행
6월 ~ 10월	- 폴짝기금 사용기간	
11월	- 폴짝기금참여자 평가인터뷰	집단/개별 진행 고민 필요함.

- 담당자 : 수수, 조은희
- 기대효과 :
 - 퇴소 이후에 열림터가 또우리들의 사회적 지지처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우리들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시설퇴소생활인지원의 필요를 수집하고 선례를 만들어 퇴소자지원체계의 마중물 역할을 함.

목표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진예방에 힘쓴다.

3-1.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배경/필요성 :
 - 최근 자해, 자살 충동을 호소하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생활인들의 입소가 많아지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으로 적절한 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생활인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습득할 필요 있음.
 - 생활인들이 퇴소 후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
- 목표 :
 - (1) 자해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기상황에 대처
 - (2) 생활인들이 다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 (3) 생활인들의 안정된 자립을 조력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일시	내용	강사
4월	디지털 문화와 십대 섹슈얼리티	10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6월	사례관리 경제교육	관찰아요 협동조합
9월	자해와 약물 복용	해솔정신건강의학과 송지혜

- 담당자 : 조은희
- 기대효과 :
 - 지원자의 자해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기상황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
 - 생활인들이 새로운 성폭력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음.
 - 지원자가 사례관리를 위한 경제교육을 받음으로써 생활인들이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2. 활동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

- 배경/필요성 : 처무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는 만1년차, 3년차 5년차가 된 시점에 상담원으로서의 내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목표 :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함.
- 방법 및 계획 :
 - 대상자는 1인 활동가로 11월 이후 진행

- 담당자 : 조은희
- 기대효과 : 재충전 및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함

3-3. 생활인 종결사례포럼

- 배경/필요성 : 생활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 방향과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함.
- 목표: 생활인의 자립을 돕고 다양한 주변 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생활인 중 선별된 사례에 대해 상근활동가들과 사례연구를 진행.
- 방법 및 계획 :
 - 지원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은 생활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의 공백 및 보완점을 발견하여 향후 다른 사례 지원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음.
 - 생활인 사례연구를 통해 상근활동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지원 방향을 찾도록 함. 열림터 지원의 경험 공유를 위해 연 1회 진행.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퇴소한 생활인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자로서의 평가를 상담소 전체 활동가와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고 향후 지원 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음.

3-4. 청소년 생활인의 온라인 공간×섹슈얼리티 경험 스터디

- 배경/필요성 : ① 온/오프라인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열림터 청소년 생활인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 증가함. ② 이 과정에서 친밀함과 폭력의 줄타기가 이루어지기도 함. ③ 생활지원자로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생활인들의 섹슈얼리티 경험을 이해하고 고민을 확장하여 지원방향을 정립할 필요 있음.
- 목표 :
 - (1)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성과 섹슈얼리티를 이해함.
 - (2) 열림터 생활인 사례를 통해 온라인 공간의 친밀성과 폭력의 경계에 대한 지원방향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 열림터 개별성교육 강사 호연과 협업하여 스터디 기획회의를 진행함.
 - 세미나, 강의, 사례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하반기에 스터디를 실행함.
- 일정

일시	진행	비고
7월	- 스터디 기획회의	
8월 ~ 10월	- 스터디 진행	

- 담당자 : 수수
- 기대효과 :
 - 생활인에 알맞은 사례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3-5 사례관리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 지원자의 고민지점이나 지원방향과 전략을 슈퍼바이저와 함께 나누고 점검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사례를 나누면서 사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료활동가들 역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지

원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서 역량강화 할 수 있음.

- 목표 : 사례의 지원방향과 전략을 재점검하고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
- 방법 및 계획 :
 - 상하반기 각 1회기(총2회)
 - 사례에 맞는 전문가를 슈퍼바이저로 섭외하여 진행
 - 담당자 : 조은희
 - 기대효과 :
 - 사례를 지원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나누고 지원방향을 점검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목표4. 여성주의 쉼터운동의 연대를 강화하여 반성폭력운동을 확산한다.

4-1. 홍보 및 후원관리

- 배경/필요성 : ① 보호시설이 32개소로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입소한 생활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치유회복으로 한정되어 일반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② 가해자와 시급한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중 보호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편견, 두려움 때문에 입소율이 떨어짐 ③ 시설 특성상 위치 노출에 대한 우려로 홍보나 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후원금 규모가 작고 신규 회원 배가 속도도 낮음.
- 목표 :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고민과 향후 과제, 특성을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린다.
- 방법 및 계획 :
 - 블로그: ① 분기별 1회 이상 활동가들의 활동소감 및 현재 문제의식 등을 작성, ②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러 활동에 생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후기를 생활인의 동의를 구해 게시, ③ 퇴소생활인 인터뷰 내용을 반기 혹은 연간으로 1회 이상 게시, ④ 열림터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아카이브하며 홍보함.
 - 이메일 소식지(열림터 편지): 생활인들의 글이나 활동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구독률을 높이고 구독율을 파악할 수 있는 메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
 - 해피빈 공기부함: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 기부함을 진행.
 - 후원예우: 후원자와 연결감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행사의 후원예우에 동참.
 - 담당자 : 낙타
 - 기대효과 :
 - 연계기관에 열림터 특성과 기능을 상세히 알려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열림터의 사회적 역할을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장기 후원회원을 유치할 수 있음.
 - 안정적인 후원회원 유치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퇴소자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

4-2. 대외·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쉼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유관단체들과 유사한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쉼터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목표 : 열림터를 알리고 열림터의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연대의 힘을 키움
- 방법 및 계획 :
 - 전국시설협의회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열림터의 의견을 드러내고 각 단체들과 연대
 - 전국시설협의회: 2월 총회, 워크숍 1회, 보수교육 1회, 3월,5월,7월,9월 임원회의 예정.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1/26, 2/23, 3/23, 4/27, 5/18, 6/29 전체회의 예정.
- 담당자 : 조은희, 수수
- 기대효과 : 유관단체와 공동대응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고 연대감 성취

4-3. 운영위원회 운영

- 배경/필요성 : 열림터 운영 및 생활인 지원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절실히 필요함. 운영위원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및 전 활동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생활인 지원이나 열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받아들여 향후 열림터 운영에 반영하고 열림터의 쉼터 운동이 운영위원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고 열림터로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
- 목표 : 운영위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원동력을 찾음.
- 방법 및 계획 :
 - 상하반기 각 1회 진행(총 2회)
 - 신규운영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여유 있게 일정을 안내하고 업무회의를 통해 안건을 검토하여 운영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모색함.
- 담당자 : 조은희
- 기대효과 :
 -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전 상근활동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열림터 운영 및 생활인 지원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주의 쉼터운동을 활성화

2021 연구소 활동 계획

202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 30년간 축적한 반성폭력운동의 시각으로 섹슈얼리티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담론을 확산할 수 있는 단행본 발간 - 반성폭력운동의 탄탄한 연구 기반을 모색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연구 뿐 아니라 각종 연대 활동 및 소모임을 통해 다양한 배경에서의 관점과 시각들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 형성
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친족성폭력에 관한 법·정책·제도·문화적 이론과 담론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
팀 활동 목표	
<p>목표1. 상담소 반성폭력운동 30년의 의미를 정리하고 확산한다.</p> <p>목표2. 상담소/연구소에 축적된 연구와 활동들을 알리고 연대의 고리를 강화한다.</p> <p>목표3. 현장에 기반한 반성폭력 이론과 담론을 생산한다.</p>	

목표1. 상담소 반성폭력운동 30년의 의미를 정리하고 확산한다.

1-1. 30주년 단행본 발간사업

•배경/필요성 :

- 상담소에서 2006년에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가 발간된 이후, 국내외적으로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어왔음. 최근의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와 논쟁을 정리하고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상담소 30주년에 맞춰 발간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상담소 운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섹슈얼리티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운동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표: 최신의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 관련 논의에 관한 현장기반 이론의 논의를 확장한다.

•방법 및 계획 :

(1) 진행방법

- 2020년 진행한 활동가 세미나 및 회의를 바탕으로 주제 및 필진 확정

- 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나눔
- 연구소는 상담소 필진들과 정기적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안 고민
- 연구소 및 상담소 필진의 경우 일정정도의 연구비 마련
- 발간 이후 2022년경 단행본 내용을 바탕으로 연속강좌나 기획포럼 등 외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예정

(2) 진행내용(목차 : 순서 및 내용/필진 논의중)

챕터	주제	내용	필진
0	책 머리에	- 상담소 소개 - 감사의 말	오매
1	여는 말	- 책 발간의 목표, 의미 - 책의 구성과 소개	파이
2	성폭력 판단기준과 개념	-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재분석 - 적극적 동의 관련 이론 및 정책 리뷰	얏
3	온라인/디지털 성폭력	-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성의 구성/재구성 - 디지털성폭력과 온라인 알고리즘과 여성 이미지의 산업화 관련	외부필진
4	피해와 생계사이	- 성폭력과 여성의 노동/사회경제적 조건 - 성폭력 피해와 역량접근법	외부필진
5	성폭력 사건 '해결'의 사법화/개인화 비판	- 반성폭력운동의 사법화/개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의미 재구성	파이
6	온라인 액티비즘/제4물결과 미투운동	- '영영 페미니즘' 운동의 등장, 평가와 가능성 - 미투운동과 온라인, sns를 통한 말하기 - '피해자 페미니즘'의 강화와 미투운동의 의미	주리
7	성적재생산권리운동	-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성적재생산권리운동의 역사, 의미, 쟁점, 과제	외부필진
8	'진보'와 '페미니즘'	-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과 민주당 - 페모크라트 평가 - 페미니스트의 '보수화'	외부필진
9	여성주의 상담운동	- 치유와 회복의 의미 - 피해자 병리화/지원의 제도화 - 공대위 활동의 의의와 쟁점 - 기타 상담운동 30년 동안의 변화와 의미 등	이미경
10	여성주의 쉼터운동	- 보호와 돌봄사이/ 자립과 자활사이 - 여성 빈곤과 기본소득 - 여성주의 쉼터운동의 의미와 과제	수수

(3) 진행계획/일정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2~3월	기획 및 섭외	세부 챕터 주제 및 필진 논의, 출판사 탐색 주제 확정, 필진 섭외, 출판사 확정

4~5월	연구 준비	필진 및 출판사 기획회의
6~8월	원고 집필	연구 진행/원고 집필
9월	원고 취합	원고 취합 및 사전교열, 출판사 전달
10~11월	교정/교열	출판사와 함께 교정/교열
12월	인쇄/홍보	인쇄 및 배포/ 홍보

- 담당자: 파이
- 기대효과 :
- 현장에 기반한 섹슈얼리티/반성폭력 이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1-2. KSVRC ‘보라! 페미니즘 책방’ 운영 및 발간자료 정리

- 배경/필요성 :
- 서고 공간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신규 서적, 자료집 등을 지속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정리가 필요함
- 개별활동가들이 참여한 각종 발제, 토론 등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온/오프라인에서의 보관과 공유가 활발하지 않음
- 목표: 상담소가 30년간 축적한 자료들을 정리, 공유함으로써 여러 이슈와 쟁점에 대한 역사적 맥락들을 이해하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 (1) 진행방법
 - 각층의 자료보관소 및 공간 정돈
 - 내부 발간 자료의 데이터서버 및 홈페이지 공유
 - 구입하기 어려운 책이나 원서 등의 경우 제본하여 보관
 - 활동가들의 구입희망도서 및 참석한 행사 자료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공유
 - 구입도서 및 추천도서를 상시적으로 상근자회의에서 공유하고 1층에 전시
- (2) 진행계획/일정

일정	주요내용
1~3월	자료보관소 정돈 및 라벨링
상시	구입희망도서 구입 및 입고도서/자료 관리

- 담당자: 주리
- 기대효과 :
- 각층 자료보관소 정돈을 통해 활동가들이 더욱 간편하게 신규 서적 및 자료집 등을 볼 수 있도록 함
- 내부 자료를 데이터서버에 아카이빙해 활동가들의 자료 접근성을 높여 상담소의 활동과 입장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함
- 홈페이지 공유를 통해 반성폭력 이슈와 상담소의 활동을 더 많은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음
- 상담소의 활동과 역사를 보관, 기록,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함

1-3. 연구소 미래전망 모색

- 배경/필요성 :

- 1997년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2009년 해소, 그리고 2013년 연구소 올림 개소 이후, 2015년 하반기에 잠시 문을 닫았지만, 2016년 2월부터 연구소는 책임연구원 1인과 비상시직 연구원(현재는 정규) 1인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간 연구소 운영과 중장기적 비전 모색 등에 대한 논의들이 산발적으로 있어 왔으나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 2021년 상담소 30주년과 2022년 부설연구소 개소 25주년을 준비하며 자문위원, 인적 구성 개편, 예산 및 공간, 연구비 지원 등의 리뉴얼 방향에 대한 계획 및 준비가 필요함

- 목표:

2022년 연구소 25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모색한다.

- 방법 및 계획:

- 1) 자문위원 위촉 : 현장기반 연구활동에 도움을 받고 연대할 수 있는 자문위원 탐색 및 위촉 준비
- 2) 조직 구성 재정비 : 상근연구인력규모 및 소장취임 등 논의
- 3) 조직 운영방법 논의 : 공간 이전, 독립적 예산운영, 법인 차원에서의 연구비 마련 계획 등에 대한 논의 진행, 하반기 이사회에서 논의 및 승인 절차 준비
- 4) 미래비전 모색 : 시민단체의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연구활동가 등을 면접하여 현장 기반 연구소의 운영, 정체성, 활동 영역 등에 관한 미래비전을 모색

- 담당자: 파이

- 기대효과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설연구소로서 현장에 기반한 반성폭력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목표2. 상담소/연구소에 축적된 연구와 활동들을 알리고 연대의 고리를 강화한다.

2-1.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

- 배경/필요성 :

- 연구소는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담론적 이슈를 발굴하고,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결과를 발제, 학회지 게재, 강의,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알려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여성주의 연대활동을 통해 국내/외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동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음

- 목표: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를 통해 현장기반 반성폭력운동 이론과 담론을 대중과 공유한다.

- 방법 및 계획:

- 학회, 토론회, 이슈 포럼, 자문, 강의, 해외연구자/활동가 교류, 원고 집필, 공대위 활동(오거돈성폭력사건 공대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 등), 기타 연구활동 등에 연대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4호의 상담일지분석연구를 학회지에 게재

- 담당자: 파이

- 기대효과 : 연구활동과 관련한 연대활동들을 통해 국내/외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새로운 이슈와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반성폭력운동과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음

2-2.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 제2회 ‘책을 들고 나온 페미니스트’

• 배경/필요성 :

- 여성학계에서 젠더폭력 및 현장기반 연구자가 적고, 소통할 기회도 부족함. 이에 신진 여성주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2회 개최를 통해 현장기반 연구의 중요성 및 상담소/연구소 활동을 알리고 실천학문으로서 여성학과 반성폭력 연구활동의 미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들과 최신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소 연구활동의 시야를 확장하고 새로운 주체들과 연대한다.

• 방법 및 계획:

(1) 진행방법

- 8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경 이안젤라홀,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가안)
- 프로젝트 기금 지원 예정
- 프로그램 예상안

: 여는 말 및 상담소/연구소 소개, 사회(파이)

: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일지분석 연구발표(주리)

: 신진연구활동가 발표 (각 대학별 1인, 최대 3명)

: 각 발표에 대한 토론자의 토론 및 전체토론

(2) 진행계획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5월	기획	2회 책뚫페 컨셉, 최근 학위 및 학회 논문 검색
6월	섭외	발표진 섭외
7월	자료집 제작	홍보물 디자인 및 자료집 제작
8월	홍보 및 행사	8월 초부터 홍보 및 참가신청 8월 말 행사 진행

• 담당자: 파이

• 기대효과 :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알리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공유하면서 연구소 활동의 저변과 인적 풀을 확장함

2-3.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 페미니즘 신간 읽기 소모임

• 배경/필요성 :

- 상담소의 활동을 지지하고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이 있는 회원/시민들과 페미니즘 관련 도서 및 이슈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각자의 위치와 현장을 공유함으로써 대항적 감각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목표: 최신 페미니즘 논의들을 학습하고, 회원들과의 소통 장을 넓힌다.

• 방법 및 계획 :

일정	주요내용
2월	홍보 및 신규참여자 모집

3월~11월	-월 1회 소모임 개최,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7시 -온/오프라인 병행 -1차 모임: 3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아주 오래된 유죄』(김수정 저)
--------	---------------------------------------------------------------------------------------------

• 담당자: 주리

• 기대효과 :

- 소모임 활동을 통해 상담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페미니즘과 관련된 여러 이슈 및 관점을 환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목표3. 현장에 기반한 반성폭력 이론과 담론을 생산한다.

3-1.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5호 발간

• 배경/필요성 :

- 국내에서 반성폭력 이슈와 쟁점, 논의를 담은 정기적 간행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반성폭력 이슈들을 생산하고 담론화하기 위하여 일지분석, 연구동향, 주제별 리뷰 및 이론적 고민이 담긴 정기적인 이슈리포트가 필요함
- 친족/아동성폭력 이슈와 함께 상담소 초기 활동들이 진행되었고, 그 후로 30년을 돌아보면서 반성폭력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평가 및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 친족성폭력 관련 연구는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가조치, 엄벌주의 등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과 연결되어 살펴볼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고, 지난해 조두순의 석방 등과 관련하여 법·정책·제도적 이슈가 많음
- 성폭력 관련 분야에서도 친족성폭력 관련 연구는 드물고, 여성학 관점의 연구는 특히 더 적음. 따라서 그간 상담소에서 주장해 온 친족/아동성폭력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담론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고 상담소/연구소가 친족성폭력 의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연구를 통한 연대가 필요함
- 목표: 친족성폭력 관련 운동과 이론에서의 쟁점을 발굴하고 대중적으로 외화한다.
- 방법 및 계획 :

(1) 진행내용 및 방법

- 핵심주제: 친족/아동성폭력

- 예상목차

- : 기획특집 - 친족/아동성폭력과 함께 한 상담소의 반성폭력운동 30년을 돌아볼 수 있는 글
- : 쟁점과 입장 - 친족/아동성폭력 피해, 치유, 연대, 법적 쟁점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글
- : 일지분석 - 2018~2020년 친족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 : 동향분석 - 2016~2021년 친족성폭력 관련 연구동향 분석
- : 기고 - 친족성폭력에서 사건 해결의 의미 관련 글(공폐단단, 생존자수기집 관련 등), 기타 원고들은 추후 논의

- 발간부수 1500부

(2) 진행일정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2월~3월	기획 및 섭외	세부 챕터 주제 및 필진 선정

4월~7월	연구 준비	선행연구 및 상담일지 리뷰
8월	원고작성	연구 진행/원고 집필
9월	원고취합, 교정	내/외부 원고 취합 및 피드백, 교정, 교열
10월	인쇄/배포	인쇄 및 배포/ 홍보, 후기 작성

- 담당자: 주리
- 기대효과 :
 - 반성폭력운동의 고민과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중 및 학계에 공유함
 - 지난 몇 해 친족성폭력 피해당사자들의 활발한 활동들에 이론적 연대를 더하고, 가해자 엄벌주의 담론을 넘어 새로운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2. 연구동향분석

- 배경/필요성 :
 - 친족성폭력과 관련하여 그간에 진행되어 온 반성폭력운동의 이슈를 파악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관련 주제들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목표: 친족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법·정책·제도·운동의 지형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 방법 및 계획:
 - 친족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를 선행 리뷰하고 핵심키워드를 도출한 후 분석기간과 세부주제 결정
 -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 담당자: 파이
- 기대효과 : 친족성폭력 연구지형을 파악하고, 여성주의적 개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3-3. 상담일지 분석을 통한 현장기반 반성폭력 이론 생산

- 배경/필요성 :
 - 상담일지는 성폭력피해자의 경험과 요구가 직접적으로 담겨있는 자료로서 반성폭력 운동과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임. 기존과 같이 특정 기간과 유형에 대한 일지분석을 진행하여 현장의 언어가 대중의 인식과 법, 정책적 변화에 반영되도록 담론화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반성폭력 이론을 공유한다.
- 방법 및 계획 :
 - 2018~2020년 친족성폭력 관련 일지 분석
 - 양적, 질적 방식의 일지분석 진행
 - 필요시 생존자 인터뷰 등 진행
- 담당자: 주리
- 기대효과 :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를 비롯하여 각종 포럼 및 연구, 강의, 인터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 상담소 상담운동의 과제와 이슈를 발굴하여 운동의 활로를 모색함

2021 사무국 활동 계획

202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간의 발자취를 기록, 정리하고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 -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비전 선포를 통해서 운동의 방향과 좌표를 만들기 - 이미지 리뉴얼 공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롭게, 친근하게, 명확하게 다가가기 - 상근활동가 및 자문위원, 이사회, 회원 등 한국성폭력상담소 운영 참여자의 성장과 소통을 위한 과정 실행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운동, 반성폭력 운동 단체, 연대체들의 성찰 작업, 운동성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 네트워크 마련
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간죄 개정,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위력성폭력 사건 정의 실현을 향한 활동
팀 활동 목표	
<p>목표1.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성찰과 비전으로 함께 열기</p> <p>목표2. 반성폭력 운동 의제, 더 너른 연대와 참여로 실행하기</p> <p>목표3. 함께 성장,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 지속성 높이기</p> <p>목표4. 성평등 인권운동의 성찰성과 영향력 함께 넓히기</p>	

목표1.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성찰과 비전으로 함께 열기

1-1.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의 발자취 _반성폭력 운동의 아카이빙 <균열을 일으킨 용기, 그 순간과 역사>

- 배경/필요성 :
 - 1991년 4월 13일 개소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젠더폭력으로서 성폭력을 가시화하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제시하며 공론장으로 이끄는 반성폭력운동을 30년간 지속해왔음. 개소 초기 잇달아 발생한 친족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성폭력특별법 제정에 함께하며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국가가 개입해야하는 공적문제이라는 대중적 인식전환에 앞장섬.
 - 특히 성폭력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말하기’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구조적 문제를 법정책의

영역으로 가져와 제도의 변화를 이끌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엮어 성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해온 한국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옴.

- 개소 30주년을 맞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30년간 제시해온 성폭력 관련 주요 전략과 의제를 아카이빙하고 이를 역사화하는 작업은 기존의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를 잇고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의 지형에서의 비전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목표:

- 30년간의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를 정리, 의미화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공유
-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전략과 의제, 투쟁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이후 반성폭력운동의 비전 마련.

• 방법 및 계획

-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의 발자취, <균열을 일으킨 용기, 그 순간과 역사> 제작
-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30년간 제시한 주요 전략과 의제 정리 및 소개하고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를 정리하는 대중 출판물 제작
- : 시기별 주요 사건, 운동전략 및 투쟁역사, 성폭력 관련 의제별 챕터 구성, 당시 활동사진 + 줄글을 담은 도록형태로 제작
- 주요일정 및 방법

주요일정	내용	세부내용
2월~4월	기획 및 자문	- 주요 전략, 의제 선정을 위한 내부 기획 논의 - 주요 활동가 자문회의 (3팀, 각 1회, 총 3회) - 필진 확정
5월~6월	자료 정리 및 초안 작업 제작 기획	- 주요 전략 및 의제 선정에 따른 자료 서치, 내용 생산 - 제작자(디자인) 미팅 및 선정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활용 펀딩 오픈
7월~8월	내용 생산 및 자문 검토	- 내용 생산, 주요 활동가 검토 및 자문 - 수정 및 보완
9월	디자인 제작	- 디자인 제작/ 교정 교열
10월	발간 및 배포	- 완성본 발간 및 배포

• 담당자: 란 (기획팀: 감이, 지희, 경진)

• 기대효과: 상담소의 30년간의 주요 전략 의제를 정리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향후 상담소의 운동 과제 모색

1-2.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비전 논의 및 선포

• 배경/필요성 :

- 2020년 상근활동가를 중심으로 30주년 TF를 구성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인식 설문조사 및 4개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상근활동가들의 슬로건 워크숍을 통해 현재 운동 지형과 상담소의 정체성, 역할을 논의하였음
- 현재 반성폭력 여성주의 운동이 놓인 지형은 다양한 운동주체의 형성,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 그러나 조직화된 형태와 운동 방향성에 대한 차이 형성,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적, 권력적 성폭력의 발생과 이에 대한 저항, 피해자에 대한 역공격과 2차 피해 심화, 법과 정책 역할의 필요 증대, 그를 배반하는 무력감과 진영론에 소구되는 정치화 등 꼽힐 수 있음
- 여성주의 운동단체이자, 반성폭력 전문 기관, 비영리 비정부 기구로서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정체성, 역

할, 비전을 새로이 논의하고 발표함으로써 본 상담소의 미션 수행을 활성화, 현재화함

• 목표 :

-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맞이 운동의 방향 논의, 비전선언문 논의 및 선포

• 활동계획 :

- 비전 기획팀 구성 : 오매, 앞, 신아, 란

1월 6일	상근활동가 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내일을 위한 FGI 결과 분석 공유
1월 20일	상근활동가 회의	FGI 결과에 대한 상근활동가 토론 설문조사 결과 및 슬로건 투표 결과 공유, 통합 토론
2월 3일	상근활동가 회의	10가지 좌표 도출 워크숍
2월 15일	30주년TF 비전팀	초안 작성 회의
3월 3일	상근활동가 회의	비전 초안 논의
3월 16일	이사회 회의	비전 초안 논의
3월 29일	30주년TF 비전팀	수정안 작성 회의
3월 31일	상근활동가 회의	비전 수정안 논의 및 확정

• 담당자: 오매

• 기대효과 :

- 상근활동가, 회원, 후원자, 이사, 생존자, 시민들의 다양한 필요로 반성폭력운동을 내다보는 시각 형성
- 독립적 NGO로서의 선 자리와 역할, 비전을 생각하는 훈련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실행력 제고

1-3.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기념식

- 배경/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년 4월 13일 개소식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기념, 축하,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함

• 목표 :

-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의 기록, 감사, 축하에 걸맞는 행사 이미지를 도출하고, 코로나19 언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캠페인을 기획한다

- 모금 및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후 상담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 활동계획 :

- 기념식 기획팀 구성 : 오매, 낙타, 백목련, 은희, 란 + 자원활동가 2인
- 30주년 기념 캠페인 기획 : 발자취 기록 콘텐츠 활용, 새로운 슬로건과 BI 소개, 비전 소개, 모금, 참여해야 할 분 초대 및 소개, 후기 등 순차적으로 오픈
- 진행 일정 (안)

2월 1일	기념식 기획팀 1차 회의 진행
2월 10일	온라인 캠페인 : 상근활동가 브레인 스토밍
2월 17일	개소 기념 캠페인 자문 회의
2월 22일	기념식 기획팀 2차 회의 (모금안 포함) : 기획안 1차 도출
3월 3일	상근활동가 회의 기획안 논의, 승인 (모금계획 포함)
3월 8일	홍보업체 미팅 및 의뢰 / 기념식 업체 미팅 및 의뢰

3월 16일	이사회 논의 (모금계획 포함)
3월 31일	상근활동가 회의 : 최종안 논의 및 역할 분담
4월 13일(화)	기념 캠페인 오픈
4월 캠페인	- 4월 캠페인 진행 (상근활동가 회의 점검)
5월 캠페인	- 5월 캠페인 진행 (상근활동가 회의 점검 / 이사회 모금 실행)
6월 캠페인	- 6월 캠페인 진행 (상근활동가 회의 점검 / 모금 점검, 행사 역할분담)
6월 18일(금)	기념 행사 진행
6월	굿즈 발송, 갈무리, 후기작업
7월	기념식 평가

• 담당자 : 오매, 낙타, 백목련, 은희, 란 + 자원활동가 2인

• 기대효과 :

-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간 함께했던 분들이 감사, 기억, 비전을 나눔으로써 향후 활동에 새롭게 참여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사회적 의미, 위상, 가치, 방향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과 활력을 확산

1-4.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맞이 리뉴얼

• 배경/필요성 : 개소 30주년을 맞이하여 상담소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 하며, 상담소 활동에 통일감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도구, 디자인, 규정 등을 리뉴얼 함

• 목표 :

- 자료를 효과적으로 나누고, 소식을 일상적으로 나누는 홈페이지 및 SNS 개편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정체성을 담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BI 리뉴얼 및 공개
- 한국성폭력상담소 운영체계에서의 규정 등 공개 자료 정리 및 공유

• 활동계획 :

내용	담당	세부 계획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SNS 개편	성문화운동팀 홍보담당활동가 및 기획팀	-주요 이용필요 조사, User Needs 설계 -모델사이트 서치 -유용한 기능들 러닝 -업체 및 개발자 미팅 -상담소 자료 아카이빙 새로운 소개들 작성 코너 기획 -상근활동가 논의, 자문회의
로고 및 BI 리뉴얼	30주년 TF 홍보팀	상근활동가 논의 이사회 논의 의견반영 최종 확정 및 활용 시작
운영규정	30주년 규정팀, 사무국	홈페이지상 정관 및 규정, 총회 자료 정돈 및 공개, 공유

- 기대효과 :
- 향후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이미지, 도구, 규정 등이 결합함으로써 신뢰성과 효율 높이기

목표2. 반성폭력 운동 의제, 더 너른 연대와 참여로 실행하기

2-1.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여부’ 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 배경/필요성 :
 - 2019년 전국 209개 여성인권단체들과 <‘강간죄’ 개정 연대회의>를 결성하였고, 2020년 21대 국회 선거에서의 정책 제안 및 약속, 개원 이후 다양한 의제 홍보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본 상담소가 사무국을 맡아옴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반성폭력 레짐의 방향과 시민적 규범으로서의 ‘적극적 합의’를 폭 넓게 운동으로 만들고자 하며,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주체화함으로써, “동의/적극적 합의”의 의미, 적용기준의 장을 넓고 깊게 펼쳐가고자 함
 - <‘강간죄’ 개정 연대회의>를 통해서 형법상 강간죄 개정이 당연하고 근본적인 여성인권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의 법사위 및 본회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함
- 목표:
 - 발의된 비동의 강간죄 관련 법안 홍보 및 대중적 의제화
 -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본회의 논의
- 활동계획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사무국 운영 (성문화운동팀 협력, 공동)
 - 연대회의 내 기획팀 활동 :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 기획 및 시행
 - ‘적극적 합의, 동의로의 법적 패러다임 전환’ 관련 전문가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 전국 ‘강간죄 개정’ 관련한 강좌 및 토론회, 발표 지원 (상담원 교육 등)
 -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위한 압박 활동 : 국회,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여성가족부
 - 본회의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 류호정 의원실 협력, 함께 하는 전 방위적 홍보 활동
- 담당자 : 오매
- 기대효과 : 피해 발생 이후 2차 피해에 매몰되어 있는 해악적 상황을 함께 저지하고,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적, 인권적 가치, 지향, 규범을 살림으로써 새로운 시민관계 및 문제해결력 확대

2-2.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활동

- 배경/필요성 :
 - 2019년부터 시작된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의 작은말하기, 미투운동에서의 말하기, 자주적 액션, 책 발간 등을 통해 친족성폭력의 문제를 보다 구조적, 입체적으로 알려오고 법적 시간과 법적 권리 제한에 맞서는 정의실현의 문제가 제기 되어 옴
 -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연대, 협력, 액션의 거점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필요와 수요가 존재함
- 목표 :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료와 의제활동 도구, 기회, 소스의 생산
 -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지지자들이 자치적으로 액션그룹으로 성장

• 활동계획 :

- 사무국(오매), 성문화운동팀(얌), 여성주의상담팀(감이) 기획 및 추후 상담소 지원 역할 논의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생존자와 지지자들의 그룹 ‘공폐단단’ 워크숍 진행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활동을 하면서 : 내가 들은 질문, 지지의말, 해야 할 이야기 모으기 - 액션가이드 : 언론에 대응할 때, 기자회견 및 시위를 할 때, 국회를 움직일 때 - 공폐단단 활동 계획 및 운영 방향 및 원칙 	워크숍 진행
----	-------------------------------------------------------------------------------------------------------------------------------------------------------------------------------------------------------------	--------

- 이후 상담팀 생존자들의 신나는 외출 등 공개적 액션 기획 및 진행 프로그램과 연결
- 공폐단단 자체 활동 계획 수립 이후 진행을 지지, 지원 : 상담소 소모임 혹은 독립모임 관련 5월에 논의 진행
- 기대효과 :
 - 친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문제해결 법정책 제고
 - 생존자 그룹의 자치적인 운동, 활동 활성화

2-3. 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배경/필요성

- : 2018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이 현재 진실규명과정, 형사처벌을 위한 쟁투, 피해자 2차 피해에 대응하는 활동 등으로 계속 진행 중임
- : 전체 팀별 고르게 대책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래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록 등을 통해 정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필요 존재

• 목표 :

- : 위력성폭력 사건에서의 진실규명, 피해자 보호 등의 기본적인 목표의 실현
- : 보궐선거 등 국면에서 젠더없는 민주주의 비판 및 성평등 민주주의 실질화를 위한 활동
- :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성찰 논의 진행

• 진행 계획

대책위원회 명칭	역할	활동내용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	사무국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규명 및 책임추구 활동 - 공동행동 사무국 활동, 3개 분야 팀 활동 지원 - 보궐선거를 맞이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위력 성폭력 공동대응 활동 모색 -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여성연합, 국회의원들을 통한 유출 문제 및 이에 대한 지원단체, 공동행동의 입장과 대응 관련 평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 마련 - 추후 사건 지원에서의 개선점 도출 논의 진행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진행에 따른 연대 활동 - 지방자치단체장 위력 성폭력 공동대응 활동 모색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 및 추후 과제 실행, 일지 정리 - 공동대책위원회 백서 정리 - 지방자치단체장 위력 성폭력 공동대응 활동 모색

2-4. 반성폭력, 성평등 법 정책 생산, 비판 활동

- 배경/필요성
 -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성폭력 판단 및 양형기준,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 처분 정책 등 새롭게 논의되는 관련 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 2차 피해 양산 및 위력 성폭력 사안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마련, 감시의 필요
- 목표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응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해당 의제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에 따른 유기적인 활동 수립 및 진행
- 방법 및 계획
 -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이 있는 성폭력 관련 의제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연대
 - 학계, 운동계, 정책, 법률 전문가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여 필요한 반성폭력 성평등 의제에 대한 논의 활성화
 - 토론, 발제, 정책 제안, 국정 감사, 보선 시기 활용 등으로 해당 과제 활동 진행
 - 법 개정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개진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정책위원회 논의)
- 기대효과: 법제도 제언의 필요성을 보다 다양한 주체들과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반성폭력 의제 및 과제에 발빠른 대응을 함으로써 성평등 의제를 확산하고 공론화

2-5. 로스쿨 법률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자 법률가 풀을 확장해야 하는 상담소의 필요와 비영리공익단체 및 여성운동단체, 성폭력 등 문제해결의 법정책 과정 및 지원 체계 배움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예비 법률가들의 욕구가 존재.
 - 공익단체와 예비법률가를 매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예비법조인 양성과정에 개입할수 있으며 법정책 영역에 대한 성평등 의식 확장 및 인식변화 가능성 존재
- 목표 :
 -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법정책 영역에서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률가 양성과정에 상담소가 일정정도 개입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가진 예비 법조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후 활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
- 방법 및 계획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공익 법무실습 2/2(화)~2/8(월) 40시간 (5명)
 - 내용 - 상담소 법정책 운동의 역사와 쟁점, 팀별 활동 (교육)
 - 형법 제297조 강간죄 적용 판례 분석
 - 작업 발표, 피드백 및 토론, 외화 작업 (발제 또는 기고)
- 담당자: 란
- 기대효과: 여성주의 시각을 견지한 예비 법조인 양성

2-6. 반성폭력 교육, 자문, 발표 활동

- 목표:
 - 다양한 활동가들이 자기 분야를 살려 교육, 발표, 자문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함
 - 성폭력에 대한 지식, 이해 또는 이슈에 대한 논의 흐름 공유, 사안에 대한 컨설팅과 조력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현장 운동단체의 생생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함
- 계획 :

- 강의, 발표, 자문, 심의위원회 등 요청되는 역할에 대한 논의 후 수락, 진행
- 방송,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의견 제언, 기획 참여, 출연 및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유 등 진행
- 집계 및 평가
- 수행하는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보완계획으로 환류

목표3. 함께 성장,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 지속성 높이기

3-1. 회원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총회

- 목표 :
 -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 결정, 그리고 평가되는 총회개최를 통해 상담소에 대한 멤버십을 강화하고 더 많은 반성폭력운동 장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
 - 신임 임원 선출 및 퇴임에 따른 법인 행정 수행
 - 코로나19시기 변화된 조건에 따른 안정적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진행
- 방법 및 계획 :
 - 총회 안내, 홍보 : 2020월 12월 개최 공고, 1월 정회원 신규 신청, 명부 확정 및 참석여부 확인
 - 정회원 활성화 및 정비 : 정회원 가입 독려 조직, 정회원 활동 어려운 회원 확인 및 후원회원 전환, 정회원들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내부 원칙 정비 및 공유
 - 일정 및 내용
 - : 2021. 1. 28(목)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진행
 - : 주요 사업계획, 반성폭력 활동방향 및 당면과제 등 공유 및 평가, 논의
 - : 2021년 상담소 30주년 주요 목표 도출 및 사업 공유, 확산
 - 공증 : 변호사 입회 공증 방식으로 편의도모
 - 온라인 총회 :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무관청 사전 문의에 따른 유의사항 준수하며 진행
 - 담당자: 란
 - 기대효과: 더 많은 회원들의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로 30주년 사업의 성공적 진행

3-2. 이사회

- 목표 :
 - 상담소 의사결정체계인 이사회의 참여를 높이고 논의 활성화
 - 다양한 영역의 활동기반을 가진 새로운 신임 이사를 선출하여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의 역할재고
- 방법 및 계획 :
 - 신임 이사 선출 / 별도 오리엔테이션 진행
 - 퇴임 인사 등기 변경 및 인사, 평가
 - 연간 5회 이사회 : 저녁 시간 진행으로 참석 및 논의 내실화
 - 논의 및 협력 활성화 : 상시적이고 친근한 소식 나눔, 전문가 네트워크, 엠티(논의하여 시기 결정)
 - 담당자: 오매, 란, 백목련
 - 기대효과: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의 자율성, 활동성을 높이고 사업전반에 대한 다양한 방향 제시 및 논의 활성화

3-3. 기관협력 인턴십,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배경/필요성 :
 - 기관협력 인턴십,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은 반성폭력운동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활동가를 만나는 기회
 -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담소 활동의 실무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활동의 고민을 환류
 - 인턴 및 자원활동 기록, 평가, OT 시스템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속성을 도모.
- 목표 : 인턴십,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며 계획가능한 인턴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 방법 및 계획
 - 학기 중 : 서울대학교(하반기)/고려대학교(상/하반기) 인권센터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 방학 중 : 씨티은행-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겨울)
 -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자 모집
 - 기타 개별 실습 및 연구, 정책 자원활동 신청자 면담 및 활동 배치
 - 사전에 주요 업무/활동 및 일상지원활동에 대해 분명한 안내 포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 활동 종료 시 활동나눔 진행 및 후기 공유
- 담당자 : 란, 백목련
- 기대효과 :
 - 상담소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풀 확대
 - 새로운 시각과 활력으로 상담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실행 문화 활성화
 - 이후 반성폭력운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연대

3-4. 정책, 운영,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 목표 : 상담소 운동방향, 사업내용에 대한 긴밀한 자문과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법 및 계획 :
 - 자문위원회 체계 및 변동에 따른 새로운 인적 구성 마련 (회계, 비영리조직운영, 모금홍보분야 등)
 - 새로운 인적 구성에 따른 자문회의 연내 진행, 2022년도 자문위원 신규 위촉
 - 자문위원 활동 여부에 따른 체계 정비
 - 30주년 사업계획에 따른 상시적 자문회의 진행
- 담당자: 오매, 란, 백목련
- 기대효과:
 - 30주년 사업에 상시적인 의견 제시 및 자문 활성화
 - 새로운 영역의 노하우를 가진 위원단 구성에 따른 실질적인 자문 가능

3-5. 전체 논의 및 팀별 회의 지원

- 목표 : 2021년 활동방향과 핵심목표에 따른 팀별 사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지원
- 방법 및 계획 :
 - 2021년 팀별 활동방향 및 핵심목표에 따른 사업 수립 및 실행 지원
 - 팀별 회의 참석 및 팀간 협력체계 마련
 - 전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조정 및 애로사항 해소
 -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금 마련 사업 수립 및 실행 논의
 - 팀별 인원충원 및 변동에 따른 안정화
 - 신규활동가 채용 및 교육 연수

- 평가 계획회의 : 1월 계획회의, 7월, 8월 평가회의 및 하반기 계획회의, 12월 평가회의, 계획회의 진행
- 기대효과: 전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조정 및 상시적인 논의/공유/소통 체계 운영

3-6. 활동하기 좋은 조직 만들기

- 목표 : 활동하기 좋은 조직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산해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 방법 및 계획 :
 - 처무규정 개정 : 육아기 단축근무시간제 도입, 기본급 계산 방법 개선 포함
 - 재정내규 개정 논의 : 급여 인상안 포함 이사회 검토 및 의결
 - 상근활동가 소진예방비(상담비 지원 등) 기준 및 예산 논의
 - 업무환경 개선 : 조명 등 시설환경 개선, 탕비실 기기 교체,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노트북 추가 렌탈, 불필요 비품 폐기처리 등
 - 상근활동가 워크숍 :
 - : 워크숍 준비위원회 구성, 전체 프로그램 및 역할 분담 등 구상
 - : 워크숍 2박 3일 진행(하반기 진행 예정)
 - 공통업무 : 공통업무의 적절한 배분 및 운영
 - 사무실 대청소 : 매월 첫째 주중 영역별로 일과 시간 중에 시행(본인 책상, 구석 쓸기 닦기, 창틀, 1층 곳곳, 냉장고 정리 등)
 - 휴가 운용 : 1, 2차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휴가 사용 독려 / 월차, 연차, 대체 사용확인 및 독려 / 야간 휴일 근무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 성실히행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수행(재택근무, 소독 등)
 - 월별 나눔업무 이월 확인 : 9시 출근 / 쓰레기배출 담당 / 월말 이월 수행, 확인
- 기대효과: 활동하기 좋은 조직 환경을 만들어 오랫동안 신명나게 활동하기

3-7. 사무국 문서 기록 및 행정 총괄

- 목표: 상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관리한다
- 방법 및 계획 :

건물 관리 및 안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및 시설 운영 : 관리 및 지속가능한 건물 돌봄 - 안전점검 및 구청 보고 - 안전매뉴얼 및 장치 점검 (소화기, 대피로 등)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록 문서 관리 : 수발신문서철, 각종 계약서철 관리, 인사기록철, 인턴/자원활동기록철,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등 증명서 양식과 연동하여 관리 등 - 상담소 발간물 관리 등 - 2021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확인 및 적용 - 지자체 각종 서류 제출, 지도·점검 대응 등 행정업무 사항 총괄 - 법정 의무교육 진행 및 관리 - 행정 업무 전달연수 진행(공문 및 지출결의서 작성법 등)
각종 요청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메일 관리 및 강의, 자료 요청 응대
법인 행정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변경에 따른 등기 및 주무관청 보고 - 기부금 투명적 관리 : 주무관청 보고, 공시

- 담당자: 오매, 란, 백목련
- 기대효과:
- 상담소 문서 관리를 정비하고 전체 행정 실무를 총괄함으로써 상담소 업무를 원활하게 함

3-8. 회계 및 공익법인 공시

- 목표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운용과 공익법인 공시, 기부금 내역 공개로 회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 계획
- 일상 회계 업무 총괄 및 세무사무소 기장 대행을 위한 업무 협조, 회계감사 지적 사항 반영
- 공익법인공시(4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기부금 내역 공개 포함)
- 기부금 내역 공개 : 상담소 홈페이지 1회(3월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지자체 1회(3월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국세청 2회(3월, 4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담당자: 백목련

※ 2021년 회계 관련 변경사항

1. 여비 중 교통비 증빙양식 도입(출장기록부 등), 교통비 후불 지급
2. 사업비에서 회의비 지출 시 회의록 첨부, 팀별 회의비 연간 10만원 배정
3. 교육문화비 청구 방식 변경 : 현행은 개인 명의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로 지출, 상담소 카드지출 혹은 사업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처리

- 기대효과:
- 상담소 회계업무의 효율을 높임
- 기부금 내역 공개로 상담소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부 참여를 유도

3-9. 활동가 교육

- 목표 : 법정 의무교육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및 내부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 진행
- 방법 및 계획 :

분류	교육명	의무 시수 및 시간
법정 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2회
	직장내장애훈련개선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	연1회
관련종사자 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 담당자 : 란
- 기대효과:
- 내부 활동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역량 강화
- 필수 교육을 활동가교육을 통해 이수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임

목표4. 성평등 인권운동의 성찰성과 영향력 함께 넓히기

4-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

- 배경/필요성

- 공동연대활동을 통해 한국사회 2020년 필요한 성평등 과제, 전략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활동 전개
-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들의 활동 목표 및 운영 과제를 함께 점검하여, 위기를 줄이고 기회에 적극적으로 응대 필요

- 목표 : 여성운동/인권운동/성폭력상담소 운동에서 성평등한 방향과 활동을 위한 논의, 연대 높이기

- 진행계획 :

- 총회
- 서울인천권역회의(연4회)
- 전성협 운영위원회
- 정책대응팀회의 및 이슈대응 : 필요시
- 성폭력 피해자의 일방적 후원, 기부에 의한 감경 중단 대응
-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추천

2021년 진행 주요 의제

- 운영지침 개선 사항 관련 (시설장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선)
-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 의료비 지원 상제 영수증 요구 건 추후 모니터링 (지자체별 차이, 서울시에 건의)
- 디지털 성폭력 지원체계 (무료법률구조 기금 한도 및 방식 등)
- 서울시 상담소장의 자격요건의 건 (처우개선 수당 지급 조건, 사회복지사 및 7년 이상 상황)

4-2.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 및 성찰 논의 참여

- 배경/필요성

- 상담소 개소 이래 진보적 여성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 전국적 성평등 활동의 조직력을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으로서 이사회, 실무임원위원회,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 등 활동을 지속해 옴
-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정치세력화 전략 등에서 급진적, 독립적, 비판적 여성운동의 정체성이 침해되는 등의 일에 대해서 상담소 내부의 비판 논의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 옴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지원과정에서 있었던 여성연합, 여당 여성국회의원을 통한 유출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통한 성찰 및 혁신 논의를 이끌어야 하며, 피해자 지원단체로서 이 과정에 책임을 다할 필요 있음
- 여성단체연합 운동의 의미와 한계, 문제 자체를 논의하고 이후 지속 여부 논의 필요

- 목표 :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 총회를 통한 문제점에 대한 안건 상정 논의
- 이후 성찰 혁신 조사 기록 등 위원회 설립과 이행 과정에서의 역할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의 여성연합 회원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 비전 논의

- 진행계획 :

- 총회
- 이사회(연 4회)
- 실무 임원회의
-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혁신위원회 진행에서의 의견 개진
- 여성인권 분야 정책 활동 연대 : 올해 진행 방식 논의 (자치경찰제, 낙태죄 비범죄화 활동, 여성의 날

등)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여성연합 참여 및 연대 과정 정리 및 평가, 향후 비전 논의

4-3. 여성인권분야 ‘운동단체의 현재와 미래 모색’ 내부 간담회

•배경/필요성

- 신생 혹은 제도화에 진입하지 않았던 단체들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논의에서의 ‘제도화’ 논의의 진행과 이에 대한 자문, 컨설팅등 요청이 있음
- 제도화에 대해서 진행했던 단체들도 법정책 제도화와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위상과 운동성의 지속과 확장 사이에서 현재 지형에서의 쟁점, 논의 형성

•목표 :

- 제도화와 운동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단체들과 실질적 논의 진행, 상호 도움
- 새로운 연대 모임과 필요에 따른 자율적, 자발적 교류의 활성화

•계획

- 간담회 기획, 진행

시기	주제	대상
7월	제도화와 운동성 사이, 단체 운영 방향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회의 각 팀별 자문위원들
5월	제도화와 운동성 사이, 단체 운영 방향	(예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반성매매인권운동이룸,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등
3월	정치세력화와 정치적 영향력 높이기 위한 여성주의적 방안	(예시) 한국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

•담당자: 오매

•기대효과:

- 제도화와 운동성 사이의 고민을 나누고 상호협력 토대 마련
- 새로운 네트워킹을 통해 더 너른 연대를 실천

4-4. 반성폭력 성평등 국제연대 협력 활동

•배경/필요성 :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들의 국제교류협력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진행이 보류 되어 왔음
- 그러나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실시간으로 주제에 대한 세미나 진행 등 새로운 국제교류와 연대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소의 참여와 호응도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음
- 아시아위민브리징 두런두런의 컨소시움 요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의 인큐베이팅 등 상담소의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운동에 대한 기여, 연대 요청이 존재함

•목표 :

-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국제적 연대, 교류, 협력 필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함께 함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사업계획에 따른 국제적 교류, 협력 필요를 살피고 기획, 실행 혹은 모색을 함

• 계획

- 한국성폭력상담소 국제교류 협력의 팬데믹 시대에 맞는 버전의 참여 활동 모색 및 제안
(개인 활동가에 대한 예산 집행은 미뤄두고, 주제별 시기별 맞는 활동가 및 자문위원 등 연계)

- 해외 단체 방문에서 활동가 참여하여 상담소 소개 및 교류, 토론, 후기 작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홈페이지에 영문 소식 업데이트(영어 사용 자원활동가)
- 국제 협약 기반 한국 정부 보고서 shadow 리포트 작성 :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 한국 ODA에서의 반성폭력 및 젠더 의제 분야 참여 : DAK 회원단체 활동,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등 활동
- 국제연대를 종류별 분화하여 활동가들이 자기 전망과 연결하여 전문적 활동을 쌓아갈 수 있도록 배분
- 기대효과 : 법제도 개선의 사례, 시행착오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의 동력, 문화, 아이디어를 나눔으로써 길게 활동할 수 있는 시야를 활동가들이 확보

4-5. 성평등 정책 실행 네트워크 참여

- 배경/필요성 :
 -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자문위원 형태로 우리 상담소에서도 참여하여 성평등 및 젠더폭력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활동을 해왔음
 - 그 외 비영리 혹은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 정책 생산 및 실행을 위한 참여를 제안받고 있음
 - 보궐선거 및 향후 대선 등 정치적 국면에서 여성운동의 목소리와 방향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목표 :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적, 성평등적인 정책 마련 및 실행을 견인
 - 예산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에 배분하고 적용
 - 정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위기에 대한 포착 및 이를 여성운동 내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대응
- 계획 :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2020.5~2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군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공군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로 최초 시작됨 - 코로나로 인해 위촉식이 늦어져서 5/20 1회 회의가 개최 : 위원장 호선이 있었으며 기존 정책 브리핑 및 질의응답, 토론 순서가 진행되지 못함 - 양성평등포스터 홍보물 공모에 대한 심사 의견 요청 : 성폭력에 대한 피해 자다움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의 배제 권고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 (2019.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탁 2기 활동의 안정화 및 확산 지원 - 사업규모 및 예산 효율성에 대한 시의회 질의 반복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모델 유효성과 확산가능성 연구 용역에서 그룹 인터뷰 참여 - 새로운 페미니스트 그룹과 기존 단체 활동 지원, 기획과 예산의 배분에서의 의견 개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2019.9~20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의 행정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 - 성평등 의제를 분과위원회(현재 재정·시설분과, 재판제도분과, 사법정책분과, 기타분과위)로 제안하여 성평등 정책마련 및 실행을 견인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및 향후 이사 활동
대검찰청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2019.3~20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내부 양성평등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 심의위원 위촉. (위촉기간 2년) - 사안에 따라 소집, 심의 활동 지속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시 심의.

<p>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2021.2~202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2 위촉기간 2년 활동 후, 2년 간 재위촉 - 사안에 따라 소집, 심의 활동 지속
----------------------------------------------------------------	-------------------------------------------------------------------------------------------------------------------

임원 소개 및 변동 임원 보고 / 임원 후보

현재	이사	이명숙, 박부진, 배순희, 이경환, 이미경, 장다혜, 최보원, 홍순기 (8명)
	감사	사업감사 _ 공석 회계감사 _ 배자하 (세무사, 배자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사임 및 퇴임	이사	이윤상	전 KBS성평등센터 센터장 현 권인숙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2020. 12. 31 사임
	상담소 소장	이미경	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15. 1. 취임, 2018. 1. 중임, 임기만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린터 원장	정정희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린터 원장 2018. 3 취임, 임기만료

중임	이사장	이명숙	현 이사장,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이사	배순희	현 이사, 미즈앤미 산부인과 의사
	이사	최보원	현 이사, 최보원 산부인과 의사
	이사	이미경	현 이사, 반성폭력 운동가, 여성학 박사
	이사	홍순기	현 이사, 청담마리 산부인과 의사
	이사	박부진	현 이사, 명우임상심리연구소, 심리상담가

신임	이사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업감사	허오영숙	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상담소 소장	김혜정	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상담소 부소장	최란	현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린터 원장	조은희	현 여성주의 상담팀장

2021년 자문위원단 명단

분류	이름	소속
운영	김지영	공인회계사
	김지혜	전 활동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백미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상임대표, 전 소장
	이명선	아시아위민브릿지두려두런 대표, 상담소 발기인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전 상근활동가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소장, 전 상근활동가
법·정책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정	전 동부지검 부장검사
	신윤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지원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유석	전 상담소 활동가
	정현	검사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여성가족부)
	황은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강유가람	영화감독
성문·화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백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로리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박현이	서울시위드유센터 센터장
	배은경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백영경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부소장
	아오리	영화감독
	양수안나	위믹업스포츠

분류	이름	소속
상담	양현경 (이산)	마임배우
	김미랑	탁틴내일연구소소장
	김은아	상담심리센터 위인 대표, 타로 마스터, 전 상담원
	이서원	한국노동관리연구소장
	조용범	더트리그룹/DBT센터한국본부 대표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부설 성폭력상담연구소장
	최지나 (토리)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교육전문연구원, 전 상근활동가
의료	소은희	소은희마인드피아 의원
	최보문	카톨릭대의대정신과학,의료인류 학 교수
법률	권정	법무법인 대영
	김두나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백현	법무법인 드림
	신수경	법무법인 울다함
	이은심 (보경)	변호사
	원민경	법무법인 원
	이정선	법무법인 재울
	장윤정	법무법인 세원
	천정환	법무법인 현정 종합법률사무소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국제 협력	류호윤	동시통역사
	아일린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성예랑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정경자	호주UTS대교수(사회정책&옹호)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로상, 감사패, 용감한반성폭력운동상

감사패 : 이미경 소장

이미경님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했습니다. 반성폭력운동이 가슴 뛰는 운동임을, NGO가 태산같은 자부심으로 만들어가는 경직한 터전임을, 피해생존자가 힘과 지혜를 내뿜는 존재임을, 동료들과 싱그러운 민주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함을, 현장과 연구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어짐을, 아시아 및 세계 속에서 호응해야 함을 우리의 토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패: 정정희 열림터 원장

정정희님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의 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열림터 생활인의 일상생활을 살피고 연대를 통해 지원의 풀을 넓혔으며 후배활동가들이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상담소와 열림터에 전력을 다해준 순수한 애정이 여성운동의 발전에 크고 한결같은 힘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패 : 김미순 전 사업감사

김미순님은 부설연구소 올림의 공동연구원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상담소 사업감사로 활동하며 상담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는 깊은 통찰력과 운동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이끌어 주셨고, 사업감사로서는 모든 부설기관 및 팀 사업에 대한 무한한 지지와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신 덕분에 본 상담소의 반성폭력운동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 은유 님

은유님은 열림터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인들이 자신의 감정, 경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림터 생활인들의 목소리를 문집으로 발간하는 데에도 노력했습니다. 글과 시를 읽으며 생활인들의 경험의 폭을 확장하는 과정에 열성적으로 함께해주신 은유님께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담아 공로상을 드립니다.

공로상 : 원민경 님

원민경 님은 오랜 기간 상담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피해자법률지원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2020년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공감하고 법적 지원 체계를 총괄하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변호사 연계와 소통에 힘써주었습니다. 성착취가 존재하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함께해주신 원민경 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공로상을 드립니다.

용감한반성폭력운동상 : 김잔디 님

성실하고 지혜로운 서울시 공무원으로 살아온 김잔디님은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서 고통과 차별, 폭력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무능한 사회 구조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지 않고 진실규명과 책임추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잔디 님이 활동가와 변호인단에 나누는 사려 깊은 마음과 현명한 의견, 빛나는 나눔은 우리의 든든한 힘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당신의 당찬 걸음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안젤라 어워드

※ 안젤라어워드는 한 해동안 상담소와 연결되어 활약한 분들께 <한해보내기>에서 드리는 상입니다.
2020년 안젤라어워드는 2020년 12월 4일 수여되었습니다.

상담소활동역사관 상 : 김가림

가림님은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상담소가 참여한 다양한 연대체와 공동대책위원회 아카이브 작업을 맡아 주셨습니다. 강간죄 개정과 이운택 성폭력사건 등을 체계화하고 모아주신 덕분에 상담소도 그간의 활동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반성폭력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가림님이 정리해 주신 기록으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림님의 열정에 깊이 감사하며, 반성폭력 운동의 동료로서 애정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비대면세미나마스터 상 : 회원소모임-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전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으로 만남이 많이 줄어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꾸준히 만나 열심히 페미니즘 신간을 읽고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열렬한 페미니즘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구성원 분들의 식지않는 에너지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도 상담소와 깊은 인연을 이어가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부록]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②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로 하고 약칭은 KSVRC로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상담·지원 활동
- ②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③ 연구소 운영
- ④ 인권 활동
- ⑤ 교육 활동
- ⑥ 홍보출판 활동
- ⑦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와 연대 활동
- ⑧ 부동산 임대
- ⑨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1)본 상담소의 발기인, 이사, 상근활동가, 자문위원, 전·현직 자원활동가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2)후원회원으로 1년이상 의무를 다했고, 원하는 경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회원 가입신청한 자로 한다.

3. 평생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여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

③후원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약정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모든 회원은 본 상담소 자료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탈퇴,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이사장 1인

②상임이사 1인

③소장 1인, 부소장 2인 이하

④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⑤감사 2인

⑥부설기관의 장

제10조 (임원의 자격) 본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혹은 성폭력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본 법인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소장, 부소장, 이사, 부설기관의 장 및 감사는 이사회 혹은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선임의 제한) 법인은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 (감사선임의 제한) 법인은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2조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등) ①법인의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부소장 및 부설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이사장 : 법인을 대표한다.
- ②상임이사 :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소장 : 상담소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 ④부소장 : 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⑥부설기관의 장 : 부설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감사
- ②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③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 ④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 ⑤법인의 재정,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서의 의견 진술

제17조 (겸직 금지)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소장 및 상근활동가를 겸할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종류와 소집기일, 방법 등) 총회에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가 있다.

- ①정기총회는 연1회, 1월 중에 개최한다.
- ②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장, 소장, 감사 또는 이사 중 3분의 2이상이 발의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개최한다.
- ③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사업계획의 승인
- ③예산, 결산의 승인
- ④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정관개정
- ⑥법인의 해산
- ⑦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①회원의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소장은 직무상 이사를 겸직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4 회 개최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사업계획 수립
- ②예산, 결산서의 작성
- ③상근활동가의 선임
- ④재산관리
- ⑤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총회에 부의(附議)할 안건의 작성
- ⑦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정관의 변경사항의 작성
- ⑨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제6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정) ①법인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법인설립 이후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016. 1. 28. 개정>

제3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 세출예산)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 (결산) ①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담당자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의2 (후원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상근활동가

제33조 (상근활동가)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둔다.

②상근활동가의 임면 및 징계는 운영규정의 처무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상근활동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 (정관변경)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

제35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설기관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36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삭제 2008. 1. 24>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1993.3.27 제정	1993.10.5 1차 개정	1996.2.10 2차 개정	1998.11.12 3차 개정
1999.5.28 4차 개정	2000.2.12 5차 개정	2002.2.7 6차 개정	2003.2.6 7차 개정
2006.1.20 8차 개정	2007.1.25 9차 개정	2008.1.24 10차 개정	2008.4.8 11차 개정
2009.1.31 12차 개정	2013.1.30 13차 개정	2014.1.24 14차 개정	2014.8.5 15차 개정
2015.7.21 16차 개정	2016.1.28 17차 개정		

2021년 제30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자 료 집

발행일 _ 2021년 1월 28일
발행처 _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발행인 _ 이미경
편집책임 _ 최란
실무도움 _ 성유정, 정민정
만든이 _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들
인쇄 _ 카피플러스 마포점